책을 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의 정서교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다방면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나라 혁명소설과 함께 다른 나라의 고전작품들을 잘 배합하여 출판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과 청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문학작품들과 함께 수많은 외국문학작품들을 출판하여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편집부는 외국문학작품들에 대한 리해를 깊이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계문학작품해설집》(전10권)을 내보낸다.

《세계문학작품해설집》 1, 2, 3권에서는 이전 쏘련의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비롯한 로씨야의 문학작품들을, 4, 5권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문학작품들을, 6, 7, 8, 9권에서는 유럽의 문학작품들을, 10권에서는 아메리카의 문학작품들을 해설하였다.

해설집에서는 매 작품의 주요내용과 주인공들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적의의와 함께 제한성을 밝혀주었다. 또한 해설집에는 작가소개와 작가일화, 유모아, 상식, 작품의 발취문들을 편집하여 세계문학에 대한 리해와 상식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편 집 부

차 례

이고리공원정담

로씨야의 첫 서사작품인 《이고리공원정담》은 중세서사시로서 12세기말에 창작되였다. 작가의 이름은 밝혀져있지 않다. 작품은 18세기말에 발견된 사본에 기초하여 1800년에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인쇄, 출판되였다.

서사시는 12세기 봉건로씨야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노브고로드북부공국의 이고리공과 그의 친병들이 외적인 뽈로베쯔족에게 빼앗긴 남방의 로씨야땅을 되찾기 위해 벌린 원정과 그 실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서사시의 주요인물로 이고리 스뱌또슬라비츠와 그의 아들 울라지미르, 동생 브쎄볼로드, 끼예브대공 스뱌또슬라브, 이고리의 안해 야로슬라브나 등이 등장한다.

○상식○

친 병

군사민주주의시기 씨족의 상층들이 조직한 사병.

원시사회말기에 씨족귀족들의 수중에는 권력과 재부가 집중되게 되였다. 씨족귀족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공동체성원들의 반항을 진압하고 다른 씨족을 정복할 목적으로 비밀결사(부유한 성년남자들로 조직)를 조직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탄압과 전쟁을 일삼았다.

서사시는 애국적인물로 형상된 이고리, 브쎄볼로드, 스뱌또슬라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펴나가고있다.

서사시의 앞머리에서 시인은 이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력사적 사실대로 할것인가, 아니면 예술적으로 다듬어서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다음 사실대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이고리의 원정전말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한것이 아니라 몇몇 극적계기를 선택하여 예술화하여 보여주고있다.

노브고로드북부공국의 이고리 스뱌또슬라비츠공은 침략자 뽈로베쯔족을 반대하는 남방에로의 원정에 오른다. 이고리는 자기 나라에 기여든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과 애국적감정이 강한 용감한 장수이다. 그는 봉건통치배들이 국방에 무관심하고 서로 물고뜯고있는 때에 자기들의 힘만으로라도 외적과 싸울 결심으로 원정에 오른것이다.

그는 출발에 앞서 《적에게 포로되느니보다 죽은 몸이 되는것이 더 낫다, 형제들, 자기들의 준마에 올라타 푸른 돈강을 바라다보자.》고 호소한다.

이고리부대는 도중에 동생 브쎄볼로드의 부대와 합류한다.

씨족귀족들은 또한 씨족사회의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기의 개인적인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들에게 충실한 친병을 조직하였다. 친병은 씨족귀족들이 저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무력으로 리용하였으며 씨족성원대중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때로부터 사실상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권력기관인 국가가 맹아적형태로 발생하게 되였다.

이 친병들은 초기봉건사회에서 계속 유지되여 봉건귀족, 령주들의 무력으로 리용되였다.

자연은 계속 나쁜 징조를 보이지만 이고리가 이끄는 루씨(로씨야)군대는 적들이 있는 돈강쪽을 향하여 말을 달린다.

이튿날인 금요일 아침에 이고리부대는 뽈로베쯔군대와 첫 싸움을 벌린다.

첫 전투는 루씨군대의 큰 승리로 끝나 적들의 기발과 많은 포로들, 값비싼 천들을 로획한다.

루씨군대가 승리에 도취하여 주연을 베풀고있을 때 뽈로베쯔족의 대군이 다시 밀려와 사면으로부터 이고리부대를 에워싼다.

다음날부터 가렬한 싸움이 련 사흘동안이나 계속된다.

이고리와 그의 아들, 브쎄볼로드와 루씨군사들은 용맹하게 잘 싸운다. 땅은 적군의 시체로 뒤덮인다.

그러나 적군의 수가 많은지라 싸움은 간고해진다. 사흘째 되는 날 브쎄볼로드가 숨이 지는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전사하고 이고리는 적들에게 포로된다.

자연도 루씨군대의 패배를 슬퍼하고 울분이 온 루씨땅을 덮고 안

○인물소개○

이완 뢰제

이완 와씰리예비츠 그로즈늬(이완4세, 1530－1584)는 모스크바공국의 대공(1533년부터)이며 로씨야 최초의 황제(1547－1584)이다.

3살때 왕이 되여 어머니 옐레나가 섭정하였다. 1547년에 직접 정권을 잡은 그는 자신을 《짜리》(황제)라고 칭하였다.

그는 독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를 지지하는 대봉건귀족들로 국왕회의(로씨야에서 신분대의제기관의 싹)를 조직하였다.

그는 동방에로의 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1552년에는 까잔지방을, 1556년에는 아스뜨라한지방을 정복하였으며 계속하여 발뜨

해들의 곡성이 울려퍼진다.

여기서 시인은 루씨군대의 패전을 비통해하면서 이번처럼 원정나간 루씨군사들이 모조리 적의 땅에 눕게 된것은 전적으로 봉건령주들, 제후들이 내란만을 일삼고 외적을 방비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울분을 토로한다.

다음장면은 끼예브공국으로 옮겨진다.

끼예브의 대공 스뱌또슬라브는 간밤에 꾼 불길한 꿈을 해몽하여 이고리부대의 패배에 대하여 알게 된다.

그는 이고리의 패배를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루씨강토를 위하여, 이고리의 상처를 씻기 위하여 떨쳐나설것을 모든 공들에게 호소한다.

작가는 그의 말을 통하여 외적을 성과적으로 쳐물리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적할거와 분쟁을 그치고 로씨야의 힘을 총동원할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다음장면은 이고리의 고향인 뿌찌블리성벽우에서 해돋이를 맞이

해에로의 출구를 얻기 위하여 리보니아와 전쟁을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의 통치시기에 씨비리개척도 진척되였다.

그는 또한 국내상공업과 문화, 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이췰란드로부터 학자, 미술가, 수공업자들을 초빙하였다.

그는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국왕회의에서 자기를 반대하는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죽였으며 1570년에는 반역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노브고로드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였다.

또한 자기의 맏아들과 론쟁중 그를 사살하였다. 이로부터 그에게는 성격이 우뢰처럼 못됐다는 뜻에서 《뢰제》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 이고리의 안해가 자연을 향해 곡을 하면서 자기 남편을 구원해 줄것을 비는것으로 바뀐다.

야로슬라브나의 호소에 대답하듯 자연은 이고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며 이고리는 적의 진중에서 빠져나와 준마를 타고 달려 루씨땅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한다.

서사시는 이고리일행과 친병들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고있다.

서사시는 이들과는 달리 권력다툼과 세력확장을 위한 싸움에 미쳐 류혈과 배신을 일삼는 봉건령주들을 규탄하고있다. 이 사상은 구체적인 인물형상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고 작가의 주정토로를 통하여 강하게 반영되여있다.

서사시 《이고리공원정담》의 진보성은 바로 당시의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국방에 무관심하며 권력다툼과 내란만을 일삼던 리기주의적인 봉건통치배들을 비난하고 힘을 합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루씨강토를 수호할데 대한 반침략, 애국사상을 담은데 있다.

총적으로 작품은 봉건적내란의 파국적후과를 규탄하며 외적으로부터 루씨땅을 수호하기 위하여 나라를 통일하고 힘을 합칠것을 호소하고있다.

이 서사시가 창작된지 30～40년후인 13세기 20년대에 몽골의 침략을 받아 로씨야인민들이 약 250년동안이나 침략자들의 기반밑에 신음한 력사적사실을 놓고볼 때 그것을 예상하여 로씨야의 공들을 단합에로 호소한 이 작품의 주제사상이 얼마나 시기적절한것이였으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것이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서사시는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도 가지고있다.

그 하나는 서사시에 봉건국가를 지키며 《유일공권》 즉 하나의 강한 왕을 내세워 나라를 통일하려는 봉건왕도사상이 깔려있는것이다.

서사시는 또한 강한 종교적색채로 윤색되고있다.

작품에서 루씨군대와 뽈로베쯔군대의 싸움은 침략자와 반침략자사이의 투쟁이라는 측면보다도 그리스도교와 이교도사이의 투쟁으

로 묘사되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옳고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종교적해석이 가해지고있다.

야로슬라브나가 곡을 하며 빌었더니 자연과 신이 이고리를 도와 포로되였던 이고리가 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루씨로 돌아오는것으로 되여있는것도 다 그러한 표현이다.

서사시에는 또한 사건발전자체가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인 계기에 의하여 처리되고있는것이 많다.

이고리의 출발에 앞서 일식이 일어나 그들의 암담한 전도를 예견케 하는것이라든가, 스뱌또슬라브가 꿈의 계시로 이고리의 패배를 안다든가, 포로당한 이고리가 신과 자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적진에서 빠져나오는것 등이 다 그 표현이다.

이러한 제한성이 있으나 서사시 《이고리공원정담》은 당시의 로씨야민족발전력사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력사적, 인식적의의를 가지고있으며 반침략애국적인 주제를 다룬 중세서사시로서 그후 로씨야문학발전에 귀중한 경험을 넘겨주었다.

○상식○

6~17세기의 로씨야

로씨야땅에는 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고있었다.

6세기에는 로씨야족들의 조상인 동슬라브인들이 서부의 드네스뜨르강과 드네쁘르강류역, 동부의 볼가강류역, 남부의 흑해연안지방, 북부의 노브고로드와 라도가호지방을 포괄하는 지역에서 살았다.

그후 동슬라브인들을 루씨인들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나라를 루씨국가라고 하였다.

여기로부터 로씨야라는 이름이 유래되였다고 한다.

7~8세기에 동슬라브인들의 거주지역에서는 끼예브, 체르니고브, 스몰렌스크, 노브고로드와 같은 큰 도시들이 수공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형성되고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공국들이 생겨났다.

9세기말~10세기초에 끼예브를 중심으로 한 통일국가인 끼예브국가(고대루씨국가)가 형성되였다. 그러나 봉건령주들의 집안싸움으로 12세기 중엽에 10여개의 대소공국들로 분렬되였다. 세력권확장을 위한 내란이 그칠새없는 속에 로씨야는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였다.

13세기에 들어와서 몽골인(따따르)들의 침략을 받았다. 몽골의 침략을 직접 당하지 않은 동부로씨야지방은 14세기에 모스크바공국을 중심으로 통일국가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1380년 9월 꿀리꼬브평야대전투에서 따따르들이 패배하여 몽골침략세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5세기말에 로씨야에 대한 몽골의 지배는 사실상 끝장나게 되였다.

이완3세통치시기(1462－1505) 모스크바대공국은 노브고로드공국과 뜨베리공국을 병합하고 랴잔공국을 예속시켰으며 비루씨인들의 지역도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모스크바공국을 중심으로 동부로씨야에는 통일적인 중앙집권적다민족국가가 형성되였다.

1712년에 수도를 모스크바로부터 뻬쩨르부르그로 옮기였으며 1721년에 로씨야는 제국으로 선포되였다.

○상식○

미성년

《미성년》은 로씨야작가 제니스 이와노비츠 폰비진(1745-1792)이 1782년에 창작한 희극(5막)이다.

한 농노주-지주가정의 부패성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로씨야전제농노제도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풍자한 작품이다.

사건은 농촌마을에서 벌어진다. 이 마을과 마을농노들의 《주인》인 지주네 집에 쏘피야라는 부모없고 재산없는 처녀가 몸을 의탁하고있다.

이 가정의 실권을 쥐고있는 녀지주 쁘로스따꼬바는 쏘피야를 늘 구박하여오다가 그를 자기 남동생 스꼬찌닌과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한다. 이런 때 쏘피야의 아저씨 스따로둠이 나타나 그를 자기의 재산상속자로 선포함으로써 쏘피야는 일약 갑부가 된다.

그러자 물욕이 강한 쁘로스따꼬바는 태도를 돌변하여 쏘피야를 모자라는 자기 아들 미뜨로판과 결혼시키려고 꾀한다. 하여 쏘피야를 쟁취하기 위한 누이와 남동생, 외삼촌과 조카사이에 개싸움이 벌어진다. 쁘로스따꼬바는 사람들을 시켜 폭력으로 쏘피야를 마차에 태워 유괴하려고 하다가 용감한 장교 미롱의 방해로 실패한다.

사건은 결국 이 지주가정의 더러운 분쟁을 안 짜리의 관리 쁘라브진이 정부의 명의로 이 가정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징벌하는것으로 끝난다.

작품은 웃음을 통한 풍자와 조소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녀지주 쁘로스따꼬바, 그의 외아들인 미뜨로판, 농민보다 돼지를 더 사랑하는 스꼬찌닌 등의 형상을 통하여 로씨야의 봉건지주-농노주들의 무지몽매성과 포악성을 비판하였다.

○상식○

가련한 리자

《가련한 리자》는 로씨야작가 니꼴라이 미하일로비츠 까람진(1766－1826)이 1792년에 창작한 중편소설이다. 신분이 천한 농민처녀가 귀족청년과 사랑을 맺었다가 버림받고 자살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신분적불평등을 비판한 감상주의작품이다.

매일 도시의 거리에 나가 꽃을 팔던 농민처녀 리자는 어느날 꽃을 사준 귀족청년 에라스뜨와 알게 되고 그와 사귀는 과정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한다. 돈이 필요하게 된 에라스뜨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리자와 헤여지고는 돈많은 과부와 결혼한다. 리자는 에라스뜨를 믿고 변함없이 기다리다가 하루는 거리를 지나가는 화려한 마차안에 어떤 녀자와 함께 있는 에라스뜨를 알아본다. 마차뒤를 따라간 리자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비탄끝에 호수에 빠져죽는다. 작가는 소설의 결말에서 에라스뜨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리자의 묘에 화환을 가져가 참회하는 장면을 그린 다음 저승에서 그들은 화해했을것이라고 쓰고있다.

작품에서 작가는 신분적불평등을 일정하게 비판하면서 도시생활과 대비하여 농촌생활을 미화하고 농민들의 모습도 목가적으로 그리였다. 작품은 계급적타협을 설교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농촌처녀에게도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인물성격과 심리에 파고들려는 지향, 명확한 구성과 간결한 서술, 정서적이며 세련된 언어와 시어에 가까운 산문을 구사한것으로 하여 후세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크릴로브우화집

《크릴로브우화집》은 로씨야의 우화시인 크릴로브가 1809년부터 1843년까지에 창작한 전9권으로 된 우화집이다. 이 우화집에는 모두 196편의 우화시가 수록되여있다.

그가운데서 몇편을 산문이야기로 고쳐 해설하려고 한다.

개집에 든 승냥이

칠칠야밤 한 승냥이가 양우리에 기여든다는것이 그만 개우리에 뛰여든다. 개들이 왕왕 짖어대며 달려들고 주인도 떨쳐나선다. 승냥이는 한번 맞붙어 해볼가 생각하다가 생각을 달리하고 속임수를 쓴다.

《벗님네들, 이게 무슨 소동이요? 옛날부터 당신네와는 사돈간이라 나는 화해하러 왔던거요. 지난일을 다 잊어버리고 화해하기요. 난 앞으로 절대로 이고장 양들을 다치지 않을것이며 그들을 지켜 싸울테요. 승냥이의 명예를 걸고…》

승냥이의 말을 중둥무이하고 주인이 고함친다.

《이놈아, 네놈은 재빛이지만 난 벌써 백발이야. 난 너희놈들을 오래전부터 알고있다. 승냥이들과는 가죽을 벗겨버리는 〈화해〉밖에 있을수 없다는걸 안단 말이다!》

주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사냥개들이 달려들어 승냥이를 물어메치고만다.

이 우화는 침략자를 재빛승냥이로, 로씨야인민을 사냥개주인으로 의인화하면서 침략자, 승냥이들과는 어떤 화해도 있을수

없으며 끝까지 싸워 소멸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춤추는 물고기

사자왕에게 법관들, 권세가들이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전횡을 부린다는 신소가 들어온다. 사자왕은 실태를 료해하려 령지시찰을 떠난다.

한참 돌아보던 사자왕은 한 사나이가 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들을 넣은 남비를 막 불우에 올려놓고있는것을 보게 된다.

남비안에서는 물고기들이 푸들쩍거리며 몸부림치고있었다.

그것을 본 사자왕이 너는 도대체 누구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있느냐 하고 묻자 당황한 사나이는 그럴듯하게 꾸며댄다.

《소인은 여기 물고기마을의 원이옵고 저것들은 물고을백성들의 좌상들이옵니다. 사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식○

우 화

우화는 교훈적인 내용을 가진 풍유적 성격의 서사적문학의 한 형태이다.

우화는 일반적으로 의인화된 동물이나 식물과 그밖의 사물을 통하여 이러저러한 인간들의 성격과 생활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며 사회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깨우쳐준다.

우화는 서사적문학에서 가장 짧은 형식의 하나로서 등장인물이 적고 이야기줄거리가 단순하며 묘사가 간결하다.

우화는 산문으로도 쓰이고 운문으로도 쓰인다.

우리 나라의 우화작품들은 대부분 산문으로 되여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고장은 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극락세상이다, 여기서는 밤낮 한가지 생각 즉 사자왕님의 장수만을 바란다고 발라맞춘다.

그러는 사이 물고기들은 점점 뜨거워나는 남비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어쩔줄 몰라한다.

《저 물고기들은 왜 저렇게 꼬리, 대가리를 저어대느냐?》

《저것들은 사자왕님을 만나뵈온게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있사옵니다.》

사자왕은 또 그런가부다 하고 춤추는 물고기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다가 가던 길을 재촉한다.

이 우화는 사자왕(로씨야황제), 고을의 원인 사나이(귀족, 지주, 관료배들), 물고기(인민)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당시 짜리로씨야 봉건통치배들의 악정과 그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반영하고 통치배들을 풍자하였다.

여우목수

닭을 좋아하며 많이 기르는 사자가 있었다. 그런데 닭들이 달아나기도 하고 도적맞히기도 하여 점점 줄어든다. 사자는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닭우리를 든든하고 큼직하게 지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목수기능이 아주 높다는 여우목수를 청해온다. 초청되여온 여우는 참으로 훌륭한 흠잡을데 없는 닭우리를 지어놓는다. 여우에게 후한 상이 차례지고 닭들은 훌륭한 새집으로 이사한다. 그러나 그후에도 닭은 계속 없어진다. 울바자도 든든하고 샐틈이 없는데…

사자는 감시를 붙인다. 잡힌 놈은 뜻밖에도 여우였다. 여우는 자기가 나들 구멍을 따로 몰래 만들었던것이다.

이 우화는 사자와 여우목수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여우의 교활성을 폭로하고 그것을 제때에 간파하지 못한 사자의 우매성을 풍자하고있다.

까마귀와 암닭

1812년 프랑스침략군이 모스크바로 쳐들어올 때 일이다. 스몰렌스크공작(로씨야군 총사령관 꾸뚜조브)은 오만한 침략자들을 지혜로 쳐물리칠 계략을 세우고 모스크바를 적들에게 내주기로 하며 모두 성밖으로 피난가도록 명령한다. 남녀로소는 물론이고 집짐승들도 모두 떨쳐나 성밖으로 떠나들 간다.

그런데 까마귀 한마리가 그 란리판을 태연히 바라보고 앉아있다. 피난길에 오른 달구지우에 앉아있던 암닭 한마리가 걱정스럽게 말을 건넨다.

《원쑤들이 벌써 코앞에 왔다는데 떠날 차비를 다하셨는가요?》

까마귀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듯 대답한다.

《나는 여기에 남을 작정이네. 아무렴 우리 까마귀같은걸 지지고 볶고 할텐가? 운수가 트일지 알게 뭐요. 손님들과 친하게 지

○상식○

의인법

의인법은 동물이나 식물을 비롯한 자연현상들을 인격화하여 묘사하는 묘사수법이다.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솟았느냐?

(장편서사시 《백두산》중에서)

여기서 백두산은 의인법에 의하여 사람처럼 형상되여있다. 작

내면 치즈구 뼈다귀구 그러루한것들이 차례질지 아오? 잘 가기나 하우.》

성안에 남은 까마귀는 어떻게 되였는가?

스몰렌스크공작은 모스크바에 빵 한쪼각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 침략자들은 텅 빈 도시에서 굶주림에 시달린다.

배불리 얻어먹어보려던 까마귀는 침략자들, 손님들의 국거리가 되고만다.

우화는 까마귀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원쑤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성안에 남았다가 결국 놈들에게 잡혀죽고만 변절자, 배신자들,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조국과 겨레를 배반한자들을 신랄히 폭로야유하고 그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었다.

도원수로 된 코끼리

큰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마음이 어리무던한 코끼리도원수가 있

품전체가 의인법에 의하여 씌여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의 고전소설 《토끼전》, 《장끼전》, 《재판받는 쥐》, 프랑스의 《장미이야기》, 《여우이야기》, 고대그리스의 이소프우화, 프랑스의 라퐁땐우화, 로씨야의 크릴로브우화 등은 의인법에 의하여 씌여진 우화작품들이다.

의인법은 동물이나 식물, 그밖의 사물을 인격화하여 그림으로써 예술적형상을 두드러지게 살리며 정서적감화력을 더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동화, 우화, 과학환상소설 등 의인화수법에 의거한 아동문학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있다.

었다. 그는 파리에게조차 노여웁게 하지 않았다. 어느 하루 도원수에게 양들의 신소가 들어온다. 승냥이들이 양들의 가죽을 모조리 벗겨버린다는것이였다.

코끼리는 승냥이들을 다불러댄다. 그러나 승냥이는 꺼리낌없이 말한다.

《저, 겨울에 입을 털외투감으로 양들한테서 공물을 받으라고 허락하신건 바로 도원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줄도 모르고 양들이 감히 투덜거리다니, 고작해서 가죽 몇장 바치는걸 가지구. …》

승냥이의 말을 들은 어리무던하고 어리석은 코끼리는 다음과 같은 령을 내린다.

《그럼 가죽은 한장씩 받아들이되 그들의 털은 한대도 다치지 말라!》

이 우화는 코끼리도원수(황제)와 승냥이(신하인 귀족, 관료배들)는 다같은 족속들이라는것을 폭로하고 봉건통치배들의 비인간성과 략탈성을 풍자하고있다.

꿀벌과 파리

파리가 다른 나라로 떠나갈 차비를 하면서 꿀벌들한테도 같이 가자고 꼬드긴다. 파리는 나쁜짓만 하고다니니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더러운 파리가 붙을가봐 식탁에 유리뚜껑을 덮어놓는다. 게다가 거미는 늘 파리의 생명을 노리고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뜨고싶어 안달이 나 하는 파리에게 꿀벌은 대답해준다.

《나는 이 고향이 제일 좋아. 꿀을 치는 나를 사람들은 정말 사랑해줘. 넌 떠나겠으면 떠나! 그러나 어디에 가든 행복을 찾지 못할거야. 남에게 리로운 일을 하지 않는 한 그 어디 가도 존경이나 사랑을 받을수 없어. 거미들이나 반겨주겠는지.》

이 우화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리로운 일을 하며 늘 고향에서 떠

날 생각을 하지 않는 꿀벌과 같은 사람들을 칭찬하고있는 반면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리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떠나갈 생각만 하는 파리와 류사한자들을 풍자조소하고있다.

수리개와 꿀벌

꿀벌 한마리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꿀을 따는 일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공중에서 휘휘 날던 수리개 한마리가 꿀벌을 놀려대며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넌 참 불쌍도 하구나! 줄창 그렇게 일만 하고있으니. 네가 그렇게 여름내 열심히 일한들 누가 너를 칭찬해주는이가 없지? 아무런 보람도 없이 일하다가 속절없이 죽어버리니 내 처지와는 하늘땅차이로구나! 내가 바람을 가르며 날개를 쫙 펴고 훨훨 날 때는 온 천하가 공포에 떨지. 짐승들은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짐승을 지키느라 졸지도 못하지. …》

그러나 꿀벌은 그 말에 따끔히 대답해준다.

《나는 전체의 리익을 위해 일하는거지 표창을 받으려는건 아니야. 내 땀 한방울한방울이 우리 벌의 집에 달디단 꿀을 채워넣는것이니 나는 내 마음이 우러나 일하는거야!》

이 우화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는것은 표창을 바래서가 아니라 전체의 리익을 위해서라는것과 일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마음이 우러나 일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대포와 돛

한 군함에서 대포와 돛이 등을 대고 지냈다.

대포가 푸념한다.

《오, 하느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치 않은 헝겊주제에 우리와 같이 항해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단지 바람불 때 잔뜩 가슴을 불궈가지고 바다우를 물오리처럼 떠갈뿐인데 우리로 말하면 전투에서 원쑤를 무찌르지 않습니까. 정녕 돛대와 같이 있고싶지 않습니다. 어서 갈기갈기 찢어주십시오.》

어언간 태풍이 불어 마침내 돛이 다 찢어져버린다. 배는 향방없이 바다를 떠돈다.

갑자기 원쑤들이 달려들자 군함은 맥을 추지 못하고 가라앉고만다.

무릇 나라가 강력하려면 모든 부문이 다 째여야 하며 그래야 원쑤들의 침해를 막게 된다는 이 우화의 기본사상은 우화의 마감에 작가가 쓴 한마디 말에 함축되여있다.

《나라가 강하게 되려면 련관된 모든 부문이 잘 째여야 한다. 자기만이 제일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깔보면 결국 망하고마는 법이다.》

자 루

사람들의 발닦개로, 걸레로 쓰이며 버림받던 자루가 금전을 가득 담고 궤안에 귀중히 간직되는 영예를 지니게 된다.

주인이 애지중지하고 사람들은 자루안을 들여다보며 아양을 떨고 누구나 한번 슬쩍 쓸어보고싶어한다.

차츰 자루가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한다. 만사를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 결론한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삐 생각지 않고 입을 헤 벌리고 그 소리를 곧이 듣는다. 그러나 자루안의 금전이 다 없어지자 사람들은 그 자루를 인차 잊어버린다.

자루와 같은 사람이 적지 않다. 지전 한장 구경 못하다가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돼가지고는 백작이나 공작들과 어울리며 우쭐렁거리는 사람들은 령락하여 하루밤사이에 자루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가소개

이완 안드레예비츠 크릴로브

로씨야작가 이완 안드레예비츠 크릴로브(1769－1844)는 모스크바의 평민출신의 군인가정에서 태여나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외롭게 자라났다. 그는 지방과 수도에서 관청의 급사, 하급관리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외국어와 문학을 공부하였다. 그후 희곡도 쓰고 풍자잡지발간사업도 하고 방랑생활도 하다가 1812년부터 말년까지 약 30년동안 뻬쩨르부르그에 새로 개관된 공중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였다.

크릴로브는 여러편의 희곡도 썼으나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든것은 그가 편찬한 9권으로 된 우화집이였다. 여기에는 196편의 우화가 수록되여있다.

이 우화들은 운문으로 씌여졌으며 많은 경우에 동물, 식물들이 의인화되여 인간들의 성격의 특징, 행동과 성격의 호상관계를 나타내면서 의인화된 부정인물의 본질을 풍자적인 조소와 해학으로 폭로하고있다.

그것들은 모두가 교훈적이며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있으며 애국주의적인 사상을 표현한것, 지배계급의 폭압과 략탈을 폭로한것, 근면하고 소박한 근로인민을 찬양한것, 이러저러한 사회현상을 풍자한것 등 그 주제사상이 매우 다양하다.

그가운데서 《개집에 든 승냥이》, 《까마귀와 암닭》, 《장검》, 《대포와 돛》을 비롯한 일련의 우화들에는 작가의 반침략애국사상이 표현되여있다. 또한 《춤추는 물고기》, 《승냥이와 어린 양》, 《도원수로 된 코끼리》, 《촌회》, 《부농과 머슴》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은 로씨야의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의 폭압과 략탈, 짜리관료통치의 비인간성을 폭로풍자하고있다.

크릴로브의 우화들가운데는 《수리개와 꿀벌》, 《꿀벌과 파리》,

《개와 말》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을 반영하고 근면하고 겸손한 근로인민들을 찬양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이 작품들에서는 자기의 위세를 뽐내는 수리개에게 자기는 한방울의 꿀을 따는것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꿀벌(《수리개와 꿀벌》), 더 좋은 고장으로 떠나가자고 꼬이는 파리에게 제 고장이 제일 좋다고 대답하는 꿀벌(《꿀벌과 파리》), 자기를 업신여기는 개에게 자기가 하는 밭갈이를 떳떳한 일로 대답하는 말(《개와 말》) 등의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근로하는 인민들의 긍정적인 품성을 보여주고있다.

그밖에도 크릴로브의 우화들가운데는 《뻐꾹새와 수닭》, 《물방아간주인》, 《늪과 강》, 《여우목수》, 《원숭이》, 《박새》, 《꼬리긴 원숭이와 안경》, 《여우와 모르모트》 등과 같이 아첨과 린색, 우매성과 교활성, 라태와 무지 등 낡은 사회에서 이러저러하게 볼수 있는 부정적인 성격들과 현상들을 풍자조소한 작품들이 많다.

다른 한편 크릴로브의 우화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인 근로인민대중을 승냥이에게 찢기우고 먹히우고마는 순한 양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형상한것이라든가, 《이전》군주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일부 비판의 대상이 명확치 않으며 선이 뚜렷이 서있지 않는것과 같은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이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크릴로브의 우화들은 그것이 담고있는 진보적내용과 우화적형상창조에서 거둔 성과로 하여 로씨야와 유럽의 우화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예브게니 오네긴

《예브게니 오네긴》은 로씨야의 시인 뿌슈낀이 1823－1830년에 창작한 운문소설이다.

전제농노제도가 지배하고있던 19세기 20년대 짜리로씨야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이 작품에는 귀족청년 예브게니 오네긴과 따찌야나, 렌스끼, 올가 등이 나온다.

작품의 이야기줄거리는 주인공 예브게니 오네긴의 운명선을 따라 펼쳐지고있다.

예브게니 오네긴은 당시 로씨야의 수도 뻬쩨르부르그(오늘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의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귀족상류사회에서 교육과 교양을 받고 자란다. 그는 외국인가정교사밑에서 그 어떤 학문이건 되는대로 조금씩 겉만 핥았으며 사교계에 나서서는 총명하고 귀여운 청년으로 인정받고 수도귀족들의 방탕한 생활에 몸을 잠근다. 그는 몇해씩이나 밤낮없이 무도회요, 만찬회요, 야회요 하는 사교계만 찾아다니면서 향락을 추구하는 과정에 귀족상류사회의 단맛, 쓴맛을 맛볼대로 다 맛본다. 그러는 사이에 점차 수도귀족들의 썩어빠진 생활에 권태와 불만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오네긴은 마음속의 공허를 메꾸어보려고 수많은 책을 사들여다 책속에서 그 무슨 새것을 찾으려고 하나 그것도 인차 물리고 만다.

작가는 이렇게 쓰고있다.

… …
청춘의 첫 시절에 그는
미쳐날뛰는 온갖 란행과
굴레벗은 애욕의 희생이였다

세상관습으로 버릇없이 자라나
잠시 한가지 일에 마음끌렸다가
다음 다른 일엔 환멸을 느끼며
차차로 그는 욕망에 지치고
뜬 구름같은 욕망에도 지치여
소란속에서도 정적속에서도
영원한 넋의 하소 끊임없이 들으며
하품으로 웃음을 짓눌러왔다
이렇게 그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헛되이 잃으며 여덟해를 보냈더라

이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오네긴은 빚더미우에 앉게 된다. 그러나 지주인 삼촌이 죽으면서 오네긴이 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오네긴은 부유한 삼촌의 소유지였던 시골 장원으로 옮겨앉아 도시생활의 권태를 씻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농촌생활 역시 그의 우울증을 가셔주지 못한다. 그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기 령지에서 일종의 진보적인 개혁을 시도해보았으나 이웃지주들의 랭소와 증오를 샀을뿐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한다.

이럴즈음에 오네긴은 이웃에 이사해온 젊은 귀족지주 렌스끼와 사귀게 된다. 오네긴은 자유분방한 공상과 솔직성과 들끓는 정열을 지닌 청년 렌스끼와 의가 맞아 그와 우정을 맺게 된다. 렌스끼는 이웃녀지주 라린일가의 둘째딸 올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오네긴은 렌스끼의 소개로 라린네 집을 방문하게 된다. 오네긴은 그 집에서 올가보다도 그의 언니인 따찌야나가 더 웅심깊고 아름다운 처녀임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미 녀인들과의 애정관계를 맛볼대로 맛본 그에게는 따찌야나의 아름다움도 아무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반대로 내성적이고 고독을 즐기던 순진한 처녀 따찌야나는 오네긴에게 호감을 품게 되고 점차 열렬한 사랑을 품게 된다.

따찌야나여, 귀여운 따찌야나여!

그대와 더불어 나는 눈물짓노라
그대는 이미 제 운명을 류행계의
폭군의 손아귀에 맡기였구나
가엾어라, 그대는 자멸하리라
그러나 아직 눈부신 희망을 품고
안개속 행복을 더듬는구나!

드디여 따찌야나는 자기의 고민과 불타는 사랑을 억제할길 없어 오네긴에게 편지를 보낸다. 순정이 담긴 따찌야나의 편지에 한순간 오네긴의 마음이 움직이였으나 《솔직히 믿는 소녀의 깨끗한 마음속이기를 원치 않아》 처녀의 사랑을 물리치고 그에게 훈시를 준다. 그것은 나서 처음으로 열렬한 사랑에 빠진 따찌야나에게는 너무도 커다란 타격이다.

한편 계속 우울과 권태속에서 안타깝게 나날을 보내던 오네긴은 렌스끼의 간청에 못이겨 따찌야나의 명명일축하연에 참가했다가 변덕을 부린다.

춤판이 벌어지자 오네긴은 렌스끼의 약혼녀인 올가와만 계속 춤을 추면서 렌스끼와 올가의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다. 오네긴은 올가의 귀에 대고 무엇인가 속삭이기도 하고 그의 손을 꼭 잡기도 한다.

렌스끼는 분노에 몸을 떨며 올가에게 자기와 같이 춤을 추자고 청한다. 그러나 올가는 안된다고 대답한다. 그는 벌써 오네긴에게 언약했던것이다.

설마 올가가…
타격을 참을길 없는 렌스끼
녀자의 변덕을 저주하면서
밖으로 나가 자기의 말을 불러
집으로 달렸다 두자루의 권총
두알의 탄환—더는 아무것도 필요없다
이것이면 그자의 운명을 결정할것을

중개인을 통하여 결투를 제기받은 오네긴은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면서도 귀족으로서의 자존심과 허영심에 못이겨 결투에 응하며 약속한 날에 렌스끼와 총구를 맞대게 된다.

결국 오네긴은 총을 들고 결투하다가 어제까지의 친구인 렌스끼를 죽이게 되며 고민속에서 자기 령지를 떠나 어디론가 정처없이 떠나가고만다.

가슴우에 고요히 손을 얹으며
그는 쓰러진다 흐린 눈매엔
고통이 아니라 죽음을 나타내이며
마치 산기슭에서 천천히
눈부신 해별에 번쩍이며
눈덩이 무너져 떨어지듯이
오네긴은 홀연 찬물을 들쓴듯
전률하며 벗에게로 달려간다
들여다본다 불러본다… 그러나 헛된 일
벌써 그는 없다 젊은 시인은
영원한 안식을 찾은것이다!
때아닌 광풍 일어 아침노을속
아름다운 한송이 꽃은 스러졌더라
오 제단의 불은 꺼지였더라!

한편 오네긴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고민속에서 모대기던 따찌야나는 여러 청혼자들을 물리치면서 오직 오네긴에 대한 생각으로 나날을 보낸다. 올가는 시간이 지나가자 슬픔을 잊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만 따찌야나는 첫사랑을 잊을길 없어 오네긴이 살던 빈 집을 찾아가 오네긴의 발길과 손길이 닿아있던 곳에서 몇시간이고 독서와 명상에 잠기는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따찌야나의 어머니는 날로 수척해가는 딸의 정상이 보기 민망하여 이웃들의 충고대로 그를 데리고 모스크바로 떠나간다. 모스크바에서 결국 따찌야나는 전

쟁에서 부상당하고 돌아온 한 공작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공작부인이 되며 귀족상류사회에서 이름떨치는 사교계의 귀부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오래동안의 방랑생활끝에 오네긴이 돌아오게 된다.

그때 그의 나이는 스물여섯이였다.

오네긴은 시골티를 완전히 가시고 사교계의 《녀왕》으로 등장한 따찌야나를 보게 되자 이번에는 그자신이 따찌야나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빠진다. 그는 매일처럼 따찌야나의 집에 찾아가 그와 접촉하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쓰지만 따찌야나는 곁을 주지 않으며 그를 랭담하게 대한다. 오네긴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회답을 주지 않는다.

하여 희망을 잃은 오네긴은 다시 사교계와 인연을 끊고 온 겨울 집안에 박혀있으면서 몹시 수척해진다.

어느 봄날 아침 오네긴은 더는 참을수 없어 기별도 없이 따찌야나의 집을 찾아간다. 불의에 따찌야나의 방에 뛰여든 오네긴은 자기가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있는 따찌야나를 보게 된다. 여기서 따찌야나는 비로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자기가 오네긴을 사랑하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결합된것만큼 그에게 충실하겠으니 더는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 …

오네긴, 기억하시나요? 언젠가 그때
운명이 우리를 뜰안 숲길로 이끌어
당신이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내 그리도 온순히 듣던 그때를?
오늘은 내 차례가 돌아왔어요

… …

그때엔 명리를 떠나 시골에 있었기에
나는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찌하여 내뒤를 따르시나요?
이제는 내가 상류의 사교계에
드나들게 되였기때문인가요?
내가 부유하고 명성이 있기때문인가요?
… …

… …
어찌 당신의 심정, 당신의 지혜로써
얕은 감정의 노예가 되시는가요?

따찌야나의 대답을 들은 오네긴은 벼락이라도 맞은듯이 굳어지고만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난다.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진보적인 측면은 그 당시 봉건로씨야의 귀족계급을 비판한것이다.

이 작품에서 귀족계급에 대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주인공 예브게니 오네긴의 생활과 운명묘사를 통하여 전개되고있다.

○상식○

운문소설

운문으로 씌여진 소설문학의 특수한 한 형태이다.

운문은 시문학의 기본표현형식으로 되고있지만 소설창작에서도 그 표현방식이 적용된다. 시문학의 기본표현형식을 빌어 창작되는 운문소설은 형태상특성으로부터 정서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된다. 운문소설은 운문적형식을 취한 사건과 인간관계가 주어지고 갈등선이 나서며 이야기줄거리를 가지는것을 비롯하여 소설

오네긴은 수도에서 귀족가정의 귀동자로 태여나 전형적인 귀족교육을 받는다.

그는 18살에 교육과정을 끝마치고는 그 어느 하나의 학문에도 깊이 들어가지 못한 얼치기 《박식가》가 되여 사교계에 진출한다. 그후 8년동안 사교계에서 향락을 누리면서 청춘의 가장 귀중한 시절을 방탕과 무위도식과 허송세월로 랑비해버린다. 그러나 오네긴에게도 건전한 사고력이 남아있었기때문에 점차 이런 썩어빠진 생활에 권태증과 불만을 느끼게 된다. 이때로부터 그는 자기의 정신적공허감을 메꾸어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이며 나아가서 현실생활에 불만을 품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하지만 오네긴은 그 어떤 적극적인 일도 할수 없었다.

뿌슈낀은 오네긴의 형상을 통하여 귀족가정에서 전형적인 귀족적교양을 받고 귀족계급의 생활환경에서 자란 한 청년이 자기가 속한 귀족사회의 무의미하고 썩어빠진 생활에 처음에는 권태를 느끼고 다음에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나아가서 불만을 품게 되나 귀족으로서의 계급적립장, 그 생활환경과 인연을 끊지 못함으로 하여 어떠한 적극적행동에도 나서지 못하고 번민속에서 파멸해

문학의 구성형식과 묘사적특성이 그대로 적용된다. 운문소설은 강한 정서적색채를 띠는것으로 하여 작가의 의도와 사상을 뜨거운 느낌과 충동속에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특성을 가진다.

뿌슈낀은 《예브게니 오네긴》의 형태를 자신이 《운문소설》이라고 규정하였는데 그것은 구성과 묘사에서는 소설적특징이 강하나 산문이 아니라 운문으로 씌여졌기때문이다.

이때부터 《오네긴시련》이라는 말이 나왔다.

가는 과정을 그리였다.

이를 통하여 작가는 다른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양을 받았더라면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수도 있을 이런 청년들을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인물》로 만들고 파멸시키는 귀족계급의 생활과 로씨야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비판하였다.

작품에서 귀족계급에 대한 비판은 녀주인공 따찌야나의 형상을 통해서도 펼쳐지고있다.

따찌야나의 형상은 이 작품에서 오네긴의 형상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뿌슈낀은 따찌야나를 작품의 긍정적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에게 사랑을 기울이면서 그를 부패타락한 귀족

○상식○

《무용지인물》

뿌슈낀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의 주인공 오네긴의 형상이 창조된 다음부터 로씨야문학에서는 《무용지인물》(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새로 생기고 《무용지인물》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이 련이어 창작되였다. 소설작품들인 레르몬또브의 《현대의 영웅》(1840), 게르쩬의 《누구의 죄인가》(1846), 뚜르게네브의 《루진》(1856), 곤챠로브의 《오블로모브》(1859)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반동적봉건통치배들과 썩고병든 봉건사회현실에 비판적태도를 취하기는 하면서도 자기자신은 귀족계급의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에 리익을 주는 그 어떠한 사업도 하지 못한채 파멸해가는 귀족청년들의 운명을 묘사하고 그를 통하여 귀족계급과 봉건사회현실을 비판한것이다.

들과 대치시키고있으며 따찌야나와 타락한 귀족들과의 대조, 따찌야나자신의 비극적운명을 통해 귀족계급을 비판하고있다.

부패타락한 귀족들과는 다른 따찌야나의 긍정적인 성격적특질은 그가 로씨야의 민족생활과 밀접히 련결된 순진하고 소박한 처녀라는데 있다. 프랑스인가정교사에게서 교육을 받고 수도의 상류사교계에서 타락한 오네긴이나 도이췰란드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절반외국사람인 렌스끼와 달리 따찌야나는 농촌에서 농노출신의 유모가 들려주는 옛말을 들으면서 자기 나라의 민족적인 풍습과 전통,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애착을 느끼면서 자라났다.

이렇게 자라난 따찌야나였기에 허영심에 가득찬 위선적이고 까다로운 귀부인들과는 달리 거짓을 모르는 순진하고 소박한 성품을 가지게 되였으며 시골귀족들의 저속한 생활이나 수도귀족들의 공허한 상류사회나 다 자기와 인연이 먼것으로 여기고 고독과 명상을 즐기는 과묵한 처녀로 되였다. 하여 따찌야나는 친어버이 슬하에 있으면서도 이붓딸자식같이 보였다.

작가는 이처럼 따찌야나의 긍정면과 타락한 귀족들의 부정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위선적인 귀족상류사회에서 그가 겪는 불행을 보여줌으로써 귀족계급을 비판하였다.

작품에서 귀족계급에 대한 비판은 그밖에도 오네긴과 따찌야나가 접촉하게 되는 그 당시 로씨야귀족계급의 썩어빠진 생활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다른 한편 이 작품에서는 귀족계급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귀족계급자체와 그들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봉건제도자체는 반대하지 않고있으며 봉건사회의 불합리를 없애는데서 시골출신의 《량심적》인 귀족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것과 같은 시대적 및 계급적 제한성을 드러내고있다.

뿌슈낀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귀족계급과 농노전제제도현실을 비판한 진보적내용을 담았으며 로씨야문학의 발전력사에서 비판적사실주의원칙을 확립하고 민족적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낸 첫 사실주의소설로서 확고한 문학사적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작가소개

알렉싼드르 쎄르게예비츠 뿌슈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뿌슈낀은 로씨야의 농노전제제도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고, 뿌슈낀이 쓴 많은 서정시들과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중편소설 《대위의 딸》을 비롯한 산문작품들은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뿌슈낀은 로씨야문학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문호이다. 뿌슈낀은 로씨야에서 근대문학, 사실주의문학을 확립하고 로씨야문학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린 재간있는 작가였다.

뿌슈낀의 재능은 나뽈레옹군의 침략을 물리친 후 로씨야인민의 민족적자각과 농노전제제도를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진 배경속에서 꽃펴났다.

그는 이러한 력사적시대의 민족적인 사상감정을 표현하고 지난날 로씨야문학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로씨야문학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놓았다.

알렉싼드르 쎄르게예비츠 뿌슈낀(1799—1837)은 모스크바의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1811년부터 6년동안 뻬쩨르부르그에 갓 창설된 고등귀족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졸업후 외교일군으로 일하였다.

조숙한 시인이였던 뿌슈낀은 일찌기 학생시절에 시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졸업시험때 읊은 서정시가 당시 시단의 거두였던 스승의 격찬을 받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있다.

초기에 랑만주의시인으로 등장한 뿌슈낀은 《자유》, 《챠아다예브에게》, 《농촌》과 같이 농노전제제도현실을 비판하고 자유애호사상을 표현한 서정시를 쓴것으로 하여 1820년에 수도에서 추방되였으며 남부로씨야의 여러곳에서 류배살이를 하였다.

이 시기에도 《깝까즈의 포로》(1821), 《강도형제》(1822), 《집시들》(1824)과 같은 랑만주의서사시를 쓰던 시인은 북방의 농촌마을에

가있던 류배살이말기에 랑만주의로부터 점차 사실주의로 이행하게 되였다. 그 표현이 비극 《보리스 고두노브》(1825)였다. 이 희곡에서는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재자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12월파》의 반정부폭동이 진압된 뒤인 1826년에 가서야 황제의 회유책으로 류배살이에서 풀려나 수도로 돌아온 시인은 일시 황제에게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곧 황제의 《자비》가 사회여론을 무마하고 자기를 어용시인으로 만들어보려는 술책임을 깨닫고 《씨비리로 보냄》, 《아리온》 등의 시에서 《12월파》에 대한 동정과 련대의 감정,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였다.(후에 게르쩬은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예속과 고민의 골짜기속에서 오직 뿌슈낀의 노래만이 소리높이 널리 울려퍼졌다.》고 말하였다.)

1830년대에 들어서면서 뿌슈낀은 대표작인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1823—1830)을 완성하는 한편 단편소설집 《벨낀씨의 이야기》(1830), 중편소설 《스페드의 녀왕》(1834), 《대위의 딸》(1836)과 같은 산문작품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에는 첨예한 사회정치적문제들에 대한 시인의 관심이 더욱 뚜렷이 표현되였다.

뿌슈낀은 창작활동의 개화기에 통치배들이 꾸민 비렬한 음모에 의하여 한 외국인 망명자와의 결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1837년초 38살의 한창나이로 생을 마쳤다.

시인의 장례식에는 정부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뻬쩨르부르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일화○

《나는 폭동자들의 대렬속에서 시를 읊었을것이요》

1826년 9월 류형지에서 뿌슈낀은 황제 니꼴라이1세로부터 뻬쩨르부르그로 오라는 내용의 친서를 받았다.

(무엇때문일가？)

뿌슈낀은 풀길없는 의혹을 품은채 수도를 향해 떠났다.

호송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그는 왕궁으로 들어갔다.

황제는 뿌슈낀에게 인정이나 베풀듯이 자리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물었다.

《류형살이에 싫증나지 않는가？》

《사람인 이상 어찌 짐승같이 천대받는 류배살이가 좋을리 있겠습니까？》

《그럴테지. 그대는 천재적인 시인이 아닌가.》

황제는 얼핏 뿌슈낀을 눈질해보며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였다. 15살의 나이에 벌써 시단을 놀래웠던 뿌슈낀이다. 고등귀족학원에 다니던 뿌슈낀은 1815년에 시험장에서 시 《짜르스꼬예마을의 추억》을 랑송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그의 시적재능이 상류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나뽈레옹을 쳐부시기 위한 로씨야인민의 애국주의를 격조높이 노래한 시였다. 그때 시험관으로 왔던 로씨야시단의 원로 제르자빈이 나어린 소년의 뛰여남과 그 당돌함에 놀라 《로씨야의 모든 시인들을 릉가할 뛰여난 새 시인이 나왔다.》라고 평가하였다. 그자리에 참가하였던 귀족, 귀부인들속에서 뿌슈낀은 《시단의 혜성》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

황제는 이윽하여 말을 이었다.

《그대를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라 〈12월파〉의 처형때문에 혼란해진 민심을 수습해줄것을 그대에게 위임하기 위함이였소.》

뿌슈낀은 결연히 고개를 들었다.

《안될 말씀입니다. 12월폭동은 로씨야의 전국에 미친 한점의 불꽃입니다.》

그렇다. 뿌슈낀은 그것을 확신하고있었다. 1825년 12월 14일 폭동은 실패하였으나 바야흐로 그것은 전국을 휩쓸어버릴 거세찬 불길로 될것이였다.

《진정하시오. 뿌슈낀, 만일 12월 14일 뻬쩨르부르그에 있었더라면 그대는 어떻게 하였겠는가？》

황제의 목소리는 노기를 띠였다.

《나는 폭동자들의 대렬속에서 시를 읊었을것이요.》

뿌슈낀의 단호한 대답이였다.

오네긴은 긍정인물이냐 부정인물이냐?

뿌슈낀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의 주인공 오네긴의 형상은 매우 복잡하고 모순에 찬 형상이다.

이로부터 이 작품이 창조된 로씨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연구가들속에서 오네긴의 형상을 두고 많은 론의가 벌어졌었다. 이 론의의 중심문제로 된것은 오네긴이 긍정적주인공이냐, 부정적주인공이냐 하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들이 오네긴을 부정적주인공으로 간주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일면적인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뿌슈낀자신이 오네긴에 대한 이러한 일면적인 평가와 편견을 반대하고있는것을 알수 있다.

오네긴은 긍정면과 부정면을 다 가지고있는 2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오네긴의 성격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그가 부패타락한 귀족계급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그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점에 있었다.

그 당시 로씨야에서는 절대다수의 귀족계급이 인민에 대한 가혹한 봉건적착취와 압박에 토대하여 보장되고있는 제놈들의 부패타락한 기생충생활을 응당한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러한 처지에 만족하고 귀족으로서의 특권적지위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있었다. 그러나 오네긴은 그들과 달리 귀족계급의 생활에 의문을 품고 비판의 눈초리를 돌렸으며 그 무엇인가 다른 출로를 찾으려고 지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오네긴은 그 당시 로씨야의 귀족들속에서 그래도 긍정면을 가진 극소수의 청년들중 한사람이였다. 그러기에 오네긴은 귀족들속에서 이색적인 존재였으며 비난의 대상으로 되였다.

오네긴의 성격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그가 부패타락한 귀족계급의 생활에 불만을 품고 그에 비판적태도를 취하면서도 자기를 낳은 환경과 대담하게 인연을 끊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회를 위해 아무런 유익한 일도 하지 못하는 《무용지인물》로 되고만데 있다. 그 당시 로씨야에서는 《12월파》의 활동가들처럼 비록 귀족계급에 속했지만 시대의 추세를 깨닫고 전제농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선각적인 인사들도 있었으나 오네긴은 그들의 높이에까지 오르지 못했던것이다.

이와 같이 오네긴은 그 당시의 시대와 사회제도가 낳은 전형적인 형상이라고 볼수 있다.

대위의 딸

《대위의 딸》은 로씨야시인 뿌슈낀이 1836년에 창작한 중편소설로서 18세기 70년대 녀황제 예까쩨리나2세가 통치하던 농노전제제도시기 로씨야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뿌가쵸브농민봉기를 반영한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뿌슈낀의 중편소설 《대위의 딸》은 로씨야에서 18세기 70년대에 있은 뿌가쵸브농민봉기를 취급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19세기 30년대에 창작되였다고, 이 작품을 옳게 리해하고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작가가 작품에서 뿌가쵸브농민봉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농민봉기군의 두령인 뿌가쵸브를 긍정인물로 그리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소설은 귀족청년 그리뇨브를 설화자로 등장시키고 그의 체험을 수기형식으로 쓰고있다.

소설에는 주요인물인 뾰뜨르 그리뇨브와 그의 몸종 싸벨리치, 요새사령관 미로노브대위와 그의 딸 마리야(마샤), 장교 슈바브린, 농민폭동군 두령 뿌가쵸브 등이 등장한다.

그리뇨브는 3급중좌로 퇴직한 아버지와 함께 씸비르스크부근의 시골마을에서 살았다. 그가 16살되던 해에 아버지는 편지를 주며 오렌부르그에 가서 군대에 복무하라고 분부한다. 그리하여 그리뇨브는 싸벨리치를 데리고 포장마차로 길을 떠난다. 그날밤 현소재지 씸비르스크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었는데 주막집에서 주린대위와 당구놀이내기를 하여 100Rbl을 떼운다.

다음날 그곳을 떠나 길을 달리던 그들은 눈덮인 초원에서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게 된다. 다행히도 한 사나이를 만난다. 그 사나이는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멀지 않은데에 집이 있소.

마차를 바른쪽으로 몰아갑시다.》하고 확신성있게 말한다. 그리뇨브는 그의 총명함과 예민한 감각에 놀란다. 마침내 마차는 려인숙에 도착한다. 그리뇨브는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술을 사주고 다음날 헤여질 때 토끼털외투를 선사한다. 그리고 오렌부르그에 도착하여 곧바로 장군을 찾아가 아버지의 편지를 전한다. 장군은 그리뇨브에게 벨로고르스크요새로 가서 미로노브대위의 지휘를 받으라고 명령한다.

벨로고르스크요새는 오렌부르그에서 40로리 떨어져있었다. 현지에 도착해보니 요새란 명색뿐이고 통나무울타리에 둘러싸인 자그마한 촌락일뿐이였다. 그리뇨브는 끼르기즈초원에 있는 쓸쓸한 요새에서 군사복무를 시작한다.

요새에서의 생활은 견딜만 하였을뿐아니라 지어 즐겁기까지 했다. 요새사령관 미로노브대위의 집에서는 그리뇨브를 자기네 식구처럼 대해준다. 그리뇨브는 대위의 딸 마리야와 친숙해지는데 처녀는 사리에 밝고 다정다감한 녀자였다. 그리뇨브는 장교(소위보)가 된다. 군무생활은 그에게 있어서 그리 고달프지 않았으며 평온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이 평화를 깨뜨린다.

대위의 딸을 짝사랑하며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장교 슈바브린이 그 앙갚음으로 처녀를 모욕한것으로 하여 그리뇨브가 그와 결투하게 된것이다. 결투에서 그리뇨브는 바른편어깨아래 가슴팍에 칼을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닷새만에야 깨여난다.

그는 마리야의 극진한 간호를 받는 사이 마리야와 서로 열렬히 사랑하게 되며 결혼을 약속한다.

그리뇨브는 슈바브린과도 화해하고 결혼에 찬동할것을 청원하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써보낸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고 다른 어데 먼곳으로 그를 보내겠다는 회답을 보내온다. 마리야는 그리뇨브의 부모들의 승낙없이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한다.

이무렵 뿌가쵸브농민폭동군이 대단한 기세로 요새로 접근해온다. 대위는 장교모임에서 요새를 지켜 결사전을 벌릴것을 결정하고 전투준비를 갖추었으나 전투결과는 뻔하였다. 폭동군이 요새안으

로 쳐들어오자 수비대원들은 무기를 던졌으며 주민들은 빵과 소금을 가지고 문밖에 나와 폭동자들을 환영하였다.

광장에 교수대가 세워지고 미로노브대위와 한명의 장교가 매달린다. 슈바브린은 폭동군편에 넘어간다. 드디여 그리뇨브차례가 된다.

그는 모든것을 각오하고 교수대밑으로 끌려간다. 이때 난데없는 고함소리가 들린다. 싸벨리치가 뿌가쵸브발밑에 엎드려 용서해줄것을 애걸하는것이다. 뿌가쵸브는 그리뇨브를 놓아준다.

신부의 집에 숨었던 마리야도 신부네가 자기네 조카딸이고 앓는 환자라고 비호해주어 요행 살아남는다. 그리뇨브는 싸벨리치의 말을 통해서 뿌가쵸브가 왜 자기를 살려주었는가 하는 진짜 까닭을 알게 된다.

그리뇨브가 오렌부르그로 가던 도중 길을 잃었을 때 눈보라속에서 길을 대준 사람, 그리뇨브가 그에 대한 인사로 토끼털외투를 선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뿌가쵸브였던것이다.

○인물소개○

예까쩨리나2세

예까쩨리나2세(1729－1796)는 로씨야 로마노브왕조의 녀황제였다. 몰락한 도이췰란드귀족의 딸로서 도이췰란드이름은 쏘피에 아우구스테 앙할드－제르브스트이다. 1745년에 앞날의 뾰뜨르3세와 결혼한 후 예까쩨리나라는 로씨야이름으로 고쳤다. 뾰뜨르3세가 귀족들속에서 신망을 잃게 되자 간신들과 공모하여 자기 남편을 퇴위시키고 1762년에 녀황제로 되였다.

정권욕과 공명심이 강하였던 그는 《문명한 전제제도》라는 간판밑에 오히려 농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더욱 강화하였다. 예

뿌가쵸브는 그리뇨브에게 자기와 함께 싸우자고 권고하지만 귀족의 의무를 저버릴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그를 놓아준다. 그리뇨브가 얼마쯤 갔을 때 한 까자크하사가 따라와 두령님께서 선사한것이라고 하면서 말 한필과 양털외투를 준다.

그후 그리뇨브는 오렌부르그에서 군사복무를 계속한다. 그곳도 뿌가쵸브군과의 전투가 계속되는 전장이였는데 방어자들인 그리뇨브네는 기아와 고난에 시달린다. 대신 잘 먹고 군마를 탄 폭동군은 전투에서 늘 우세를 차지한다. 어느날 폭동군속에서 구면인 까자크하사가 그에게 편지를 전달한다. 구원을 요청한 마리야의 편지였다. 편지에 의하면 요새사령관이 된 슈바브린이 자기와 결혼하자고 매일같이 강박하고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흘동안의 말미를 주면서 그때까지 말을 안들으면 폭동자들에게 넘기고말겠다고 했다는것이다.

그리뇨브는 곧 장군을 찾아가 마리야의 편지를 보이고 한개 중대와 50명의 까자크를 주면 벨로고르스크요새를 탈취하겠다고 제기한

까쩨리나2세는 간신들을 총애하는것을 커다란 락으로 여기면서 국고를 탕진하였는데 간신들에게 상으로 준 토지만 하여도 80여만ha에 달하였다.

예까쩨리나2세는 1773－1775년사이에 벌어진 뿌가쵸브농민전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라지쉐브 등 당시 진보적인 사상가들을 가차없이 탄압박해하였다. 한편 그는 반동적인 대외팽창정책을 실시하여 서부우크라이나, 벨라루씨, 리뜨바를 병합하였으며 1772년에는 프로씨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뽈스까를 분할하였다.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두려워 이를 악착하게 반대하여나섰다. 예까쩨리나2세는 자기의 적수들을 반대하며 자신에 대한 환상을 조장할 목적으로 일련의 력사, 문학책들도 썼다고 한다.

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 제기를 장군이 들어줄리 만무하였다. 절망에 사로잡힌 그는 문득 머리속에 번개같은 생각이 떠올라 싸벨리치를 데리고 오렌부르그를 나선다. 예견한대로 곧 폭동군에 잡혀 뿌가쵸브앞에 끌려간다. 그는 모욕당하고있는 고아처녀를 구원하러 간다고 하면서 슈바브린에 대해 고소하고 그 처녀가 자기 약혼녀라는것을 밝힌다.

뿌가쵸브는 그를 포장마차에 태우고 벨로고르스크요새로 간다. 뿌가쵸브는 슈바브린을 혼쌀낸 다음 그리뇨브가 마리야를 데리고 떠날수 있게 해준다. 그리뇨브는 마리야를 데리고 오렌부르그로 갈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씸비르스크시골에 갈것을 결심하고 길을 떠난다.

도중 폭동진압에 나선 정부군의 한 구분대를 만나는데 그 지휘관이 마리야만 촌에 보내고 자기 부대에 남아 귀족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한다. 그리뇨브는 그의 충고를 따른다.

때는 2월말이였다.

군사행동을 저애하던 겨울은 마감고비에 이르러 정부군은 긴밀한 협동작전을 준비한다. 드디여 폭동군은 진압되였으나 뿌가쵸브는 잡히지 않는다.

전쟁이 끝나 그리뇨브는 부모에게로 갈수 있게 되였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던 위험이 그를 놀라게 한다. 그를 체포하여 까잔의 뿌가쵸브사건심의위원회로 보내라는 비밀지령이 내려왔던것이다. 호송되여 그곳에 도착해보니 슈바브린의 밀고로 그가 뿌가쵸브의 간첩으로 몰리우고있었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다가 오직 마리야의 안전을 위해 마리야의 이름을 대지 않고 침묵한다.

몇주일후 아들이 사형죄에 해당되나 녀황제가 그의 아버지의 공적을 고려하여 씨비리종신류형령을 내렸다는 놀라운 소식이 부모에게 알려진다. 아버지는 절망에 빠지고 어머니는 앓아눕는다. 애인을 구원할 방도를 골똘히 생각하던 마리야는 그리뇨브의 부모의 승낙을 받고 곧 뻬쩨르부르그로 올라간다. 그는 궁정에 출입하는 녀인의 집에 자리를 잡고 아침에 정원을 산보하다가 숲속에

서 걸상에 앉아있는 한 부인을 만나게 된다.

그 부인은 마리야에게서 녀황제에게 청원할 말을 다 듣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얼마후 마리야가 있는 집앞에 뜻밖에도 궁정마차가 와멎고 녀황제가 미로노브의 딸을 찾는다는 전갈이 온다.

궁정에 가서 녀황제의 화장실에 안내된 마리야는 녀황제가 아침에 만났던 그 부인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녀황제는 마리야의 청원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주고 장래의 시아버지에게 가져갈 편지를 준다.

마리야는 뻬쩨르부르그를 구경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날로 촌을 향하여 길을 떠난다.

중편소설 《대위의 딸》은 설화자인 그리뇨브의 선을 따라가면서 시골과 수도, 귀족과 천민, 농민폭동군의 두령과 그 부하들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생활을 비교적 폭넓게 묘사하고있다.

작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농민폭동군의 두령 뿌가쵸브의 형상이다.

뿌가쵸브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작가는 당시의 반동적인 작가, 력사가

○ 유모아 ○

《미안합니다. …미처 몰랐군요》

젊었을 때 뿌슈낀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어느날 그는 뻬쩨르부르그의 한 공작의 집에서 진행되는 무도회에 초대되였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귀족아가씨앞에 다가갔다.

《아가씨, 춤을 함께 추시지 않겠습니까?》

귀족아가씨는 뿌슈낀을 교만한 눈길로 살펴보더니 《난 어린애와 함께 춤을 추지 못하겠어요.》라고 랭랭하게 말하였다.

뿌슈낀은 전혀 성을 내지 않고 웃으면서 말했다.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아가씨, 당신이 어린애를 배고있는줄을 미처 몰랐군요.》

그리고나서 그는 깍듯이 인사하고 무도장을 나섰다.

들이 뿌가쵸브를 천하에 몹쓸 악당으로 비방중상하던것과는 달리 그에 대한 인민설화와 민요의 자료들을 리용하여 뿌가쵸브를 긍정적으로 형상하였다.

소설에 형상된 뿌가쵸브는 포악하기는 하지만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원치 않으며 노예살이를 하며 오래 살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을것을 바라는 투지와 반항심, 담대하고 호방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성격적특질은 그리뇨브와의 담화에서 그가 옛말을 들려주면서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3백년을 사는 까마귀보다 더운 피를 마시고 30년을 사는 독수리로 되련다고 이야기한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뿌가쵸브는 또한 아량이 있으며 공정하고 총명한 인간으로 형상되였다.

그는 폭동을 일으키기 전 숨어다닐 때에 우연히 눈보라속에서 길을 잃고 곤경에 처한 그리뇨브일행을 만나자 길안내를 서면서 바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냄새가 풍겨오는것을 보아 어디 가까이에 마을이 있는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그들을 놀래웠다. 뿐만아니라 자기가 인사로 받은 보잘것 없는 토끼털외투를 잊지 않고 요새점령후 교수형을 당하게 된 그리뇨브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며 고아가 된 마리야가 학대받는다는 신소를 받게 되자 슈바브린을 혹독하게 추궁하고 처녀를 놓아주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이와 함께 간악하고 리기적인 슈바브린과 같은 《못된》귀족과 청렴하고 인도주의적인 그리뇨브와 같은 《선한》귀족을 대치시키고 그리뇨브류의 귀족들을 긍정한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소설은 《량심적인》 귀족들과 《어진》 군주에 기대를 걸고 그들의 힘으로 사회계급적모순을 해결하려고 한 계급적제한성을 드러내고있으나 그 긍정적인 내용과 함께 각계각층의 생동한 인물형상의 창조, 함축되고 째인 구성,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구사 등의 예술적성과로 하여 로씨야문학에서 사실주의적력사소설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여보게.》

뿌가쵸브는 어떤 야성적인 감흥을 가지고 말하였다.

《내 임자에게 옛말을 하나 하겠네. 어릴 때 늙은 깔믜크녀인이 들려준 이야긴데 하루는 독수리가 까마귀에게 물었다네. 〈얘, 까마귀야, 나는 기껏해야 33년밖에 못사는데 너는 어떻게 돼서 이 세상에 3백년을 사느냐?〉 까마귀가 대답하기를 〈독수리님, 그건 당신이 산 피를 마시기때문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고기를 먹지요.〉독수리는 생각하였지. 〈우리도 그걸 먹어보자.〉 하고 말이네. 까마귀는 〈좋습니다.〉했다네. 독수리와 까마귀는 훨훨 날아갔네. 죽은 말 한필을 발견했지. 둘은 내려와 앉았지. 까마귀는 부리로 쪼으면서 맛있다고 칭찬이 대단했네. 그러나 독수리는 한번 쫏고 두번 쫏더니 나래를 활짝 펴고 까마귀에게 말했네. 〈아니야, 까마귀야, 죽은 고기를 먹으면서 300년을 사느니보담 한번 산 피를 마시는게 낫겠어.〉

그다음은 내 알바 아니야. 그래 깔믜크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가?》

중편소설 《대위의 딸》중에서

○상식○

뿌가쵸브농민전쟁

1773－1775년 로씨야에서 봉건적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일어난 농민전쟁. 그 지도자는 돈지방의 가난한 까자크농민출신인 에멜리얀 뿌가쵸브였다.

1773년 야이크지방에 있던 그는 격문을 발표하여 자신을 뾰뜨르3세로 칭하고 까자크들에게 토지와 식량, 자유를 보장해줄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농민군과 그 지휘부를 꾸렸으며 야이크요새를 점령하고 로씨야남부의 가장 큰 요새인 오렌부르그를 공격하였다. 그해말 농민군의 력량은 2만 5천명으로 늘어나고 86문의 포로 장비되였다. 점령지역에서 농민군은 지주들을 체포, 재판하고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빈농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1～12월에 폭동군의 영향은 우랄지방과 그 북쪽 및 서쪽지방 볼가강연안의 일부 지방에까지 미쳤다. 농민군은 점령지역에서 짜리통치기구를 철폐하고 까자크통치체제를 세웠는데 이는 이전시기의 농민들의 투쟁과 구별되는 중요한 조치였다.

짜리정부는 많은 무력을 폭동진압에 동원하였다.

농민군은 우랄지방에서 짜리군대와 여러번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들은 볼가강류역지방으로 진출하여 1774년 7월 까잔을 점령하였으나 전투에서 실패하여 볼가강우안으로 이동하여 여러곳을 점령하였다. 그해 8월 농민군은 짜리군대에게 패전하였다. 뿌가쵸브는 농민군과 함께 볼가강을 건너 이동하다가 변절자에 의하여 체포되고 1775년 1월 모스크바에서 사형당하였다.

이 농민전쟁은 중세로씨야의 가장 큰 농민폭동으로서 짜리농노제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뿌슈낀의 시중에서

자 유

《자유》(1817)는 전12편 96행으로 이루어진 송시이다.

서정시는 첫머리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연약한 가수가 아니라 온누리에 자유를 노래하며 왕좌의 죄악을 치는 자유의 가수가 되려는 시인의 립장을 밝히고있다. 이어 18세기말 프랑스부르죠아혁명때 인민들이 전제적폭군 루이16세를 처단한 력사적사실을 례로 들면서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 자유를 억누르고 폭압을 일삼는 폭군들, 압제자들을 규탄하고 이러한 폭군들은 결국 력사의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말없이 서있는 군중의 주시속에
류드비크는 형틀로 올라간다
왕관 벗기운 민둥머리를
배신의 피묻은 반역의 단두대에 얹는다
법은 입다물고 인민은 말없고나
형법의 칼날은 휘날리여…
여기에 죄많은 제왕의 붉은 옷자락이
단결된 골종족우에 떨어지도다

*류드비크는 루이의 로씨야식발음.
*골종족은 골족 즉 프랑스민족을 의미한것임.

여기서 시는 우에서 노래한것이 비단 프랑스 한나라와만 관련되

는것이 아니라 로씨야의 현실과도 관련된다는것을 암시하면서 어두운 네바강우에 밤짙어 별빛이 잠겨 빛날무렵 깊은 사색에 잠기여 안개속에 험상궂게 잠든 폭군의 거칠어진 동상을, 망각속에 버려진 궁전을 응시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시는 다음부분에서 고대로마의 폭군 깔리굴라가 왕관쓴 악도로서 압제를 일삼다가 밤중에 자기의 침실에서 칼에 맞아 쓰러진 력사적사실을 례를 들면서 압제자들, 폭군들의 말로는 프랑스의 루이왕이나 고대로마의 깔리굴라처럼 될것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의 마지막련에서 통치자들이 제왕의 길을 배워 법을 존중하고 인민의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라고 호소하고있다. 송시 《자유》는 19세기 초엽 짜리로씨야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폭압에 매달려 인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전제군주들을 규탄하고 력사적사실을 들어 그러한 압제자들의 말로를 강조하면서 열렬한 자유애호사상을 노래한 시이다.

《자유》는 그 당시 봉건로씨야의 조건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작품이였다.

시는 무엇보다도 압제자들이 살판치고 자유가 무참히 짓밟힌 그 당시의 암담한 시대를 시적으로 일반화하고 그러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있다.

아아! 어데로 눈길을 돌리거나
도처에 채찍, 도처에 사슬이로다
법령은 치욕속에 구겨지고
노예는 눈물에 젖어 허덕이누나
가는 곳마다 불의의 권력이
안개같이 몽롱한 편견속에서
왕좌에 올랐다— 노예에 대한 억압의 천재
공명심에 대한 피할수 없는 열광이

시는 또한 인민을 억압하고 자유를 유린하는 폭군들, 압제자

들을 고발하고 규탄하였으며 압제자들을 반대하고 자유를 옹호하는 투쟁의 열정을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자유를 억누르는 전제폭군들을 고발하면서

전제의 악도야!
너와 네 왕좌를 내 증오하노라
너의 파멸과 네 자식들의 죽음을
내 잔인한 기쁨으로써 바라보노라
인민들은 읽는다
네 이마에서 저주의 락인을
너는 인류의 공포, 자연의 치욕
너는 이 땅의 신의 모독자

라고 규탄하였으며 나아가서

세계의 폭군들아! 무서움에 떨라!
그리고 그대들 땅우에 엎드린 노예들은
귀를 기울이라, 용기를 북돋아 일어서라!

라고 호소하였다.
뿌슈낀이 수도에서 추방되여 류배살이를 하게 된것은 주로 이 시와 관련되여있었다.
작품은 그 형식에서 18세기 로씨야고전주의시인들이 많이 쓰던 장엄한 송시형태를 리용하면서 거기에 압제를 반대하고 자유를 옹호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열정을 담은 정론성과 호소성이 강한 시로 되여있다.
이 시의 제한성은 시인이 공정한 법을 리상화하면서 만민우에 높이 서있는 법을 어기지 말고 제왕들이 미더운 법의 비호에 먼저 머리를 숙이라고 호소하고있는데서 드러나고있다. 그것은 또한 자유에 대한 리상에서도 표현되고있다. 이 시에서 표명된《자유》란 결코 인민을 위한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극

상해야 부르죠아민주주의적인 《자유》에 대한 환상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제한성이 있으나 이 시는 그것이 담고있는 진보적내용으로 하여 그 당시의 진보적사회층의 환영을 받았고 출판물에 공개되지 못한 조건에서도 손으로 필사되여 널리 알려졌다.

챠아다예브에게

《챠아다예브에게》(1818)는 뿌슈낀이 자기 벗 챠아다예브에게 보낸 헌시이다.

련과 련의 구분이 없이 21행으로 구성된 이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랑과 희망과 영광의 속임도
우리를 오래 유혹할수 없어
청춘의 즐거움은 사라졌다
꿈결같이, 아침안개같이
그래도 가슴에선 욕망이 불타
운명적인 권력의 중압밑에서
우리는 참을수 없는 마음으로
조국의 부름에 귀를 기울인다
충실한 련인과의 상봉을 고대하는
젊은이처럼 우리는
성스런 자유가 닥쳐올 시각을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나니
우리 가슴 자유에 불타는 동안
영예 위해 심장이 뛰노는 동안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열정을
오 나의 벗이여 조국에 바치자!
동무여, 믿으라, 우리의 눈부신

행복의 별은 기어이 떠오르리라
로씨야는 꿈에서 깨여나리라
그리고 전제의 페허우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지리라!

이 시의 기본사상은 자유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봉건적폭정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유가 닥쳐올 시각에 대한 애타는 기다림이며 자유가 실현될 조국 위해 자기들의 열정을 바치려는 결의와 아름다운 래일의 리상에 대한 신념이다.

시의 앞부분에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애타는 심정을 토로하고 그다음부분에서는 자기들의 마음의 아름다운 열정을 조국에 바치자는 호소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설 각오를 피력하고있으며 마감부분에서는 전제통치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리상과 굳은 신념을 보여주고있다.

이 시의 이러한 사상적내용은 그 당시 전제제도와 농노제를 반대하여나선 귀족출신의 일부 선각적인 지식인들과 장교들, 진보적사회층의 기분을 시적으로 일반화한것이였다. (이로 하여 이 시는 출판금지를 당하여 수사본으로 보급되였다. 이 시가 출판물에 공개된것은 1903년에 이르러서였다.)

시는 힘있는 열정과 랑만적인 호소성이 강한 주정토로와 결합되였으며 그것이 화려하고 격동적인 시어로써 표현된 특징으로 하여 로씨야진보적랑만주의시문학을 대표하는 서정시의 하나로 되였다.

이 시에서 표현된 봉건적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에 대한 지향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것이였으나 여기서 노래된 《자유》에 대한 열렬한 갈망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로의 호소,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리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철저한것이였다.

이 시에서 노래된 자유는 송시 《자유》에서 제기된 자유에 대한 리상과 마찬가지로 근로인민을 위한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주로 부르죠아민주주의적인 자유에 대한 환상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시에서 노래된 미래에 대한 리상 역시 결코 근로인민을 위한 나라를 념두에 둔것이 아니라 부르죠아적자유가 일정하게 허용된 립헌군주제적인 나라에 대한 공상에 불과하였다. 여기에는 귀족문인으로서의 뿌슈낀의 계급적제한성이 반영되여있다.

농 촌

서정시 《농촌》(1819)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갈라지고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아름다운 농촌풍경이 묘사되고 후반부에서는 농민생활이 묘사되고 그와 결부되여 서정적주인공의 괴로운 심정과 농노해방에 대한 지향이 노래되고있다.

시의 앞부분에서는 번거로운 귀족사교계를 피하여 고요하고 아름다운 농촌에 찾아온 서정적주인공의 기쁨과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풍경이 찬양되고있다.

내 인사를 받아다오 쓸쓸한 시골이여!
평온과 로동과 령감의 보금자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활의 흐름이
행복과 잊음의 강바닥으로 흘러가는 곳이여

나는 너의것이여라 서느럽고 백화만발하고
나무 검푸른 이 과원을 내 사랑하노니
풀밭엔 높이 쌓인 향기로운 건초더미
덤불속으로 졸졸 흐르는 맑은 시내물
어데 가나 눈에 띄는건 생동한 풍경이니
나는 보아라 두개의 잔잔한 남빛호수며
거기서 번쩍이는 고기배의 흰돛
호수 저쪽의 첩첩한 언덕과 이랑진 밭고랑
멀리 흩어져있는 농가들

축축한 강반에 노니는 집짐승의 떼
연기서린 건곡장과 날개돋힌 풍차
그리고 어데고 가득찬 로동과 풍만의 자취

그러나 꽃피는 전야와 산들로 둘러싸인 그 어데서나 무지하고 참혹한 정경을 보고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은 괴로움에 가득찬다.

그리하여 시의 뒤부분에서 시인은 포악한 지주들이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압박하는 무법천지를 격정에 넘쳐 규탄하고 지주들의 예속밑에 농민들이 강요당하고있는 비참한 생활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있다.

눈물에는 눈을 감고 신음에는 귀를 막고
사람들을 죽음에로 몰아넣을 운명을 타고난
횡포한 지주들이 무정하게도 무법하게도
농부들의 로력과 재물과 시간을 빼앗누나
강제의 채찍을 휘둘러—
그리하여 탐욕한 지주의 밭이랑에서 묵묵히 매를 맞으며
쟁기를 잡고 허덕이누나
여위고 굶주린 농노들이—
그들은 맘속에 희망도 취미도 자래울길 없이
죽는 그날까지 무거운 멍에를 메고 끄나니
여기서 젊은 처녀들 꽃이 피더라
잔인한 한 악당의 방탕을 위해—
늙어가는 어버이들의 미더운 기둥이며
근로의 벗들인 젊은 아들들
이들도 제집에서 끌려나오매
학대받는 노예의 무리 늘어만 가누나

다음부분에서 시인은 인민들이 압박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보장될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리상을 노래하고있다.

오 벗들이여! 과연 내 눈으로 볼것이냐?
억압받지 않는 인민들과
짜리의 칙령으로 해방된 농노들을
그리고 찬란한 자유의 조국우에
마침내 아름다운 서광 비칠것인가?

서정시 《농촌》은 야만적인 농노법의 비호밑에서 감행되고있던 짜리로씨야 봉건지주들의 죄행과 봉건적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당대 농민들의 처지를 비교적 진실하게 재현하고있다.

시는 농노들에 대한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있으며 지주들의 채찍밑에서 노예생활을 하고있던 당시 로씨야농노들의 비참한 모습을 시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나아가서 농노들이 해방되고 인민들이 자유롭게 살게 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있다.

이 시에서 시인이 가혹한 농노제밑에서 신음하고있는 농노들의 불행에 동정을 보내고 귀족지주들의 죄행을 폭로비판하였으며 농노해방을 지향한것은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시인의 립장은 황제의 자비로 가혹한 농노법을 페지하고 공정한 법으로 봉건지주들의 지나친 전횡을 제한할것을 제기하는 정도이상은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시인이 리상으로 노래한 찬란한 자유의 조국 역시 구체적인 표상이 없는 공상으로 머물고있다. 이 시 역시 그 진보적내용으로 하여 출판금지당하여 수사본으로 보급되였다.

씨비리로 보냄

씨비리의 광산 깊은 지하에 설망정
자랑높은 견인성 고이 지니라
그대들 리상의 숭고한 지향

고달픈 노력은 헛되지 않으리

불행의 진실한 벗인 희망
그는 어두운 땅굴에서도
용기와 즐거움을 깨우쳐주리
그리고 기다리던 때는 오리

사랑과 우정이 그대들을 찾아
검은 옥문을 뚫고 비쳐가리라
그대들이 갇히운 감방속으로
내 자유의 목소리 울려가듯이

무거운 철쇄들이 끊겨나가고
옥문이 부서질 때 문어구에서
자유는 그대들을 반가이 맞고
형제들은 장검을 들려주리라

《씨비리로 보냄》은 모스크바의 어느 한 귀족녀성이 《12월파》 폭동에 참가했다가 씨비리에서 류배살이를 하고있는 남편을 찾아떠났을 때 뿌슈낀이 씨비리로 보낸 서정시이다.

이 시의 제목은 시인자신이 붙인것이 아니라 후세사람들이 붙인것이다. 본래 이 시는 제목이 따로 없었으며 시의 첫행의 시구절을 따서 《씨비리의 광산지하에 설망정…》으로 불리워왔다.

뿌슈낀은 이 서정시의 앞부분에서 먼저 《12월파》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12월파》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이때로 말하면 뿌슈낀이 류배살이에서 풀려나오긴 했으나 봉건통치배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으면서 매우 고독하게 지내던 때였으며 1825년 12월에 있었던 《12월파》폭동진압후 반동공세가 강화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뿌슈낀은 이 시를 지어보냄으로써 자기가 여전히 《12월파》의 리상과 지향에 충실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멀리 씨비리에서 류배살이를 하고있는 《12월파》

인사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했던것이다.

뿌슈낀은 또한 씨비리의 광산 깊은 곳에서 고역에 시달리고있는 《12월파》의 귀족청년들을 향하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용기를 내여 굳세게 살아갈것을 당부하고있다.

시인은 나아가 시의 마지막부분에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될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과 그들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노래하고있다.

이 시는 4련 16행(매련 4행)으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정형시의 전형적인 구조인 4행을 한련으로 하면서 균형미를 갖추고있으며 시의 운률조성과 정서의 흐름이 순탄하고 밝은것이 특징적이다.

※뿌슈낀이 보낸 이 시를 받고 《12월파》시인 오도옙스끼가 씨비리에서 류배살이를 하고있는 《12월파》인사들의 이름으로 《신기론 거문고의 열렬한 음향이…》라는 답시를 써보냈다.

레닌은 1900년에 볼쉐비크신문 《이스크라》(불꽃)를 창간하면서 오도옙스끼의 답시에 있는 《한점의 불꽃에서 불길이 타오르리라》는 시구를 신문의 제명으로 리용하였다.

기념비

나는 인공으로가 아닌 나의 기념비를 세웠노니
그리로는 인민의 발길 그칠새 없으리라
그 탑은 굴함없는 머리 치여들고 창공높이 솟았도다
저 알렉싼드르탑보다 더 높이

아니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거룩한 거문고줄에 울린
나의 시혼 육체보다 길이 살아 불멸하리라
그리하여 나는 영광에 싸이리라—이 세상에
한사람만이라도 시인이 살아있다면

나의 명성은 위대한 온 루씨에 퍼져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민 내 이름을 부르리라
자부심 많은 슬라브후손도 핀족도
지금은 미개한 뚠그쓰인도 초원의 벗 깔믜크인도

나는 오래동안 인민의 사랑을 받으리라
내 거문고로써 어진 감정을 깨우쳤고
이 가혹한 세기에 자유를 찬양했으며
억눌린 사람을 동정하라 웨쳤으매

오, 나의 거문고여 신의 뜻에 순종하라
모욕을 두려워말고 영예를 탐하지 말라
칭송과 비방을 랭정히 받아들이라
미욱한자와 다투지 말라

《기념비》는 뿌슈낀이 세상을 떠나기 몇달전인 1836년 8월에 창작되였으나 시인이 죽은 후 4년만인 1841년에야 발표되였다.

이 서정시 역시 본래는 시제목이 따로없이 첫 시행을 그대로 따 《나는 인공으로가 아닌 나의 기념비를 세웠노니》라고 전해온것인데 후세사람들이 이 시에 《기념비》라는 제목을 붙여불렀다.

《기념비》는 뿌슈낀의 마지막시작품의 하나이며 그의 창작의 총화로 되는 작품이다.

시인은 이 시에서 자신의 창작생활을 총화하면서 그가 정력적인 창작활동으로 세워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는 로씨야황제를 기념하여 세운 탑인 알렉싼드르탑(뻬쩨르부르그의 궁정광장에 있던 탑)보다 더 높이 솟아있으며 그리로는 인민의 발길 그칠새 없으리라고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시인의 육체는 죽었어도 그가 남긴 시는 오래동안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후세에 길이 전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있다.

뿌슈낀의 서사시

뿌슈낀은 서정시와 함께 서사시도 여러편 창작하였다. 뿌슈낀의 서사시로서 《루슬란과 류드밀라》(1820), 《깝까즈의 포로》(1821), 《강도형제》(1822), 《바흐치싸라이의 분수》(1823), 《집시들》(1824), 《청동의 기사들》(1833) 등이 있다.

○상식○

랑만주의

작가, 예술인들의 희망과 리상에 따라 그들이 바라는것을 주로 조건적인 형식으로 그려내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예술의 창작방법 또는 문예사조.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고려시기 문학에서 랑만주의가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였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발전하였다. 유럽에서는 랑만주의가 19세기에 하나의 문예사조를 이루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적독자성을 띠고 발전하였다.

랑만주의는 적대계급사회에서 현실생활과 작가, 예술인들의 리상간의 모순과 대립에 기초하여 발생발전하였다. 랑만주의계렬의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회적모순과 불합리를 폭로비판하면서 실제로는 없지만 그렇게 되여야 한다고 보는 인간이나 생활을 현실에 대치시켜 형상하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랑만주의문학예술작품에는 그들의 주관적열정과 희망이 강하게 나타난다. 작품의 주인공

《루슬란과 류드밀라》는 인민구전문학의 줄거리를 가지고 인민들이 쓰는 소박한 입말로 쓴 랑만주의서사시이며 《깝까즈의 포로》와 《집시들》은 뿌슈낀이 남방에 쫓겨갔던 시기에 창작한 랑만주의서사시이다.

《깝까즈의 포로》에는 상류사교계의 썩어빠진 생활에 실망하여 자유를 찾아 남방으로 왔다가 체르께스사람들에게 포로된 한 로씨야귀족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있다. 서사시의 주인공—《포로》의 형상은 매우 모호하고 랑만적인 안개로 둘러싸여있으며 그의 성격은 불철저하고 모순적이다. 그러나 작품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는 점

들은 리상적인 인물이다. 상징법, 비유, 심한 과장, 날카로운 대조, 례외적인 갈등, 격동적인 언어표현, 자유분방한 서정 등이 고유한 묘사수법으로 되고있다.

랑만주의는 작가, 예술인들의 계급적립장과 사상관점, 사상미학적리상에 따라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랑만주의와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랑만주의로 갈라진다. 진보적랑만주의는 선진적인 계급과 계층의 사상과 감정,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모순되고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새로운 생활과 보다 좋은 미래에 대한 리상을 표현한다. 우리나라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 로씨야의 뿌슈낀의 서사시 《루슬란과 류드밀라》와 레르몬또브의 서사시 《동승》, 영국의 바이런의 서사시 《챠일드 해럴드의 편력기》, 프랑스의 유고의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등은 진보적랑만주의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반동적랑만주의는 멸망하여가는 착취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함으로써 현실도피사상과 복고주의, 종교적신비주의 등을 고취한다.

에서 특징적이다. 당시의 진보적평론은 이 서사시의 주인공—포로를 당대의 주인공으로, 그 시기의 진보적인 귀족청년들의 성격적특징을 일반화한 형상으로 간주하였다. 《집시들》은 뿌슈낀의 《남방서사시》에 속하는 마지막랑만주의서사시이다. 서사시의 주인공 알레꼬 역시 포로처럼 숨막히는 도시의 구속을 피하여 자유를 찾아 남방으로 온 로씨야청년이다. 뿌슈낀은 서사시의 주인공 알레꼬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불합리한 사회와 자유를 바라는 사람들사이의 갈등을 문명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자유의 품속으로 도주하는것으로써 해결하군 하던 랑만주의적공상의 허황성을 밝혀내고있다. 동시에 오직 자신만을 위한 리기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주의자 알레꼬의 형상에 인민출신의 인간인 집시로인의 형상을 대치시키고있다. 서사시 《청동의 기사》는 1824년 11월 뻬쩨르부르그를 엄습한 대홍수때 가난한 소관리 예브게니가 《청동의 기사》 즉 뾰뜨르1세의 동상과 충돌하여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다.

이 서사시에서는 로씨야의 운명에 대한 뿌슈낀의 철학적사색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인의 동정이 하나로 융합되여있다.

여기서 시인은 로씨야를 락후와 몽매에서 벗어나게 하고 근대적인 사회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뾰뜨르1세가 논 역할을 긍정하면서도 뾰뜨르1세의 개혁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것임을 자인하고 전제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립장을 취하고있다.

○상식○

《12월파》(제까브리스뜨)

《12월파》는 짜리전제제도와 농노제도를 전복하고 근대적인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것을 지향한 19세기초 로씨야의 선각적인 귀족, 장교, 지식인들의 비밀결사이다.

그들이 1825년 12월에 무장폭동을 일으킨것과 관련하여 후에 《12월파》로 불리우게 되였다.

뿌슈낀은 비록 이 결사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사상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일화○

진범인은 누구인가?

1837년 2월 뿌슈낀은 결투장에서 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38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치고말았다.

로씨야문단의 이름난 재사인 그가 어째서, 무엇때문에 그토록 이른 나이에 죽었는가? 온 문학계가 끓었다. 온 사회계가 끓었다.

이 시기 그는 시인으로서뿐아니라 재능있는 소설가로서 그 명성이 대단하였다. 한편 이때 그의 안해 나딸리야와 프랑스대사의 양아들인 근위사관 단떼스와의 《치정관계》에 대한 추문이 사교계뿐아니라 온 뻬쩨르부르그시내에 자자하였다.

원래 나딸리야 곤챠로바는 보기 드문 미인이였다. 1828년 12월 뻬쩨르부르그사교계에서 뿌슈낀은 그와 처음 알게 되였다. 사랑에 불붙은 뿌슈낀은 그 녀자에게 열정적인 청혼을 하여 한해만인 1831년 2월 18일 곤챠로바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뿌슈낀의 생활은 행복하지 못하였다. 안해는 시인의 높은 정신세계를 리해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허영에 들떠 사교생활에 심취되여있었다. 더우기 시인의 경제생활 형편은 곤난하였다. 이런 때에 단떼스가 나딸리야의 아름다운 용모에 반하여 그에게 접근했던것이다.

단떼스는 결투를 시도하였고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뿌슈낀은 결투에 나섰다. 총 한번 쥐여보지 못한 문인인 뿌슈낀과 직업적군인인 단떼스와의 결투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였다.

뿌슈낀의 비극적운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작가 레르몬또브는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격정을 누르지 못하고 즉시 펜을 잡고 시인의 죽음을 배후조종한 진범인이 뿌슈낀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오던 황제 니꼴라이1세와 그 추종자들임을 격분에 넘쳐 단죄하였으며 살인자에 대한 인민의 심판을 예고한 시 《시인의 죽음》을 썼다.

레르몬또브는 이 시를 쓴것으로 하여 박해를 받고 수도에서 추방되여 류배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뿌슈낀의 희곡과 단편소설중에서

보리스 고두노브

《보리스 고두노브》는 뿌슈낀이 1825년에 창작한 비극(극시)이다.

16세기말～17세기초 로씨야력사의 동란을 배경으로 정권쟁탈을 위한 봉건통치배들의 내부분쟁과 그에 대한 인민들의 태도를 보여준 력사극이다.

작품은 실지 있은 력사적사실에 기초하고있다. 보리스 고두노브는 로씨야력사에 실재했던 인물로 황제 표도르 이와노비츠의 통치시기(1584－1598)에 그의 처남으로서 사실상의 실권자였으며 황제가 죽은 다음에는 황태자(자기 누이의 아들) 지미뜨리를 암살하고 황제자리에 올라앉았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수도승 그리고리는 큰 야심을 품고 뽈스까로 넘어가 황태자 지미뜨리로 자칭하며 로씨야를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있던 뽈스까귀족들의 지원을 받아 로씨야에 침입한다. 보리스 고두노브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대귀족들의 배신행위, 인민폭동에 편승한 가짜 지미뜨리는 한때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황제자리에 오를수 있었으나 집권한지 1년만에 인민폭동에 의하여 망하고말았다.

뿌슈낀은 이러한 력사적사실을 충실하게 재현하면서 비극을 사상예술적으로 혁신적인 작품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황태자를 죽이고 황제가 된 보리스 고두노브, 처음에는 보리스 고두노브를 지지해나섰다가 형세가 불리해지자 그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며 가짜 지미뜨리와 뽈스까군대에게 문을 열어주는 슈이슈끼를 비롯한 대귀족들, 권세욕에 사로잡혀 외국군

대까지 끌어들여 나라에 재앙을 가져온 야심가 가짜 지미뜨리(그리고리)의 형상을 통하여 일신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신행위도 서슴지 않는 반동적인 봉건통치배들, 간신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봉건사회의 부패성을 폭로하였다.

작품은 또한 군중장면들과 대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극의 마감인 새 황제 지미뜨리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자는 귀족 모쌀스끼의 호소에 침묵으로 대답하는 민중의 형상을 통해 력사발전에서 노는 인민의 커다란 역할을 시인하고 민심을 거슬리고 인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전제군주는 무력하며 오래 가지 못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였다.

…우리가 어찌하여 강한지, 바스마노브, 귀공은 아시는지?
군대때문도 아니고 뽈스까의 원조때문도 아니요
민의, 그렇소! 민중의 뜻이요
귀공도 기억하고있을테지요 지미뜨리의 개선과
그의 평화적인 정복을
어데서나 총 한방 쏘지 않고
성시들을 순순히 내여주고
완고한 현감들을 서민들이 잡아묶는것을?

비극 《보리스 고두노브》에 담긴 이러한 반전제적인 사상은 당시의 봉건통치배들을 크게 놀래웠다. 황제 니꼴라이1세는 오래동안 이 작품의 출판을 금지시켰다.

작품은 1831년에 가서야 많은 내용을 줄이고 출판할수 있었으며 이 작품이 무대에 오를수 있은것은 뿌슈낀이 죽은 후 33년이 지난 1870년이였다.

비극 《보리스 고두노브》는 예술적인 면에서도 혁신적인 작품으로 되였다.

작품은 력사주의적원칙에 튼튼히 서서 지난날의 력사적사실들을 실지 있은 사건에 기초하여 폭넓고 생동하게 재현하고 력사적인 인

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시대감이 뚜렷하게, 진실하게 형상하였으며 낡은 고전주의극작법의 도식과 틀을 완전히 마스고 사실주의극작법을 구현하였다.

작품은 인민들을 그림에 있어서 쉽게 기만당하고 자연발생적이며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형상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로씨야극문학에서 사실주의의 길을 개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벨낀씨의 이야기

《벨낀씨의 이야기》는 뿌슈낀이 1830년 가을 볼지노마을에 머물러있으면서 약 40일동안에 써낸 5편의 단편소설을 묶은 단편집이다.

《벨낀씨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단편소설들은 봉건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러저러한 패덕과 모순, 허위와 기만, 특권계급의 전횡 등을 비판한 작품들로서 뿌슈낀창작의 민주주의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경향과 그의 산문창작의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발사》에서는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비겁한 귀족의 위선적인 내면세계를 발가놓았는가 하면 《농촌아가씨》에서는 무위도식하는 지주들의 어리석은 허영심과 변덕, 시기질투, 리기주의, 리해타산 등을 폭로하였으며 《관방주인》에서는 관을 팔아먹기 위해서 산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가짜널을 팔아먹는 관방주인의 형상을 통해서 장사치들의 치부욕과 기만성을 야유하였다.

《눈보라》는 지주계급의 완고한 편견으로 인하여 한 가난한 청년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면서 재산과 신분상의 불평등이 심한 계급사회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작품이다.

특히 당시 진보적평론계의 높은 평가를 받은 《역관지기》에서는 시골역관지기로인과 그의 딸의 운명을 통하여 가난하고 무권리한 하층인간들의 비참한 처지를 잘 반영하였다.

《벨낀씨의 이야기》는 산문을 소박하게, 간결하게, 명확하게 쓸데 대한 뿌슈낀의 주장이 뚜렷이 구현된 작품으로서 생활반영의 진실성, 갈등의 첨예성, 묘사의 간결성과 정확성, 소박성, 째인 구성과 꾸밈없는 언어구사를 가진것이 특징이다.

이 소설들은 또한 이전까지 주로 시문학이 발전하고 산문발전이 뒤떨어졌던 로씨야문학에서 사실주의적산문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가치있는 작품들로 되였다.

그러나 작품들은 포악하고 위선적이며 변덕스러운 귀족, 지주들을 비판하면서도 그들이 속한 착취계급자체와 그들이 주인노릇하는 착취사회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귀족, 지주들의 일부 패덕을 시정시키려는 립장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작가가 보여준 학대받는 하층사람들에 대한 동정도 귀족의 립장에서의 련민과 동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현대의 영웅

미하일 레르몬또브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현대의 영웅》(1840)은 19세기 30년대 로씨야봉건사회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주인공인 청년귀족장교 뻬쵸린의 형상을 통하여 당대의 사회적 질병을 해부하고 모순된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소설에는 주인공 뻬쵸린외에 2등대위 막씸 막씨미츠, 사관후보생 그루슈니쯔끼, 월리치중위, 녀성들인 벨라, 메리, 웨라 등이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소설은 주인공 뻬쵸린에 대한 이야기를 5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있다.

첫 소제목 《벨라》에서는 1인칭설화자 《나》인 작가자신이 깝까즈려행중 소박하고 인정많은 늙은 대위 막씸 막씨미츠를 우연히 만나 그로부터 뻬쵸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것으로 되여있다.

뻬쵸린은 막씸 막씨미츠가 지휘관으로 있던 요새의 멋쟁이소위였다. 그는 요새주변에 살고있는 한 령주의 딸 벨라를 사랑하게 된다. 그는 령주의 아들 아자마뜨를 꾀여 벨라를 유괴해오게 한다.

뻬쵸린은 설복과 선물, 얼림수로 벨라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한다.

뻬쵸린의 사랑을 잃은 벨라는 어느날 그를 짝사랑하던 도적 까즈비치에게 유괴당한다.

뻬쵸린이 추격하자 도적은 벨라를 칼로 찌르고 도망한다. 결국 벨라는 목숨을 잃는다.

두번째 소제목 《막씸 막씨미츠》에서는 작가와 막씸이 한 려관에서 뻬쵸린을 만나 그의 수기를 손에 넣게 되는 이야기와 그 수기의 내용을 펼쳐보이고있다.

…막씸과 작가를 랭랭하게 대하며 뻬쵸린은 스위스로 급히 떠난

다. 막씸이 그에게 뻬쵸린, 당신의 글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가고 묻자 뻬쵸린은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하고 떠나버리고마는 것이다.

다음 세번째 이야기는 그 수기에 따라 씌여진것으로 되여있다.

따만에서 흑해연안의 작은 항구도시 따만의 어느 한 집에 묵었던 뻬쵸린은 우연히 그 집 처녀를 알게 된다. 처녀는 뻬쵸린을 유인하여 작은 배로 바다에 나갔다가 익사시키려 한다. 간신히 빠져나온 뻬쵸린이 숙소로 돌아오니 그의 소지품은 다 훔쳐가고 없었다.

다음 《공작아가씨 메리》에서 깝까즈의 온천료양지 빠찌고르스크에 나타난 뻬쵸린은 도고하기 그지없는 아름다운 공작아가씨 메리를 만나게 된다. 요새의 사관후보생인 그루슈니쯔끼는 대단한 미인인 메리에게 매혹되여 처녀와 친해보려고 정신없이 날친다.

뻬쵸린은 처음 메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있다가 갑갑증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메리네 집에 드나든다. 이야기도 나누고 산보도 하며 춤을 같이 추는 과정에 그는 메리의 마음을 틀어잡는다. 그러자 메리를 사랑하던 그루슈니쯔끼는 질투를 하면서 둘을 모해하다못해 뻬쵸린에게 결투를 청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어느날 새벽 외진 곳에서 마주선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루슈니쯔끼가 먼저 쏘게 된다. 그러나 그의 탄알은 뻬쵸린의 무릎을 다쳤을뿐이고 그루슈니쯔끼는 뻬쵸린의 총에 맞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이 사건으로 하여 뻬쵸린은 N요새로 옮겨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작별하러간 뻬쵸린에게 공작부인이 메리와 결혼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건의한다. 대답을 피하고 메리와 직접 만난 뻬쵸린은 자기가 메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고 말한다. 격분한 메리는 당신을 증오한다고 소리치고 돌아가버린다.

다음 《운명론자》에서는 뻬쵸린이 요새부근의 까자크마을에서 한 중위와 운명문제를 놓고 도박을 한 일화가 이야기되고있다.

뻬쵸린은 요새부근의 까자크마을에서 한 두주일가량을 보낸 일이 있었다. 한개 보병대대가 주둔하고있는 마을에서는 장교들이 매일밤 주패놀이로 도박을 하군 하였다. 그도 도박에 끼우군 하였는데 거기에 모이는 장교들가운데서 월리치라는 쓰르비아인중위가 그의 주목을 끈다.

어느날 월리치는 숙명이란 있는가 하는 문제로 론쟁을 걸면서 그 자신은 숙명이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뻬쵸린은 그의 창백한 얼굴에 죽음의 징후가 나타나있는것 같은감이 나 《당신은 오늘 죽을것이다.》라고 말해준다. 중위는 그럴지도 모르며 또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대고 도박을 건다.

그는 소좌의 방에서 권총 한자루를 가지고 나와 50Rbl을 내놓으면서 뻬쵸린과 내기를 한다. 50Rbl을 걸고 만약 권총을 발사하여 자기가 죽으면 뻬쵸린이 50Rbl을 가지고 죽지 않으면 자기가 50Rbl을 가지겠다는것이다. 뻬쵸린이 응하자 그는 자신을 목표로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만 불발이였다. 그는 자기가 이겼다고 득의만면해서 50Rbl을 가진다. 다른 장교들이 장탄여부에 대해 의심하자 그는 창문에 걸어놓은 군모를 목표로 다시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번에는 발사되여 군모에 구멍이 난다. 그러니 월리치가 목

○일화○

쌀롱의 별이 아니라 자유의 새가 되고싶어

황제 니꼴라이의 부추김을 받은 아첨쟁이 궁중시인 쏠로구브가 어느날 레르몬또브를 찾아왔다.

《미하일 유리예비츠, 자넨 왜 궁중시인이 되여달라는 황제의 요청을 마다하나? 저마다 궁중시인이 되지 못해 애쓰는데 그렇게 되면 황제의 총애를 받을거구 사교계의 별이 될거네. 이런 자리를 거절하다니. 이보다 더 큰 출세가 어디 있나?》

숨을 건진것은 우연이였던것이다.

그런데 그날밤 월리치가 살해당한다. 거리에서 술에 만취된 까자크병사를 만나 그냥 지나가게 내버리면 일없을것을 누구를 찾는가고 물었더니 바로 네놈이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병사가 월리치를 군도로 벤것이다.

중위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사나이가 말한 그대로이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긴다.

그 말의 뜻을 리해한것은 뻬쵸린뿐이였다. 뻬쵸린은 장병들과 함께 중위를 죽인 살인자를 체포한다.

소설은 이렇게 몇개의 토막이야기로 끝난다.

소설의 주인공 뻬쵸린은 19세기 30년대 로씨야귀족계급의 일부 계층의 성격적특질을 체현한 전형적형상이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것에 대하여 랭담하고 그 무엇도 믿지 않으며 언제나 고독하게 지내면서 주위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덮어놓고 그들모두가 자기에게 복종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온갖 리기주의적행동으로 뭇사람에게 불행을 끼치고 아무도 몰래 객사하고만다.

작가는 뻬쵸린의 형상을 통하여 뿌슈낀이 1820년대에 창조한

궁중시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자기의 손발을 얽어매려는 황제의 속심을 꿰뚫어본 레르몬또브는 이렇게 말하였다.

《쏠로구브, 나같은 인간은 의무를 지키는것을 제일 견디기 힘들어 하오. 난 쌀롱의 별이 되기보다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의 새가 되고싶소. 그야말로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며 마음껏 노래부르는 산새가 되고싶단 말이요. 내 말을 황제페하에게 전해주시오. 바라는 사람들이나 궁중시인으로 쓰라구 하시오.》

《예브게니 오네긴》의 형상의 뒤를 이어 1830년대의 《무용지인물》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의 형상은 《12월파》귀족들의 리상이 희미해지고 반동공세가 강화되던 어두운 시기에 모순된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그러한 현실을 미워하면서도 자기가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일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탕진하며 파멸해가는 일부 귀족청년층의 성격적특징을 반영하였다. 25살난 그의 다음의 말에서 그의 내면세계가 잘 표현되고있다.

《저는 불행한 성격을 가지고있답니다. 교육이 저를 그렇게 키웠는지,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알수 없지요. 다만 내가 아는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면 나자신도 그에 못지 않게 불행하다는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위안되는 말도 안될것이지만 다만 사실이 그렇다는것뿐입니다. 첫 청춘시대에 내가 겨우 어른들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미친 사람처럼 돈으로 살수 있는 모든 향락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향락들은 곧 싫증이 났습니다. 그러자 나는 사교계에 몸을 던졌지만 그것도 곧 싫어졌답니다. 나는 사교계의 미인들과 련애도 걸고 또 사랑도 받아보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나의 공상과 자존심을 자극하였을뿐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것이였습니다. 나는 독서와 학문에도 손을 대보았지만 학문도 역시 권태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명예나 행복은 학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것을 알게 된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란 무식쟁이이며 명예란 요행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만 요령있는 인간이 되여야 하기때문이였습니다. 그렇게 되고보니 나는 더욱 권태를 느꼈던것입니다.

나는 곧 깝까즈로 조동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일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였습니다. 나는 체츠냐인들의 총알밑에서는 권태란 있을수 없다고 희망을 가졌었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한달이 지나자 나는 총알소리와 또 죽음이 가깝다는데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게 되였지요. 사실인즉 모기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신

경을 쓰게 되였고 마지막희망마저 잃어버렸기때문에 나는 이전보다 더 권태를 느끼게 되였으니까요. 그러니 벨라를 데려와 처음으로 그를 무릎우에 안고 그의 검은 머리채에 입맞추었을 때 나는 바보처럼 그 녀자야말로 자비로운 운명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인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것입니다. 미개한 녀자의 사랑은 귀족녀자의 사랑보다 낫지도 못했습니다. 한쪽의 무지와 소박성도 다른쪽의 교태와 마찬가지로 싫증나게 했습니다. … 나는 나라는 인간이 악당인지 바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정신은 사회에서 페물이 되였고 생각은 불안하고 마음은 흡족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모든것이 불만입니다.》

이 소설은 당대의 사회적질병을 해부하고 비판한 비판적사실주의작품으로 된다.

소설에서는 뻬쵸린의 형상에 소박하고 인정이 깊으며 성실한 막씸 막씨믜츠의 형상이 대치되고있으며 그의 형상속에 인민에 대한 작가의 신뢰가 표현되고있다.

작품은 당대 로씨야봉건귀족사회가 낳은 사회적질병의 한 측면을 객관적으로 해부해 보여주는데 그치고 아무런 리상도 제시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작가소개

미하일 유리예비츠 레르몬또브

레르몬또브는 19세기 전반기 로씨야의 이름난 비판적사실주의시인, 소설가의 한사람이다. 미하일 유리예비츠 레르몬또브(1814－1841)는 모스크바의 퇴역군인가정에서 태여나 3살때 어머니를 여의고 외할머니의 령지가 있는 뻰자현 따르하늬마을(현재 레르몬또브촌) 에서 자라났다.

그는 모스크바종합대학 정치도덕학과에 다니던 학창시절에 진보적학생들의 영향을 받아 전제농노제도를 반대하는 자유애호사상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이 시기부터 창작을 시작하여 뿌슈낀, 바이런과 같은 시인들의 영향밑에 서정시 《돛》(1832), 《이즈마일 베이》(1832)를 비롯한 진보적랑만주의시작품을 썼다. 그의 시들에는 《12월파》폭동이 실패한 후 1830년대의 반동기에 살았던 진보적인사들의 울분에 찬 심정이 표현되였다.

레르몬또브는 반동적인 교수들과 충돌한것으로 하여 1832년에 대학을 중퇴하였으며 뻬쩨르부르그로 가서 근위사관보기병사관학교에 들어갔다. 2년만에 학교를 졸업한 시인은 장교가 되여 기병련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면서 창작에 큰 힘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 귀족들의 무위도식과 무기력을 비판한 시극 《가면무도회》(1835), 수도의 소관리의 불쌍한 생활을 그린 미완성소설 《리꼽스까야공작부인》(1836), 로씨야인민의 애국주의를 노래한 장시 《보로지노》(1837) 등을 내놓았다.

레르몬또브의 생애와 창작활동에서 전환의 계기로 된것은 민족적시인 뿌슈낀의 비극적인 죽음에 충격을 받고 쓴 시 《시인의 죽음》(1837)이였다. 이 시에서 그는 황제를 비롯한 귀족통치배들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비렬한 음모적방법으로 뿌슈낀을 죽게 한것을 비난하면서

통치배들을 살인자로 단죄하였다.

그 당시 진보적사회층의 사상감정과 기분을 대변한 이 시를 쓴것으로 하여 레르몬또브는 일약 자유애호시인으로 유명해진 반면에 짜리당국에 체포되고 황제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멀리 깝까즈에 있는 련대로 추방되였다.

추방지로 가는 도중에 그가 쓴 서사시 《상인 깔라슈니꼬브의 노래》(1838)에는 압제를 반대하여 굴함없이 맞서나가려는 시인의 립장이 표현되였다. 동시에 이 시에는 사실주의적창작방법에 대한 그의 예술적탐구과정이 반영되였다.

레르몬또브는 그 다음해에 수도로 돌아가는것이 허락되였으나 통치배들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은것으로 하여 1840년에 두번째로 깝까즈로 추방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창작적열정이 불타올라 랑만주의적서사시 《동승》(1839)과 《악마》(1841), 사실주의적장편소설 《현대의 영웅》(1840)과 같은 유명한 작품들을 련이어 써냈다.

《동승》에서는 로씨야군인에게 포로되여 그루지야의 수도원에서 살게 된 깝까즈지방 소수민족의 한 소년의 형상을 통하여 자유는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을 노래하였다.

《악마》에서는 《천국》에서 쫓겨나 악의 씨를 뿌리고 신에게 항거하는 악마의 랑만주의적형상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그에 도전해나서는 반항자를 그리였다.

그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현대의 영웅》은 주인공 뻬쵸린의 모순된 성격을 통하여 당대의 반동적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레르몬또브는 반동적귀족통치배들이 꾸민 음모인 한 장교와의 결투에서 1841년에 27살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레르몬또브의 창작은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날 옳은 길을 찾지 못한데서 오는 고독감과 암담한 전도에 대한 비관주의적기분이 진하고 귀족적제약성을 가지고있으나 1830년대의 반동기에 《12월파》인사들과 뿌슈낀의 뒤를 이어 압제를 반대하는 반항정신을 견지하고 자유를 위한 투쟁에로 호소하였으며 재치있는 창작기교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19세기 로씨야진보적랑만주의적문학과 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레르몬또브의 시중에서

돛

《돛》은 레르몬또브가 1832년에 창작한 서정시이다.

1825년 《12월파》폭동이 실패한 후 1830년대의 반동기에 살았던 반봉건인사들의 울분에 찬 심정을 토로한 진보적랑만주의 작품이다.

푸른 안개 짙은 바다우에
외로운 흰돛 하나
그대 먼 이역에서 무엇을 찾느뇨?
그대 고향땅에 무엇을 버렸느뇨?

물결은 사납고 바람은 휘몰아쳐
돛대는 휘며 삐걱거린다
오, 그는 행복을 찾음도 아니요
행복을 피함도 아니노라

쪽빛보다 푸른 물결우에
금빛 태양 받들어 떠가는 저 돛
아 그 반란의 돛은 폭풍을 부르거니
폭풍속에서 안식을 얻으려는듯

시에서 망망한 바다우에 홀로 떠다니며 폭풍을 고대하는 《외로운 돛》의 랑만적형상은 전제농노제의 암흑속에서 자유를 동경

하며 폭정을 반대하는 폭풍을 기다리면서도 그 현실적바탕을 잃은 고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서정적주인공―1830년대 반봉건인사들의 사상감정과 기분을 우의적수법으로 표현하고있다.

동 승

《동승》은 레르몬또브가 1839년에 창작한 서사시이다.

수도원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한 동승의 자유를 위한 피어린 투쟁과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당대 현실을 비판거부하고 압박과 예속을 반대하는 투쟁의 리념을 찬양한 진보적랑만주의작품이다.

짜리로씨야의 압제를 반대하여 싸우던 한 종족출신의 소년이 어릴 때 로씨야군에 포로되여 그루지야의 오랜 수도원에서 노예적인 동승노릇을 강요당한다. 그에게 있어서 수도원은 감옥으로 여겨졌고 그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자유에 대한 갈망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차게 된다.

드디여 뢰성벽력이 치고 소낙비 쏟아지는 어느날 밤 동승은 결심품고 수도원을 탈출한다. 그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 맹수가 살판치는 무서운 밀림속을 굶주림과 무서움을 이겨내면서 사흘동안이나 헤맨다. 그는 사나운 표범과 맞다들어 죽기내기로 판가리싸움을 하여 표범을 이겨내며 자신도 심한 부상을 입는다.

그러나 3일간의 방황끝에 밀림속에서 빠져나와 보니 그앞에는 또다시 저주로운 수도원이 나타난다. 그는 길을 잃고 밀림속을 헤매다가 빙빙 돌기만 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던것이다.

표범과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와 밀림속에서의 악전고투의 후과로 다 죽게 된 동승은 자기의 최후를 지켜보는 로승에게 자기를 고향 깝까즈산줄기가 보이는 높은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는다.

작품에서 동승이 노예살이를 강요당하고있는 수도원은 전제제도

의 감옥으로 화한 당대 봉건로씨야의 암담한 현실의 상징이며 동승은 이러한 현실을 반대하는 반항아이며 봉건적인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서는 인물의 형상이다.

주인공은 자기 생애를 총화하면서 자랑차게 웨친다.

나의 일생은 짧았고 그나마
포로의 일생이였소
허나 만일 할수만 있다면 나는
이전 두가지 생활을 하나의 생활
오직 투쟁에 찬 생활과 바꿀것이요

이 말에는 노예가 되여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는것을 더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는 주인공의 리상이 토로되고있다.

작품은 선행한 랑만주의시와 같이 시인자신의 주관적감정이나 일반적인 열정을 토로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주인공자신의 자체내부분석을 위주로 하고있다.

줄거리조직의 단순성,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독백과 대화의 결합, 굴곡이 많은 자연묘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구성상특징이 두드러져있으며 시어가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으며 운률은 류창하고 음악적이다.

이러한 사상예술적특징으로 하여 서사시는 로씨야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검찰관

희곡 《검찰관》은 로씨야작가 고골리가 1836년에 창작하고 무대에 올린 풍자희극(5막)이다.

작품은 1830년대 전제농노제도가 지배하던 짜리로씨야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가짜검찰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희극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당대 로씨야관료제도의 부패성과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행위를 신랄하게 풍자폭로하고있다.

희곡에는 뻬쩨르부르그에서 내려온 건달귀족 흘레스따꼬브와 그의 몸종 오씨쁘, 그들이 머물고있는 도시의 시장 드므하놉스끼, 시장의 처 안나와 딸 마리나, 재판소장, 자선기관 감독관, 학교감독관, 우편국장, 기타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로씨야의 어느 한 지방도시의 시장 드므하놉스끼의 집 응접실에 그 도시의 관리들과 지주들이 황급히 모인 가운데 시장이 위엄있게 입을 연다.

《여러분, 나는 당신들에게 아주 불길한 소식을 전해주자고 이렇게 모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검찰관이 오고있습니다.》

시장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놀라면서 《무엇이라구요, 검찰관이요？》 하며 안절부절한다.

시장은 발언을 계속한다.

《뻬쩨르부르그에서 미행하여온다오. 더군다나 밀령장을 가지고 말이요.》

사기와 협잡, 부정부패에 이골이 난 도시관리들은 모두 가슴이 덜컹하여 눈만 껌벅거리는데 지주들이 한주일째나 려관비도 내지 않는 이상한 손님이 있는데 수도 뻬쩨르부르그에서 내려온 사람이 분명한것 같다고 말한다.

그럴수 있겠다고 단정한 시장 드므하놉스끼는 그 려관에 자신이

직접 나가보겠다면서 자기들이 처먹은 뢰물만 아니라 국가재산을 횡령한것도 반드시 숨겨야 한다고 관리들에게 타이르다가 모자를 헛갈려 바꿔쓰는 등 추태를 부린다.

갈은 시간에 려관에서는 몰락한 수도귀족의 자식인 건달군 흘레스따꼬브가 도박으로 주머니를 죄다 털려 끼니도 잇지 못하고있다가 시장이 려관에 나타났다는 말을 듣자 중얼거린다.

《큰일났구나. 나를 감옥살일 시킬 모양이지. …에라, 나두 모르겠다. 될대로 돼보라지. …기왕이면 한번 맞서볼 판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장이 그보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권고하는것이였다. 흘레스따꼬브는 마음을 가다듬고 내쏜다.

《감옥으로 가자는게요? 음, 그렇다면 난 이를 내무대신에게 고발할테다.》

그러자 시장은 《제발 저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한번만 용서해주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범한 죄행들을 스스로 실토한다.

이렇게 되여 백수건달군인 흘레스따꼬브는 뜻하지 않게 《검

○상식○

《검찰관》의 희극적수법

고골리의 희곡 《검찰관》의 희극적수법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형상으로 부정적리면을 까밝혀 웃음을 일으키게 한것이다.

물론 이 수법은 이미 이전에도 알려진 수법이다. 그러나 고골리는 그 기존수법에 의거하면서도 부정이 부정을 업어넘기는 특징을 파악하여 종래 희극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양상의 희극을 창조하였다.

찰관》대우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그자는 《검찰관》답지 않게 시장에게 돈을 꾸자고 할뿐 아니라 투전판이 어데 있느냐고 묻기까지 한다.

시장은 오히려 이 기회를 좋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200Rbl을 주는척 하면서 실지는 400Rbl을 준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꾸며댄다.

《우리 도시엔 투전판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할래기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우린 자선병원 하나를 잘 운영하고있사온데 몸소 시찰하시지요.》

시장네 집에선 수도에서 검찰관이 왔다면서 시장의 처 안나와 딸 마리나가 몸치장을 하면서 야단법석한다.

이윽고 흘레스따꼬브를 앞세우고 시장일행이 출두한다. 자선병원에 가서도 술을 량껏 마시고 취한 흘레스따꼬브는 뿌슈낀과 친구사이로서 그 무슨 작품을 썼다느니, 어느곳의 군사령관으로 가라는걸 아직 나이가 지내 젊어 사양했다느니 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지만 상대들은 죄다 곧이듣는다. 그러자 흘레스따꼬브는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돈을 꾸자고 한다. 이것은 귀족건달군인 이자

고골리는 부정인물들에게 행동을 부여하며 그들스스로가 너울을 벗고 관중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구성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고골리는 등장인물들의 대사구사에서도 개성적인 특징을 부여하였다. 흘레스따꼬브는 경솔하나 말이 많고 자연스럽게 허풍을 치며 또 시도 읊어보이는가 하면 시장 드므하놉스끼는 말수더구가 적으나 저속하게 틀을 차리는것으로 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이와 같이 고골리는 생활적인 입말을 활용하여 대사를 구사함으로써 로씨야의 민족연극을 새로운 궤도우에서 발전시켰다.

의 본성이다.

그에게 돈을 찔러주는 관리들과 지주들은 또 저들대로 리해관계를 노리고 청탁을 들이대면서 그자리에 없는자들의 비행을 고자질하면서 비방중상한다.

흘레스따꼬브는 그자들에게 다 만족을 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곧 편지를 쓰겠다고 하면서 옆방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기대로 시내의 상인들이 몰려와서 시장의 략탈적인 세금징수를 폭로한다. 흘레스따꼬브는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자들한테서도 또 많은 돈을 꾼다. 뒤이어 시장한테 봉변을 당한 아낙네들이 와서 신소한다. 시장은 아낙네들을 쫓아버리며 그년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한다.

한편 시장의 딸은 흘레스따꼬브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흘레스따꼬브는 청혼하여 쾌히 승낙을 받는다.

시장은 자기가 장차 수도에서 큰 벼슬하는 사위덕으로 뻬쩨르부르그로 가겠노라 호언장담한다.

며칠간 예상치 않던 큰 소득을 얻은 흘레스따꼬브는 이웃도시에 갔다가 이틀후에 돌아오겠다고 하고는 영 떠나가버린다.

검찰관을 사위로 삼았다는 소문을 듣고 온 도시의 관리, 장사치

○상식○

비판적사실주의

사실주의발전의 한 단계를 이루는 근대 및 현대의 진보적인 문학예술사조.

비판적사실주의는 자본주의사회나 붕괴기에 처하고있던 봉건사회의 모순이 드러나고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일정에 오른 시기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인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발생발전하였다.

비판적사실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에 기초하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의 모순과 불합리, 붕괴기 봉

들이 시장네 집으로 몰려가 흥성거린다. 그속에서는 미욱한 시장을 시기, 질투, 비방하는 말들도 튀여나온다. 그러나 시장은 악대를 불러 무도회를 벌려놓는다.

이때 한평생 우편국장노릇을 해가면서 오고가는 남의 편지를 몰래 뜯어보면서 뭇사람들의 비밀을 미리 냄새맡는데서 재미를 보군 하던 우편국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긴급비밀》을 전한다. 그것은 흘레스따꼬브가 이 도시를 떠나면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몰래 뜯어보았는데 알고보니 그자는 검찰관이 아니라 가짜라는것이다. 너무도 놀란 시장이 노발대발하며 우편국장을 체포투옥하겠다고 을러멘다. 그래서 우편국장이 그 편지를 그대로 읽는데 그 내용인즉 자기를 진짜검찰관으로 보는 시장과 도시관료배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일확천금하였으므로 도박장에서 다시 만나자는것이였다. 그러자 그 편지가 진짜라느니 가짜라느니 하는 소동이 또 벌어진다.

그러한 때 헌병들이 등장하여 엄숙하게 선포한다. 뻬쩨르부르그에서 특명을 받고 내려온 검찰관이 시장을 부른다고…

헌병의 말이 떨어지자 시장을 비롯한 관리들과 시장의 처 안나, 딸 마리나 등이 한순간 모두 화석처럼 그자리에 굳어진다.

작품은 시장을 비롯한 관리들의 희극적형상을 통하여 짜리로

건제도의 파국적모습을 폭로비판하는것을 기본창작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악의 근원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한편 비판적사실주의계렬의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창작에서 고대, 중세문학예술에서 볼수 있었던 신화적, 중세기적환상과 형상의 격식화, 류형화를 극복하고 현실에서와 같이 구체적이며 생동한 예술화폭, 성격과 생활의 론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진실한 인간성격을 묘사함으로써 사실주의적형상창조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의 라도향, 현진건, 로씨야의 고골리, 레브 똘스또이, 프랑스의 발자끄, 영국의 디킨즈 등이 그 대표적작가들이다.

씨야관료배들의 부패성을 강하게 풍자비판하였다.
작가는 희극에서 흘레스따꼬브를 검찰관으로 오판하게 되자 모든 등장인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검은 본성들을 드러내고 본래의 생활그대로의 모습을 펼쳐놓게 만들어놓았다. 그러므로 관객들은 이 극을 보면서 그 무슨 꾸민 연극을 보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
희극에 등장하는 시장은 상부에는 아부굴종하고 하부에는 호령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자기 리속만 채우는 사기군이다.
자선기관 감독관은 자선병원에 내려오는 자금을 횡령하여 환자들을 죽게 만든 악당이다. 재판소장은 뢰물을 받아먹고 재판에서 흑백을 전도하는것을 례사로 여기며 학교감독관은 학교안에서 새 사상이 전파될가봐 벌벌 떨면서 학교문을 거의 닫다싶이 하는 불한당이다.
작품은 이러한 부정인물들의 형상에 붕괴기에 처한 봉건로씨야통치배들의 부패성을 일반화하였다.
희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흘레스따꼬브 역시 봉건로씨야귀족들의 부패성을 까밝히는 풍자적형상이다.
검찰관이 아닌 《검찰관》 흘레스따꼬브는 전형적인 봉건귀족의 자식으로서 협잡으로 남의 등을 쳐먹는, 제밥벌이를 할 능력이 없는 기생충이다. 그러나 제정로씨야의 사회제도는 그를 굶기지 않는다. 작가는 여기에 작품의 핵을 심어놓고 형상을 펼쳤다. 만약에 흘레스따꼬브에게 허풍치는 재간이 없었다면 그는 망했을 것이며 《검찰관》이라는 풍자극도 생길수 없었을것이다. 허풍은 흘레스따꼬브의 주도적성격이다.
그러나 작가는 제정로씨야의 부패성을 풍자폭로하는데 그치고 그 근원을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썩고 병든 사회를 개조할 방도와 그를 담당할 진보적력량을 제시할수 없었다. 이것이 작품의 주되는 제한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리정부는 《검찰관》을 쓴 고골리를 위험인물로 지목하고 박해하였다. 그리하여 고골리는 《검찰관》을 발표한 후 외국으로 망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작가소개

니꼴라이 와씰리예비츠 고골리

고골리는 19세기 전반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다.

고골리는 산문령역에서의 뿌슈낀의 직접적인 계승자였다. 그는 뿌슈낀에 대한 회상기에서 《뿌슈낀의 조언없이는 아무것도 구상하지 못했으며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검찰관》과 《죽은 넋》의 소재도 뿌슈낀이 준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골리와 뿌슈낀은 뚜렷한 개성적차이를 가진 작가였다. 뿌슈낀이 아름답고 시적인것에 보다 많은 주의를 돌린 시인형의 문호였다면 고골리는 생활속에서 추악하고 저속하며 희극적인것에 예리한 주목을 돌리고 그것을 확대하여 그려낸 산문작가형의 문호였다. 고골리의 작품의 특징은 민족의 발전에 해로운것을 들추어내고 풍자조소함으로써 아름다운것을 긍정하고 리상적인것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것이다.

니꼴라이 와씰리예비츠 고골리(1809－1852)는 우크라이나 뽈따바현의 지주가정에서 태여났다. 네진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1828년에 뻬쩨르부르그에 올라온 고골리는 여러차례 외국려행도 하고 관청근무와 뻬쩨르부르그종합대학의 력사교원노릇도 해보았으나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1830년대 중엽부터 작가생활에 들어갔다.

그에게서 작가적재능을 발견하고 떠밀어준것은 뿌슈낀이였다. 1830년대초부터 고골리를 알게 된 뿌슈낀은 그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설화에서 취재하여 창작한 단편소설집 《지깐까근교마을의 밤이야기》(1831－1832)를 읽고 격찬하였으며 그후에도 많은 조언을 주었다. 고골리의 처녀작은 랑만주의적인 작품이였으나 벌써 그의 창작에서 특징적인 풍자적수법과 사실주의적필치를 나타내고있었다.

작가가 두번째로 발표한 소설집 《미르고로드》(1835)에 들어있는 작품들에 이르러 고골리의 사실주의적경향은 더욱 강화되였다. 여기에는 시골지주들의 속되고 무의미한 생활을 폭로한 단편소설 《낡은 풍의 지주들》과 《이완 이와노비츠와 이완 니끼포로비츠가 싸운 이야기》, 중편력사소설 《따라스 불바》 기타가 포함되여있다. 작가는 특히 《따라스 불바》에서 16세기에 우크라이나땅을 탐내던 뽈스까귀족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까자크련대장 따라스 불바를 비롯한 까자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당시 우크라이나까자크들의 애국주의와 자기희생성, 용감성을 보여주고 자기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고 개인보다 조국과 겨레들을, 목숨보다 자유를 더 귀중히 여긴 조상들을 찬양하였다.

같은 해에 발표한 소설집 《아라베스끼》(1835)와 그후에 쓴 중편소설 《외투》(1842)에서 고골리는 가난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로씨야문학을 민주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고골리는 소설외에 희곡도 썼는데 희곡 《검찰관》(1836)이 그 대표작이다.

고골리의 예리하고 신랄한 풍자작품들은 당시 진보적문학계의 지지를 받았으나 귀족지배층으로부터는 발악적인 공격을 받았다.

고골리는 1836년에 로씨야를 떠나 여러해 스위스, 프랑스, 이딸리아 등 나라들에 체류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1835년부터 쓰기 시작한 장편소설 《죽은 넋》의 창작을 계속하였으며 1841년에 로씨야로 돌아와 《죽은 넋》제1부(1842)를 출판하였다. 작품은 진보적사회계의 절찬을 받았다.

그러나 1840년대에 와서 고골리의 세계관에서는 보수적측면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농노전제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장성하는 투쟁에 공포를 느꼈으며 농노제도의 존재를 불가피한것으로 인정하면서 군주통치밑에서의 가부장적생활을 리상화하고 귀족지주들을 비롯한 착취자, 위정자들을 종교적으로 《교양》함으로써 부패몰락하여가는 로씨야봉건사회를 《구원》할수 있으리라는 반동적립장을 취하게 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은 장편소설 《죽은 넋》 제2부(미완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고골리는 심한 사상적혼란속에서 고민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상식○

자연파문학

1840년대 로씨야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류파.

고골리의 뒤를 이은 젊은 작가들의 창작을 특징지으면서 불리우게 된 말이다. 객관적현실을 자연그대로 묘사한다는데로부터 《자연파》라고 불렀다. 이 파의 특징을 정식화한것은 벨린스끼이다. 이 파에 속한 작가들의 작품집을 출판한 네크라쏘브가 《자연파》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류파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게르쩬, 쌀띠꼬브—쉐드린, 뚜르게네브, 곤챠로브, 네크라쏘브, 아.오스뜨롭스끼 등을 들수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작품에서 당시 로씨야의 전제농노제적현실의 모순과 사회계급적대립관계를 반영하였으며 착취계급의 기생충적생활방식과 그 부패성을 폭로비판하였다. 그들은 또한 하층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물론 그들의 사상정신적립장은 서로 같지 않았으며 게르쩬이나 네크라쏘브, 쌀띠꼬브—쉐드린과 같이 혁명적민주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창작을 진행한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뚜르게네브와 같이 부르죠아민주주의적립장에 가까이 서있던 작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로씨야의 전제주의적폭정과 농노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점에서는 일치되고있었다.

그들의 창작에는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등 서사적형태의 작품들이 대부분이였고 각계층 사람들의 성격과 풍속, 관습을 묘사한 실화작품도 적지 않았다. 소설 《누구의 죄인가?》(게르쩬), 《가난한 사람들》(도스또옙스끼), 《평범한 이야기》(곤챠로브), 《불행한 안똔》(그리고로비츠), 《엉클어진 사건》(쌀띠꼬브—쉐드린), 희곡 《집안사람들끼리야 셈이 틀리랴》(아. 오스뜨롭스끼), 작품집 《사냥군의 수기》(뚜르게네브) 등이 그 주요작품들이다.

자연파문학은 19세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황제페하도 법에 걸어야 하지 않을가요?》

어느날 고골리는 뻬쩨르부르그시 경찰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틀림없이 탐관오리들을 풍자폭로한 희곡 《검찰관》때문일것이라고 짐작한 그는 《부정부패를 척결할데 대하여》라는 황제의 칙령이 실린 신문을 찾아내여 품속에 찌른 후 경찰국으로 갔다.

아니나다를가 그를 만난 경찰국장은 《검찰관》을 당신이 썼는가고 따지면서 로씨야를 모독한 죄로 기소하겠다고 을러댔다.

《아니 내가 신성한 로씨야를 모독하다니요?》

《그래 로씨야관리를 모욕하고 조롱한것이 로씨야모독죄가 아니란 말이요? 그런 자유를 누가 주었는가?》

《나도 로씨야의 작가요. 우리의 로씨야를 좀먹고 병들게 하는 관리들을 비판하는것은 로씨야작가들의 권리요.》

《뭐라구? 그래 당신은 로씨야관리들을 모욕하고 짜리제도를 중상한 죄를 인정할수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좋소. 우리는 당신을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수밖에 없소.》

고골리는 사리로써는 통할수 없음을 알자 수를 바꾸었다.

《국장나리, 그러면 이 글을 쓰도록 나를 충동한 사람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해야 하겠지요?》

《그래 그게 누구요?》

《니꼴라이황제페하요.》

《뭣이? 황제페하께서? 여보, 허튼 수작을 마오.》
국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황제페하가 아니였던들 나는 〈검찰관〉을 쓰지 않았을거요.》
《페하께서 쓰라고 했단 말이요?》
《국장나리, 그래 당신은 페하께서 내린 칙령을 모른단 말이요?》
《페하의 칙령?! 칙령에 그런 글을 쓰라고 했단 말이요?》
《그렇소. 페하의 칙령이 나로 하여금 그런 글을 쓰게 했소.》
《함부로 페하를 모독하지 마시오. 페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란 말이요.》
그러자 고골리는 품속에서 신문을 꺼내들고 다음의 한 대목을 소리내여 읽었다.
《로씨야를 좀먹는 탐관오리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그들의 부정부패를 엄격히 척결할지어다.》
물론 이 칙령은 온갖 사회악과 부정부패를 일소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항의를 눅잦혀보려고 황제가 꾸며낸것이였다.
《국장나리, 나를 법으로 다스리겠거든 〈검찰관〉을 쓰도록 추동한 황제페하도 법에 걸어야 하지 않을가요?》
고골리의 계속되는 야유에 국장은 어쩔줄을 몰라하며 허둥거렸다.
《자, 난 가겠소. 똑똑히 알아두시오. 진짜 〈범인〉은 내가 아니요.》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난 고골리는 황제의 칙령이 실린 신문을 책상우에 놓은채 유유히 경찰국장방을 나섰다.

○일화○

사냥총이 소설 《외투》로 바뀌여진 이야기

한 관리가 고골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핀란드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몹시 즐겨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직무에는 아주 충실했어요. 그는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그처럼 소원하던 사냥총을 샀습니다. 그는 마음이 흡족해서 첫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연경치에 황홀해져 사냥할 생각은 잊고 한동안 멍청히 앞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보니 사냥총이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총은 간데없이 사라지고말았습니다. 극도로 절망한 그는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앓기 시작하여 얼마후에는 죽었답니다.》

관리는 통쾌하게 웃으며 가난한 사람을 비웃기 시작하였다.

잠자코 듣고있던 고골리는 버럭 성을 내며 그 관리를 질책하였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우습소?》

그후 고골리는 가난한 사람의 죽음을 비웃는 가증스러운 관리들을 폭로하며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되여 나온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골리의 중편소설 《외투》(1842)였다. 소설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 아까끼 아까끼예비츠가 되고 사냥총이 외투로 되였다. 관료제도로 말미암아 정신적불구자로 된 주인공은 중년이 되였으나 공문을 그대로 정서하는 재간밖에 가지지 못했다.

다 낡아빠진 외투를 새 외투로 바꾸기 위해 그는 눈물겨운 절약을 했는데 외투를 입은 그날밤에 강도에게 빼앗기고말며 비탄끝에 죽는다. 소설은 가난한 하급관리 아까끼 아까끼예비츠의 가련한 모습과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사회를 질식시킬뿐아니라 관리들을 정신적불구자, 기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짜리관료제도, 그 장본인들인 상층관료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하층관리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있으며 압박받는자들이 각성할것을 호소하고있다.

죽은 넋

장편소설 《죽은 넋》제1부(1842)는 니꼴라이 와씰리예비츠 고골리의 작품이다.

소설은 로씨야에서 전제농노제도를 반대하는 부르죠아혁명운동사조가 나타나고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19세기 30～4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치치꼬브라는 사기군이 죽은 농노를 사려 마차를 타고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잡으로 가득찬 흥정을 벌리는 과정을 려행기형식으로 보여주는것을 통하여 당대 봉건로씨야의 무능하고 썩어빠진 지주－농노주들을 폭로비판하고있다.

소설에는 치치꼬브와 지주 마닐로브, 꼬로보츠까, 노즈드료브, 쏘바께비치, 쁠류슈낀 등 농노주들과 현지사, 재판소장, 검사와 같은 짜리관리들 등 부정적인물들이 주로 등장하고있으며 인민대중,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현소재지인 어느 한 지방도시에 지독한 협잡군이고 수전노인 치치꼬브가 나타나는것으로 시작된다.

치치꼬브는 몰락한 귀족출신이다.

그는 애비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무엇보다도 일푼일전을 쪼개쓰고 아껴라. 돈이 세상에서는 제일이니라. …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수 있고 무엇이든지 성취할수 있느니라.》라는 말을 생활신조로 삼고 돈을 모으는데 자기의 모든 힘과 정력을 쏟아붓는 사람이다.

그는 로씨야봉건사회의 붕괴기에 빨리 발전해가고있었던 자본주의적상품화페관계가 낳은 새로운 성격의 체현자이다. 그는 돈이 제일 귀중하며 돈만 있으면 모든 소원을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깨달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자이다.

치치꼬브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바로 현소재지에 나타난것도 실지로는 죽었으나 문서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 등록되여있는 농노들을 헐값으로 사서 국가에 저당잡힘으로써 막대한 대부금을 받아 일약 백만장자가 되려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자는데 있었다.

치치꼬브는 시내에 일주일이상 머물러있으면서 현지사, 검사, 재판소장, 경찰서장 등 벼슬아치들을 방문하여 세련된 사교술로 그들의 환심과 신임을 얻은 다음 죽은 농노를 사려 마차를 타고 주변농촌으로 떠난다.

치치꼬브는 먼저 현지사네 야회에서 낯을 익힌 지주 마닐로브와 쏘바께비치를 방문하기로 작정한다. 마닐로브는 치치꼬브를 애교를 피우면서 반갑게 맞이한다. 마닐로브는 얼핏 보기에는 사람좋고 인사성이 밝으며 사교성이 있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농노가 몇명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령지를 거두는데도 관심이 없고 안일과 라태 즉 배불리 처먹고 하루종일 멍하니 공상에 잠겨있으면서 창문턱에 담배재를 묘하게 떨구는것을 취미로 하는 자이다. 그의 서재에는 2년째나 그가 읽고있다는 책의 14페지가 펼쳐진채로 있다. 무위도식하며 허송세월하는 마닐로브는 치치꼬브의 협잡에 쉽게 넘어간다. 마닐로브는 인구조사표를 제출한지가 오래 되였는데 그동안 죽은 농노가 아주 많았다. 치치꼬브가 흡족한 마음으로 실지로는 죽었으나 법적형식상으로는 살아있는 농노를 넘겨줄것을 제기하자 얼떨떨해진 마닐로브는 그것이 치치꼬브에게 유익하다면 좋도록 하자고 쾌히 승낙한다. 게다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에 몹시 흥분한 치치꼬브는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그의 집을 나선다.

마닐로브의 집을 떠난 치치꼬브는 마차를 타고 지주 쏘바께비치의 집을 찾아가다가 도중에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고 길을 헛갈린데다가 날까지 어두워져 하는수없이 어느 한 마을의 꼬로보츠까라는 녀지주의 집에서 하루밤 쉬여가게 된다. 그는 80명가량의 농노를 가지고있는 소지주였는데 과부로서 한푼두푼 돈을 모으는데 재미를 붙이고 살아가는 미욱한 촌로친네이다. 꼬로보츠까는 마닐로

브와 달리 경리에 극성스러운 지주이다. 그는 밤낮없이 흉년이요, 흉작이요 하고 우는 소리를 해가면서도 졸금졸금 돈을 모아 자기 리속을 채워가고있었다. 자질구레한 축적에 대한 욕심은 탐욕스러운 치부욕으로 변해간다. 그는 바깥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반신반의로 하여 완전히 그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고있었다. 그가 믿는것은 미신뿐이였고 아는것은 돈벌이와 치부였다.

그리하여 그야말로 완전히 기형적인 인간으로 되여버린 로친이다. 하기에 치치꼬브는 꼬로보츠까와의 흥정에서 진땀을 뺀다. 의심이 많은 녀지주가 죽은 농노를 사겠다는 그의 이상한 제기를 잘 믿지 않고 좀처럼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치치꼬브는 겨우 그를 설복하여 몇사람의 죽은 농노를 사들인다.

치치꼬브는 꼬로보츠까의 집을 떠나 쏘바께비치의 집을 찾아가다가 한 술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곳에서 검사네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은 일이 있는 노즈드료브라는 망나니귀족을 만나게 된다.

노즈드료브는 마닐로브와 같은 무능한 사회의 기생충이긴 하지만 자기 《힘》을 믿고 장마당, 술집, 투전판, 무도장, 연회장 등으로 돌아다니며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도 인정하지 않고 포악하고 파렴치한짓을 일삼는 패덕한이였다. 이놈은 마닐로브형의 지주들보다 더 위험하고 간악한자이며 자기의 《특권》을 내세우면서 백주에 공갈, 협잡, 학살행위를 서슴지 않는자이다.

이런 놈이기에 농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들씌우면서도 뻔뻔스럽게 행동하며 피땀이 어린 낟알을 술과 도박으로 날려보낸다.

그는 치치꼬브를 억지로 자기 집에 끌고가서 강다짐으로 도박을 하자고 한다. 치치꼬브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하인들을 시켜 때리려 들기까지 한다.

노즈드료브의 집에서 혼쌀이 나고 겨우 빠져나온 치치꼬브는 드디여 쏘바께비치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첫 인상에 신통히도 곰을 련상시키는 지주 쏘바께비치는 치치꼬브가 대상한 지주들가운데서 제일 만만치 않은자이다. 그는 몸집자체가 우직스럽고 흉물스럽게 생긴데다가 사는 집마저 든든하게 통나무를 꺾쇠로 박아 만들었다. 그는 자기에게 예속된 농노들의 이름과 특성, 그 재간까지 속속들

이 알고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더 큰 지주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되겠는가 하는데만 머리를 쓰면서 자기의 경리와 착취에 악착하게 달라붙으며 농민들을 교활하게 략탈하는 음흉하고 악착스러운 지주이다.
이놈은 사람들의 모임을 피하고 현내의 벼슬아치들을 모두 도적이라고 욕하면서 자기 둘레에 거미줄을 치고 인민들을 보다 간악하게 착취략탈한다.
그리하여 쏘바께비치는 죽어버린 농노마저도 비싼 값으로 팔아먹으려고 갖은 꾀를 써서 치치꼬브가 내겠다는 돈의 세배를 받고서야 죽은 농노들을 팔아먹는다.
치치꼬브는 마지막으로 지독한 수전노인 대지주 쁠류슈낀을 찾아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쁠류슈낀은 다 꿰진 넝마를 걸치고있다. 지독한 깍쟁이인 그는 자기 생활까지도 돈을 안쓰는 방향에서 하고 딸에게도 돈 한푼 안주는자다. 걸어갈 때에는 거리에 떨어진 모든것, 그것이 걸레쪼박이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주어간다.
그는 혈육보다 재물을 더 귀중하게 여기며 사람이란 모두 자기를 속이고 자기 재산을 뜯어내는 존재로 생각하기때문에 일체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으며 인간계의 무슨 곰팽이처럼 살아간다. 그런데 쁠류슈낀의 축적은 아무런 목적도 없는 무의미한것이며 그저 축적을 위한 축적일뿐이였다. 그리하여 한쪽으로는 축적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그것을 다 못쓰게 만든다. 밭에서 낟가리는 두엄더미로 되고말고 창고에서는 음식물이 썩어나며 천은 삭아 먼지가 되여버린다. 그의 경리는 완전한 정지와 침체, 황폐상태에 이른다.
쁠류슈낀은 로씨야농노제경리의 기생성과 그 파산상태를 상징하는 착취자로서 그들의 생활이 빚어놓는 인간개성의 붕괴와 기형화, 착취자들의 부패타락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과연 인간이 그렇게 허무하고 미미하고 비굴하게까지 타락할수 있을가, 그렇게까지 될수 있을가, 이것이 또 정말일가? 그렇다, 이것은 모두 정말이다.》
그토록 린색한 쁠류슈낀도 치치꼬브를 이기지 못한다. 치치꼬브

는 120명이나 되는 죽은 농노를 그에게서 사들이는데 성공한다.

이렇게 농촌을 돌아다니는 과정에 치치꼬브는 죽은 농노 400명을 사들인다.

협잡흥정을 마치고 현소재지에 돌아온 치치꼬브는 농노매매등기수속까지 끝낸다. 그러자 그가 당시 가격으로 100만Rbl어치나 되는 많은 농노들을 산 백만장자라는 소문이 온 시내에 퍼져 숱한 사람들이 그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게 된다. 이러한 속에서 현지사의 무도회에 초대된 치치꼬브는 지사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해서 아들딸을 낳고 자기 령지에서 행복하게 살것을 꿈꾼다.

그렇지만 도시에 나타난 꼬로보츠까와 노즈드료브에 의하여 죽은 농노매매사건이 폭로되는 바람에 치치꼬브는 현소재지로부터 황급히 도망치고만다. 그는 먼 벽촌으로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사기와 협잡을 일삼는다. 그는 배터지게 먹고는 자고 깨여나서는 또 먹고 하는 게으름뱅이 지주 쩬쩨뜨니꼬브, 거만한 퇴역장군 베뜨리쉐브, 미치광이관료주의자 꼬슈까료브대좌, 연회와 손님대접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지주 뻬뚜흐 등을 만나 온갖 감언리설로 많은 죽은 농노를 사들이는데 성공한다. 그런 다음 치치꼬브는 《리상적인》 지주 꼬스딴죠글로를 만나 그의 목가적생활에 탄복하고 자기도 그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의 소개로 치치꼬브는 파산당한 지주 흘로부예브의 땅을 손에 넣는다.

그러나 치치꼬브는 한 녀지주의 유언서를 위조하여 그의 유산을 사취한 죄가 탄로나 지방총독앞에 끌려가 심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우게 된다. 다행히 백만장자인 징수대변인 무라조브가 찾아와 죄를 뉘우치고 사리사욕을 버리라고 설교하며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준다. 그리하여 치치꼬브는 새로운 인간으로 갱생하여 이곳을 떠난다. 소설은 지방총독이 관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도덕적완성을 호소하는데서 끝나고있다.

장편소설 《죽은 넋》은 로씨야문학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로씨야의 락후한 농노제문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로씨야의 지주들을 그 장원과 경리속에서, 일상적인 세태생활을 통하여 다채롭고 폭넓게 그려낸 작품이다.

소설에서는 봉건로씨야의 썩어빠진 지주—농노주에 대한 폭로와 결부하여 봉건관료배들의 부패성이 풍자적으로 묘사되고있다.

소설에는 현지사, 재판소장, 검사, 경찰서장으로부터 하급관리에 이르는 지방급 짜리관료배들이 많이 등장하고있다. 이자들은 큰 관리나 작은 관리나 할것없이 모두가 돈과 직위, 공명과 출세, 뢰물과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못하는짓이 없다. 경찰서장이란자는 가게방과 음식점, 장마당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공개적으로 략탈을 하며 관리들은 뢰물을 먹고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날조하며 치치꼬브의 죽은 농노매매와 유언서위조사건을 놓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혼란을 조성하여 그 북새판에서 한몫 보려고 한다. 이자들의 녀편네들, 사교계의 《귀부인》들은 쓸데없는 겉치레와 허영심에 들떠있다. 이처럼 이자들의 안중에는 사회와 인민의 리익이란 티끌만치도 없으며 사기와 협잡의 무법천지가 그들의 활무대로 되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짜리관료배들의 부정부패가 사회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널리 퍼지고있다는것을 폭로하고있다.

소설에서는 특권계급의 예

○상식○

장편소설 《죽은 넋》의 주인공들의 성격을 풍자하여 생겨난 말들

《죽은 넋》에서 나오는 무위도식하며 허송세월하며 허황한 공상만 일삼는 마닐로브의 성격을 풍자하면서 그러루한 사람들을 가리켜 《마닐로브근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다.

사람을 믿지 않고 미신을 믿으며 돈벌이와 치부밖에 모르는 탐욕스럽고 린색한 소지주 꼬로보츠까는 말그대로 갑이나 통, 함을 축소한 명사로서 린색하고 담을 쌓고사는 사람들을 흔히 《꼬로보츠까》라고 불렀다.

지주 쏘바께비치는 로씨야말로 《쏘바까》 즉 개를 의미하는 이름인데 작가가 한 지주에게 이렇게 이름붙인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속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처지를 동정하고 그들의 재능을 일정하게 긍정하였으며 농노, 농민들속에서 자라나는 항거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인민의 형상은 삽화적으로, 그것도 귀족지주들의 이야기나 작가의 말속에서 나타날뿐이고 구체적으로는 묘사되지 못하고있다.

고골리는 당시 봉건로씨야의 지주—농노주들과 관료배들, 치치꼬브류의 새형의 착취자들의 악덕과 부정부패를 폭로풍자하면서 이따위 썩어빠진자들은 모두 사회의 진보에 적대된다고 단죄하였으며 사회악과 부정부패를 없앨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로부터의 출로를 찾고 자기류의 리상을 그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이 문제해결에 대한 옳은 대답을 찾지 못하였다.

소설은 또한 로씨야인민의 운명문제를 구체적형상을 통하여 사실주의적화폭속에 펼쳐보이지 못하였으며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전형화하는데서도 제한성을 나타냈다.

장편소설 《죽은 넋》은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이 담고있는 진보적내용과 함께 전형적인 환경속에서의 전형적인 성격의 창조, 째인 구성과 풍자적수법의 능란한 구사 등의 높은 예술적성과로 하여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소설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야릇한 의혹에 사로잡힌 치치꼬브는 마침내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나으리는? 자기 방에 계시나?》

《여기 주인이 있소.》

식료관리인이 말하였다.

《여기 어디?》

치치꼬브는 되물었다.

《아니 여보시오. 눈이라도 멀었소?》 하고 식료관리인이 말하였다.

《에이 참! 글쎄 주인이 나요!》

여기서 우리 주인공은 부지중에 뒤로 물러서서 그를 뚫어지게 뜯어보았다. 그는 별의별 사람들 지어는 나와 독자들은 아마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조차 적지 않게 보아왔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은 아직 본적이 없었다. 그의 얼굴이 별로 특별해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좀 메마른 로인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얼굴이였다. 다만 턱이 앞으로 몹시 나왔기때문에 상대자에게 침을 뱉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번번이 수건으로 가리워야만 하였다는것이 달랐을뿐이다. 조그마한 두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고 높이 자란 눈섭밑에서 핵핵 돌았는데 그것은 마치 어두운 구멍에서 뾰족한 주둥아리를 내밀고 귀를 도사리고 코수염을 까딱거리며 수고양이나 장난꾸러기머슴총각이 어디 숨어있지나 않는가 하여 내다보고 공기조차 의아쩍게 냄새맡을 때의 새앙쥐 눈깔과도 같았다. 훨씬 더 눈에 띄는것은 그의 차림새였다. 다시 말해서 그의 할라뜨(두루마기같은 실내옷 또는 잠옷, 고름이 없고 띠를 두른것)를 무엇으로 만든것인지는 아무런 수단과 노력을 다하여도 도저히 알아낼수가 없을것이다. 소매와 옷자락의 웃부분이 어찌나 때가 오르고 반들반들했던지 장화를 짓는 유프찌(로씨야에서 타르로 가공한 거치른 검은 가죽)와 비슷하였고 뒤에는 자락이 두개대신에 네개가 너불거렸고 거기서는 면실밥이 솜뭉치처럼 내밀고있었다. 그의 목에도 역시 긴양말짝인지 대님인지 아니면 배띠인지 어쨌든 넥타이만은 아닌 무엇인지 가늠할수 없는것이 감겨있었던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만일 치치꼬브가 이런 옷차림을 한 그를 어느 교회당 문옆에서 만났다면 필시 그에게 동전 한잎을 던져주었을것이다. 한것은 우리 주인공의 명예를 위하여 그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 한잎을 던져주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다는것을 말해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앞에 서있는것은 거지가 아니라 지주였던것이다. 이 지주에게는 천여명의 농노가 있었다.

장편소설 《죽은 넋》중에서

따라스 불바

《따라스 불바》는 고골리가 1835년에 창작발표한 중편소설이다. 16세기 우크라이나땅을 탐내던 뽈스까귀족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크라이나까자크들의 애국적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일생을 우크라이나의 해방투쟁에 바쳐온 까자크련대장 따라스 불바는 끼예브신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두 아들 오스따프와 안드리이가 까자크답게 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무사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단련시킬 목적으로 까자크군대의 집결처인 자뽀로쥐예 쎄치로 데려간다.

여기서 따라스 불바는 까자크들을 멸시하며 그들의 종교를 모욕하는 뽈스까귀족들을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쎄치에 집결된 까자크들을 총동원하여 뽈스까로 쳐들어가 총독이 도사리고있는 두브노성시를 공격한다.

이 전투에서 오스따프는 완강한 투지와 용감성을 발휘하여 군영대장으로 승진되나 안드리이는 끼예브에서 공부할 때부터 사랑하여온 뽈스까총독의 딸이 포위당한 성시안에서 굶어죽을 위험에 직면하고있다는것을 알고 먹을것을 가지고 그 녀자를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하여 안드리이는 자기 조국과 부모형제와 동료들을 배반하며 뽈스까장교가 되여 까자크들을 반대하는 칼을 잡는다.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따라스 불바는 기병부대를 거느리고 성밖으로 돌격해나온 안드리이를 추격하여 자기 손으로 그를 처단한다. 오스따프는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적들에게 체포되여 사형을 당한다. 군중들속에 섞여서 오스따프의 사형장면을 목격한 따라스 불바는 자기 아들과 전우들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또다시 까자크들을 거느리고 뽈스까귀족들을 공격한다.

뽈스까정부는 따라스 불바를 붙잡기 위하여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케 한다. 따라스 불바는 까자크들을 지휘하여 완강하게 대전하였으나 이미 량식도 떨어지고 기운도 진하여 마침내 적의 포위망에 걸려든다. 하여 그는 적의 손에 붙잡혀 화형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몸에 불이 붙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퇴하는 까자크들에게 방향을 대주며 그들이 쪽배로 무사히 드네쁘르강을 건느는것을 보고서야 마음을 놓고 최후를 마친다.

작품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당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크라이나까자크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성, 용감성을 보여주고 자기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며 개인보다 조국과 겨레들을, 생명보다 자유를 더 귀중히 여긴 조상들을 찬양하였다.

○일화○

하루도 빠짐없이

고골리는 화가가 만약 하루를 헛되이 보내며 소묘도 하지 않는다면 곧 붓이 무디여지는것과 마찬가지로 작가도 하루동안을 그저 보내면서 한가지 생각이나 하나의 느낌, 하나의 글감도 적어두지 않는다면 펜끝이 무디여져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언젠가 고골리는 한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짜 하루도 번지지 않고 쓰나?》

《그렇네. 매일 쓰지.》

《쓸것이 없는데두?》

《그건 공연한 걱정일세. 펜을 척 들고 왜 쓸게 없을가? 왜 쓸게 없을가? 이런 말을 두번세번 자꾸 쓰거든. 쓰기가 싫증날 때까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 무엇인가를 쓰게 된다네.》

끊임없이 사색하고 쉬임없이 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고골리의 창작기풍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이다.

전 야

로씨야의 이름있는 비판적사실주의작가의 한사람인 이완 뚜르게네브가 1859년에 창작하고 1860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전야》는 로씨야에서 전제농노제도를 반대하는 사회적기운이 매우 높아진 시기였던 1850년대 후반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은 로씨야의 사회생활에서 전환의 기운이 성숙된 시기에 사회운동을 이끌어나갈 인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시도하였다.

소설제목인 《전야》(전날밤)는 력사적인 변혁의 전야를 의미하고있다.

소설의 주요인물로 자립성이 강한 귀족가정의 처녀 옐레나, 가난한 평민이고 독립운동자인 벌가리아청년 인싸로브, 옐레나의 외사촌벌이 되는 조각가 슈빈, 슈빈의 친우이며 교수가 될것을 바라는 대학생 베르쎄네브, 귀족 꾸르나똡스끼, 옐레나의 부모인 스따호브부부 등이 등장한다.

소설의 이야기는 모스크바교외의 별장마을 꾼쪼보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여 벌어진다.

귀족출신의 퇴직장교 니꼴라이 아르쩨미예비츠 스따호브는 안해 안나와 함께 모스크바교외 꾼쪼보에 있는 별장에서 1853년 여름한철을 보내면서 안해의 조카벌이 되는 슈빈(조각가가 되려고 한다.)과 그 부근 별장에 방을 빌리고있는 슈빈의 친구 베르쎄네브(교수가 될것을 바라고있다.)를 알게 된다.

그 집에는 스무살난 옐레나가 있었다.

작품의 녀주인공인 옐레나는 비록 부유한 귀족가정에서 태여났으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동정하고 자기 문제를 자체로 해결해나가는 자립성이 강한 녀성이다.

귀족인 아버지는 타산적인 결혼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불행을 보면서 자라난 그는 아버지를 비판하고 어머니를 동정하며 자란다. 이런 생활환경은 옐레나에게 정의감과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대하는 태도와 자립적인 성격을 키워준것이다.

그는 또한 품성이 좋고 아름다운 녀성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으며 특히 청년들의 관심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속에서 슈빈과 베르쎄네브가 옐레나를 사랑하게 된다.

아름다운 용모의 소유자이지만 과격하고 경박한 그러나 재능이 있는 슈빈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선량하며 자기 희생도 할줄 아는 인간이며 교수가 되는것을 꿈으로 간직하고있는 베르쎄네브는 옐레나의 심장을 사로잡지 못한다.

이러한 옐레나앞에 새로운 인물 인싸로브가 나타난다. 베르쎄네브가 자기의 동창인 그를 초청한것이다.

베르쎄네브의 별장에 자리를 잡은 인싸로브는 그의 소개로 옐레나의 별장을 방문하게 되고 옐레나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인싸로브는 인물이 잘난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외국인이다. 그러나 그는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자기 조국, 벌가리아를 다시 찾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남다른 각오를 가진 열혈청년이였으며 조국에 대한 큰 사랑을 위하여 개인적인 사랑을 대담하게 버리는 애국적정열에 불타는 사람이다. 그의 이러한 고결한 정신이 옐레나의 마음을 끌게 된다.

한편 인싸로브 역시 옐레나에 대하여 남다른 감정을 품게 된다.

어느날 옐레나는 인싸로브와 이야기를 나눈다.

《저는 안드레이 뻬뜨로비츠로부터 당신의 경력에 대해서, 당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한가지 사실을, 한가지 몸서리치는 사실을 알고있어요. …당신이 그후 조국에 가셨다는것도 저는 알고있어요. …만약 제 물음이 불손하다고 생각하시거든 제발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가지 생각이 저를 괴롭히고있어요. …말씀해주세요. 그 인간을 만나셨는지…》

옐레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였다. 그는 자기의 당돌한 행동이 부

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다. 인싸로브는 약간 실눈을 하고 손가락으로 턱을 만지작거리면서 뚫어지게 옐레나를 바라본다.

《옐레나 니꼴라예브나.》

그는 드디여 말을 시작한다. 그 목소리는 옐레나가 흠칫 놀랄만큼 여느때보다도 조용하다.

《저는 당신이 어떤 인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만 합니다. 아니요, 그 인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자를 찾지 않은것은 저에게 그자를 죽일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눈 한번 깜짝 않고 그자를 죽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 생각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민족전체의 복수가 문제로 되고있는 때… 아니, 이런 말은 좋지 않습니다.… 민족해방이 문제로 되고있는 때에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에 방해가 될수 있었습니다. 때가 오면 그것도 무시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이날 옐레나는 그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조국에 대한 인싸로브의 열렬한 사랑에 대해서 뜨겁게 느끼게 된다. 그것은 옐레나에게 있어서 무서운 일이기도 했다. 그러한 인싸로브가 언제나 자기곁에만 있을수 없다는것을 알게 된때문이다.

옐레나는 자기의 사랑인 인싸로브의 조국—벌가리아말을 배우기로 결심하며 그것은 인싸로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

《저는 당신이 우리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시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학대받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나라가 얼마나 풍요한가를 아신다면! 그런데 그 국토가 짓밟히고 갈가리 찢기고있습니다.》

그는 저도모르게 두팔을 내저으면서 말한다. 그의 얼굴빛은 어두워진다.

《우리는 모든것을, 우리의 종교도 우리의 권리도 우리 강토도 죄다 빼앗겼습니다. 더러운 뛰르끼예놈들이 집짐승의 무리처럼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도살하고있습니다.》

《드미뜨리 니까노로비치!》 하고 옐레나가 부르짖자 인싸로브는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잇는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런 말을 랭담하게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방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느냐구?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또 사랑할수 있겠습니까? 신을 제외한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의혹을 초월한, 믿지 않을수 없는 유일한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조국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벌가리아의 마지막농부도 마지막거지도 그리고 저도 우리는 꼭같은것을 바라고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있지요.》

그들 둘사이는 이렇게 발전되여간다.

인싸로브는 자기가 옐레나를 사랑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자신을 억제하기 위해 곧 모스크바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것을 알게 된 옐레나는 떠나기 전에 자기를 꼭 만나달라고 부탁하고 약속된 시간에 그를 기다렸으나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몹시 실망한 옐레나는 비를 맞으면서 인싸로브가 거처하고있는 베르쎄네브의 별장으로 찾아 떠났다가 도중에서 우연히 인싸로브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격정에 넘쳐 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해버린다. 옐레나는 인싸로브가 가난하고 외국사람이며 로씨야에 있지 못할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언약하고 어데든지 그를 따라가겠다고 맹세한다.

사랑을 굳게 약속하고 인싸로브가 모스크바로 떠나간 뒤에 옐레나의 아버지는 어느날 사회적지위도 높고 돈도 많은 원로원 서기장 꾸르나똡스끼를 별장에 초청하여 옐레나의 남편감으로 삼으려고 선을 보였으나 이미 인싸로브를 사랑하게 된 옐레나는 조금도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

가을이 되자 옐레나의 일가는 다시 모스크바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무렵 옐레나는 몰래 인싸로브가 자리잡고있는 가난한 하숙방을 찾아가군 한다. 이때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인싸로브가 하루빨리 조국 벌가리아로 떠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들은 둘이 함께 떠날것을 약속하고 그 준비를 서두른다.

그런데 인싸로브가 옐레나의 려권을 해결하러 다니던중 찬비를 맞은것이 화가 되여 그만 급성페염에 걸려 중태에 빠진다. 마

침 베르쎄네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8일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앓아눕는다. 인싸로브가 회복된 후 기쁨에 겨워 그를 찾아간 옐레나는 그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옐레나는 그에게 재산도 없고 그와 결혼한다면 부모와 조국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인싸로브의 안해로 될것을 결심한것이다.

옐레나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된 그의 부모들은 위협도 하고 애원도 해보았으나 옐레나의 뜻을 꺾지 못한다. 마침내 부모들도 하는수없이 딸의 결혼을 승낙한다.

○일화○

뚜르게네브와 빠리미인의 대화

빠리사교계에서 제노라고 뽐내는 요염한 젊은 귀족부인이 교태를 부리며 뚜르게네브에게 물었다.

《뚜르게네브씨, 현대류행의 첨단에 서있는 빠리녀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뚜르게네브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런지… 짧게 지진 머리는 양털같고 퍼렇게 칠한 눈은 얻어맞아 멍이 진것 같으며 얼굴은 분을 너무 많이 발라 가루로 매닥질한것 같으니…》

《뚜르게네브씨, 선생은 너무하군요. 빠리녀성을 그렇게 모욕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뚜르게네브는 그의 말을 들은척도 않고 계속하였다.

《입술에 새빨갛게 연지를 바른것은 뭐 같은지 아십니까?》

《?…》

《잰내비의 그것…》

《뭐라구요?》

《그만합시다. 하하하…》

부인은 울상이 되고말았다.

드디여 11월 어느날 옐레나와 인싸로브는 베르쎄네브와 슈빈 그리고 옐레나의 아버지의 바래움을 받으며 모스크바를 떠나간다. 그들은 제3국을 통해 벌가리아로 들어가기 위해 제네바를 거쳐 이딸리아의 베네찌야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싸로브는 열병을 앓고난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혼한지 몇달만에 객지에서 운명한다.

옐레나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도 간절히 그리던 벌가리아땅에 남편을 묻기 위해 벌가리아로 간다. 그리고 남편의 조국이자 자기의 《조국》인 벌가리아를 위하여 몸을 바칠것을 결심하고 그곳에 남는다.

《전야》에 등장한 옐레나나 평민출신의 벌가리아청년 인싸로브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모든것, 약하고 불쌍한 모든것을 도와주려는 옐레나는 아직 고상한 리상과 결부되지 못한 막연하고 분별이 없는 박애사상의 체현자에 불과하다.

옐레나는 점차 그 어떤 더 큰것, 보다 더 고상한것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는 옐레나는 고민에 빠진다. 옐레나는 자기의 힘이 공허한 생활속에서 헛되이 사라지고있다는것을 느끼며 몸부림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에게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를 가르쳐줄 사람, 사소한 개인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에 관계되는 그러한 크고 거창한 사업을 줄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게 된다.

그는 그러한 리상을 함께 나누면서 보람있게 살수 있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를 모색하였다.

소설에서는 옐레나의 이 지향, 이 탐구가 이야기줄거리발전의 중심을 이루고있다.

슈빈과 베르쎄네브는 리론과 실천, 감정과 행동의 불일치로 특징적인 나약한 귀족지식인으로 형상되였다. 특히 꾸르나똡스끼

는 새로운 사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귀족생활제도를 대표하고있는 귀족청년이다.

작가는 이런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로씨야귀족의 《우수한》 대표자들로 자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로 될수 없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작가는 인싸로브의 형상을 통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인싸로브는 귀족이 아니라 평민출신이다. 그에게는 슈빈이나 베르쎄네브가 가진 공상이나 의혹, 동요나 나약성이 아니라 강철같은 의지와 실천력이 있으며 리상과 목적이 명확하고 훌륭하며 행동에서 열정적이고 결단성이 있다. 인싸로브는 자기 조국 벌가리아를 뛰르끼예압제자들의 기반에서 해방하는것을 자기의 리상으로 삼고있는 애국청년이다.

그는 압제자들에게 짓밟히고있는 자기 겨레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자기 조국 벌가리아를 외래강점자들의 기반에서 해방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리상으로 삼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었다.

또한 인싸로브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실천가였다. 그는 자기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동요함이 없고 물러섬이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부닥치는 모든것을 용감하게 물리치며 오직 그 리상을 향하여 돌진한다.

그는 로씨야에 망명해있으면서도 조국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며 조국이 부를 때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갖추고있다.

인싸로브의 이러한 고상한 리상과 풍모가 바로 옐레나를 감동시키고 그를 따르게 한것이였다.

이리하여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발견한 옐레나는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모든것을 다 버리고 인싸로브를 따라나서며 심지어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뜻을 이어 벌가리아해방투쟁에 참가한다.

작가는 이와 같이 녀주인공 옐레나의 형상을 통하여 로씨야사회

가 무엇을 희망하고있으며 그 갈망이 얼마나 절실하고 당면한것인가를 보여주었으며 인싸로브의 형상을 통하여 그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소설은 옐레나와 인싸로브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당시 로씨야의 진보적사회층이 요구하는 주인공,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인물은 나약하고 무능한 귀족지식인들이 아니라 고상한 사회적리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일하는 평민민주주의자들이라는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고결한 사랑에 대한 옐레나의 태도를 긍정하였다.

여기에 이 소설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뚜르게네브는 자기의 사상적제약성으로 하여 새로운 주인공인 평민사회활동가를 로씨야사람이 아니라 외국사람으로 설정함으로써 로씨야가 처한 시대의 주인공은 창조하지 못하였으며 옐레나를 로씨야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이러한 고상한 사업이 로씨야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립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작가는 변혁의 전야에 어떤 인물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제기하였으나 그런 인물자체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작가소개

이완 쎄르게예비츠 뚜르게네브

뚜르게네브는 19세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이름난 작가의 한사람이다.

이완 쎄르게예비츠 뚜르게네브(1818—1883)는 로씨야의 지방도시 오룔의 군인가정에서 태여나 뻬쩨르부르그종합대학과 베를린종합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으며 처음에는 학자가 될것을 지망했다가 중도에서 그 지망을 바꾸어 직업적인 작가가 되였다.

뚜르게네브는 작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던 초시기에 벨린스끼, 체르느쉡스끼 등 혁명적민주주의자들과 접근하고 로씨야인민을 전제농노제도의 질곡에서 해방하려는 그들의 지향에 동감을 표시하고 그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으나 그 방도를 농민혁명에서 본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찬동하지 않았다.

그는 혁명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로부터의 점차적인 개혁에 의하여 사회를 개조하려는 개량주의사상을 가지고있었으며 결국 귀족자유주의자의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뚜르게네브의 창작의 진보성과 제한성은 이로부터 흘러나오고있다.

그는 일찌기 대학생시절부터 창작을 시작하였으며 소설뿐아니라 시와 희곡 등 여러 형태에 걸쳐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렸다.

작가로서의 뚜르게네브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한것은 단편소설 및 실화문학작품집 《사냥군의 수기》(1852)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지주—농노주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밑에 있는 농노들의 비참한 운명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였을뿐아니라 농노들과 무권리하고 가난한 인민들속에 간직되여있는 정신도덕적아름다움과 창조적재능, 그들의 인격과 훌륭한 품성들을 개방하고 긍정해나섰다.

이 작품을 내놓은 후 1850년대 중엽부터 장편소설창작에로 넘어간 뚜르게네브는 몇해사이에 《루진》(1856), 《귀족의 보금자리》(1859), 《전야》(1860), 《아버지와 아들》(1862)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을 련이어 내놓았다.

《루진》과 《귀족의 보금자리》는 현실에 대하여 일정하게 비판적 태도를 가지기는 하면서도 귀족계급의 립장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로부터 사회적진보를 위한 그 어떤 사업도 하지 못한채 파멸하는 귀족출신지식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짜리로씨야의 부패성을 비판한 작품들이다.

《전야》와 《아버지와 아들》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던 시기에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답을 주려고 시도한 작품들이다.

뚜르게네브의 창작은 《아버지와 아들》이후 하강선을 긋기 시작하였는데 장편소설 《연기》(1867)와 《처녀지》(1877) 등 작품들에는 그의 창작에서의 모순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뚜르게네브는 우에서 본 작품들외에도 적지 않은 단중편소설들과 산문시를 남겨놓았다.

뚜르게네브의 창작은 일련의 모순과 제한성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담고있는 진보적인 사상적내용과 예술적가치로 하여 로씨야 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뚜르게네브의 작품중에서

무 무

《무무》는 뚜르게네브의 단편소설로서 반동적인 로씨야농노제도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유린당하는 농노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고있다.

어느 한 지주집에서 머슴을 사는 불쌍한 게라씸(벙어리)은 무무라는 개와 온갖 마음속고뇌를 나누며 살아간다. 주인에게 자기의 애인을 빼앗기고도 항변 한마디 못하고 무무와 그 아픔을 나눈다.

어느날 안주인은 무무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 자기에게 끌어오라고 분부한다. 녀주인이 무무를 쓰다듬어주려 하자 무무는 이발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린다. 변덕이 심한 녀주인은 당장 무무를 내쫓으라고 한다. 게라씸은 자기의 유일한 《동무》 무무를 내쫓을수 없어 숨겨놓고 기른다. 무무는 부주의로 다시 녀주인의 눈에 띄운다. 녀주인은 노발대발하며 무무를 당장 강물에 처넣으라고 호령한다. 게라씸은 괴로운 마음을 안고 무무와 함께 강가에 나간다.

《게라씸은 그 어떤 고통스러운 원한의 빛을 얼굴에 담은채 성급히 허리를 폈다. 그는 가지고온 벽돌을 새끼로 비끄러맨 다음 올가미를 만들어 무무의 목에 씌웠다. 그리고나서 개를 강우로 추켜들고 마지막으로 그놈을 들여다보았다. 개는 믿는듯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게라씸을 바라보며 꼬리까지 약간 젓고있었다. 게라씸은 외면하였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손을 놓았다.》

무무가 죽은 다음 게라씸은 녀지주에게서 결연히 떠나간다.

사냥군의 수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뚜르게네브가 쓴 《사냥군의 수기》를 보니 잘 썼다고, 감정이 풍부하고 인상적이라고 지적하시였다.

1852년에 발표된 《사냥군의 수기》에는 1인칭주인공을 설화자로 하는 여러편의 단편소설들과 실화문학작품들이 수록되여있다.

작품집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소지주 옵샤니꼬브》, 《두 지주》를 비롯하여 농노주인 지주들의 잔인성과 야만성, 위선과 부패타락을 폭로비판한 작품들이다.

또한 《령지관리인》, 《사무소》 등 지주들에게 붙어먹는 령지관리인과 마름따위의 중간착취자들이 어떻게 파렴치하게 농민들을 학대하며 공공연히 뢰물을 받아먹는가를 까밝힌 작품들이 들어있다.

작품집에는 《호리와 깔리늬츠》, 《예르몰리이와 방아간집녀자》, 《산송장》과 같이 농노제도하에서의 로씨야농민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반영하고 그에 동정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농민들의 재능과 좋은 품성을 긍정해나선 작품들이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작품집에는 그밖에도 《군의사》, 《레베쟌》 등 제정로씨야현실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작품들과 《베쥔벌》, 《수림과 초원》 등 자연에 대한 애착을 통하여 애국적감정을 표시한 작품들이 들어있다.

작품집은 부르죠아민주주의적인 립장에 서서 문제를 고찰하고 부르죠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데 그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선행시기 로씨야진보적문학에서의 농민생활묘사에 비하여 농노들의 생활을 보다 폭넓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농노제도의 반동성을 농민생활자체의 구체적자료에 기초하여 폭로비판한것으로 하여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일화○

단편소설 《무무》창작에 깃든 이야기

뜨르게네브는 어렸을 때부터 농노들을 구박하고 학대하는 농노주들의 잔인성과 포악성을 체험하였다. 그 체험은 수많은 농노들을 마소와 같이 부려먹는 부모들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시작된것이였다.

단편소설 《무무》는 작가가 생활체험과정에 농노들을 구박하고 학대하는 지주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창작한 작품이다.

뜨르게네브의 집에는 안드레이라고 부르는 벙어리농노가 있었다.

그의 힘은 비상하였으며 손이 어찌나 엄청나게 컸던지 그 농노가 어린 뜨르게네브를 두손으로 들어올릴 때면 그는 마차우에 올라앉은것처럼 편안한감을 느끼군 하였다. 한번은 그가 안드레이에게 안겨 그의 골방에 간적이 있었다. 거기서 그는 그 농노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처음 보게 되였다. 흰 바탕색에다 갈색반점이 얼룩진 자그마한 개가 안드레이의 침대에 엎디여있었는데 그 개가 바로 무무였다.

세도가 당당하고 고집이 센 뜨르게네브의 어머니 와르와라 뻬뜨로브나는 힘장사인 자기의 머슴군에게 각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그 머슴군은 언제나 훌륭한 옷차림을 하고다녔다. 그러나 주인마님 와르와라의 변덕증이 발작하는 순간에는 무자비했다. 자기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안드레이에게 그가 사랑하던 무무를 물속에 처넣으라는 잔인한 분부를 내리기를 서슴지 않았던것이다.

벙어리머슴군은 자기에게 가해진 가혹한 처사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머슴군은 몹시 슬퍼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주의조차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뜨르게네브는 벙어리가 쓸쓸해하는 모습과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것을 여러번 보았다. 사실 무무의 죽음은 벙어리머슴의 가슴속에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기였다. 그 심정을 지주나부랭이들은 리해할수 없었으며 또 리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 의해 짓뭉개지고 도외시될수록 벙어리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는 더 뿌리깊어졌다. 안드레이의 마음속깊은 곳에 숨겨진 그 쓰라린 상처에 대해 뜨르게네브는 깊이 공감했으며 후에 그것을 소재로 단편소설 《무무》를 썼다. 뜨르게네브는 소설에서 《게라씸은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없이 사자처럼 힘차고 활기있게 고향마을로 걸어갔다.》고 씀으로써 주인공의 가슴속에 가득차있는 귀족들에 대한 무서운 증오심을 보여주었다.

이 소설을 써냄으로써 뜨르게네브는 포악무도한 어머니, 나아가서 착취계급에 맞서나선것이다.

또다시 고향을 뒤에 두고

배가 고향 스빠스꼬예를 가까이 할수록 뚜르게네브의 가슴은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이국의 하늘아래에서 얼마나 그리던 고국 로씨야인가. 얼마나 안기고싶던 고향인가. 갑판에 서서 다가오는 산천에 눈길을 주며 그는 감개에 젖어있었다. 대지주이며 폭군인 아버지, 어머니와 결별하고 멀리 빠리에 가서 창작생활을 하던 그가 고향을 찾아오는것이였다.

《붕-》 고동을 길게 울리며 배가 강기슭에 닿았다.

체통이 큰 아버지와 성미가 사납고 키다리인 어머니가 농노가 펼쳐든 양산밑에 서있는 모습이 보이였다. 그뒤에는 수백명의 농노들이 차렷자세로 늘어서있었다.

뚜르게네브가 배에서 내리려는 순간 어머니가 《자, 시작!》 하고 큰소리로 구령을 내리자 700명은 실히 되여보이는 농노들이 일시에 두손을 흔들면서 《이완 뚜르게네브 만세!》 하고 웨쳤다.

삽시에 안색이 흐려진 뚜르게네브는 배에서 내릴념을 하지 않고 갑판우에 못박힌듯 섰다. 그는 자기를 환영해주는 농노들을 바라보았다.

얼굴에 주름이 밭고랑처럼 패인 늙은이들과 어린애를 안은 아낙네들, 맨발에 해진 옷을 입은 조무래기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만세》를 불러대고있었다.

젊은 축들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일에 내몰린것이 분명하였다.

여전히 그 아버지에 그 어머니라는 생각으로 모든것이 녹아내릴듯한 더위속에 서있는 농노들을 바라보는 뚜르게네브의 마음은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그립던 고향의 품에 안긴다는 기쁨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부모들

에 대한 반감만이 치솟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만 조용히 나와주어도 될 여기에 무엇때문에 숱한 농노들까지 끌어내여 만세를 부르게 하는가.

《배머리를 돌리게.》

뚜르게네브는 명령조로 말하고 객실로 들어가버렸다.

《저녀석이 이젠 지각이 들었나보다 했더니… 불효자식같은 놈.》

아버지가 투덜댔다.

《그 성미, 그 버릇이야 어데 가겠수.》

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말하였다.

배는 노기를 띠고 장승처럼 서있는 부모와 어안이 벙벙하여 서있는 농노들을 뒤에 남기고 돌아가고있었다.

멀어져가는 고향산천과 불볕에 말없이 서있는 람루한 농노들을 바라보는 뚜르게네브의 마음은 서글펐다. 그의 눈에서는 두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제비가 원을 그리며 날으는 못, 구수하게 풍기는 흙냄새와 건초냄새, 전야를 가꾸어가는 부지런하고 순박한 농민들, 고향생각이 가슴에 젖어들 때면 향수를 달래여 휘파람을 구슬피 불며 강가를 고독하게 거닐군 하던 뚜르게네브였다.

뚜르게네브는 대지주출신이였으나 간악한 지주들을 미워하였다.

임금처럼 권세를 휘두르며 농노들을 마소와 다름없이 부려먹는 부모에 대한 그의 반감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방종하고 거만한 아버지를 좀처럼 따르지 않았고 특히 녀왕처럼 도도한 몸가짐을 하면서 농노들을 노예처럼 여기는 고집불통이고 잔혹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존경심이나 그리운 생각을 가져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일찍부터 부모를 따르지 않고 미워했던 뚜르게네브는 그날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격분하여 고국을 남기고 이국땅으로 되돌아가고말았던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장편소설 《전야》와 같은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장편소설 《아버지와 아들》(1862)은 《전야》에서 제기한 문제를 이어받아 《로씨야의 인싸로브》에 대한 견해를 밝힌 뚜르게네브의 작품이다.

소설에는 주인공인 의학대학 학생 바자로브와 그의 벗인 귀족출신지식인 아르까지 끼르싸노브, 아르까지의 아버지 니꼴라이 뻬뜨로비츠, 큰아버지 빠벨 뻬뜨로비츠, 젊은 녀지주 오진쪼바 등이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소설의 이야기는 1859년 5월 20일 큰길옆에 있는 주막집앞에서 시골귀족지주 니꼴라이가 아들 아르까지를 기다리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르까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가 되여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을 받고 흥분된 아버지가 5시간이나 기다린다. 드디여 세필의 역마를 메운 려행마차가 나타난다. 아르까지는 마중나온 아버지를 뜨겁게 포옹한 다음 자기가 데리고온 친구 바자로브를 소개한다. 의학대학에 다니는 바자로브는 마침 방학기간이라 자기 집에서 놀다 가라는 아르까지의 초청을 받고 함께 왔던 것이다.

니꼴라이의 눈에 비낀 바자로브는 번듯한 이마, 코날이 밋밋하고 끝이 뾰족한 코, 약간 푸른기가 도는 큼직한 눈, 축 내리누운 구레나룻, 길쑴하고 여윈 얼굴을 가지고있었으며 은근히 활기있는 미소를 띄우고 자신만만하고 슬기로운 기상을 나타내고있었다.

호인인 니꼴라이는 아들과 함께 온 그를 귀한 손님으로 친절하게 맞이한다.

마리노촌에 있는 니꼴라이의 집에서는 처를 잃은지 오랜 그가 정

식결혼은 하지 않은채 페네치까라는 젊은 녀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사이에는 아들애 미짜가 태여났다. 또한 아르까지의 큰아버지 빠벨 뻬뜨로비츠가 함께 살고있다.

빠벨 뻬뜨로비츠는 컴컴한 영국풍의 옷에 신식넥타이를 매고 칠피반장화를 신은 중키의 사나이였는데 나이는 마흔이 지난듯 하였다. 짧게 깎은 흰 머리는 은빛으로 윤이 나보였고 신경질적이면서도 주름살이 없는 얼굴은 정교한 조각칼로 살짝 다듬어내기라도 한듯 유난히 단정하고 말쑥하여 놀랄만한 미모의 흔적을 보여주고있다.

바자로브는 첫 대면부터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임자의 그 백부는 참 괴벽스러운 사람인데. 이런 시골에서 그게 무슨 사치인가!… 그건 꼴불견이야. 케케묵은 낡은 격식이네!》

한편 아르까지의 백부도 처음부터 바자로브를 좋게 보지 않는다. 바자로브는 모든것을 자연과학적견지에서 랭정하게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일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예술, 사랑, 자연의 아름다움 등에 대해서도 허무주의적으로 대하고있었다. 그러니 《교양있는 귀족신사》인 빠벨이 그를 좋아할리 만무하였던것이다.

두주일쯤 지나간다. 마리노촌에서의 생활은 변함없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아르까지는 하는일없이 안일한 생활을 즐기고 바자로브는 꾸준히 연구사업을 한다. 집안사람들은 모두 그의 조폭한 태도며 퉁명스러운 말투에 익숙된다. 특히 페네치까는 그와 친숙해진다.

그러나 빠벨 뻬뜨로비츠만은 바자로브를 분수없이 거만하고 파렴치한 상놈으로 치부하면서 여전히 그를 미워한다.

하인들은 매양 바자로브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를 몹시 따른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어쨌든 자기들의 한동아리친구이지 나리님은 아니라는것이였다. 하인들의 아이들도 강아지새끼처럼이 《의사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닌다.

어느날 저녁 차를 마실 때 드디여 바자로브와 빠벨 뻬뜨로비츠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난다. 빠벨은 미리 단호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흥분에 가슴을 설레이면서 객실로 내려간다. 말싸움의 계기로 된것은 이웃에 사는 한 지주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시한 작자예요. 귀족나부랭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자로브가 조금도 꺼리낌없이 한마디 던지자 둘사이에 격렬한 론쟁이 벌어진다.
바자로브와 그의 편에 선 아르까지가 객실에서 나간 다음 니꼴라이와 빠벨은 단 둘이 남아서 처음 한동안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빠벨 뻬뜨로비츠가 먼저 입을 연다.
《저런게 현대의 청년이야! 저런것들이 우리의 후계자들이란 말이야!》
니꼴라이 뻬뜨로비츠는 처음으로 자기와 아들사이의 간격을 명백히 깨닫는다. 그리고 그 간격이 날을 따라 점점 더 커지리라는것을 예감한다.
이튿날 바자로브는 아르까지와 함께 떠나간다. 바자로브는 군소재지에 들렸다가 부모네 집에도 갈 계획이였다. 마리노촌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떠나가는것을 섭섭해한다. 하녀 두냐샤는 눈물까지 흘린다. 그러나 늙은이들만은 안도의 숨을 내쉰다.
바자로브와 아르까지는 군소재지에서 안나 오진쪼바라는 녀지주를 알게 되며 그로부터 며칠 자기 집에서 놀고가라는 초대를 받고 그의 저택을 방문한다. 오진쪼바는 불과 29살밖에 안되는 과부로서 아름답고 지성적이며 자존심과 호기심이 강한 녀자였다.
바자로브는 허심한 태도와 신랄한 표현으로 하여 그 녀자의 마음에 들게 된다. 그 녀자는 그에게서 여태 보지 못한 새로운 그 무엇을 보았던것이다. 아르까지는 오진쪼바의 동생 까쨔와 친숙해진다.
바자로브와 아르까지는 보름동안을 오진쪼바의 저택에서 지내게 되는데 며칠 안되여 두 젊은이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 눈에 띄울만큼 오진쪼바의 호감을 받게 된 바자로브는 불안해하며 안달이 나한다.
그 집을 떠나는 전날밤 바자로브와 오진쪼바가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 서로 마음을 터놓는 과정에 바자로브는 자기가 그를 무턱대고 미칠 정도로 사랑하고있다는것을 고백하고만다. 그는 그 녀자에게 달려들려고까지 했다가 겨우 자제한다.
다음날 바자로브는 그 집을 떠난다.

같이 떠난 아르까지가 바자로브의 부모네 집에까지 따라간다.

바자로브의 부모는 조그마한 마을의 소지주였는데 그 집에는 방이 모두 해서 여섯칸밖에 없었다. 그들의 령지는 매우 작았고 농노도 20명정도밖에 안되였다. 바자로브의 늙은 부모는 외아들의 귀환을 미칠듯한 기쁨으로 맞이하며 넉넉치 못한 살림속에서도 아들과 그의 친구를 극진히 대접한다.

그러나 바자로브는 며칠만에 가볼데가 있다면서 다시 집을 떠난다.

그런데 큰 변이 일어난다. 빠벨 뻬뜨로비츠가 결투를 하자고 도전해나섰던것이다. 자존심이 강한 바자로브가 그에 응한다. 숲속 공지에서 결투가 진행된다.

이 결투에서 바자로브는 무사했지만 빠벨이 부상당한다. 이 일로 하여 바자로브는 그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간다. 고향의 부모들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하지만 바자로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 티브스에 걸려 죽은 농민의 시체해부에 참가했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감염되였던것이다. 바자로브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여간다.

그는 죽음을 면할수 없게 된것을 깨닫자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오진쪼바에게 련락을 띄운다. 곧 오진쪼바가 도이췰란드인의사를 데리고와서 진찰을 부탁했으나 가망이 없다고 한다. 바자로브는 죽기 전에 오진쪼바와 마지막대화를 나눈다. 그날저녁부터 완전히 혼수상태에 빠진 그는 그 이튿날 죽고만다.

로씨야의 한 벽촌에 조그마한 묘 하나가 생긴다. 쓸쓸한 이 묘에는 예브게니 바자로브가 묻혀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마을로부터 이미 파파 늙은 두 내외가 자주 이 묘를 찾아오군 한다. 이곳에 오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추억이 더욱 새로와진다.

장편소설 《아버지와 아들》의 중심에 놓여있는것은 주인공 바자로브이다.

뚜르게네브는 이 소설의 주인공 바자로브의 형상을 통하여 19세기 50～60년대 로씨야의 사회활동무대에 귀족을 대신하여 등장한 평민민주주의자들의 성격적특성을 그려보이려고 하였다. 그

러나 귀족자유주의자의 립장에 섰던 자기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평민민주주의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대했던 작가는 바자로브를 모순된 성격을 가진 인물로 그려놓았다.

바자로브의 성격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여되고있다.

바자로브는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은 보조사제의 손자이며 소지주의 아들로서 자기가 귀족이 아니라 평민임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안일하고 무위도식하며 허례허식에 가득찬 귀족들을 멸시하면서 어떤 권위앞에서도 자신을 굽히지 않는다. 바자로브에게 있어서 빠벨 뻬뜨로비츠는 《케케묵은 낡은 격식》대로 살아가는 괴벽스러운 사람이며 니꼴라이 끼르싸노브는 선량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다.

그는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낸다.

바자로브는 명석한 두뇌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언제나 실천활동을 지향하며 무신론자이며 자연과학애호가이다. 작가는 그의 외모마저 《자신만만하고 슬기로운 기상을 나타내고있었다.》고 쓰고있다.

다른 한편 바자로브에게는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게 나타나고있다.

그는 농민들의 운명에 무관심하고 예술도 사랑도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낄줄 모르는 교만하고 거치른 허무주의자로,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고 동요하며 아무런 동맹자도 없는 고독한 인물로 그려져있다.

여기에는 평민민주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사상도덕적우월성과 실천적능력을 평가하면서도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의 성격을 외곡한 작가의 사상계급적제한성이 반영되였다.

작품에서 바자로브의 형상에 대치되고있는 빠벨 뻬뜨로비츠와 니꼴라이 끼르싸노브, 아르까지 등의 형상은 19세기 60년대 로씨야귀족자유주의자들을 대변하고있다.

소설에서는 특히 언제나 컴컴한 영국풍의 옷에 류행넥타이를 매고 우아한 차림새로 다니며 위선적인 자유주의적언사를 쓰는 멋쟁이귀족《신사》 빠벨 뻬뜨로비츠의 형상을 통하여 낡은 귀족적

《원칙》을 고수하려는 귀족자유주의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니꼴라이 뻬뜨로비츠는 아무런 원칙도 없고 그 무엇에나 양보할 준비가 되여있는 자유주의자로, 아르까지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결국은 낡은것과 타협하고마는 자유주의자로 묘사되고 있다.

소설은 바자로브와 이들 귀족자유주의자들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로씨야의 사회문화생활에서는 귀족들, 귀족출신지식인들의 《주도권》이 허물어졌다는것과 그들보다 평민민주주의자들이 더 우월하다는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설은 19세기 50～60년대 로씨야의 형편을 반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문학사적의의가 있다.

장편소설 《아버지와 아들》은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당대 사회를 생동하게 반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의 인물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시대의 요구에 대답을 주고 로씨야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오블로모브

《오블로모브》는 19세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작가 이완 곤챠로브가 1847～1859년에 창작발표한 장편소설이다. 19세기 50년대 로씨야의 전제농노제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소설은 주인공 오블로모브의 형상을 통하여 로씨야의 농노주—지주들의 기생성을 비판하고있다.

소설에는 오블로모브와 그의 하인 자하르, 오블로모브의 친우 슈똘쯔, 슈똘쯔의 소개로 오블로모브가 알게 된 처녀 올가, 오블로모브와 결혼하는 아가피야 등이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뻬쩨르부르그의 어느 한 거리에 있는 살림집에 일리야 일리이츠 오블로모브라고 하는 서른이 갓 지난 풍채좋은 지주가 살고있었다. 그는 실내복차림으로 침대에 드러누운채 하루종일 아무 일도 안하고 놀고먹는 기생충생활, 먹고 마시고 자는것밖에 모르는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생활을 개선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블로모브가 이렇게 된것은 시골에 있는 령지 오블로몹까마을의 가부장적인 농노제적환경에서 자라나면서 그런 생활, 그런 습관이 굳어졌기때문이다.

그는 15살까지 고향집에서 여러명의 몸종들에게 둘러싸여 도련님으로 받들려 살았으며 옷을 입고 머리를 빗으며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는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유모와 몸종들이 해주는데 습관되다보니 무엇 하나 자기 힘으로 할줄 몰랐다.

그때까지는 마을서당에서 공부하였는데 15살이 되자 부모들이 그의 장래문제로 다투던 끝에 어쨌든 도시에 내보내여 대학공부를 시키기로 하고 모스크바에서 억지로 대학과정을 수료하게 한다. 그는 졸업후 뻬쩨르부르그의 관리가 되는데 규칙적이고 따분한 관리생활을 견뎌낼수 없어 2년만에 사직하고만다.

그는 신분으로 보면 귀족이고 관등급으로 보면 10등문관인데 뻬쩨르부르그에서 살게 된 후 어언 12년이 되는 때까지 이 도시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않고 살고있었다. 그의 유일한 하인인 자하르(50줄에 들어선 사람)도 천성적인 게으름뱅이로서 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오블로모브가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정도였다. 그러니 오블로모브의 집안꼴은 말이 아니였다.

이러한 때 오블로모브의 유일한 친우인 슈똘쯔가 나타난다.

안드레이 슈똘쯔는 오블로뽑까 이웃마을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오블로모브와 친근하게 지냈으며 대학도 함께 다녔다. 오블로모브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그는 어떻게 하나 오블로모브를 라태한 생활에서 건져보려고 애쓰고있었다.

슈똘쯔는 그 성격상 오블로모브와 정반대되는 사람이였다. 아버지가 도이췰란드사람인 그는 모든 점에서 깐깐하고 절도가 있었으며 실무능력이 높았다. 그는 늘 활동하였으며 분초를 아껴가며 일한다. 이러한 슈똘쯔가 오블로모브와 친할수 있은것은 오블로모브의 성격의 근저에 정직하고 선량한 요소가 있다는것을 통찰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을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슈똘쯔는 며칠동안 오블로모브와 함께 다니면서 그를 고독속에서 빼내고 사람들속에 뛰여들게 한다. 그는 오블로모브의 생활을 《오블로모브쒸나》(오블로모브근성)로 부르고 그속에서 오블로모브를 건져낼 방도를 생각하던 끝에 먼저 외국려행을 하고 그런 다음 시골에 내려가 령지를 정리할것을 권고한다. 그는 오블로모브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먼저 외국으로 떠난다.

그러나 오블로모브는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다.

슈똘쯔는 떠나기 전에 오블로모브를 올가라는 처녀에게 소개하고 올가에게 오블로모브에게 영향을 주어 그가 생활을 개선하도록 도와줄것을 부탁한다.

고모와 함께 살고있는 올가는 지성적이고 감정이 풍부하며 우아한 처녀로서 이성에 대한 사랑을 모르던 오블로모브의 마음을 뒤흔들어놓는다. 올가는 슈똘쯔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의식적으로 오블로모브와 접근하고 친숙해진다.

올가네 별장옆에 빈 별장이 있다는것을 알게 된 오블로모브는 아예 그 별장을 세내여 그곳으로 옮겨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올가와 함께 지낸다. 식사도 그 집에서 하고 처녀에게 책도 읽어주었으며 꽃도 가져다주고 호수와 산을 함께 산보한다. 올가가 부르는 노래가 특히 그의 마음에 든다. 그러는 사이에 오블로모브는 올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

올가는 자기의 사랑의 힘으로 오블로모브를 건져내고 새 사람으로 만들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 공상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올가는 오블로모브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와 약혼한다.

오블로모브는 다른 구역에 집을 빌려 이사한다. 집주인은 두 아이가 달린 30살의 과부 아가피야였다. 올가는 결혼할것을 제기한다.

그러나 오블로모브는 여러가지 구실을 대고 질질 끈다. 결혼식을 하자니 수중에 돈이 없고 기다리는 령지의 수입은 들어오지 않는다. 또 결혼과 관련되여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그를 당황케 한다. 자연히 올가와 만나는 회수가 줄어들고 만나자는 편지가 와도 앓는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지 않는다.

드디여 령지에서 기다리던 편지가 온다. 편지에 의하면 지금은 현금이 한푼도 없다는것이다. 빨리 령지에 내려와 수습해야겠다는것이다. 그러나 령지에 내려가는것을 엄두도 못내는 오블로모브는 아가피야의 오빠의 협잡에 넘어가 그가 소개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령지에 내려보내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그가 가도 령지를 정리하는데 적어도 1년은 걸린다는 말을 듣게 된다.

오블로모브는 올가를 찾아가 편지를 보이고 결혼을 1년 연장해야겠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오블로모브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그의 마음의 변화에 신경을 쓰던 올가는 깊이 생각한 끝에 파혼을 선포한다.

올가는 오블로모브에게 《당신은 죽은 사람이다. 내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진것이 잘못이다. 당신이라는 인물을 사랑한것은 그렇게 되여주었으면 하는 공상, 기대, 희망이였다.

당신의 생활을 생활이라고 할수 있는가? 사는 목적이 없지 않는가!

당신은 무슨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되였는가?》라고 울분을 토로하고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오블로모브는 한해동안 앓다가 겨우 회복되지만 슬픔은 점차 무언의 무관심으로 변한다. 령지에 내려간 대리인으로부터 수입이 올라오기 시작하나 그 수는 매우 적다.

오블로모브의 생일에 참가하였던 슈똘쯔가 오블로모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 사태를 간파한다. 300명이상의 농노를 가지고있는데 대리인이 한해에 1 500Rbl밖에 송금하지 않는것은 협잡행위라고 판단한것이다. 그는 오블로모브를 억지로 자기 집에 데리고가 신임장을 받아낸 다음 오블로몹까에 내려가 대리인을 내쫓고 자기 부하를 관리인으로 붙인다. 그러자 송금액수가 3배이상으로 증가된다.

하지만 오블로모브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된다.

아가피야의 오빠와 오블로모브의 나쁜 《친구》 따란체브가 협잡한 《채용증서》의 지불에 그 돈이 돌려졌기때문이다.

이런 때 슈똘쯔가 다시 나타나 협잡행위를 까밝히고 문제를 세워 사태를 바로잡아놓는다.

슈똘쯔는 오블로모브를 다 정리해놓은 령지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오블로모브가 너무나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기에 후에 가기로 양보한다. 슈똘쯔는 그후 몇년간 뻬쩨르부르그에 오지 않는다. 그동안 올가와 결혼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있었다. 그는 올가의 부탁으로 5년만에 다시 오블로모브를 찾아온다. 그사이 오블로모브의 생활처지는 대단히 좋아지고있었다. 그는 아가피야와 결혼하고 아가피야가 그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있었다. 아들애가 하나 생겼는데 슈똘쯔의 이름(안드레이)을 그애한테 달아준다. 그는 모든것에 만족하고있었다.

다시 5년이 지난다. 그동안 오블로모브는 세상을 떠나고 아가피야는 오블로모브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 슈똘쯔가 오블로몹까에서 나오는 수입을 전액그대로 해마다 보내왔으나 아가피야는 그 돈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아들애의 재산으로 남기게 한다.

소설의 주인공 오블로모브는 썩을대로 썩은 락후한 농노제도가 낳은 기생충적인 농노주—지주의 전형이다.

그에게 재능이 없는것도 아니였고 사회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싹이 없는것도 아니였다. 그는 마음씨가 곱고 선량하고 정직하며 비둘기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농민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소와 말과 같이 혹사하도록 허용한 농노제도는 농노들을 착취억압하는 농노주—지주계급자체를 불구화하고 타락시켰다. 농노제의 《혜택》으로 농노들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들의 피땀으로 기생적인 생활을 하게 된 지주들은 거꾸로 그 기생적인 생활양식탓으로 사상정신적으로 변질되고 불구화되여 무위도식속에서 멸망해갔다. 소설은 이러한 현실을 오블로모브의 형상속에 생동하게 체현시킴으로써 농노제도의 부패성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하기에 당시의 진보적인 혁명적민주주의평론은 이 소설을 《농노제도에 기인한 로씨야의 정신적마비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러나 매우 힘있는 항의》로 론평하였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오블로모브의 형상에 활동적인 부르죠아실무가 슈똘쯔와 활달하고 지성적인 처녀 올가의 형상이 대치되고있다.

소설은 썩어빠진 농노제적환경속에서 농노주—지주들이 정신도덕적으로, 경제문화적으로 퇴화되여가며 그속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날로 자라나던 당시 로씨야의 현실을 진실하게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내고있으며 미묘하고 섬세한 심리묘사를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오블로모브》는 귀족자유주의자였던 작가의 립장이 반영되여 낡은 로씨야의 부패성에 대한 비판이 더 심화되지 못하고 더 예리하게 되지 못하였으며 부르죠아실무가인 슈똘쯔의 형상과 올가의 형상을 리상화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오블로모브와 같은 전형적인 형상을 창조하고 농노제도의 추악성을 잘 드러낸것으로 하여 당시의 광범한 독자층에 영향을 주고 19세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로씨야에서는 이 소설이 나온 다음부터 《오블로모브쒸나—오블로모브근성》이라는 말이 하나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였다.)

시골의 태내에서 태여나 고향의 온화한 풍속습관에 둘러싸여 자랐으며 20년동안이나 육친과 벗과 지기의 포옹으로부터 포옹에로 넘어온 그는 뼈속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 푹 젖어있었으며 장래의 직장생활까지도 그 무슨 가정적인 일처럼 상상하고있었다. 즉 근무란 례하면 그의 아버지가 하고있던것처럼 수입이나 지출을 천천히 장부에 기입하는것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은 대체로 하나의 친밀한 가족을 형성하고있어 잠을 자고 깨여나도 서로의 안정과 만족만을 바라고있는것처럼, 관청에 다니는것도 반드시 매일 리행해야 할 의무적인 습관이 아니라 날씨가 나쁘거나 덥기만 해도 또 마음이 내키지 않기만 해도 언제든지 충분히 그리고 정당한 결근의 구실로 될수 있는것처럼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건강한 관리가 결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진이라도 일어나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그의 락심은 비상한것이였다. 그런데 분하게도 뻬쩨르부르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 홍수도 교통차단의 원인으로 되지만 그것은 혹간 있을뿐이였다.

그리고 《중요함》이라든가 《극히 중요함》이라고 겉봉에 쓴 문서봉투가 눈앞에 얼른거릴 때, 여러가지 조사자료나 발취를 맡거나 서고를 뒤지거나 사람을 바보취급하는것 같은 《각서》라는 명칭이 붙은 손가락 두개 부피의 장부를 쓰는 일을 알았을 때 그는 점점 생각에 잠기게 되였다. 게다가 언제나 빨리빨리 하고 재촉하였으며 모두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론가 서두르는것 같았다. 한가지 서류를 끝내고나서 겨우 짬이 생겼는가 했더니 마치도 큰일이나 난것처럼 즉시로 맹렬히 다음 일에 착수한다. 그것을 끝내면 또 다른 일에 달라붙는다. — 이렇게 언제까지나 끝이 없는것이다!

장편소설 《오블로모브》중에서

작가소개

이완 알렉싼드로비츠 곤챠로브

19세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작가의 한사람인 이완 알렉싼드로비츠 곤챠로브(1812－1891)는 씸비리스크(10월혁명후에는 울리야노브)시의 상인가정에서 태여나 1834년에 모스크바종합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하였다.

그후 재정성 무역국 관리, 출판검열관, 《북방소식》신문주필, 출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30년동안 관리생활을 하였다.

1867년에 사직하고 문필생활을 계속하다가 뻬쩨르부르그에서 사망하였다.

그사이 1852년부터 1855년까지 해군제독의 비서가 되여 세계일주항행에 참가한 일도 있다.

곤챠로브는 근무의 여가에 소설창작을 시작하여 평론가 벨린스끼의 영향밑에 첫 장편소설 《평범한 이야기》(1847)를 《쏘브레멘니크(현대인)》잡지에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끌었다.

소설에서는 농노제밑의 장원생활속에서 형성된 로씨야지주들의 공상에만 잠기는 무기력한 생활태도, 랑만주의적이며 감상주의적인 기질을 강하게 비판하고 새로 등장한 부르죠아계급의 성격을 묘사하였다.

이어 10여년에 걸쳐 대표작인 두번째 장편소설 《오블로모브》(1859)를 창작하여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소설은 주인공 오블로모브의 형상을 통하여 농노제를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그후 《오블로모브근성》이라는 말이 게으르고 무기력한 인물의 대명사로 생겨났다.

뢰 우

《뢰우》는 19세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극문학의 대표자인 알렉싼드르 오스뜨롭스끼가 1859년에 창작하고 모스크바의 극장무대에 올린 장막희곡(전 5막)이다.

작품의 사건은 《암흑의 왕국》으로 불리우던 19세기 50년대 짜리로씨야의 어두운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볼가강변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상업도시 깔리노브에서 벌어진다.

희곡은 완고하고 몽매한 상인가정의 착한 며느리 까쩨리나의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불합리하고 모순된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기운이 높아가고있었던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있다.

희곡에는 까쩨리나, 그의 남편 찌혼과 시어머니 까바니하(까바니나—메돼지고기), 시누이 와르와라, 이웃상인 지꼬이와 보리스, 그의 회계원 꾸드랴슈, 시계수리공 꿀리긴, 순례자로파 페꾸루샤 등이 나온다.

이야기는 이 도시의 큰 장사군이며 과부인 까바니하의 집안팎에서 벌어진다.

까바니하는 제 이름처럼 봉건과 종교적암둔성이 겹친데다가 드살이 센 늙은이이다.

아들 하나(찌혼)와 딸 와르와라가 있는데 아들에게 까쩨리나라는 미모의 처녀가 시집온다.

까쩨리나는 처녀시절에 명랑하고 다감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나 까바니하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서부터는 위축될대로 위축되여 조롱안에 갇힌 새같이 되여버린다.

어느날 찌혼이 어머니의 분부대로 장사일로 집을 떠나게 되였을 때 까바니하는 까쩨리나와 찌혼을 세워놓고 또 훈계한다.

까바니하—얘야, 바보같으니라구. 왜 그렇게 멍청하니 서있기만 해. 네 처에게 이제 네가 집 떠난 후에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구 오금을 꽉 박아줘야 할게 아니냐.

찌혼—어머니, 내가 말하지 않아두 저 녀자는 다 알구있다니까요.

까바니하—무슨 군소리냐. 어서 타일러라. 네가 하는 소릴랑 내가 좀 들어봐야겠다. 그리구 네 처가 그대루 처신하는가를 내가 지켜보겠단 말이다.

찌혼—(곁에 있는 까쩨리나에게) 까쨔, 어머님한테 말대꾸랑 하지 말라구.

까바니하—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시라구 일러라.

찌혼—까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야 하오.

이렇게 남편이 어머니의 말을 앵무새처럼 외우기만 하니 그앞에 서있는 까쩨리나의 립장은 더욱 난처하다.

도시에서 제일 돈많고 권세있는 상인들중의 하나인 까바니하는 매우 완고하고 고루한 아낙네로서 돈밖에 모르며 가족들에 대해서는 물론 주위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야만적인 폭군으로 군

○상식○

정 극

다양한 미적속성을 지닌 주인공과 그의 생활을 반영하는 극형식. 희극이나 비극에 비하여 생활반영의 범위가 훨씬 넓은것이 특징이다.

희극이 주로 희극적인것을 반영하고 비극이 생활에서 비극적인것을 반영한다면 정극은 희극적인것, 비극적인것도 반영하며 비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 정극적인것이 하나로 얽혀있는 생활도

림하고있었다. 게다가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을 지키느라고 눈을 밝히는 한편 며느리에 대한 시샘과 구박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실상은 며느리 까쩨리나가 아니라 딸 와르와라가 바람이 나서 이웃상인 지꼬이의 회계원 꾸드랴슈와 밤마다 싸다니는것도 모르고 아들과 며느리만 들볶는다.

아들 찌혼은 안에서는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밖에서는 주색에 빠지는 비겁하고 나약한자이다.

그런데 이런 남편이나마 장사일로 먼길을 갔으니 드살이 센 과부밑에서 시달리는것은 까쩨리나뿐이다.

어느날 뒤산에서 시누이 와르와라가 까쩨리나에게 우리 집에 시집을 잘못왔다고 동정해주게 되자 까쩨리나가 자기 심정을 고백한다.

《와르와라, 어째서 사람은 저 새모양으로 날지 못할가. 나는 가끔 새가 된것 같은 기분이 날 때가 있어. 산우에 오르면 정말 날것 같애. 손을 펼치고 뛰여가느라면 저절로 뛰여오를것 같거든. 내 한번 해볼가?》

이렇게 말하고는 앞으로 막 내달리는 까쩨리나의 앞을 와르와라

반영한다.

정극의 주인공은 대체로 시대의 선진적인 리상을 체현하고 자신의 목적의식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하고야마는 긍정인물이다. 정극에서의 갈등은 서로 대립되는 《사상적경향》들의 공개적이며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 표현되며 긍정의 승리로 끝난다. 정극은 정서적색채에서도 숭엄하고 영웅적인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극의 일반적특징으로서 시대와 작가에 따라 다르게도 표현된다.

정극은 비극이나 희극에 비하여 뒤늦게 발생하였으나 극예술의 주되는 종류로 되고있다.

가 막아선다.

한숨을 쉬며 까쩨리나는 다시 말한다.

《나는 본래 씩씩한 성미였단다. 그런데 시집와서 아주 시들어버렸어.》

경망스런 와르와라는 자기 오빠에게 환멸을 느낀 까쩨리나를 동정하던 나머지 이웃상인 지꼬이의 친척으로 잠시 놀러 와있는 청년 보리스와 까쩨리나를 만나게 해준다. 까쩨리나는 그가 교양도 있고 이 세계에 혐오감을 느끼고있는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희망을 걸고 가정적질곡에서 벗어날 길을 찾다가 끝내 그와 인연을 맺고만다.

그러나 보리스는 까쩨리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결단성이 없어 함께 새 생활을 꾸릴 생각은 못한다. 그로 하여 그들사이의 비밀사랑은 한갖 꿈으로 끝나고만다.

순진한 까쩨리나는 외지에 갔던 남편이 돌아오자 고민끝에 남편과 시어머니앞에서 자기 행실을 고백하고만다.

《저는 열흘동안이나 밤마다 놀러 다녔어요. …》

《형님은 거짓말을 하고있어요. 자기도모르는 거짓소리예요.》 하고 와르와라가 까쩨리나와 어머니사이에 끼여들었지만 까바니하는 노기등등해진다.

까쩨리나는 징벌을 각오한다.

번개가 치고 우뢰소리가 요란스러운 그날밤 까쩨리나는 떠나가는 보리스와 작별하고 자기 집뒤 볼가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 까쩨리나는 그토록 날고싶었으나 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제야 아들은 제 어머니에게 항변한다.

《까쨔를 죽인것은 어머니예요. 그렇단 말이예요. 어머니예요. 살인자는 어머니예요. …

까쨔, 그대는 편안할게요. 그런데 나는 무엇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거요!》

이처럼 희곡 《뢰우》의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오스뜨롭스끼는 까쩨리나를 둘러싼 그 시대의 생활을 5막에 걸쳐 생동하고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까쩨리나라는 로씨야의 한 녀성이 스스로 자살하

지 않으면 안되였던 타당성을 형상적으로 밝혀내였으며 그를 통해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였다.

작품은 녀주인공 까쩨리나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적인 가정적 질곡으로부터의 녀성해방문제를 제기하고 녀성들에게 예속과 무권리를 강요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였다.

작품이 제기한 문제는 비단 녀성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짜리전제제도하의 노예적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있다.

작품에서 까쩨리나의 항거의식은 시어머니 까바니하에 대한 원한이거나 어떤 개인에 대한 불평이라기보다 그를 둘러싼 암흑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과 울분이였으며 그의 죽음은 출로를 찾지 못한 녀주인공의 현실에 대한 반항이며 항의였다.

그리하여 까쩨리나의 반항은 당시 로씨야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트고있던 불안과 울분, 반항정신을 일반화한것으로 된다.

하기에 당시의 진보적평론은 까쩨리나의 형상을 돈과 권력과 무지몽매가 지배하는 《암흑의 왕국》에 비친 한줄기 빛으로, 이 야만의 세계가 언젠가는 붕괴하리라는 예언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작품에는 현실의 모순으로부터의 옳은 출로를 보여주지 못하고 주인공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쟁에로가 아니라 죽음에 의한 소극적인 항거에로 나가게 처리하였으며 극적갈등이 심각하고 첨예하기는 하지만 계급적대립에 기초한 갈등을 설정하지 못한 등 제한성이 나타나고있다.

작가소개

알렉싼드르 니꼴라예비츠 오스뜨롭스끼

알렉싼드르 니꼴라예비츠 오스뜨롭스끼(1823－1886)는 모스크바의 관리가정에서 출생하여 모스크바종합대학 법학부를 중퇴하고 모스크바의 재판소들에서 일하면서 풍부한 현실체험을 하였다.

그는 1840년대 후반기부터 문학창작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소설에, 다음에는 희곡에 힘을 넣어 희곡 《집안사람들끼리야 셈을 놓으랴!》(1850)를 발표한 때로부터 문단의 주목을 끌게 되였다. 《자연파》의 영향밑에 빈부의 모순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한 이 희곡은 곧 공연중지당하였으며 그로 하여 작가는 경찰의 요시찰인물로 되였다.

뒤이어 그는 《가난한 약혼녀》(1851), 《가난은 죄가 아니다》(1854) 등을 련이어 내놓았다. 이 시기에 와서 그의 극작품들은 모스크바의 연극극장들의 고정공연종목에 들어가고 관중들속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였다.

1856년이후 혁명적민주주의계렬의 《쏘브레멘니크(현대인)》잡지의 동인이 되면서 자기 창작의 민주주의적이며 사회비판적인 경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에 관리들의 뢰물행위를 폭로한 《수입좋은 자리》(1856), 인간개성에 대한 억압에 항의한 《양딸》(1858), 대표작인 《뢰우》 등의 극작품들을 발표하였다.

1860년대에 세태적인 희극 및 정극작품들과 력사극을 쓰는데 기울어졌던 그는 1860년대말부터 1880년대초에 걸쳐 다시 첨예한 사회적문제를 반영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 시기는 그의 창작적앙양기로서 《뜨거운 마음》(1869), 《미친 돈》(1869), 《숲》(1871), 《승냥이들과 양들》(1875), 《지참금 없는 처녀》(1878)와 같은 사실주의적희곡들을 련이어 써내여 짜리로씨야사회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해나섰다.

그가 창작생활 전기간에 창작한 희곡은 47편이나 된다.

아. 오스뜨롭스끼의 극문학은 비록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일반이 가지고있던 본질적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깊은 사회적내용을 담고 민족적특성이 뚜렷하며 극작술이 높은것으로 하여 로씨야사실주의극문학과 연극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무엇을 할것인가

《무엇을 할것인가》는 로씨야의 혁명적민주주의작가 체르니쉡스끼가 1862－1863년에 창작한 장편소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는 낡고 썩어빠진 농노전제제도를 비판하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투쟁을 호소하며 사람들을 광명한 미래에로 고무추동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소설은 로씨야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에로 이행함에 따라 국내에서 사회계급적모순이 심해지고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착취와 압박,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는 로씨야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앙양되던 19세기 50～6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은 이 시기 로씨야의 사회활동무대에 새로 진출한 평민출신의 민주주의적청년지식인들의 활동과 그들의 리상과 신념을 중심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이를 통하여 당시 로씨야에서 진보적인사들앞에 나선 사회적임무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소설에는 주인공인 웨라 빠블로브나와 그의 어머니, 웨라에게 마음두고있는 부자집아들인 장교 스또레스니꼬브, 대학생 로뿌호브(웨라의 첫남편), 의학박사이며 교수인 끼르싸노브(웨라의 둘째남편), 부자집의 불행한 딸 까쩨리나 등이 등장한다.

소설은 머리이야기와 전 6개 장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중에서》라는 부제목을 달고있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평민출신의 신녀성 웨라 빠블로브나의 운명선과 사랑선을 따라 펴나가고있으며 웨라와 첫 남편 로뿌호브 및 두번째남편 끼르싸노브사이의 관계와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으로 되고있다.

이야기는 가정에서의 웨라 빠블로브나의 생활을 보여주는데로부

터 시작되고있다.

1852년 로씨야의 수도 뻬쩨르부르그의 어느 한 거리에 있는 다층주택의 수많은 더러운 층가운데서 가장 불결한 4층 오른편에 있는 살림집에서 소시민 로잘스끼부부가 살고있다. 로잘스끼는 그 주택의 관리를 맡아보면서 관청에서 조수로 일했으며 그의 안해는 물건을 저당잡고 돈놓이를 하는 등 협잡행위로 야금야금 돈을 모으고있었다.

그들부부에게는 다 자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바로 녀주인공 웨라 빠블로브나였다.

웨라 빠블로브나는 비록 개명하지 못한 가정에서 시정배인 부모의 구박을 받으며 자랐으나 남달리 총명하여 기숙학교시절에 프랑스말을 다 떼고 피아노를 가르칠수 있게까지 된다. 그러자 돈을 위해서라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녀자인 웨라의 어머니 알렉쎄예브나는 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돈많은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 뛰기 시작한다.

그러던참에 웨라에게 돈많은 신랑감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 다층주택의 돈많은 녀주인의 아들 스또레스니꼬브이다. 그는 《미슈까바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좀 모자라는 장교였는데 불량한 청년들과 밀려다니면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고있었다. 이러한 사나이가 웨라의 마음에 들리 만무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딸을 죽이는것도, 딸의 신세를 망치게 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녀자여서 덮어놓고 이 못난이와 결혼할것을 강요한다. 웨라는 이런 더럽고 비렬한자의 손에 몸을 바칠바엔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완강히 반대하면서 일을 질질 끈다.

이러한 때 웨라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로뿌호브이다. 의학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로뿌호브는 학비를 보태기 위해 중학교입학준비를 하던 웨라의 남동생 페쟈의 가정교사로 채용되여 이 집에 다니게 되면서 웨라를 알게 된다. 그는 웨라에게 책도 가져다주고 이야기도 나누는 과정에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이 남달리 강하고 총명한 웨라가 처해있는 난처한 처

지를 동정하고 점차 그를 사랑하게 되며 웨라를 고약한 환경에서 구해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한다.

처음에 그는 웨라가 부모네 집에서 나와 가정교사로 들어갈수 있는 알맞춤한 집을 찾아내려고 애쓰나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가 웨라와 결혼하면 이 문제를 풀수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그동안 로뿌호브를 존경하고 그를 사모하게 되였던 웨라 역시 이 안을 지지해나선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느날 웨라의 부모 몰래 로뿌호브의 친구인 한 신부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하고 새 살림을 차린다.

웨라의 어머니는 이에 극도로 분격하였으나 어쩔수없이 결국은 그들과 타협한다.

로뿌호브부부의 새 살림이 시작된다.

로뿌호브는 결혼후 웨라를 위하여 대학을 중퇴하고(그는 대학에서 의학자로서 발전성이 풍부한, 전도유망한 과학자후비로 지목되고있었다.) 시간교수와 번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가며 웨라는 가정살림을 맡아본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들부부의 생활양식에 류다른데가 있었다. 웨라는 결혼약속을 할 때 부부생활에서 지켜야 할 세가지 규정을 제기한다.

그 내용인즉 각기 자기 방을 가지고 그 방에는 서로 승인없이 들어가지 못하며 그들이 만나거나 손님을 맞이하는것을 세번째 중립적인 방에서 해야 한다는것이다. 웨라는 이러한 생활양식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의 자립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방도로 생각했던것이다.

그들은 결혼후 이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데 그들이 살고있는 주인집 주인내외는 이것을 보고 이 젊은 부부가 이상하게 살고있다고 뒤공론을 한다.

그들이 결혼한지 몇달이 지나간다.

그동안 녀성들의 처지개선에 이바지할수 있는 협동조합형식의 옷공장을 만들 구상을 무르익혀오던 웨라 빠블로브나는 드디여 그 구

상을 실천에 옮긴다. 처음 3명의 처녀재봉사를 데리고 시작한 웨라의 옷공장은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여 1년반후에는 직원이 20명, 3년후에는 50명이나 되는 공장으로 발전한다. 웨라는 자신이 공장책임자 겸 재단사로 일하면서 공장의 모든 관리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재봉사들자신에게 맡기며 임금을 지불하고 남은 리익금마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자신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또한 희망에 따라 처녀재봉사들이 한집에서 같이 살게 함으로써 적은 돈을 가지고 더 낫게 생활할수 있게 하며 책을 읽고 강의를 받으며 야유회를 하는 등 문화지식보급사업과 오락도 적절히 조직한다. 이리하여 웨라의 구상은 하나하나 실현되여간다.

웨라 빠블로브나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웨라와 로뿌호브의 사이가 어성버성해진다. 그것은 웨라가 끼르싸노브와 접근하게 된것과 관련되였다. 끼르싸노브는 로뿌호브의 가장

○상식○

혁명적민주주의

19세기 중엽 일련의 유럽나라들에서 발생발전한 급진적반봉건민주주의사상.

19세기 30～60년대에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로씨야 등 나라들에 조성된 특수한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급진적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로씨야에서는 벨린스끼, 게르쩬, 도브롤류보브, 체르니쉐스끼 등이 그 대표자였다.

당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사회가 수립되고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로자간의 모순이 첨예화되였으나 로씨야와 도이췰란드에는 여전히 봉건전제주의와 농노제가 지배하고있었으며 이를 철폐하고 부르죠아혁명을 수행하는것이 절박한 사회적요구로 제기되였다. 그런데 자본주의제도가 세워진 서유럽나라

가까운 친구로서 의학대학에도 함께 다녔고 지금은 의학박사, 교수가 된 소문난 의학자였다. 그는 로뿌호브부부의 결혼초기 한 1년동안은 그들의 집에 매일같이 찾아왔었는데 어째선지 그 후 거의 2년동안은 아예 찾아오지 않고있었다. 그러다가 로뿌호브의 병을 치료하게 된것을 계기로 다시 찾아오게 되였는데 바로 이때 끼르싸노브와 웨라가 가까와지게 된것이다.

로뿌호브는 사교를 즐기지 않기때문에 웨라는 끼르싸노브와 함께 극장구경도 다니고 옷공장사업에서도 그의 방조를 많이 받는다. 웨라에게는 남편과 함께 있기보다 끼르싸노브와 함께 있는것이 더 편하고 즐거웠다. 어느날 밤에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꿈까지 꾸게 된다. 이 꿈에 놀란 웨라는 자기가 남편에게 죄를 지은것 같은 송구스러운 감정을 금할수 없어 그것을 그대로 남편에게 고백하며 이때까지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남편의 방에 눌러앉고 남편을 더 사

들의 현실은 자본주의사회가 결코 리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것을 폭로해주었으며 이로부터 혁명적민주주의자들은 봉건적전제주의와 자본주의적악페를 다같이 반대배격하고 새로운 리상사회, 《사회주의사회》를 세울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주로 문학창작과 문학평론활동을 통하여 자기들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또한 문학평론들을 통하여 억압과 착취로부터 인민을 해방하고 전제농노제도를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농민들을 전제농노제적압박과 예속으로부터 해방하며 당대의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짓부시고 착취없고 평등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혁명적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급진적인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으로서 이 나라들에서 자본주의적발전을 다그치는 작용을 하였을뿐이다.

랑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웨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사이는 여전히 서먹서먹하다. 한편 웨라와의 사랑을 유지해내지 못하리라는것을 깨닫게 된 로뿌호브는 그가 신조로 삼고있는 《리성적리기주의》리론에 따라 웨라가 행복하게 되면 곧 그만큼 자기도 행복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무대에서 사라질것을 결심한다. 그는 끼르싸노브를 찾아가 진지한 담화를 나눈 다음 끼르싸노브를 설복하여 웨라와 가깝게 지내도록 하며 웨라에게 선택권을 준다.

자기를 숨길줄 모르는 웨라는 드디여 어느날 로뿌호브에게 끼르싸노브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서면으로 알린다.

이렇게 되리라는것을 미리 예견했던 로뿌호브는 자기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하고 출장떠난 길에 가짜자살을 꾸며 무대에서 사라진다. 그 당시는 결혼생활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안해와 남편과는 헤여질수 없다는 관념이 지배하고있었으며 리혼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던 시기여서 로뿌호브는 이런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남편의 《자살》에 강한 충격을 받은 웨라는 모든것이 자기탓이라고 단정하고 비탄에 잠긴다. 이때 로뿌호브의 위임을 받고 라흐메또브라는 청년이 웨라를 찾아온다.(작가는 여기서 《특수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단 한개 절을 설정하여 라흐메또브의 경력과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있다.)

그는 로뿌호브의 글쪽지를 전하면서 로뿌호브가 죽지 않았다는것을 알려 웨라를 안심시키며 로뿌호브의 행동에 대한 자기의 비판적견해를 밝혀 웨라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웨라는 또한 어느 한 《중퇴한 의과대학생》과 편지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대학생은 외국으로부터 편지를 보내오면서 이번 문제와 관련한 로뿌호브의 생각과 그의 행처에 대하여 알려온다.

그리하여 마음의 안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 웨라 빠블로브나는 얼마후 끼르싸노브와 재혼한다. 재혼후 웨라는 더욱 활기에 넘쳐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그는 옷공장을 하나 더 내오기로 작정하고 이미 있던 공장은 메르짤로바(웨라와 로뿌호브의 결혼식을 해준 신부의 부인)에게 넘기며 자신은 새로운 옷공장을 차려놓

고 그 공장을 이전 공장 못지 않게 꾸려놓는다. 두 공장일은 잘되여나가며 1년후에는 수도의 중심거리에 두 공장의 전문옷상점까지 생겨난다.

그렇지만 웨라 빠블로브나는 자신에 대한 불만감을 없앨수 없었다. 그는 무엇이나 남편과 동등하고싶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자립을 바랬는데 그와 끼르싸노브사이에는 아직도 차이가 있었던것이다. 웨라는 생각끝에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자기도 의학공부를 하여 남편처럼 의사가 될것을 결심한다. 이때로부터 웨라는 끼르싸노브가 일하는 병원에 다니면서 의학을 배우기 시작하며 멀지 않아 로씨야에서 첫 녀의사가 될수 있는 전망을 내다보게 된다.

제5장에 이르러 소설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첫 인물 까쩨리나 뽈로조바는 몹시 앓아 하마트면 죽을번 했던것을 끼르싸노브의사가 구원해준 처녀이다. 까쩨리나는 파산당한 백만장자 뽈로조브의 외딸이였는데 한 바람쟁이의 꾀임에 넘어가 그와 결혼하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앓아누웠던것이다. 끼르싸노브는 처녀의 아버지를 설복하여 그들의 결혼을 승인케 하고 약혼기간에 처녀가 스스로 대상자의 정체를 간파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끼르싸노브의 계획이 들어맞아 자기의 약혼자가 어떤 사나이인가를 알게 된 처녀는 제가 먼저 파혼을 선포하고만다. 그후 끼르싸노브는 처녀를 웨라에게 소개해주고 처녀로 하여금 웨라의 옷공장에 다니도록 한다. 까쩨리나는 여기서 좋은 영향을 받는다.

두번째 새로운 인물은 미국국적을 가졌으며 《열렬한 노예폐지론자이고 흑인옹호자》인 챨즈 뷰몬트였다. (실은 그가 바로 로뿌호브였다.) 그동안 그는 미국에 넘어가 흑인노예해방운동에 참가했었으며 지금은 어느 한 영국상회의 대리인으로 고용되여 뻬쩨르부르그로 온것이였다.

뷰몬트는 상회의 위임으로 뽈로조브의 공장을 사기 위한 교섭을 하는 과정에 뽈로조브의 딸과 사귀게 되며 교제끝에 서로 사랑을 품고 결혼하게 된다. 영국상회로부터 이 공장의 지배인으로 임

명되고 까쩨리나와 결혼한 뷰몬트 즉 로뿌호브는 웨라와 끼르싸노브와 만난다. 그후 두 부부는 잇닿아있는 두채의 집을 구하고 한집안처럼 화목하게 산다. 까쩨리나도 자기의 옷공장을 하나 꾸리며 얼마후에는 새 옷공장을 다 도맡아보게 된다.

소설의 마감장에서는 1865년에 로씨야에서 사회적변혁이 실현되는것으로 묘사되여있다.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는 그 이야기줄거리만 본다면 마치도 그 무슨 련애소설이나 가정적질곡에서 벗어난 한 녀성의 생활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것 같은 인상을 주고있다. 그러나 소설은 그 당시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매우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들을 제기하고있다.

이 작품은 19세기 50년대와 60년대에 로씨야에 등장한 평민적민주주의세력의 대표자들을 형상하고있다. 소설에는 평민출신의 주인공이 여러명 등장한다. 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리상을 지니고 그것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여러가지 긍정적인 사회, 경제, 문화활동을 벌린다. 그들이 지닌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풍모도 새롭고 선진적인것이다. 이 주인공들은 19세기 50～60년대 로씨야에 등장한 평민출신민주주의자들의 주장과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는 새로운 리상사회인 《사회주의》

○상식○

공상적사회주의

착취와 압박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리상사회를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공상적으로 그려낸 사상조류.

공상적사회주의의 리념은 봉건사회의 말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불충분하게 발전하였던 시기에 문예부흥운동의 흐름속에서 발생하였다. 첫 대표자는 16세기의 토마스 모어이다. 이

를 실현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요구되며 그들앞에 나서는 과업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작품에 등장하고있는 평민출신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사람들》인 웨라 빠블로브나, 로뿌호브, 끼르싸노브, 《특수한 사람》인 라흐메또브이다.

웨라 빠블로브나의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온갖 구속과 압박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지향이 강한것이다.

웨라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남에게 달리지 않고 제 주견대로 살고싶어요.》, 《제가 바라는건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자유로와지고싶다 그거예요. 누구에게든 조금도 신세를 지고싶지 않아요. … 어느 누구의 자유든 구속하고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신이 자유롭고싶어요.》

웨라의 성격에는 또한 강한 자존심과 결단성, 왕성한 사업의욕과 조직자적수완, 자신의 문화지식수준을 부단히 높이려는 강한 요구와 같은 특징이 구현되여있다.

작가는 특히 웨라와 로뿌호브, 끼르싸노브사이의 관계와 결혼에 대한 웨라의 태도를 통하여 안해가 남편의 노예로 간주되던 당대 사회의 귀족적 및 부르죠아적결혼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결혼과 부부생활은 남녀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리해, 진정한 사랑

들의 사상은 18세기에 더욱 풍부화되였으며 19세기에 와서 더욱 발전하였다.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제도의 불변성에 대한 허위성과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폭로하고 사람들을 계몽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지만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옳바로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는 내놓지 못하였다.

에 기초하여 성립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웨라 빠블로브나와 같은 성격을 가진 로씨야녀성의 형상은 로씨야문학에서 처음으로 창조되였으며 당시의 로씨야사회에서 보기드문 형상이였다. 작가는 웨라 빠블로브나의 형상을 통하여 그 당시 로씨야에 나타나기 시작한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신녀성》의 형상을 창조하고 로씨야의 녀성들이 그를 따라배울것을 호소하였다.

소설에서는 웨라와 함께 평민민주주의자인 로뿌호브와 끼르싸노브를 당시에 아직 대중의 소수를 이루고있던, 당대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새로운 사람들》로 형상하고있다.

그들은 둘다 유물론적견해와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온갖 압박과 불합리한 제도를 반대하며 사람들의 합리적이고도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자기들의 힘과 재능을 바쳐나서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사람들》인 로뿌호브와 끼르싸노브는 성격상 차이점보다도 공통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남의 덕으로 사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과 노력으로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평민출신의 보통사람들이다. 그들은 또한 성실하고 용감하며 강의하고 자립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들인 로뿌호브와 끼르싸노브는 다같이 합리적인 사회제도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리상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전하여 그들을 민주주의적으로 계몽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흑인해방운동에 참가하는 등 진보적인 활동을 벌린다. 그들은 순진하게도 자기들의 이러한 활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이며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게 될 미래사회를 앞당겨오는데 이바지할수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일한다.

소설에서는 이 《새로운 사람들》보다 더 높이 서있는 인물로서 《특수한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람인 라흐메또브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소설의 사건발전에서 라흐메또브가 노는 역할은 보잘것이 없으며 그의 활동의 구체적내용도 밝혀져있지 않고 암시되여있을뿐이다. 그러나 그는 계몽활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웨

라나 로뿌호브, 끼르싸노브와 같은 진보적인사들과는 달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선 선진투사의 형상으로 그려져있다.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소설은 당시 로씨야에서 진보적인사들앞에 나선 사회적임무는 무엇인가? 다시말하여 로씨야인민들을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억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진보적인사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바로 현존 짜리전제제도를 혁명적으로 뒤집어엎고 보다 합리적이고 리상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쳐야 하며 특히는 라흐메또브처럼 투쟁에 몸바쳐나서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소설은 또한 웨라 빠블로브나의 네번째 꿈을 통하여 미래의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공상적화폭을 펼쳐보이고 미래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호소하였다.

작품에는 적지 않은 제한성도 나타나고있다.

소설은 인민대중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최종목적과 그 목적에 이르는 로정 및 방도, 이 투쟁에 몸바쳐나설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등에 대한 리해에서 추상성과 공상성을 면하지 못하고있다.

작가는 특히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서는 사람들인 라흐메또브와 주인공들이 지니고있는 사상과 리론을 《리성적리기주의》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다 이 《리기주의》리론에 기초한것으로 묘사하였는데 여기에서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에 대한 작가의 몰리해가 드러나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은 있으나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는 전제제도를 반대하는 강한 투쟁정신과 미래사회에 대한 지향을 결부시킨 일종의 철학소설로서 새로운 주제, 사상, 주인공을 제시하여 로씨야사실주의문학을 풍부화시켰으며 비록 공상적이기는 하나 전제제도를 반대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선 긍정적주인공—투사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당시의 진보적인사들에게 긍정적영향을 주었다.

작가소개

니꼴라이 가브릴로비츠 체르니쉡스끼

체르니쉡스끼는 19세기 50～60년대 로씨야혁명적민주주의운동의 중심인물이였으며 선진적인 평론가, 작가의 한사람이였다.

니꼴라이 가브릴로비츠 체르니쉡스끼(1828－1889)는 싸라또브의 목사의 가정에서 태여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수도 뻬쩨르부르그에 올라가 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대학의 진부한 교육내용에 실망하고 주로 자습을 통하여 폭넓은 지식을 얻고 진보적인 사상을 탐구하기에 애썼다.

체르니쉡스끼의 본격적인 문필활동이 시작된것은 그가 1855년에 시인 네크라쏘브가 발간하던 진보적잡지 《쏘브레멘니크(현대인)》의 동인으로 된 다음부터였다. 체르니쉡스끼의 지도밑에 이 잡지는 사실상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을 선전하는 마당으로 되였으며 이 잡지를 통하여 농노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부르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잡지를 통하여 평론 《로씨야문학의 고골리시대 개관》(1856)을 비롯한 그의 수많은 문예비평론문들과 철학, 정치경제학, 미학에 관한 론문들이 발표되였으며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는 농민혁명사상이 선전되였다.

그러나 체르니쉡스끼는 반동당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자기의 활동을 오래 계속할수 없었다. 날로 커가는 체르니쉡스끼의 영향력에 위구를 느낀 짜리정부는 1862년에 그를 비법적으로 체포하고 재판도 없이 가장 중한 정치범을 가두는 뻬뜨로빠블롭스크요새감옥에 감금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요새감옥에 갇혀있는 2년동안에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1862－1863)와 같은 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여러편의 글을 써서 내보냈다.

체르니쉡스끼는 그후 짜리당국이 벌려놓은 재판에서 날조된 《죄명》으로 14년간의 징역살이와 씨비리종신류형을 언도받고 21년동안이나 갇혀있었다. 그는 21년만에 형식상 류배살이에서 놓여나온 다음에도 계속 엄격한 감시밑에서 온갖 활동의 자유를 구속당한채 6년동안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계속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다.

그러나 이 기간 그는 반동당국의 온갖 회유와 압박을 물리치고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끝까지 혁명적민주주의사상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집필활동을 멈추지 않고 장편소설 《서곡》(1867－1870)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과 론문들을 남겨놓았다.

체르니쉡스끼는 그 세계관에서 혁명적민주주의사상의 소유자였으나 공상적사회주의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물론적세계관에는 도달하면서도 유물변증법적세계관의 높이에는 이르지 못하였기때문에 인간을 사회계급적관계와 떼여놓고 생물학적으로 본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제한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체르니쉡스끼는 혁명적민주주의작가, 문예리론가, 평론가, 철학가로서 19세기 후반기 로씨야의 진보적인 사상운동과 문화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것이다. 미래가 아름답다는것을, 미래가 밝고 아름답다는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미래를 사랑하라. 미래에로 돌진하라. 미래를 위해서 일하라. 미래를 가깝게 하라. 힘이 미치는데까지 미래를 실현하라. 그대가 미래를 실현하는 그만큼 그대의 생활은 밝아지고 좋아지고 기쁨과 향락이 풍부해질것이다.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중에서

○일화○

련애소설의 허울을 쓴 장편소설

체르니쉡스끼는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를 구상하면서 골머리를 앓았다. 어떻게 하면 출판검열을 무사히 통과할수 있겠는가. …

당시의 가혹한 출판검열제도밑에서 정치범이 쓴 소설이 출판된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한 일이였다. 더우기 소설의 내용을 놓고보아도 출판물로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뻔한 일이였다.

출로를 모색하고 또 모색하던 체르니쉡스끼는 마침내 겉보기에 웨라 빠블로브나와 두 청년간의 삼각련애소설과 같은 인상을 주도록 구성을 독특하게 짜고 말하려는 사상을 교묘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수법을 많이 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의 흐름으로 보아 가운데나 마지막에 앉혀야 할 장면으로부터 소설의 꼭지를 뗐다. 말하자면 자기 안해와 친구의 행복을 바라는 편지를 남겨놓고 로뿌호브가 《자살》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 작품을 렵기적인 모험소설처럼 보이게 하여 검열관의 눈을 피하자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미를 돋구는 미끼를 달아서 낚시를 던져 많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자는데 있었다. 또한 보다 중요하게는 소설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라흐메또브의 형상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킴으로써 자기가 말하려는 사상을 간파하게 하자는것이였다.

이처럼 라흐메또브의 형상은 암시적수법으로 묘사되였으나 당시의 뜻있는 사람들은 이 형상속에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져있음을 리해하였다.

소설은 발표되자 곧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혁명적민주주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이 작품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반동적이며 보수적인자들은 이 작품을 악의에 차서 비난하고 배격하였다.

바빠난 짜리당국은 이 소설의 출판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작품의 견인력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수 없었다. 이 소설은 결국 1905년 체르니쉡스끼가 세상을 떠난지 16년만에 단행본으로 출판될수 있었다.

죄와 벌

《죄와 벌》은 로씨야의 비판적사실주의작가 도스또옙스끼가 1866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로씨야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로 이행하는 과도적시기였던 19세기 60년대 로씨야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어느해 여름 로씨야의 수도 뻬쩨르부르그의 한 거리에서 일어난 류다른 살인사건과 그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소설에는 주인공인 대학중퇴생이며 가난한 실업자 라스꼴니꼬브, 그의 애인이며 매춘부이기도 한 쏘냐, 쏘냐의 아버지이며 타락한 술주정군인 마르메라도브, 쏘냐의 어머니 까쩨리나 이와노브나, 주인공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 두냐, 예심판사 뽀르피리, 두냐의 약혼자 루진, 지주이며 살인악당인 스비드리가일로브 그리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레베쟈뜨니꼬브 등이 나온다.

소설은 전6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사건발단으로 되고있는 제1편에서는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심리적전제와 범죄당일의 사건이 취급되고있다.

이야기는 몹시 무덥던 7월 초순의 어느날 이틀째나 굶은 대학생 물림의 가난한 청년 라스꼴니꼬브가 한가지 생각에만 파묻혀있다가 자기의 자그마한 하숙방을 나오는데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고리대로파를 죽이고 그 돈으로 자기와 세상을 구원하자, 이것은 물론 용서받을수 있는 행위이다, 아니 오히려 찬양받을 성질의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살인행위의 근거를 찾고 사전준비를 위해 그 로파의 집으로 찾아가는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그 생각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이 그를 사로잡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술집에서 가난한 관리 마르메라도브

를 알게 된다. 술에 취한 그는 굶주리는 동생들을 위하여 치욕을 참으며 몸을 파는 어린 딸 쏘냐에 대하여, 심한 폐병환자이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미쳐버린 쏘냐의 어머니에 대하여 신세타령을 한다. 마르메라도브를 집에까지 데려다준 주인공은 몹시도 가난한 그의 집사정을 직접 보고 가슴아픔을 금치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이 그의 가슴을 친다.

게다가 그가 다음날 받아본 어머니의 편지는 그의 마음을 더욱 괴롭힌다. 누이동생 두냐가 가정교사로 들어갔으며 주인인 지주 스비드리가일로브로부터 참을수 없는 인격적모욕을 당하고 할수없이 25살이나 우인 돈많은 관리인 루진과 약혼했다는것이였다.

주인공은 남달리 똑똑한 두냐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결혼을 승인하게 된것은 오빠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마음에서이라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런 상업적인 결혼을 허용할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간다. 그는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공부를 하여 발전해보려고 수도로 올라왔으나 도저히 학비를 댈수 없어 중퇴하고만다.

주인공은 강권, 권력, 돈이 판을 치는 부르죠아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불행과 고통을 뼈아프게 감수한다.

이 모든것은 그로 하여금 고리대로파에 대한 살인계획을 행동에 옮기게 한다.

다음날 그는 로파의 집으로 찾아간다.

그는 면밀히 타산한 계획에 따라 살인흉기로 쓸 도끼를 외투안에 감추고 로파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그의 집으로 찾아가며 저당품을 가지고 흥정하다가 기회를 노려 로파를 살해한다. 그러나 있을수 있는 모든것을 세밀하게 타산한듯한 그의 계획에는 빈틈이 있었다.

살인범죄를 감행한 후 출입문에 쇠를 채우는것을 잊었기때문에 그는 얼마후 로파의 집에 다시 찾아간다. 이때 그는 범죄현장에 들어선 로파의 동생 리자베따와 맞다들어 그까지 죽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흥분과 공포로 하여 막대한 돈과 채권이 보

관되여있는 옷장은 열지도 못하고 로파의 돈지갑과 트렁크안의 일부 귀금속류를 빼앗는데 그치고만다. 자기의 하숙방까지 되돌아온 라스꼴니꼬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여 결상우에 쓰러지고만다.

제1편에 뒤이은 나머지 5개편에서는 범죄를 감행한 후의 주인공의 심리적체험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지고있다.

범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바깥출입도 잘하지 않고 되도록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주위세계와 거의 절연상태에서 고독하게 지내던 라스꼴니꼬브의 생활속으로 새로운 인물들과 사건들이 련이어 뛰여들게 되며 그것은 그를 몹시 당황케 한다.

살인죄를 범한 다음날부터 의식을 잃고 앓아누웠던 라스꼴니꼬브가 나흘만에 정신을 차리고보니 대학때 친구였던 라주미힌이 머리맡에 앉아 그를 간호하고있었으며 가난한 어머니가 겨우 융통하여 보내준 돈 35Rbl이 와있었다. 이때 두냐의 약혼자 루진이 그를 찾아왔으나 언쟁끝에 내쫓아버린다.

라스꼴니꼬브는 어쩐지 모든것이 귀찮아지고 인간세상을 떠나 어디론가 도망치고싶은 심정에 빠진다. 그리하여 앓는 몸으로 밖으로 빠져나가 정신없이 돌아다닌다.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서는 이미 낯을 익혔던 경찰서원 자묘또브를 만나 로파살인에 대한 이야기로 그를 아연실색케 하기도 하고 투신자살을 하고싶은 생각으로 다리우에서 서성거리기도 하며 저도 몰래 그 로파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보고 집을 수리하던 직공들에게 이젠 마루에 피흔적이 없는가고 묻는 등 괴상한 행동을 하여 사람들을 놀래운다.

너무도 괴롭던 나머지 이젠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섰다가 거리에서 마차에 깔린 마르메라도브와 부닥치게 된다.

라스꼴니꼬브는 더 생각할 사이가 없이 자기가 나서서 그를 집에까지 데려다주고는 그가 쏘냐의 팔에 안겨 운명하는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동정을 금할수 없어 장례비걱정을 하는 마르메라도브의 안해 까쩨리나 이와노브나에게 어머니가 보내준 귀한 돈중 20Rbl을 주고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라스꼴니꼬브는 자수할 생각이 없어지며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가 하숙집으로 돌아와보니 뜻밖에도 어머니와 두냐가 근심에 잠겨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 다음날에도 라스꼴니꼬브는 여러 사람과 만나게 되고 여러가지 문제와 부닥치게 된다.

아침에는 그를 다시 찾아온 어머니와 두냐를 만났고 그자리에서 마르메라도브의 장례와 장례후의 추도모임에 참가해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가져온 쏘냐를 만난다.

그런 다음 라주미힌과 함께 이번 로파살인사건에 대한 예심을 담당한 예심판사 뽀르피리의 집으로 찾아가(로파에게 저당잡힌 그의 물건이 있기때문에 찾아가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에 대한 예심판사의 태도를 알아보고나서 예심판사가 자기에게 주목을 돌리고 있다는것을 간파한다.

낮에는 스비드리가일로브가 그를 찾아온다.(여전히 두냐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스비드리가일로브는 두냐를 뒤쫓아서 촌에서 올라온것이였다.) 그는 두냐와 약혼한 루진은 두냐의 대상으로 될수 없는 너절한 남자이므로 파혼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두냐에게 직접 리해관계가 있는 어떤 계획과 관련하여 두냐와 만나고싶다고 한다.

그날저녁 약속한 시간에 찾아온 루진은 자기가 라스꼴니꼬브를 회견에 참가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냐가 오빠를 불렀다고 성을 내면서 자기는 이런자와 자리를 같이할수 없다고 거만하게 행동했다가 두냐의 격분을 불러일으키며 말다툼끝에 쫓겨나고만다. 이리하여 두냐와 루진의 결혼문제는 파탄되고만다.

라스꼴니꼬브는 이날저녁 늦게 쏘냐의 하숙방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자기가 로파살인자라는것을 고백하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가 겨우 억제한다.

그 다음날 오전 라스꼴니꼬브는 전날 약속한대로 구역경찰서안에 있는 예심판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뽀르피리를 다시 만난다. 그는 이날 있은 예심판사와의 담화를 통하여 판사가 자기를 살인범으로 지목하고있다는것을 더 강하게 느끼고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날은 마르메라도브의 장례날이였다. 라스꼴니꼬브는 자기가 추

도모임에 초대받았던것을 상기하고 그 집을 찾아갔다가 루진의 비렬한 행위를 목격하게 된다. 루진은 어제 두냐와 결별한것과 관련하여 라스꼴니꼬브에게 복수를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순진한 쏘냐에게 도적의 루명을 들씌우는 비렬한 모략을 꾸몄다가 동숙자인 레베쟈뜨니꼬브와 라스꼴니꼬브한테 폭로당하고 달아나고만다.

라스꼴니꼬브는 그길로 쏘냐의 하숙방으로 찾아가 그에게 고리대로파와 리자베따를 죽인 살인자는 바로 자기라는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살인죄를 범하게 된 리유를 설명한다. 쏘냐는 울면서 그에게 자수할것을 권고하며 자기는 징역살이에라도 따라나설것이라고 맹세한다.

이무렵 라스꼴니꼬브는 병적인 무감각상태에 빠져들어가 시간관념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그를 당황케 하는것은 스비드리가일로브이다. 그동안 그는 스비드리가일로브를 여러번 만났는데 한번은 그가 쏘냐에게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것을 듣고 속이 선뜩해진다.(스비드리가일로브는 쏘냐의 옆방에 머물고있었기에 그들의 대화를 다 엿들었던것이다.)

하루는 그가 스비드리가일로브를 찾아가려고 집을 나서려는데 예심판사가 찾아온다. 이날 예심판사는 로파살인사건은 보통의 살인사건이 아니라 음산하고 현대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서 살인범은 바로 라스꼴니꼬브라고 단정하며 그가 자수할것을 권고한다.

예심판사가 돌아간 다음 라스꼴니꼬브는 스비드리가일로브를 찾아 집을 나선다. 그에게는 어쩐지 스비드리가일로브가 두냐에 대한 그 어떤 비렬한 음모를 꾸미고있는듯한 의심이 났던것이다. 그의 예측이 맞았다. 그러나 그는 스비드리가일로브의 속임수에 넘어가 두냐와 헤여진다. 이날 스비드리가일로브는 오빠의 비밀을 미끼로 두냐를 불러내고 자기 하숙방으로 끌고가 오빠를 구원해주겠으니 자기 말을 들으라고 요구한다. 두냐가 꾀임에 넘어가지 않자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던 스비드리가일로브는 너무나 완강한 두냐의 태도를 보고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 그를 놓아주고만다. 다

음날 새벽 스비드리가일로브는 권총자살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 같은 날 저녁녘 라스꼴니꼬브는 쏘냐를 찾아가 십자가를 얻어 목에 걸고 경찰서로 찾아가 자기 죄행을 자백한다.

소설은 뒤이야기에서 재판결과 라스꼴니꼬브의 살인죄가 일종의 정신착란으로 인한 범죄라는것이 고려되여 8년의 도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고 라스꼴니꼬브가 씨비리로 호송되여갔으며 쏘냐가 그를 따라가 보살피고있다는데 대하여, 두냐와 라주미힌이 결혼을 했는데 그들도 몇해후 라스꼴니꼬브가 가있는 씨비리로 옮겨갈 계획이라는데 대하여 쓰고있다.

장편소설 《죄와 벌》은 도스또옙스끼의 대표작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로씨야고전문학작품의 하나이지만 그 모순된 사상예술적특성으로 하여 지난날부터 론의가 많았던 복잡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얼핏 보기에는 부르죠아문학에서 많이 볼수 있는 범죄자와 그를 추격하는 예심판사사이의 갈등을 그린 렵기적인 범죄심리소설인듯한 감을 주고있으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간 소설이다. 그렇지만 작가의 모순된 세계관으로 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사실주의적측면과 비사실주의적측면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모순된 점이 많다.

작품의 긍정적인 측면은 거기에 담겨있는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에 대한 강한 폭로적힘에 있다.

주인공 라스꼴니꼬브를 비롯하여 이 소설에 나오는 대다수 사람들은 돈과 권세가 없는 탓으로 하여 먹을것도 없고 입을것도 없으며 모욕을 당하고 압박을 받아도 자기의 인권을 옹호할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있지 못하다.

라스꼴니꼬브가 꿈에 본 여윈 말의 형상은 착취사회에서 근로대중이 겪는 고통을 일반화한 상징적인 형상으로 된다.

소설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에 대한 폭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뿐아니라 이 사회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멸시하며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는 부르죠아들과 지주, 관료배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펼쳐져있다.

그러한 인물이 루진과 스비드리가일로브이다.

루진은 부르죠아사회관계가 길러낸 개인주의, 리기주의로 꽉 들어찬 속물적인간의 전형이다.

《누구보다도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것이 개인적리해관계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바로 이것이 그의 생활신조이다. 루진은 이러한 리기주의사상에 기초하여 돈이 들지 않는 가난한 녀자를 안해로 얻어 안해에 대한 자기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며 자기의 리익을 위해 무고한 쏘냐를 도적으로 몰아 모욕하는 비렬한 짓도 서슴없이 감행한다.

그런가 하면 지주 스비드리가일로브는 부르죠아사회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을 체득하고 자기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키고 살인행위를 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자이다. 하기에 살인죄를 범한 후 량심의 가책을 받아 모대기는 라스꼴니꼬브와 달리 스비드리가일로브는 여러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량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

소설은 루진, 스비드리가일로브와 같은자들을 선량한 하층인민들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억압자들로, 비도덕적인자들로 비난하고있다.

작품은 또한 주인공을 살인범죄에로 추동한 동기와 그 후과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부르죠아적《초인간》사상과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적반항의 해독성을 객관적으로 까밝히고있다. 라스꼴니꼬브를 살인에로 떠민 동기의 하나는 부르죠아적《초인간》사상의 영향이였다. 다시말하여 이 세상에는 절대다수의 보통사람들과 그를 초월하는 극소수의 《비상한 사람》 즉 《초인간》의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초인간》들에게는 그 어떤 법도 도덕도 초월할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어 살인도 허용된다는것이다. 라스꼴니꼬브는 피비린내나는 살륙전쟁을 통하여 숱한 사람들을 대량살륙하고서도《영웅》으로, 《신》으로 떠받들리운 나뽈레옹이나 마호메드와 같은자들을 그러한 부류에 넣으면서 그럴진대 나라고 나뽈레옹이 되여서 나쁜것이 무엇인가고 생각하는것이다.

라스꼴니꼬브를 살인에로 추동한 또하나의 동기는 자본주의사회를 반대하는 일종의 개인주의적, 무저항주의적반항에 대한 지향이

였다. 즉 자신과 수천의 《값있는》사람들의 생을 위하여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는자를 하나쯤 없앤다 한들 죄될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였다.

소설은 이러한 동기로부터 출발한 라스꼴니꼬브의 살인행위의 후과와 주인공자신의 도덕적파산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사회와 인민에게 해롭고 적대적이라는것을 객관적으로 밝혀주었다.

소설은 작가의 사상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자본주의사회에 사회적불행이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하층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반영하면서도 그런 사회적불행을 없애기 위한 투쟁과 반항에로 부르는것이 아니라 순종에로 부르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부족점은 주인공과 그의 애인 쏘냐의 형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라스꼴니꼬브의 고통스러운 체험세계를 묘사하면서 그가 고통 그자체에서 그 무슨 《위안》을 느끼는듯이 말하고있으며 라스꼴니꼬브로 하여금 결국은 그리스도교적인 《사랑》과 《순종》의 구현자인 쏘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기 죄행을 자백하고 신에 순종함으로써 도덕적갱생의 길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있다. 누구보다도 헐벗고 굶주리며 멸시받고 천대받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는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광신적으로 신을 믿는데서 지탱점을 찾는 쏘냐의 성격형상에도 순종과 무저항주의적인 설교가 다분하다. 작가는 또한 자기의 락후한 종교적설교를 형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인물의 성격발전을 형상의 내부론리와 모순되게 끌고가고있으며 현실을 외곡한 허위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고있다. 주인공과 쏘냐를 인간의 깊은 고통을 지닌 종교적수난자로 그린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작품은 또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고 신비주의적으로 씌여짐으로써 현실과 주인공의 환각과 꿈, 생시를 분간하기 어렵게 하고있다. 제3편 제5장에서 주인공에게 《살인자!》라고 속삭이고 지나가는 직공모양의 사나이에 대한 묘사가 그런 례의 하

나이다.

장편소설 《죄와 벌》은 이처럼 심각한 모순을 내포한 작품이지만 거기에 담긴 자본주의사회현실에 대한 강한 폭로와 사실주의적측면으로 하여, 소설창작에서의 높은 기교로 하여 로씨야와 유럽문학사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찌는듯한 거리의 무더위는 숨이 막힐 지경일뿐아니라 혼잡과 도처에 널려져있는 석탄재, 새로 건설된 건물의 발판, 벽돌, 먼지, 게다가 별장을 빌릴만한 여유가 없는 뻬쩨르부르그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모를 사람이 없을 그 특수한 여름철의 악취 등 이러한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혼탁해져있는 이 청년의 신경을 일시에 불쾌하게 뒤흔들고있는것이였다. 이 근처에 유별나게 많은 술집에서 발산되는 도저히 참을수 없는 악취며 보통날인데도 빈번히 마주치게 되는 주정뱅이들이며가 이러한 정경을 더한층 지겹고 우울하게 만들고있었던것이다. 깊은 혐오의 빛이 한순간 갸름한 청년의 얼굴을 흐려놓고있었다. 말이 나온김에 얘기해두지만 그는 상당한 미남자로서 시원하게 검은 눈동자를 지닌데다가 머리는 밤색이며 키는 중키보다 약간 컸고 몸매는 여윈 편이나 날씬하게 생긴 청년이였다. 하지만 그는 곧 무엇인지 깊은 생각,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일종의 무아의 지경이라고도 할만한 상태에 빠져있는것처럼 주위에는 눈도 돌리지 않고 또 돌리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걷기 시작했다. 그저 이따금 무언가 중얼중얼 혼자말을 지껄이고있었는데 이것은 방금 자기자신도 인정하였던바와 같이 례의 독백하는 버릇이 나왔기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자기의 생각이 이랬다저랬다 갈피를 못잡는것을 느끼고있었고 게다가 몸도 매우 쇠약해진것을 깨닫고있었다. 오늘까지 벌써 이틀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장편소설 《죄와 벌》중에서

작가소개

표도르 미하일로비츠 도스또옙스끼

표도르 미하일로비츠 도스또옙스끼(1821—1881)는 19세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작가들가운데서 가장 모순이 많은 작가였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여나 군의출신인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뻬쩨르부르그에 가서 륙군공병학교를 졸업하고 짜리군대장교가 되였으나 직업적인 작가가 될 희망을 가지고 1년만에 군대에서 나와 전문적인 작가생활의 길에 들어섰다.

도스또옙스끼는 25살때인 1846년에 처녀작으로서 뻬쩨르부르그의 빈민굴에 사는 최하층사람들의 생활과 심리를 깊은 동정을 담아 그려낸 장편소설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하여 당시의 유명한 진보적평론가 벨린스끼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고무되여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리게 되였다. 이 시기 도스또옙스끼는 1840년대 로씨야문학에서 진보적역할을 놀았던 《자연파》작가들과 같은 립장에 서서 특권계급이 아니라 가난하고 무권리한 도시빈민들의 일상생활과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가 그들의 비참한 운명에 동정을 기울이고 착취사회의 사회적불평등을 비판해 나섰다.

그러나 온갖 진보적인 싹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압살해버리는 짜리전제통치밑에서 젊은 도스또옙스끼 역시 어려운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공상적사회주의자 뻬뜨라쉡스끼의 비밀소조에 가입한 《죄》로 1849년에 체포되여 뻬뜨로빠블롭스크요새감옥에 갇혔으며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장에까지 끌려나갔다가 사형집행이 취소되여 4년동안 징역살이를 하고 뒤이어 5년동안 씨비리수비대에서 병역살이를 치르고난 다음 풀려나와 뻬쩨르부르그로 돌아올수 있었다. 이 기간의 고통스러운 체험

은 그의 사상정신상태에 큰 후과를 미쳤다.

진보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되지 못한채 죽음의 고비를 넘고 씨비리 벽촌에서 고통스러운 류형살이를 하게 된 도스또옙스끼는 점차 반동적인 짜리전제제도를 타승할수 없으며 투쟁으로써 현실을 개조할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주의에 빠져들어가 자신이 겪는 고통을 이겨낼 지탱점을 종교에서 찾게 되였으며 혁명투쟁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교적《순종》과 종교적 신앙속에 인민을 가난과 불행에서 《구원》하는 길이 있다는 반동적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되였다.

그렇다고 그의 마음속에서 청년시기에 품었던 반항적이며 무신론적인 경향이 완전히 없어진것은 아니였다.

그리하여 그후 도스또옙스끼의 창작에서는 이러한 두 경향이 한데 얽히여 매우 모순된 양상을 이루게 되였으며 사실주의적경향과 반사실주의적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였다.

도스또옙스끼는 씨비리류형에서 돌아온 후 이러한 모순된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계속하게 되였다.

창작생활에 되돌아온 첫 2년동안에 뻬쩨르부르그의 빈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 《학대받는 사람들》(1861)과 한 류형수의 수기형식으로 자신이 겪은 씨비리류형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1862)을 발표하여 당시의 문단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도스또옙스끼는 그후 계속하여 1881년에 60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표작인 《죄와 벌》(1866)을 비롯하여 《백치》(1868), 《악령》(1872), 《미성년》(1875), 《까라마조브형제》(1880)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도스또옙스끼의 이 모든 작품들에는 그의 세계관의 모순이 강하게 표현되여있다.

○상식○

까라마조브형제

1880년에 도스또옙스끼가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한 가정의 운명을 통하여 19세기 말엽 짜리로씨야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다. 표도르 까라마조브에게는 전처의 자식인 드미뜨리와 후처의 자식들인 이완과 알렉쎄이가 있다. 그리고 표도르와 백치녀자사이에 태여난 스메르쟈꼬브라는 사생아가 까라마조브의 집에서 심부름군으로 살고있다. 스메르쟈꼬브는 늘 같은 형제이면서도 다른 세사람과 달리 유독 자기혼자만이 심부름군으로 살고있는데 대한 불만을 품고있었다. 그런데 그의 불만을 풀수 있는 기회가 조성된다.

맏아들 드미뜨리와 아버지사이에 유산상속과 한 녀자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암투가 벌어진것이다. 일찍부터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된다》는 이완의 무신론적이며 개인리기주의적인 견해에 마음속으로 공감하고있던 스메르쟈꼬브는 이러한 기회를 리용하여 아버지 표도르를 죽이고 돈을 도적질한 후 그 죄를 드미뜨리에게 넘겨씌운다.

그리하여 드미뜨리는 씨비리로 류배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간접적인 살인자로 되였다는것을 깨달은 이완은 미치고말며 스메르쟈꼬브도 인생에 대한 비관과 절망끝에 자살한다. 이 소설은 장편소설 《죄와 벌》과 마찬가지로 모순된 사상예술적특성으로 하여 많은 론의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소설의 긍정적인 측면은 로씨야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로 이행한 19세기 후반기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황금만능주의사상과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사상에 기초한 이른바 《개성의 자유》의 해독성과 그 파국적후과를 신랄하게 폭로비판한것이다. 작품에서는 서유럽자본주의문명의 대표자라고 할수 있는 이완과 그의 리론에 사상적으로 공감하여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스메르쟈꼬브, 탐욕심이 강하고 부화방탕하며 무분별한 표도르와 드미뜨리의 형상을 통하여 황금만능주의와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개성의 자유》가 당대 로씨야사회생활에 어떤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는가 하는것을 비교적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소설은 작가의 세계관적모순으로부터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악을 인정하면서도 그로부터의 출로를 투쟁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랑과 순종에서 찾고있는 등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과 사실주의적측면, 소설창작의 높은 기교로 하여 도스또옙스끼의 대표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일화○

사형장에서 살아나다

로씨야작가들중 도스또옙스끼만큼 긍정면과 부정면이 한데 뒤엉킨 심각한 세계관의 모순속에서 불행과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작가는 없을것이다. 소위견장을 달고 공병총국 설계실에서 근무하다가 문학을 지향하여 1년만에 사퇴한 도스또옙스끼는 25살때 고골리의 중편소설 《외투》에서 영향을 받아 처녀작 장편소설 《가난한 사람들》을 써서 벨린스끼의 높은 평가를 받고 로씨야문단에 재능있는 소설가로 등장하였다. 그는 련이어 《2중인격자》, 《녀주인》, 《백야》, 《네또츠까 네즈바노바》(미완성)와 같은 중편소설들을 한해에 한편씩 내놓음으로써 명망높은 소설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이 시기 도스또옙스끼는 공상적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비밀소조인 뻬뜨라쉡스끼의 《동지회》에 관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동지회》의 한 모임에서 고골리에게 보내는 벨린스끼의 유명한 편지를 랑독하였다. 그것은 농노제적로씨야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던 고골리가 종교적 순종에로 기울어지는데 대하여 책망하는 비밀편지였는데 짜리전제제도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이 편지는 원고상태에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지면서 선진인사들속에서 읽히우고있었다.

그런데 《동지회》에는 짜리경찰의 비밀임무를 받은 뻬쩨르부르그종합대학 학생 안또넬라가 잠입해있었다. 그의 밀고로 도스또옙스끼는 다른 《동지회》성원들과 함께 짜리경찰에 체포되여 감옥에 갇히웠다. 그들은 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9명의 성원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진행되게 되였는데 현장에는 십자가를 쥔 목사와 교형리들, 총을 쥔 병사들과 하사관들이 모여서있었다. 총살은 한번에 3명씩 하게 되여있었으며 도스또옙스끼는 두번째 그루빠에 속해있었다. 첫 그루빠의 성원들이 나무기둥 있는데로 끌리여가고 사형수들의 눈이 싸매여진 다음 병사들이 총을 겨냥하고 사격구령을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 황제의 특별명령으로 사형선고가 취소되고 사형이 징역살이와 병역살이로 바뀌여졌다. 이것은 황제 니꼴라이1세의 간교한 술책이였다. 통치배들은 죄수들에게 공포감을 줄 목적으로 《사형선고문》과 《대사령》을 동시에 작성해놓고 이런 놀음을 벌렸던것이다. 그리하여 도스또옙스끼는 4년간의 징역살이를 하고 5년간이나 씨비리국경지대에서 병역살이를 하였다. 그가 겪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체험을 생동하게 펼쳐보인것이 장편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이다.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는 로씨야의 이름난 비판적사실주의시인 니꼴라이 네크라쏘브가 1866년부터 1876년까지에 걸쳐 창작한 장편서사시(미완성)이다.

머리시와 《제1부》의 《농사군처녀》, 《막동이》, 《성연》으로 나뉘여져있는 장편서사시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는 1861년 농노《개혁》을 전후한 시기 로씨야의 농촌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로씨야농민의 해방과 행복에로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것을 사상주제적과제로 내세우고있다.

서사시에는 함께 려행길에 오르는 일곱명의 농민들, 농사군녀자 마뜨료나 찌모페예브나, 그의 시아버지 싸벨리, 신학교 학생 그리고리 도브로스클로노브 등이 주요인물로 등장하고있다.

서사시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 로씨야땅을 방랑하는 일곱명의 농민들의 편력기형식을 취하고 그들이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을 따라 이야기를 펴나가고있다.

어느 한 고장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곱명의 농민들이 큰길에서 우연히 만나 《로씨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을 벌린다.

지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신부, 뚱뚱보상인, 높은 벼슬을 하는 귀족, 황제라는 사람들도 있다. 하여 이 론쟁은 끝이 나지 않으며 도가 넘어 주먹싸움질을 하기까지에 이른다.

이런 때 한 농민이 나무둥지에서 떨어진 산새새끼 한마리를 잡는다. 그런데 어미새가 사람의 말로 새끼를 놓아주면 보물함이 묻혀있는 곳을 대주겠다고 한다. 농민들이 그 산새가 대준 곳에 가서 땅을 파보니 정말 보물함이 나온다. 그안에는 한장의 상보가 들

어있었다. 농민들이 산새가 대준대로 《자, 스스로 갖추는 상보야, 어서 농군들을 대접하여라!》라고 소리지르자 상보가 저절로 펼쳐지더니 술 한바께쯔와 빵 한무더기에 절인 오이와 뜨거운 차, 찬 맥주를 내놓는다. 실컷 먹고 마신 끝에 일곱명의 농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말고 로씨야에서는 누가 행복한가를 알아낼 때까지 함께 찾아다니기로 굳게 약속하고 길을 떠난다.

길을 떠난 농민들이 처음 만난것은 신부이다.

하루해가 저물어갈 때 일이다
농부들이 가던 길 걸어가는데
말을 타고 마주오는 신부가 보였다
농부들은 모자를 벗어들고
나직이 머리숙여 인사를 한다
한줄로 죽 늘어들 서서
신부가 타고오는 누런 거세말이
가는 길 가로질러 막아들 선다

농민들은 자기들이 길을 떠난 사연을 말하고 신부의 살림이 어떤지 그가 행복한지 솔직히 대답해달라고 청한다. 그러자 신부가 대답하기를 사람의 행복에는 안정과 재부와 명예가 필요한데 신부의 생활에는 그 세가지중 한가지도 없으니 행복할수 없다고 대답한다. 신부가 가버리자 농민들은 신부가 제일 행복하다고 주장한 루까를 가운데 두고 한참동안 몰아준다.

다시 길을 떠난 나그네들은 어느 한 마을에서 농촌장마당과 맞다들게 된다. 그들은 하루속히 집에 돌아가려는 생각이 간절해났으므로 빨리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고저 사람들속에 들어간다.

명절날의 수다스런 군중들속을
헤치고 다니면서 나그네들은
이렇게 소리높이 웨쳐 불렀다
《이보시우! 행복한 사람은 없소?

오시우! 만일 살기를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 판명이 되면
우리한테 술 한통이 있소
공짜로 마음껏 마셔도 좋소
본때있게 대접하리다!…

이 말을 듣고 공짜술을 얻어먹어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여기서 손바닥만한 밭에서 큰 무우가 생겨 행복하다는 로파, 전쟁판에 나갔다가 죽지 않고 돌아온것이 다행이라는 퇴역병사를 비롯하여 석수쟁이, 노복 등 많은 사람들이 나섰는데 그들은 기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이였다. 이들의 말을 듣고 난 나그네들은 이런 결론을 얻는다.

농군의 행복이란 한심도 하지
누덕누덕 누더기행복
못박히고 등굽은 행복
빡빡 얽은 곰보행복
제갈대로 가보리라!

장마당을 떠나 큰길을 따라 걸어가던 농민들은 삼두마차를 타고 오는 지주를 만나게 된다.

그 지주는 농민들의 사연을 듣고나자 껄껄 웃으면서 쾌히 그들의 물음에 대답을 준다.

나의 희망이자 법이였고
나의 주먹이자 경찰이였다!
한번 치면 불이 번쩍
두번 치면 이발이 부러지고
세번 치면 광대뼈가 휘여들었지

지주는 지나간 농노제시대를 행복한 시대로 회고하면서 지금

은 그전처럼 제마음대로 못하니 불행하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농민들은 지주에게서 간악한 인민의 원쑤를 보게 된다.

일곱명의 농민들은 남자들속에서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녀자들속에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작정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행복한 녀자라고 말하고있는 마뜨료나 찌모페예브나라는 농사군녀자를 찾아가 그의 살림살이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갖은 수모와 학대속에서 사는 농촌녀자들의 생활이란 어떤것인가를 말해준다.

마뜨료나는 불행과 비애가 계속되는 비참한 생활속에서도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근면하고 강의하게 생활을 개척해나가며 자기의 인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항거할줄 알며 시비를 가릴줄 아는 녀성이였다.

그는 자기를 꼬이려는 지주의 마름에게 굴하지 않고 떳떳이 맞섰으며 자기 아들의 주검을 모욕하는 관리들에게 대들었고 목동노릇하는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촌장의 채찍을 막아나섰다. 그는 또한 부당하게 병정으로 뽑힌 남편을 돌려보내달라고 현지사집에까지 찾아가 남편을 찾아왔다.

여기서 나그네들은 마뜨료나의 시아버지 싸벨리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깊게 듣는다.

싸벨리는 젊었을 때 그들이 살던 령지의 소유자인 악독한 귀족지주의 무서운 채찍밑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왔으며 그자의 대리인으로 온 도이췰란드인마름 포겔이 너무나 악착스럽게 략탈하는것이 하도 가증스러워 그자를 구뎅이안에 밀어넣고 생매장해버린 만만치 않은 농민이다. 그는 이것으로 하여 20년동안 징역살이를 하고 20년동안 류형살이를 하였다.

그래도 그는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있으며 《징역수의 락인은 찍혔지만 노예는 아니다.》라고 떳떳이 말한다.

행복을 찾아 방랑하던 농민들은 볼가강가의 한 마을에서 농노를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던 지주 우짜찐공작의 마지막운명을 목격하게 된다. 이자는 농노제가 폐지되였다는것도 믿지 않고 자

기의 과거처지를 한순간도 잊을수 없어 자기 집안사람들과 농민들로 하여금 예전그대로 봉건적인 노예로 있을것을 강요한다. 지주네 집안사람들은 이 지주의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서로 다투면서도 우짜찐의 마음에 들어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빌붙는다. 나그네들은 지주 우짜찐과 그 집안사람들의 이러한 몰골을 보고 조소를 던진다.

마지막부분에서 시인은 이 마을에서 자라난 신학교 학생 그리고리 도브로스클로노브에 대한 이야기를 펴고있다.

그는 가난한 교회당심부름군의 아들인데 생활처지는 여느 농민들과 똑같이 가난하고 굶주리는 처지에 있다.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로씨야농민이 못사는것은 농노제도탓이였는데 농노제도가 페지된 다음에도 농민들이 얻은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폭로한다. 그는 오랜 사색과 탐구끝에 자신도 인민옹호의 길에 나서리라고, 그길이 페병과 씨비리 즉 감옥과 고문, 류형살이와 고

○상식○

1861년 농노《개혁》

이 농노《개혁》은 1861년에 짜리의 칙령으로 농노제가 페지된것을 말하는 《개혁》이다.

당시 농노제를 페지하는 문제는 로씨야의 사회생활에서 중심문제로 제기되였다.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에 먼저 들어선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생산력이 빨리 발전하여 도시뿐아니라 농촌까지도 자본주의화되여 자본주의적관계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있던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도 로씨야에서는 여전히 락후한 봉건전제제도와 농노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농노제때문에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고 농노주로부터 소나 말과

역살이를 동반하는 시련의 길이지만 기어이 그길에 나서리라고 마음다지게 된다. 서사시에는 이러한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당시 로씨야의 농촌생활정경이 생동하게 펼쳐지고있으며 다양한 농민들의 형상, 지주를 비롯한 특권층의 형상이 련이어 묘사되고있다. 그리고 군데군데 가요들이 삽입되여 작품의 주제사상을 강조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서사시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의 좋은점은 무엇보다도 이전시기 로씨야시문학에서는 볼수 없었던 정도로 인민생활, 특히 농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데 있다.

작품에서는 행복의 탐구자인 일곱명의 농민들을 따라가면서 당시 로씨야의 농촌생활정경이 폭넓게 펼쳐지며 기아와 빈궁속에서 신음하는 농민들의 처지가 생동하게 반영되여있다.

행복의 탐구자들이 그 어데를 가보나 농민들의 생활은 기아와 빈궁, 고역과 학대, 암흑과 무권리속에서 흐르고있었다. 일곱명의 농

같은 취급을 당하고있던 농노들은 농노제의 페지를 사활적인 문제로 요구해나섰으며 이 투쟁에 진보적사회층이 합류해나섰다. 그리하여 19세기 중엽 로씨야에서는 혁명적정세가 조성되였다.

이에 겁을 먹고 당황망조한 짜리를 우두머리로 하는 로씨야의 지배계급은 제한된 농노《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농노개혁은 매우 불철저한 개혁이였다. 농노《개혁》후에도 농촌에서는 여전히 봉건적대토지소유제도가 지속되고 농노제의 잔재가 뿌리깊이 남아있었다. 농민들의 처지는 농노《개혁》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달라진것이 있다면 신분상 자유로와져 물건처럼 팔고살수 없게 된것뿐이였다. 농민들은 여기에다 자본주의적착취까지 겹쳐 2중, 3중의 착취를 당하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노제의 페지는 로씨야에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국가제도의 점차적인 부르죠아화를 촉진하였다. 1861년 농노《개혁》후 로씨야에서는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민들의 출신마을이름자체가 그들자신의 비참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빼빼말라졸라맨현의 참아라고생군 텅텅빈면에 속하는 누덕촌, 구멍촌, 맨발촌, 염병촌, 화재촌, 기아촌, 흉년촌에서 온 농민들이다.)

농민들은 특히 농노제시기에 이루 말할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서 죽지 못해 살아왔다. 삽입된 가요 《부역의 노래》에는 깔리나라는 한 농노가 나온다. 몸집은 큰데 입은것은 적삼 하나이며 매질에 온몸이 찢기고 터지고 운신을 못하는 깔리나의 모습은 농노제시기 로씨야농노들의 비참한 처지를 일반화하고있다.

서사시는 농노제시기뿐아니라 농노《개혁》후 이른바 《해방》되였다는 농민들의 처지가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을 까밝히면서 이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가혹한 착취밑에서 령락되여가는 농민들의 처지를 반영하고있다. 시인은 일곱명의 농민들이 장마당에서 만난 한 농민의 입을 통해

> 일은 혼자 하는데
> 일이 끝나기 바쁘게
> 새 빚쟁이가 나타나지
> 하느님, 상감님, 나으리님!

라고 농민들을 저마끔 뜯어먹으려는 교회와 황제, 귀족지주들을 폭로하고있다.

서사시에 나오는 갖은 수모와 학대속에서 시들어가는 농촌녀인 마뜨료나 찌모페예브나의 신세와 그의 시아버지 싸벨리가 겪는 고초 역시 당시 로씨야농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잘 반영하고있다.

이 서사시에서 특징적인것은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에 대한 묘사를 그들을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은 장본인들인 귀족지주들에 대한 폭로비판과 결부시키고있는것이다.

일곱명의 농민들이 만났던 지주 오볼뜨－오볼두예브는 농노제시기 지주들의 무법천지와 전횡을 자랑하며 지주 우짜찐공작은 농노제가 폐지되였다는것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예전그대로 처신할

것을 강요한다. 그런가 하면 귀족지주 글루홉스끼는 《나는 이 세상에서 계집들과 황금과 명예와 술만 즐기오.》라고 뽐낸다.

서사시는 이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농민의 원쑤들인 간악하고 포악한 귀족지주들을 격분에 넘쳐 폭로하고있다.

서사시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의 좋은점은 다음으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반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속에서 날로 드높아가는 반항정신과 자주적인 지향을 반영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을 긍정하였으며 인민의 힘과 그 미래에 대한 신념을 힘있게 노래한데 있다.

물론 서사시에 나오는 농민들가운데는 락후한 가부장적농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각성하기 시작하고 귀족지주, 관료배들에게 맞서나서며 반항하는 농민들의 형상이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싸벨리와 마뜨료나 찌모페예브나이다.

싸벨리의 형상에는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참지 못하고 들고일어난 자연발생적인 폭동자의 성격이 체현되여있다. 그는 앉아서 한탄만 한것이 아니라 원쑤를 반대하여 보복을 가한 점에서는 여느 농민들보다 각성한 농민이였다. 하지만 그 역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모르고있으며 따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담하다. 그는 어떻게 살것인가고 묻는 마뜨료나에게 참고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마뜨료나 찌모페예브나의 형상에는 당시 로씨야근로녀성들이 가지고있던 긍정적인 성격적특질이 적지 않게 반영되여있다.

시인은 봉건적착취와 압박밑에서 기아와 빈궁, 무권리속에서 신음하면서도 강의하게 살아가며 착취와 학대에 항거해나서는 이런 농민들을 깊은 동정을 가지고 묘사하면서 싸벨리의 입을 빌어 그들을 《장수》라고 부르고있다. 여기에는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이 일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서사시에서는 인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앞날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고 그러한 앞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몸바쳐나설 결심을 다지는 인물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리 도브로스클로노브의 형상이다. 시인은 그

의 형상을 통하여 작품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시도하면서 이 인물을 로씨야농민의 행복을 위하여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며 거기에서 삶의 행복을 누리는 청년선각자로 그리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로씨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곱명의 농민들이 그를 만났더라면 자기들의 언쟁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이 서사시의 기본사상이 있다.

서사시는 폭넓은 서사시적화폭과 려행기형식의 구성, 다양한 시형식과 수법을 가지고 당대 인민생활과 농민들의 성격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서사시는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로씨야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반영하고 그들의 자주적지향을 보여주면서도 그 지향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이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간적지향》을 꽃피우기 위한것이라고 제기하고있는데 있다. 그것은 짜리전제제도를 부정하는 면에서는 진보적인 내용을 가지고있으나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일반의 지향이라는 말에 가리워진 부르죠아민주주의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서사시는 또한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 나선 긍정적주인공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그것을 옳게 해결하지 못한데 있다. 서사시가

○유모아○

퇴맞은 원고

한 시인이 화가 잔뜩 나서 퇴짜맞은 시집원고를 들고 《쏘브레멘니크(현대인)》잡지편집부에 뛰여들었다.

《난 당신의 요구대로 작품을 수정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시구절들에 좀 더 뜨거운 불길이 일게 하랍니까?》

그의 말이였다.

《아니, 아니요. 난 오히려 당신의 시들을 더 뜨거운 불속에 아주 집어넣었으면 하는데요.》

네크라쏘브가 하는 말이였다.

내세운 그리고리 도브로스클로노브의 형상은 19세기 60년대 혁명적민주주의자들의 일련의 특성을 반영하고 19세기 70~80년대 혁명적인민파청년들의 활동을 예고한것이긴 하나 그이상은 넘어서지 못하고있다.

서사시에는 1861년 농노《개혁》후 로씨야농촌에서 일어난 계급분화과정, 새로운 자본주의적착취관계의 발전에 대한 묘사가 미약한것과 같은 제한성도 있다.

서사시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는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로씨야농민을 중심에 놓고 그들자신의 체험과 사상감정을 노래하였으며 농노《개혁》전후시기 농촌생활을 폭넓게 펼쳐보임으로써 시문학을 현실과 더욱 접근시켰으며 로씨야의 진보적시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서사시는 또한 당시 로씨야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지주들의 간악성과 포악성을 폭로하였으며 비록 추상적이긴 하나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로 호소함으로써 당대사람들을 계몽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부역의 노래

깔리누슈까는 가난하고 텁수룩하니
뽐낼것이란 아무것도 없네
등어리는 넙죽하지만
적삼밑은 어찌되였나
발끝에서 목까지 성한데 없고
매질에 온몸이 터지고 찢기고
겨죽으로 채운 배만이 불룩하네
밀치고 굴리고
때리고 짓이겨져

깔리나는 운신을 못하네

장편서사시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중에서

인민의 운명
인민의 행복
광명과 자유
그보다 귀중한것 더 어디 있으리!

… …

운명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대렬에 서라
멸시받는 사람들에게로
모욕당하는 사람들에게로
나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

장편서사시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중에서

작가소개

니꼴라이 알렉쎄예비츠 네크라쏘브

로씨야남부 볼가강류역에 있는 야로슬라브지방의 농촌귀족지주의 집안에서 태여난 니꼴라이 알렉쎄예비츠 네크라쏘브(1821－1878)는 직업적시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19세기 40년대초에는 벨린스끼로부터, 50～60년대에는 체르니쉡스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당대의 선진사상이였던 혁명적민주주의사상에 공명해나섬으로써 귀족지주계급의 계급적울타리에서 벗어나 전제제도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립장을 취하였다.

네크라쏘브는 1840년대 후반기부터 당시 로씨야의 진보적문학운동의 중심이였던 《쏘브레멘니크(현대인)》잡지(1846－1866)와 《조국잡보》잡지(1868－1870)를 편집, 발행하면서 그를 통해 당시 로씨야의 진보적문학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놀았다.

시인은 19세기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근 40년동안의 시창작활동을 통하여 수많은 서정시와 서사시유산을 남겼다.

그가운데서 제일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로씨야인민의 생활 특히 농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그들의 비참한 처지와 운명에 깊이 동정해나선 작품이다.

서정시에서는 《정원사》, 《뜨로이까》, 《고향》, 《어두운 밤거리로…》, 《정문앞에서의 묵상》, 《아이들의 울음》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시인은 서사시 《눈보라, 빨간코》(1863)에서 직접 농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한 농민의 죽음과 장례, 과부가 된 이 농민의 안해의 체험과 그가 겪은 불행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담아 노래하였으며 서사시 《철길》(1864)에서는 차칸에서 서정적주인공이 와냐라는 소년에게 이 철길건설의

진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노래하고 인민의 압박자, 착취자들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시인은 압박받고 착취받는 인민들이 가지고있는 힘을 긍정하고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될 훌륭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였으며 그러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호소하였다.

서사시 《할아버지》(1870), 장편서사시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1866-1876)와 같은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뚜렷이 표현되였다.

네크라쏘브는 당시에 류행하던 귀족적이며 예술지상주의적인 시형식을 배격하고 인민들이 알아들을수 있는 새로운 시형식, 새로운 시어를 창조하기 위하여 애썼으며 로씨야인민들이 사랑하는 민요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시는 현실반영의 꾸밈없는 진실성과 소박성, 음악적인 운률에서도 특징적이다.

네크라쏘브의 시창작은 혁명적민주주의사상자체의 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뿌슈낀, 레르몬또브의 뒤를 이어 시를 인민생활에 더욱 접근시킴으로써 로씨야사실주의문학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상식○

정문앞에서의 묵상

《정문앞에서의 묵상》은 네크라쏘브가 1856년에 발표한 서정시이다.

헐벗고 굶주리는 농민들과 대조적으로 호화찬란한 고대광실에서 안일부화한 생활을 하면서 인민들이야 죽건살건 무관심한 통치배들을 신랄히 풍자하고 로씨야땅 그 어데를 가나 목격하게 되는 신음하는 근로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그들의 고통과 불행에 대하여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그들은 신음한다 들에서 길에서
그들은 신음한다 감옥에서 철창안에서
그들은 신음한다 광산에서 고랑을 차고
그들은 신음한다 건곡장에서 마른 풀더미에서
신음한다 초원 마차밑에서 밤을 새우며
신음한다 해빛 들지 않는 가난한 따집에서
신음한다 모든 궁벽한 고을들에서
신음한다 재판소와 관청정문앞에서…
볼가로 나오라 그 누구의 신음소리가
위대한 로씨야의 강우에 울리는것이냐?
이 신음소리를 우리는 노래라 부르노니
그것은 배끄는 사람들의 줄을 당기는 노래여라
……
인민이 사는 곳, 거기에는 신음소리 들리더라…

시인은 나아가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될 훌륭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노래하였다.

오, 조국의 땅이여!
나에게 보여다고, 내 일찍 보지 못한
그런 행복한 보금자리를!
어디 가면 너의 씨뿌리는 사람들과 수호자들이
어디 가면 로씨야의 농민들이 신음하지 않으랴?

○일화○

시창작에 바친 시인의 땀과 노력

네크라쏘브는 한쪼각의 빵과 물만으로 하루이틀 에워야 하는 가난속에서 첫 시집 《소원과 음향》을 완성하였다. 이 시집은 네크라쏘브의 학우의 교섭과 그의 아버지의 돈으로 겨우 출판될수 있었다. 그때가 1840년이였다. 그의 시집을 출판하여 얼마간 돈을 번 출판업자가 이름난 평론가 벨린스끼의 평을 받으려고 네크라쏘브를 데리고 그의 집에 찾아갔다.

그를 만나준 벨린스끼는 대뜸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집은 졸작이요. 이 시집에 얼마만한 땀과 노력을 바쳤소? 시를 쓴다는것, 시인이 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한편의 시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는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소. 살을 깎아내고 뼈를 갉아내는것이 시를 쓰는 일이요. 피와 기름, 땀과 눈물이 응고된것이 시라고 한 괴테의 말이 있지 않소. 그래 당신은 이 시집에 피와 기름을 몇방울이나 짜넣었소? 땀과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이 시들을 썼소? 이 시집에서 그런 피타는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수 없단 말이요.》

맥이 탁 풀린 네크라쏘브는 그만 울상이 되고말았다.

벨린스끼는 감수성이 강한 젊은 시인의 곧은 마음씨를 감촉했는지 지금까지의 랭랭하던 태도와는 달리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면서 타이르듯 말하였다.

《당신은 너무나 시를 쉽게 썼소. 한자한자를 끌로 파내는것과 같은 심정으로 시를 쓰지 않았단 말이요. 시란 감정의 뜨거운 피로 써야 하오. 그렇게 쓴 시만이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릴수 있소. 흥분을 앞세우는 젊은 시인들에게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고싶소.》

네크라쏘브는 시내 서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시집을 모조리 사들여 불태워버리였다. 3년후 드디여 그는 무자비하게 혹평했던 벨린스끼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시들을 써내고야말았다.

전쟁과 평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프랑스의 나뽈레옹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로씨야에서의 조국전쟁과 그를 전후한 력사적시기의 사회정치활동을 대서사시적화폭에 담아 보여준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는 작가가 제기한 심각한 문제성과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세계문학사에서 이름있는 걸작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1863－1869)는 레브 똘스또이의 장편소설로서 1805년부터 1820년대초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봉건로씨야와 서유럽의 력사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나뽈레옹침략군의 로씨야침입경위와 그를 반대하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묘사하면서 그 당시 로씨야와 서유럽의 사회정치생활을 대서사시적화폭에 담아 보여준 장편력사소설이다.

소설에는 귀족들인 안드레이, 삐에르, 나따샤, 마리야, 꾸뚜조브 등 주요인물을 비롯하여 무려 500여명을 헤아리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전쟁과 평화》는 세계문학에서 등장인물이 가장 많은 소설의 하나이다.)

소설은 전4권으로 구성되고있다.

소설의 제1권에서는 1805년전쟁을 중심사건으로 다루고있다.

영국과 친선관계에 있던 로씨야는 1805년에 오스트리아와 함께 나뽈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대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게 된다. 꾸뚜조브를 사령관으로 하는 로씨야군대는 로씨야국경밖 오스트리아, 뽈스까지방에서 오스트리아군대와 련합작전을 한다. 반정부적감정을 가진 퇴역장군 볼꼰스끼공작의 아들 안드레이 볼꼰스끼공작은 상류귀족사회의 방탕한 생활과 권모술수, 리기주의에 혐오를 느끼면서 새 생활에 대한 희망을 안고 꾸뚜조브의 부관

으로서 전선으로 떠난다.

로씨야군대가 전쟁을 하고있을 때에도 후방의 귀족사회에서는 방탕한 생활이 계속될뿐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출세와 치부를 이룩하려는 온갖 술책이 벌어진다. 뻬쩨르부르그에서는 황후의 측근자 안나 쉐레르의 객실에서 매일과 같이 야회가 열리고 출세를 위한 아첨과 교섭이 진행된다. 알렉싼드르1세의 정부에서 대신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와씰리 꾸라긴공작은 무능하고 탐욕스러운자로서 자기 가정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의 자식들인 이뽈리뜨와 아나똘리, 옐렌은 다 방탕한자들이다. 드루베쯔꼬이공작의 미망인인 안나부인은 자기 아들 보리스를 출세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 쓰며 마침내 근위대에 입대시킨다.

프랑스에 류학하는 과정에 로씨야의 전제농노제도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자유주의사상을 가지고 귀국한 삐에르 베주호브는 그의 견해와 서자의 신분 그리고 상류사교계에서 처신할줄 모르는것 등으로 하여 웃음거리가 된다. 그러나 아버지 베주호브백작이 죽으면서 백작의 작위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일약 백작으로, 모스크바의 1등부자로 된다. 그러자 그에 대한 상류사교계의 태도가 일변한다. 모두가 그의 환심을 사려고 굽신거리는 가운데 삐에르는 와씰리공작의 꾀임에 넘어가 그의 방탕한 딸 옐렌과 거의 강제로 결혼당한다.

공명출세와 치부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귀족들과는 달리 량심적인 로스또브백작가정은 사회적지위나 재산상으로 몰락해가는 처지에 있었으나 도덕적으로 건전하며 애국적인 립장에 있다. 로백작은 나라의 운명을 늘 걱정하며 아들 니꼴라이는 나라에 복무하기 위해 전선으로 떠나간다.

오스트리아의 브라우나우에 주둔하고있던 로씨야군대는 프랑스군대에 비하여 수적으로 적고 전쟁에 아무런 리해관계도 없는 병사들의 무관심으로 사기가 높지 못한데다가 오스트리아군대의 패전과 변절로 곤난한 처지에 빠진다. 이러한 때에 나뽈레옹군의 포위공격으로 로씨야군대는 파멸의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

다행히 꾸뚜조브가 방차대로 파견한 바그라찌온부대가 쉔그라벤에서 한주야동안 적군의 진격을 저지시켰기때문에 로씨야군의 주력이 후퇴에 성공한다. 프랑스군과의 결전이 불리하다는것을 간파한 꾸뚜조브는 후퇴를 계속한다. 이에 불만을 품은 로씨야황제는 직접 전선에 나와 부대를 사열하고 결전을 요구한다. 꾸뚜조브는 실권을 잃고 대신 무능한 오스트리아장군이 작전계획을 세운다.

그리하여 체스꼬의 한 지방인 아우스떼를리쯔에서 로씨야—오스트리아련합군과 프랑스군과의 격전이 벌어진다. 이 싸움에서 로씨야군은 크게 패전하며 로씨야황제자신이 겨우 목숨을 보존한다. 꾸뚜조브의 부관 안드레이는 패주하는 병사들을 돌려세우려고 군기를 들고 돌진하다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적군에 포로되여 야전병원에 수용된다. 안드레이는 전투와 부상을 통해 전쟁의 무의미성, 인간의 욕망의 저속성 등을 느끼면서 전선에 나오기 전보다 더 심한 삶에 대한 환멸에 사로잡힌다. 제1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제2권에서는 1805년전쟁이후 1812년전쟁사이의 평화적시기의 이야기가 벌어진다.

알렉싼드르1세는 아우스떼를리쯔전투에서 패전한 후 꾸뚜조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를 남부의 뛰르끼예전선으로 조동시켜버린다. 황제는 나뽈레옹과의 전쟁이 불리하다는것을 깨닫고 그가 제기한 조건에 동의하여 1807년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나뽈레옹의 침략정책에 대한 동의, 영국과의 관계단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조약은 로씨야의 대외관계뿐아니라 국내생활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친프랑스적인 세력이 커지며 황제의 고문 스뻬란스끼는 부르죠아적개혁안을 제출한다. 영국과의 무역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는 지주, 상인들은 조약과 개혁안을 반대한다. 한편 나뽈레옹은 평화조약의 간판밑에 영국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시키면서 로씨야에 대한 침공준비를 서두른다. 이리하여 로씨야와 프랑스사이의 관계는 극도로 첨예화된다.

이러한 시기에 주인공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기들이 나갈 길을 찾는다.

프랑스군야전병원에서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민가에 넘겨버렸던 안드레이가 회복되여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 안해가 해산하다가 죽는 불행을 당한다. 모든것에 환멸을 느낀 안드레이는 세상일을 포기하고 아들애를 키우면서 세월을 보낸다. 그러다가 우연히 로스또브백작의 딸 나따샤를 만나 처녀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름으로써 생활에 대한 애착이 되살아나 다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하지만 포악한 관료인 륙군대신 아락체예브와도 부르죠아의 대변자인 장관 스뻬란스끼와도 함께 사업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출세의 길에서 물러선다.

그는 나따샤와의 사랑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으나 아버지가 반대하여 1년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외국려행의 길에 오른다. 나따샤는 안드레이가 외국으로 떠나간 후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로공작의 랭대를 받고 실망하며 고민하게 된다. 이 기회를 노려 방탕아 아나똘리 꾸라긴이 나따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며 나따샤

○상식○

《전쟁과 평화》의 구상이 태여나기까지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가 창작된 시기인 19세기 60년대는 로씨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그것은 비록 불철저한 부르죠아적개혁이였으나 1861년에 농노《개혁》이 실시되고 사회발전의 질곡의 하나였던 농노제가 페지된 후 로씨야가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에로 이행한것이였다. 그리하여 비록 봉건적인 짜리전제제도하에서나마 국가제도는 점차 부르죠아화되여갔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가 빨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의 사회력사적환경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당시의 로씨야사람들속에서 로씨야의 장래발전문제, 로씨야의 운명문제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19세기 50～60년대의 혁명

는 그 유혹에 넘어갈번 하다가 겨우 모면한다. 외국에서 돌아온 안드레이는 이 사실을 알고 나따샤와 파혼한다.

삐에르는 방탕한 안해 엘렌뿐아니라 장인 꾸라긴공작과도 충돌하여 고민하며 전제농노제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모색하던 과정에 마쏜이라는 비밀종교단체에 유혹되여 가담한다. 마쏜의 교리인 박애사상에 공명한 삐에르는 자기 령지에서 농노를 해방하고 그들에게 경제적방조를 준다. 그러나 교활한 령지관리인들이 그 모든 혜택을 가로채며 농노들에게는 아무것도 차례지지 않는다. 안드레이는 삐에르의 공상적인 처사를 비웃으면서도 그의 설복에 따라 자기 령지에서 농노 300명을 해방하고 자유경작지로 만든다.

제3권에서는 프랑스의 나뽈레옹침략군을 반대하는 로씨야인민의 1812년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내용으로 되고있다. 제3권은 전4권으로 되여있는 《전쟁과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적민주주의사상운동과 70년대의 인민주의사상운동을 비롯한 사상운동들과 시대의 주인공문제, 인민의 운명문제를 취급한 여러 문학작품들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였다. 그 실례로 뚜르게네브의 장편소설 《전야》(1859)와 《아버지와 아들》(1862), 체르니쉡스끼의 장편소설 《무엇을 할것인가》(1863), 네크라쏘브의 서사시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들을 들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레브 똘스또이도 로씨야의 장래발전문제와 관련한 《량심적인》귀족들의 사상정신적탐구과정을 반영하고 그들과 인민과의 호상관계문제를 다룬 규모가 큰 장편소설을 구상하게 되였다. 작가는 처음 씨비리류형지에서 돌아오는 《12월파》인사들에 대한 소설을 구상하였는데 그들의 성격과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그 이전시기에로 거슬러올라가게 되였으며 결국 1812년전쟁을 중심으로 한 큰 작품을 쓰게 되였다. 이렇게 하여 태여난것이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이다.

1812년 6월 12일 밤 나뽈레옹은 전쟁선포도 없이 수십만의 대병력을 가지고 배신적으로 국경을 넘어 로씨야를 침공한다. 알렉싼드르1세가 특사를 보냈으나 랭대를 받는다. 점령지대의 동맹군까지 합세한 프랑스군의 수적우세에 압도당한 로씨야군은 부득이 후퇴를 계속한다. 모스크바까지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로씨야사람들은 귀족이나 인민이나 할것없이 모두가 조국방위에 떨쳐나선다. 특히 농노출신의 병사들과 평민출신의 장교들이 침략자들과의 결전을 갈망해나선다. 도처에서 수많은 민병부대들과 인민유격대가 조직된다.

사태가 긴박하게 된 이 시기에 꾸뚜조브가 다시 로씨야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된다. 황제자신은 그를 싫어하였으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꾸뚜조브는 인민들과 병사대중의 갈망을 포착하여 1812년 8월 26일 모스크바에서 300리가량 떨어진 보로지노벌판에서 10여만의 나뽈레옹침략군과의 결전을 벌린다. 이 전투에서 로씨야병사들은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프랑스군에 치명적타격을 준다.

보로지노전투는 로씨야군이 거의 무방비상태로 로출된 평야에서 프랑스군에 비하여 절반밖에 안되는 병력으로 진행한 매우 불리한 싸움이였다. 그러나 단 세시간도 지탱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되던 이 전투에서 로씨야군은 열시간동안이나 전투를 하고서도 그대로 지탱해냈을뿐아니라 프랑스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적들이 모스크바에 접근하였을 때 꾸뚜조브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로씨야를 구원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내주고 후퇴한다. 그는 자기의 후퇴를 승리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나뽈레옹군은 모스크바에 입성한다.

전체 인민이 조국방위를 위한 싸움에 일떠섰을 때에도 상류귀족사회에서는 여전히 부패타락한 생활이 계속되고있었다. 뻬쩨르부르그의 녀자고관 안나의 객실에서는 프랑스말을 쓰지 않기로 한것을 무슨 애국주의적처사인듯이 떠든다. 귀족출신의 많은 장교들이 가족과 재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로 달려간다. 그러나 인민들은 프랑스군대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식량과 건초를 불

사르고 모두 후퇴한다.

안드레이는 1812년전쟁이 터지자 모든 번민을 버리고 공명과 출세가 아니라 조국을 위하여 보로지노전투장으로 달려간다. 그는 참모부에 남아있으라는 총사령관 꾸뚜조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련대장(대좌)의 임무를 받고 전투에 참가했다가 복부에 중상을 입는다.

모스크바의 로스또브백작가정도 후퇴한다. 보로지노전투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이 모스크바로 밀려들었으나 귀족들은 마차에 자기 재물을 싣는데만 신경을 쓴다. 그러나 로스또브가정에서는 나따샤의 주장으로 대부분의 마차를 부상자들에게 내준다. 그 부상자들가운데는 안드레이도 있었다. 후퇴도중 이것을 알게 된 나따샤는 안드레이를 방문하고 위로한다. 안드레이는 얼마후 숨을 거둔다.

나따샤의 오빠 니꼴라이는 그사이 기병중대장이 되며 여전히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한다. 그는 군용건초를 구하려고 보구챠로보마을에 갔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 혼자 남아있는 안드레이의 누이동생 마리야를 만나게 되며 그의 후퇴를 도와주게 된다. 그들사이에 남다른 관계가 이루어진다.

삐에르는 자기 령지에서 민병 한개 련대를 조직하여 보로지노로 보내고 자신도 보로지노로 간다. 그는 거기서 로씨야군대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목격한다.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있던 나뽈레옹숭배사상을 완전히 버리고 그를 복수하기 위하여 모두가 후퇴해버린 모스크바에 남는다. 삐에르는 불타는 모스크바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린 아이를 구원해내며 프랑스군인들의 략탈로부터 아르메니야녀인을 구원하다가 방화혐의자로 체포된다.

제4권에서는 나뽈레옹군의 퇴각과 로씨야군대의 반격, 프랑스군대의 괴멸, 로씨야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벌어진다.

모스크바에 입성한 나뽈레옹은 평화담판을 제기하였으나 거절당한다. 프랑스군은 식량, 피복 등의 공급을 받을수 없게 되고 군대의 규률은 파괴되여 살인, 방화, 략탈이 마구 감행되였으며 군인들은 술주정뱅이무리로 되고만다. 그리하여 나뽈레옹은 불과 한

달만인 1812년 10월 6일 모스크바를 버리고 달아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꾸뚜조브는 바로 이것을 노리고 모스크바를 지나 랴잔방향으로 부대를 퇴각시켰다가 모스크바남쪽으로 획 돌아서 곡창지대이며 군수물자가 풍부한 깔루가방향의 길을 막고 대기했다가 나뽈레옹군을 격파한다.

로씨야군대는 제니쏘브부대를 비롯한 인민유격대의 도움을 받으며 퇴각하는 적들을 국경밖으로 몰아낸다.

국경선에 이르자 꾸뚜조브는 유럽에 대한 침략을 계속하라는 황제의 암시를 리해하지 못하고 진격을 멈춘다.

그는 적을 국경밖으로 쫓아내는것으로 인민전쟁은 끝났다고 보았던것이다.

황제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꾸뚜조브사령부로 찾아가 그에게 최고훈장을 수여하고 그를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한다. 로쇠한 인민전쟁의 사령관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그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죽는다.

○인물소개○

미하일 일라리오노비츠 꾸뚜조브

꾸뚜조브 미하일 일라리오노비츠(1745－1831)는 로씨야의 장군이다. 뻬쩨르부르그의 군인가정에서 출생하였다. 1759년에 귀족포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뽈스까, 뛰르끼예와의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1774년 크림전투에서 한쪽눈을 잃었다. 39살에 소장으로 되였으며 크림총독으로 있다가 쑤보로브장군휘하에서 로－뛰전쟁(1787－1792)에 참가하여 1790년 이즈마일점령시에 위훈을 세웠다. 1805년 사령관으로서 로씨야, 오스트리아, 영국련

삐에르는 방화혐의자로서 프랑스군의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당할번 했다가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된다. 그는 포로수용소에 넘어간 다음 농민출신의 로씨야병사 쁠라똔 까라따예브를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주는 감자를 얻어먹는 과정에 생활에서의 인간의 만족은 의식주의 충족에 있다는 이른바 《진리》를 깨달으며 자기가 지금까지 번민하고 불만을 느낀것은 너무 유족하였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군대가 모스크바에서 패주할 때 삐에르는 헌 옷과 꿰진 신발을 신고 포로대렬에 서서 호송되여간다.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정없이 쏘아죽인다. 까라따예브도 살해된다. 삐에르는 죽지 않기 위하여 악을 쓰고 따라간다. 한 마을에서 숙영하다가 유격대에 의하여 해방되여 모스크바로 돌아온 삐에르는 안해 옐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프랑스군대가 패주한 후 삐에르는 나따샤와 결혼하며 니꼴라이는 마리야와 결혼한다.

소설은 1812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후 삐에르가 현존제도를

합군을 지휘하다가 아우스떼를리쯔전투에서 부상을 당했다. 이스딴불과 베를린대사를 지냈고 뻬쩨르부르그와 리뜨바, 끼예브 등지의 총독을 력임한바도 있다. 1806－1812년 로－뛰전쟁시기 로씨야군 총사령관으로 싸웠으며 공작으로 되였다. 꾸뚜조브의 지휘밑에 로씨야군은 뛰르끼예군을 격멸하고 로씨야에 유리한 부꾸레슈띠조약을 맺었다. 프랑스 나뽈레옹군대의 침략을 반대하는 1812년 로씨야인민의 조국전쟁시기 총사령관으로서 보로지노전투후 로씨야군의 반공격을 성과적으로 조직하여 원수로 되였다. 프로씨아, 로씨야련합군 사령관으로 싸우다가 분쯔라우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개혁할 목적으로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비밀단체에 출입하며 니꼴라이는 황제에게 충직한 농노주로서 자기의 령주경리를 잘해가고있는데 대해서와 나따샤와 마리야는 다 충실한 안해, 어머니로 된데 대한 이야기로 끝난다.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는 무엇보다도 안드레이와 삐에르, 나따샤와 마리야, 꾸뚜조브의 형상을 통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로씨야인민들의 애국심을 높이 찬양하면서 전쟁승리의 요인이 바로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있었다는 력사적진실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작가는 1812년 로씨야—프랑스전쟁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였으며 군대뿐아니라 전체 인민이 참가한 《인민적성격을 띠는 전쟁》, 《국민전쟁》이였기때문에 승리할수 있었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안드레이, 삐에르, 나따샤, 마리야, 꾸뚜조브 등은 비록 귀족이긴 하지만 애국심이 강한 인물들이다.

안드레이 볼꼰스끼공작과 삐에르 베주호브백작은 비록 귀족이고 부유한 사람들이지만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몸바쳐 나서는 량심적인 사람들이다. 하기에 안드레이는 용약 전선에 달려나가 용감히 싸우며 전쟁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녀주인공들인 나따샤 로스또바와 마리야 볼꼰스까야도 애국심과 민족적감정이 강한 매력있는 형상으로 그려져있다.

로씨야군 총사령관 꾸뚜조브의 형상도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애국적군사지휘관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소설에는 1812년전쟁때 도처에서 민병부대와 인민유격대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고 그들이 군대와 함께 침략자들을 강하게 타격하는 모습이 생동하게 묘사되여있다. 제니스 다비도브의 유격대와 교회당지기를 지휘자로 한 유격대, 수백명의 프랑스병사들을 죽인 촌장의 안해 와씰리싸, 용감한 농민 찌혼 쉐르바띄 등을 그 례로 들수 있다.

소설에서는 농노출신의 병사들과 평민출신의 장교들을 비롯한 로

씨야군대의 용감한 투쟁모습도 잘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모든 형상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로씨야인민들의 애국심을 높이 찬양하고 전쟁승리의 요인이 바로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있었다는것을 확인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복종되고있다.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는 다음으로 부패무능한 황제와 귀족통치배들, 타락한 귀족출신의 장교들의 반동성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였다.

소설은 로씨야황제 알렉싼드르1세, 정부의 대신들인 아락체예브와 꾸라긴, 모스크바총독 라스똡친을 비롯한 귀족통치배들을 모조리 부패무능한자들로 폭로하고있으며 베니그쎈을 비롯한 귀족출신의 장교들의 부패성을 발가내고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성격적특징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무관심, 골수에 배인 철저한 리기주의, 출세와 치부를 위한 아첨과 모략, 허위와 위선, 사대주의와 허무주의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와씰리 꾸라긴공작이다. 부패무능하고 탐욕스러운자로서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꾸라긴은 대신의 체모도 잃고 처켠으로 먼 친척이 되는 베주호브백작의 재산을 상속받아보려고 병문안을 구실로 죽어가는 백작의 집에 틀고앉아 갖은 모략을 다 꾸민다. 그러다 뜻밖에도 백작이 서자인 삐에르에게 막대한 재산을 다 넘겨주고 죽은것으로 하여 자기의 모략이 실패하게 되자 이번에는 태도를 일변시켜 그때까지 천대해오던 삐에르에게 발라맞추고 그를 자기 사위로 삼을 꾀를 쓰며 마침내 방탕한 자기 딸 엘렌과 거의 강제로 결혼시킨다. 또한 늙은 볼꼰스끼공작의 딸 마리야가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로 된다는것을 알고 자기 둘째아들과 결혼시키려 하다가 실패하고만다.

소설은 이러한자들을 부정인물로 설정하고 신랄히 풍자비판하고있다.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는 인식적가치가 매우 큰 작품이기도 하다.

소설에는 당시 로씨야봉건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도덕

생활과 각 계급간의 호상관계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이 들어 있으며 특히 1805년, 1812년전쟁에 대한 폭넓은 자료들이 수집되여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 당시의 로씨야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씨아 등 유럽나라들의 정세와 국제관계, 나뽈레옹의 침략전쟁 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하며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준다.

《전쟁과 평화》는 예술적으로도 매우 잘된 작품이다. 구성의 짜임새와 립체성이 잘 보장되고 인상깊은 성격을 창조하였으며 다양한 묘사수법을 솜씨있게 리용하고 언어구사가 능란하다.

소설에는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도 나타나고있다.

무엇보다도 력사발전에 대하여 숙명론적으로 리해한 작가의 관념론적인 력사관이 강하게 드러나고있다. 똘스또이는 인민대중을 력사적운동의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존재로 취급하면서 인간의 의식적인 모든 행동은 총적으로 맹목적이며 그것은 신의 《섭리》 즉 하느님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보는 숙명론에 빠졌다. 동시에 《력사발전에서 인민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민은 〈어버이〉가 있어야 하며 그 〈어버이〉는 공정하고 선량한 귀족지주가 되여야 한다.》는 귀족적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쁠라똔 까라따예브의 형상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가부장적농민층의 락후한 측면을 리상화하거나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와 인간의 도덕적자기완성을 설교한것과 같은 부정적인 사상을 담았다. 이러한 제한성은 있으나 작품은 그것이 이룩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세계문학사에서 이름있는 걸작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

스르륵 쾅! 그에게서 다섯발자국거리의 메마른 지면이 파뒤집히우고 포탄이 그속으로 사라졌다. 부지중 그의 등골엔 소름이 쭉 달음질쳤다. 그는 다시 대렬쪽을 바라보았다. 여러명이 다쳤는지 제2대대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부관!》하고 그는 소리쳤다.
《한곳에 모여있지 말라고 명령해주게.》
부관은 명령을 수행하고나서 안드레이공작에게로 다가왔다. 다른쪽으로부터 대대장의 말이 달려왔다.
《주의!》
한 병사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리자 거의 때를 같이하여 획 소리를 내며 살같이 날아와 땅우에 내려앉는 새처럼 안드레이공작에게서 두발자국 떨어진 대대장의 말곁에 류산탄이 그리 큰소리도 내지 않고 떨어졌다. 처음 말은 공포를 나타내서 좋을지 나쁠지 눈치를 볼사이도 없이 히힝하고 코를 불더니 소좌를 떨어뜨리지 않으리만큼 뛰여올랐다가 와락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말의 공포는 병사들에게 옮겨갔다.
《엎드렷!》하고 땅에 엎디면서 부관이 웨쳤다. 안드레이공작은 망설이며 서있었다. 류산탄은 연기를 피우면서 밭과 목초사이의 쑥이 무성한 근처, 안드레이공작과 땅우에 엎드린 부관과의 중간에서 마치 팽이처럼 핑글핑글 돌고있었다.
《과연 이렇게 죽는가?》하고 안드레이공작은 전혀 새롭고도 부러워하는듯한 눈초리로 풀과 쑥과 핑글핑글 도는 검은 덩어리에서 피여오르는 연기줄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아니, 나는 죽을수 없다. 나는 죽고싶지 않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이 풀과 이 땅과 이 대기를 사랑해.…)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와 동시에 병사들이 자기를 보고있다는것을 상기하였다.
《수치스럽소. 여보 장교!》하고 그는 부관에게 말하였다. 《그 무슨…》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였다. 이 순간 폭발의 굉음, 창들이 깨져나가는듯한 파편소리가 들리고 코를 찌르는 화약냄새가 풍기였다. 그리고 안드레이공작은 한옆으로 나가떨어졌고 한손을 높이 쳐들면서 땅우에 푹 어푸러졌다.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중에서

작가소개

레브 니꼴라예비츠 똘스또이

레브 똘스또이는 로씨야의 유명한 비판적사실주의작가의 한사람이다.

레브 니꼴라예비츠 똘스또이(1828－1910)는 뚤라시부근에 있는 야스나야 뽈랴나마을에서 백작인 귀족지주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렸을 때 량부모를 다 여의고 삼촌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령지에서 농촌생활을 많이 체험하였다.

다정다감하고 정열적이였던 똘스또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없이 생활하면서 내성적이면서도 주위환경을 매우 예민하게 감각하는 남다른 감수성을 가지게 되였다. 그의 이러한 류다른 특질은 그가 작가로 될수 있는 예술적감각의 자양으로 되였다. 똘스또이는 부유한 귀족가문에서 태여났기때문에 남들처럼 생활적고충을 겪지 않았으며 까잔대학에도 다녔고 대학공부가 마음에 들지 않자 도중에 중퇴하고 자기 령지와 모스크바, 뻬쩨르부르그에서 걱정없이 생활하였다. 그는 비교적 곡절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 령지에서 일하는 농민들과도 친숙하게 지내고 그들의 비참한 생활과 운명에도 관심하는 과정에 점차 인도주의사상의 공명자로, 당시 유럽계몽주의사상의 열렬한 지지자로 되였다. 청년시절의 이러한 환경은 그의 세계관확립과 창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똘스또이가 작가가 될것을 결심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것은 그가 1851～1855년간에 로씨야군대의 포병장교로 복무하던 때부터였다. 그는 크림전쟁에 참가하여 조국 로씨야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으며 군대복무기간에 사랑하는 고향땅에서 흘려보낸 자신의 어린시절을 추억하여 첫 중편소설 《유년시절》을 썼다. 이 작품은 후에 쓴 《소년시절》, 《청년시절》과 함께 똘스또이의 《자서전적3부작》을 이루게 되였다.

똘스또이의 창작활동은 군대에서 제대되여 고향에 돌아온 후부터 본격

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는 자기 령지에서의 생활과 군대생활을 반영한 여러편의 단편소설들인 《쎄바스또뽈이야기》, 《산림채벌》, 《지주의 아침》 등과 중편소설 《까자크들》(1863)을 쓴데 이어 사망할 때까지 60여년간에 걸쳐 《전쟁과 평화》(1863—1869), 《안나 까레니나》(1873—1877), 《부활》(1889—1899) 등의 장편소설과 《암흑의 힘》(1886), 《계몽의 열매》(1890), 《산 송장》(1900)과 같은 희곡 그리고 많은 산문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똘스또이의 문학은 일치하게 로씨야의 사회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정신과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로 일관되여있으며 그자신의 세계관의 특수성과 사상적모순으로 하여 그의 비판적사실주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그가 창작한 작품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똘스또이는 중편소설 《까자크들》을 비롯한 초기작품들에서 귀족계급의 기생충적생활과 썩어빠진 문화와 도덕을 비판하고 로씨야의 농노제밑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는 가난한 농민들을 동정하면서도 지주와 농민간의 용납할수 없는 리해관계를 평화적방법으로 조절할데 대한 사상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량심적인》지주인 자기자신의 사상적립장의 반영이였다. 귀족들이 자기처럼 농민들의 소박한 생활을 깊이 리해하게 되면 귀족사회의 모순도 해결되게 되리라는 똘스또이의 생각은 사회현실에 대한 그의 비판적관점과 모순되며 이른바 똘스또이식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그의 비판적사실주의의 특징의 맹아는 세월이 가면서 그이후의 작품들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것이 하나의 세계관적인 고리로 굳어지게 되였다. 그이후 똘스또이는 여러 작품들에서 제정로씨야, 귀족부르죠아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 취약성을 예리하게 비판하였지만 그것을 뒤집어엎을 혁명적방도인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교박애주의, 도덕적자기완성과 같은 무저항주의적설교로 일관된 《똘스또이주의》를 설교하였다.

이와 같이 똘스또이의 비판적사실주의는 날카로운 비판적기백과 진실한 사실주의적묘사에 독특한 《똘스또이주의》가 결부된데 특징이 있다.

레브 똘스또이의 작품들은 심각한 사회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특출한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문학사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상식○

1812년 로씨야—프랑스전쟁

1812년 로씨야인민이 프랑스 나뽈레옹군대의 침공을 물리친 반침략투쟁.

나뽈레옹은 나라의 정치경제적위기를 타개하며 유럽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로씨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나뽈레옹이 로씨야를 침략한 구실은 로씨야가 1806년에 《베를린칙령》으로 선포한 대륙봉쇄정책을 무시하고 영국과 무역을 계속함으로써 프랑스의 정치경제적위기를 더한층 심화시켰다는것이였다.

나뽈레옹은 1812년 6월 프랑스와 그 예속밑에 있던 여러 나라의 60여만명의 침략군을 거느리고 네만강(현재 리뜨바와 벨라루씨 접경)을 건너 불의에 로씨야로 쳐들어갔다. 초기 력량상 우세한 나뽈레옹침략군은 로씨야의 여러 지역을 강점하면서 쉽게 모스크바까지 접근하였다. 8월 26일 로씨야군대는 꾸뚜조브의 지휘밑에 모스크바부근의 보로지노벌판에서 프랑스군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새로운 반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일시 적들에게 내여주고 따루찌노에 진을 쳤다. 나뽈레옹침략군은 모스크바를 강점한 9월초부터 10월초까지의 기간에 시내건물의 3분의 2를 불태우고 파괴하였으며 막대한 재부를 략탈하고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반침략투쟁에 일떠선 로씨야인민들과 병사들은 마침내 반공격에로 넘어갔다. 이미 막대한 인적손실을 당한데다가 후방공급이 끊어지고 굶주림으로 사기가 떨어진 나뽈레옹침략군은 더는 지탱할수 없어 10월 7일부터 하는수없이 모스크바에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인민들과 군대는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여 소멸하였다. 1812년 12월 나뽈레옹침략군은 55만명의 병력을 잃고 네만강을 다시 건너 도주하였다.

이 전쟁에서 로씨야인민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 자기 나라를 지켜냈다.

안나 까레니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똘스또이는 젊은 귀족녀성의 불우한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귀족부르죠아적로씨야사회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에서도 지주와 농민사이의 적대적관계를 가부장적장원경리의 울타리안에서 능히 풀수 있으리라는 사상을 표명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1873—1877)는 레브 똘스또이의 3대걸작의 하나로서 1861년 농노《개혁》후 낡은 봉건농노제적관계가 전면적으로 붕괴되여가고 새로운 자본주의적관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나고있던 19세기 70년대 로씨야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녀주인공인 젊은 귀족녀성 안나 까레니나의 불우한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귀족부르죠아적로씨야사회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또한 시골귀족 레빈의 형상을 통하여 지주와 농민사이의 적대적관계를 가부장적장원경리의 울타리안에서 풀수 있으리라는 똘스또이의 사상이 표명되고있다. 소설의 주요인물로 안나 까레니나, 그의 남편 까레닌, 안나의 애인 우론스끼, 안나의 오빠 오블론스끼와 그의 처 돌리, 돌리의 동생 끼찌, 끼찌와 결혼하는 레빈 등이 등장한다.

전8부로 구성되여있는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안나 까레니나의 운명선과 레빈의 운명선이 교차되면서 펼쳐지고있다.

소설은 오랜 《명문》귀족이며 모스크바의 한 관청장관인 오블론스끼공작이 자기 집 녀자가정교사와 치정관계를 맺은것이 탄로되여 안해 돌리와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블론스끼의 누이동생 안나 까레니나는 오빠와 형님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뻬쩨르부르그로부터 모스크바로 내

려왔다가 모스크바역에서 자기 어머니를 마중나온 황제의 시종무관이며 미남자인 우론스끼백작을 알게 된다. 안나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우론스끼는 이때부터 안나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안나의 사랑을 쟁취하는데 열중한다.

안나로 말하면 온몸에서 화려함과 현숙한 아름다움이 엿보이는 대단한 미인이며 교양도 있고 정신미도 있는 상층귀족녀성이였다. 그는 짜리정부의 고위관리의 안해이며 수도 뻬쩨르부르그귀족상류사회의 대표적인 귀부인의 한사람으로서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계속해왔으며 표면상 아무런 불만도 없는 행복한 처지에 있는 녀성이다. 그러나 안나는 내심 자기 생활에 늘 불만을 느끼고있었다. 그것은 스무살이나 나이가 우이며 공명과 출세에만 눈이 어둡고 오랜 관료생활로 하여 인간적감정을 완전히 잃어버린 메마르고 랭정한 관료주의자 까레닌과의 무미건조한 생활에 기인한것이였다. 답답하고 위선적인 가정생활은 사교계의 위선적이고 방탕한 여느 귀족녀성들과는 달리 강하고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교양있고 진실한 안나에게 있어서 참을수없이 괴로운것으로 되였다.

우론스끼의 열렬한 사랑은 안나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보게 하였고 마치도 그 녀자의 눈을 띄여준듯 하였다. 안나는 동요와 주저끝에 끝내 자기 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우론스끼의 정열에 지고만다. 이때로부터 안나는 우론스끼와 애정관계를 맺고 그와의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는데서 삶의 행복을 찾게 되며 그 사랑에 진지하게 대하고 그 사랑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나선다.

안나의 남편 까레닌은 그들사이의 남다른 관계를 눈치채고 안해에게 여러번 충고를 주었으나 안나는 지난 8년동안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 대한 자기의 념원을 짓밟아왔으며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목석같은 남편을 증오하면서 우론스끼와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

그후 1년이 지난다. 안나는 우론스끼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그의 고민이 극도에 이른다. 우론스끼는 남편과 정식 리혼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린 아들 쎄료쟈때문에 안나는 차마 그렇게 하

지 못한다. 까레닌 또한 사교계의 여론과 그것이 자기의 사회적지위에 미칠 영향이 두려워 리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기를 배반한 안해를 증오하면서도 표면상 현상유지할것을 강요한다.

그는 출장도중 모스크바에서 처남 오블론스끼를 만나 안나를 용서해주라는 부탁을 받으나 이미 결심한것을 변경할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다. 하지만 안나가 해산으로 위급하다는 전보를 받고 다시 뻬쩨르부르그로 돌아온 까레닌은 우론스끼의 딸을 낳고 산후열로 빈사상태에 처한 안나를 보게 되자 불시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를 용서해준다. 그리고 안나의 요청대로 원쑤인 우론스끼를 용서해준다. 그는 안해와 그 정부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리스도교다운 행동에서 행복을 느낀다.

한편 우론스끼는 자기가 멸시해마지않던 까레닌에게서 용서를 받았다는 굴욕감과 또한 이제부터는 안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절망감으로 하여 실신상태에 빠지며 권총자살을 시도하다가 탄알이 빗나가 심한 부상을 입는다. 건강이 회복된 후 따슈껜뜨로 전직하게 되여 출발준비를 서두르던 우론스끼는 오블론스끼의 알선으로 안나가 남편으로부터 리혼승낙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즉시 군대복무를 그만두고 안나와 함께 외국려행의 길에 오른다.

아들 쎄료쟈와 함께 집에 남게 된 까레닌은 자기를 사모하는 리지야백작부인에게 아들애의 교육과 집안일을 맡기고 고독과 번민의 나날을 보낸다. 외국려행에서 돌아온 안나는 아들 쎄료쟈를 한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편지를 써보내나 리지야백작부인의 작간으로 거절당한다. 본능적인 모성애로 하여 미칠 지경이 된 안나는 쎄료쟈의 생일날에 대담하게 까레닌의 집에 찾아가 아들애를 만나보고 온다.

뻬쩨르부르그의 사교계는 약속이라도 한듯이 일제히 안나의 출입을 가로막으며 안나가 극장에 나타나면 로골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퍼붓는다. 수치와 모욕감에 견디지 못한 안나는 우론스끼를 독촉하여 그와 함께 시골에 있는 우론스끼의 령지로 내려간다.

령지로 내려온 우론스끼는 자기 딸애가 까레닌의 성을 가지고있으며 자기의 상속자로 될수 없는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안

나를 설복하여 남편과 정식 리혼하게 하려고 애쓴다. 그렇지만 안나는 정식 리혼을 하여 쎄료쟈를 영영 잃어버릴수 없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 우론스끼는 또한 자기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안나가 펼쳐놓은 사랑의 그물에 얽매이는것을 느끼며 그것이 자기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 그리하여 안나와 말다툼을 자주 하며 쩍하면 집을 비운다.

우론스끼가 며칠씩 집을 떠나는것을 그의 애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증거로 여긴 안나는 몹시 고민하던 끝에 오직 그의 애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굴욕감을 무릅쓰고 까레닌에게 정식 리혼을 편지로 제기한다. 그리고 우론스끼와 함께 모스크바로 올라가 정식 리혼에 대한 까레닌의 회답을 기다린다.

까레닌은 한때 안나가 리혼을 제기하면 승낙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리지야백작부인의 영향밑에 있기때문에 그 녀자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수 없었다. 리지야백작부인은 강신술을 하는 프랑스인 란도를 초청하여 리혼문제에 대한 신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한다. 까레닌은 백작부인집에 란도를 초청하여 신의 예언을 들은 후 리혼은 신의 의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거절을 통지해온다.

모스크바에 올라와서 근 1년동안이나 굴욕적인 생활을 해오던 안나는 그 최후통첩을 전달받자 리혼을 단념하고 즉시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우론스끼는 어머니의 집에 들릴 일이 있기때문에 며칠후에 떠나자고 한다. 안나는 우론스끼가 어머니의 강요로 자기를 버리고 공작딸 쏘로끼나와 결혼하려 하는것으로 넘겨짚고 질투와 증오로 치를 떤다. 우론스끼는 안나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의 집으로 떠나간다.

안나는 공작딸과 결혼이야기를 하고있을 우론스끼를 생각하자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 당장 그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 우론스끼의 가면을 벗겨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급히 마차를 타고 역으로 나간다. 도중에 안나는 우론스끼를 위하여 모든것을 희생한 자기를 랭담하게 대하는 그에게 벌을 주며 이 모든 굴욕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죽음의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하여 안나는 우론스끼의 어머니의 집이 있는 다음역에 도착하자 달려오는 렬차의 바퀴밑에 몸을 던진다.'

안나가 자살한 후 우론스끼는 6주야동안 침식을 잃고 고민하다가 한개 중대를 거느리고 쓰르비아전쟁에 의용군으로 출전한다.

작품은 안나 까레니나의 이처럼 불우한 생활과 비극적운명을 통하여 귀족부르죠아적로씨야사회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나가 불우한 생활을 하게 되고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당대의 귀족부르죠아적로씨야사회가 참다운 생활과 행복을 갈망하는 녀성들의 지향과 념원에 적대되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사회였기때문이다.

안나가 우론스끼와의 사랑에 빠진것은 결코 부화방탕한 생활을 바래서나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그 녀자는 그길에서 허위와 위선에 찬 생활에서 벗어나며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사람다운 생활, 행복한 생활을 갈구하였다.

그러나 상류사교계의 방탕한 귀족녀자들과 같이 사랑놀음을 하는것이 아니라 진지한 사랑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 안나의 대담한 행동은 거짓과 위선에 찬 귀족상류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였다. 하여 인습적이며 봉건적인 귀족부르죠아가정과 위선적인 귀족상류사회는 이러한 안나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전력을 다하여 그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게다가 안나가 그처럼 믿었던 우론스끼란자는 사람이란 낯을 붉힘이 없이 온갖 정열에 몸을 맡기며 그외의 모든것은 웃음으로 일축해버리는것을 생활신조로 삼고있는 뻬쩨르부르그의 멋쟁이녀석으로서 안나의 정신세계를 리해할리 만무하였다.

더우기 남편이라는 까레닌은 안나로부터 우론스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고백을 듣고도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상 부부관계를 유지할것을 강요하며 후에 리혼을 승인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허황한 강신술을 믿고 그것마저 취소하는 랭혈인간이였다.

또한 가산을 탕진하면서 매일과 같이 술과 녀자로써 개인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안나의 오빠 오블론스끼, 까레닌을 조

종하면서 안나의 불행을 조장하는 광신적인 리지야백작부인 등이 활개치는 이 사회에서 안나에게는 죽음외의 다른 길이 없었던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의 녀주인공 안나 까레니나의 비극은 한 녀성의 개인적비극이 아니라 당대 로씨야귀족부르죠아사회에서는 그럴수밖에 달리는 될수 없었던 하나의 사회적비극이였다. 안나는 귀족녀성이다. 그러므로 그는 귀족상류사회를 떠나서는 살수 없다. 그런데 그는 그 사회에서 더 살아갈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안나의 운명이 비극적인것은 그자신보다 말할수없이 더 저급하고 또 그자신이 멸시하는 그 사회로부터 도리여 버림받고 멸시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데 있다.

소설에서는 안나－까레닌－우론스끼의 선이 교차되면서 레빈과 끼찌의 애정선과 사회개량을 위한 레빈의 정신적탐구과정이 다른 한 이야기줄거리를 이루고있다.

지방의 젊은 귀족지주 레빈은 이전부터 사모하고있던 쉐르바쯔끼공작의 막내딸 끼찌와 결혼할 목적으로 모스크바에 올라와 직접 끼찌에게 청혼을 한다. 그러나 이미 우론스끼백작을 사랑하고있던 끼찌는 그로부터 청혼이 오기만 안타깝게 기다리면서 레빈의 청혼을 거절한다. 하지만 우론스끼는 끼찌의 사랑을 배반하고 안나를 따라 뻬쩨르부르그로 떠나가버린다. 끼찌는 실련의 고민으로 하여 앓아눕게 된다.

끼찌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온 레빈은 한동안 심한 수치감과 모욕감에 사로잡혀 고민한다. 그는 여름 한철을 시골에서 보내려고 자기 집에 내려온 맏형 쎄르게이와 농민문제며 자치회문제에 대한 론쟁을 하기도 하고 초원에 나가서 농민들과 함께 목초를 베면서 농민의 딸과 결혼하여 그들과 같이 살아볼가 생각하기도 하면서 끼찌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고 애쓴다.

레빈은 오블론스끼의 안해 돌리가 여섯이나 되는 애들을 데리고 그가 사는 마을에서 5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기 령지에 내려와있는데 생활이 몹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돌리를 도와주려 찾아간다. 거기서 돌리의 친동생 끼찌가 며칠안으로 이 집에 와서 휴

식하게 된다는 말을 들은 레빈은 또다시 수치감과 모욕감이 되살아나 다시는 돌리의 집을 찾아오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그해 가을 수확을 한 다음 레빈은 자기의 영농방법에 대해서 저으기 불만을 느낀다. 그는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영농사업에 애썼으나 농민들은 의연히 일을 잘하지 않고 새로운 영농기구들을 되는대로 다루어 못쓰게 만든다. 레빈은 그 원인이 결국 로동의 리해관계가 농민들과 일치하지 않고 적대되기때문이라는것을 깨닫고 환멸을 느낀다. 게다가 돌리의 집에 와있는 끼찌가 그의 마음을 불안케 한다. 하여 그는 모든 번거로운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사냥을 떠난다.

그후 그곳 지주들과 농촌경리운영방법에 대해 론쟁하는 가운데 레빈은 유럽식의 자본주의적방법이 아니라 로씨야의 실정에 알맞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며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 그는 목장, 과수원, 남새밭, 목초장 등을 농민들에게 대여해주고 협동조합을 뭇게 하며 거기서 나는 리익을 자기와 나누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며 그들의 빈궁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는 이 새로운 방법으로써 농민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빈궁대신에 전반적인 유족을, 농민과 지주의 적대관계대신에 화목과 리해의 결합을 가져오는 《무혈혁명》을 수

○일화○

《안나를 죽인 죄는 나에게 있지 않소》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가 발표된 후 안나의 비참한 운명에 슬픔을 금할수 없었던 독자들이 똘스또이를 찾아와 왜 안나를 그렇게 죽여야만 하는가고 항의하였다. 똘스또이는 안나가 죽는 장면을 쓸 때 통곡을 한 사람이지만 태연히 대답해주었다.

《안나를 죽인 죄는 나에게 있지 않소. 안나를 죽인 살인자는 내가 아니라 귀족대신 까레닌과 귀족청년 우론스끼요. 그들을 찾아가서 왜 안나를 죽였는가 물어보시오.》

행하려 했던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의 새로운 제안을 미심쩍게 대한다. 지주라는것은 어떻게 해서나 농민들을 더 뜯어먹자는 욕심밖에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농민들은 그의 제안을 믿지 않는다.

그러거나말거나 레빈은 자기의 새로운 방법을 강경히 밀고나가면서 그 경험을 공고히 하며 그것을 리론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외국려행을 떠난다. 외국려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린 레빈은 오블론스끼의 집에서 차린 만찬회에 초대받았다가 뜻밖에 끼찌를 만나게 된다. 그는 이제까지 느껴오던 수치감과 모욕감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사랑이 소생하는것을 느끼게 된다. 레빈은 다음날 그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제기한다. 청혼은 수락된다. 레빈은 끼찌와 결혼하고 시골령지로 내려온다.

레빈과 끼찌는 시골에 내려온 후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면서 집안을 끼찌의 취미에 맞게 새로 아담하게 꾸린다. 여름철이 되자 돌리의 가족과 끼찌의 어머니, 레빈의 맏형 쎄르게이 그리고 끼찌가 도이췰란드의 약수터에서 사귄 처녀 와렌까가 찾아와 집안은 갑자기 흥성거린다. 임신한 끼찌는 남편과 함께 이 많은 손님들을 환대하느라고 주야로 애를 쓴다.

레빈은 안해의 해산달이 가까와지자 장모의 권고로 끼찌와 함께 모스크바에 올라가 처가집에서 살면서 안해의 해산을 안타까이 기다린다. 이때 레빈은 동서 오블론스끼의 소개로 우론스끼를 알게 되며 안나도 방문한다.

끼찌가 아들을 낳은 후 자기 령지로 돌아온 레빈은 로씨야귀족사회가 나아가야 할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을 탐구하는 한편 동일한 신앙의 기초우에서 농민들과 정신적으로 융합하는 길을 꾸준히 탐구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리성을 거부하고 신앙에 의하여 그리스도교적인 《영원한 진리》를 확인하며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넋을 위하여 진실하게,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소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꼰스딴찐 레빈은 도시의 타락한 상층귀족들의 형상에 대치된 농촌의 량심적인 귀족지주

이다. 레빈은 레브 똘스또이자신의 견해와 리상을 직접 체현한 인물형상이다.

작가는 레빈의 형상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지주와 농민사이의 적대적관계를 가부장적장원경리의 울타리안에서 능히 풀수 있으리라는 사상을 표명하였다.

소설에서 레빈은 모스크바의 오랜 귀족가문에 속하며 3 000ha나 되는 굉장한 큰 땅을 가지고있는 대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지주의 계급적본성과는 맞지 않게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지 않으며 선행을 베푸는 지주로, 농민들과 접근하고 그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인물로 형상되고있다.

작가는 레빈처럼 가부장적장원경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지주와 농민사이의 적대관계를 능히 풀수 있으리라는 공상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레빈의 이러한 망상은 현실에 부닥치자마자 산산이 부서지고만다. 레빈은 자기의 개혁안이 파탄되자 비관과 고민에 빠지며 자기가 량심있는 지주로서 할바를 다했으니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자체위안을 하는것이다.

레빈의 형상은 또한 귀족들의 건전한 가정생활에 대한 작가의 리상을 구현하고있다.

결혼을 하고도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고 무시로 안해를 배반하면서 부화타락한 생활을 일삼는 오블론스끼와 같이 썩어빠진 귀족들과는 대조적으로 레빈은 순진한 사랑에 기초하여 결혼을 한 다음 안해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가정생활을 건전하게

《행복한 가정은 어디나 서로 어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나름으로 불행하다.》

《복수는 나의것이니 내 이를 리행하리라.》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중에서

꾸려나가는 인물로 형상되고있다. 이것은 작품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레빈과 끼찌사이의 애정선과 결혼후 그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묘사에서 표현되고있다.

레빈의 형상은 특히 삶의 의의에 대한 작가자신의 정신도덕적탐구과정을 반영하고있다.

작가는 레빈의 형상을 통하여 작품의 기본문제의 하나인 짜리로씨야사회의 모순으로부터 출로에 대한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하였다. 여기서 작가는 당대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불행의 근원이 사회제도자체의 모순에 있다는것과 투쟁으로써만 그것을 없앨수 있다는 혁명적사상을 제기한것이 아니라 투쟁을 거부하고 《넋》을 위한 종교적생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자아완성에서 출로를 찾는 심각한 약점을 나타냈다.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는 그 형상성이 높은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묘사의 섬세성과 정확성, 진실성과 생동성을 잘 보장하고있으며 특히 심리묘사를 깊이있게 분석적으로 하고있다.

소설의 자연묘사 역시 주인공들의 내면체험세계와 밀접히 련결되고있다. 소설은 언어가 잘 다듬어지고 대조의 수법, 비유의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을 구사하고있다.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는 그것이 가지고있는 심각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담겨진 진보적인 사상과 사실주의적 장편소설창작에서 거둔 성과로 하여 《전쟁과 평화》, 《부활》과 함께 레브 똘스또이의 대표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 녀자는 차량들의 아래쪽을, 나사들과 쇠사슬을 살펴보았으며 천천히 굴러오는 첫 차량의 높다란 무쇠바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짐작으로 앞바퀴와 뒤바퀴의 중간을 가늠하며 그 중간이 바

로 자기 눈앞에 다닥치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애썼다.

《저리로!》

차량밑의 어둑시근한 구석을, 석탄가루 섞인 모래에 뒤덮인 침목우를 굽어보며 안나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저기 한복판으로, 그럼 난 그를 처벌하고 모든 사람들과 자신에게서 영영 해방되는것이다.》

그 녀자는 자기앞에 다가온 첫 차량의 바퀴중간에 몸을 던지려 하였다. 그러나 손에 걸었던 빨간 려행가방을 벗겨버리느라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만 때를 놓쳐 앞뒤바퀴의 중간은 벌써 지나가버렸다. 다음차량을 기다려야만 했다. 미역을 감으러 가서 금방 물에 뛰여들려는 순간 종종 느낀것과 흡사한감에 사로잡혀 그 녀자는 무심히 십자를 그었다. 가슴에 십자를 긋는 이 손익은 동작은 그 녀자의 심중에 처녀시절과 유년시절의 오만가지 추억을 되살아나게 하였다. 그러자 불현듯 그 녀자에게서 모든것을 가리우고있던 어둠은 사라지고 생활의 화폭은 일순간 지난날의 온갖 찬란한 기쁨과 더불어 그 녀자의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그 녀자는 다가오는 둘째번 차량의 바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가 바퀴와 바퀴 한중간이 눈앞에 당도하자 그 녀자는 빨간 가방을 집어던지고 두어깨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차량밑에 팔을 짚고 엎어지며 즉석에서 일어나려는듯 가벼운 동작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 순간 그 녀자는 자기 소행에 몸서리를 쳤다. 《내가 어데 있나? 내가 무슨짓을 하는거야? 무슨 까닭에?》 그 녀자는 몸을 일으켜 뛰쳐나려 하였으나 무엇인가 거대한 무자비한것이 그 녀자의 머리를 꽉 쥐여박고 잔등을 끌어당겼다. 《주여,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도저히 항거할 도리가 없음을 느끼며 그 녀자는 입속으로 외웠다. 체소한 농군이 중얼중얼 무슨 말을 되뇌이며 쇠붙이를 가지고 무언가 하고있었다. 그리고 불안과 기만, 비애와 사악이 충만된 인생의 책을 읽는 그 녀자의 눈앞을 밝혀주던 초불은 그 어느때보다도 휘황하게 불타올라 이왕에는 암흑속에 잠겨있던 모든것을 환히 비쳐주더니 점점 어두워지며 영원히 꺼져버렸다.

장편소설 《안나 까레니나》중에서

○일화○

《안나 까레니나》의 소재와 소설의 첫머리를 떼기 위한 똘스또이의 고심

싸마라에서 료양생활을 하고 야스나야 뽈랴나에 돌아온 레브 똘스또이는 1873년 다시 소설을 쓰고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이무렵 야스나야 뽈랴나에서는 안나라고 하는 지주의 안해가 달리는 기차에 뛰여들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나는 남편이 녀자가정교사와 불의의 관계를 맺고있다는것을 알고 《하수인은 당신이예요. 만약 살인자가 행복해질수 있다면 그 녀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고싶으면 역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나의 시체를 보게 될것입니다.》라고 쓴 편지를 남기고 집을 뛰쳐나와 철길에서 자살하였다. 똘스또이는 이 사실을 소재로 하여 소설을 쓰리라고 마음먹었다.

똘스또이는 여러모로 궁리하던 끝에 원래의 사실과는 좀 다르게 그 부인이 목석같은 남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귀족사회에서 멸시를 받게 되자 반항의 표시로 자살하는것으로 엮어나가면 소설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진작 집필에 착수해보니 그 첫머리를 떼는것이 잘 풀리지 않아 며칠동안 고심하였다.

똘스또이는 처음 서두를 《오블론스끼의 집안은 온통 뒤죽박죽이였다. 남편이 전에 그의 집에 가정교사로 있던 프랑스녀자와 관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 안해는 더는 남편과 한집에서 같이 살수 없노라고 그에게 선언하였던것이다.》라고 시작했다가 그후 작품을 수정하면서 《행복한 가정은 어디나 서로 어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나름으로 불행하다.》라는 유명한 허두를 첫머리에 덧붙였다.

《안나 까레니나》는 5년이나 걸려서야 탈고되였다.

○일화○

작가로서의 첫걸음

레브 똘스또이가 작가로서의 첫걸음을 뗀것은 그의 군대복무기간이였다. 그는 23살때 로씨야군대에 입대하여 깝까즈에 가게 되였다.

깝까즈의 아름다운 산과 들, 그곳 기후풍토는 똘스또이의 마음에 퍽 들었다.

그곳 사람들의 가식없는 마음씨도 마음에 들었다.

똘스또이는 이곳에서 한때 온천치료를 받은적이 있었다. 온천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나날을 보내자니 어린시절의 갖가지 일들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그는 어린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똘스또이는 1851년 가을에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1852년 7월에 드디여 탈고하였다. 이것이 똘스또이의 첫 작품인 중편소설 《유년시절》이였다.

똘스또이는 탈고한 소설원고를 《쏘브레멘니크(현대인)》잡지사에 보냈다.

오래동안 소식이 없다가 잡지의 편집을 맡아보고있던 시인 네크라쏘브로부터 회답이 왔다.

《훌륭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작가를 찾아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계속 좋은 글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명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똘스또이는 자기 본명을 감추고 《엘. 엔.》이라는 략자로 투고했던것이다.

작품은 그해의 《쏘브레멘니크》잡지 9호에 실렸다.

이때 똘스또이의 나이는 24살이였다.

이무렵 뚜르게네브가 그 잡지를 가지고 똘스또이의 누이동생 마리야를 찾아왔다. 그는 《유년시절》의 필자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있었다.

그는 《훌륭한 작가가 나왔더군요.》라고 말하면서 마리야에게 《유년시절》을 읽어주었다.

마리야는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그의 형제들이 자란 집안형편이 자세히 씌여져있었기때문이였다.

대체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일가? 아무리 생각해야 짐작이 가지 않았다.

똘스또이가 이 소설을 쓴것을 알고있는 사람은 그의 형 니꼴라이와 따찌야나아주머니 두사람뿐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똘스또이의 비밀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것이다.

로씨야신문은 《엘. 엔.》이 누구일가 하고 한동안 흥미진진하게 주시하였다.

그렇지만 똘스또이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깝까즈의 온천에서 다음작품을 준비하고있었다.

똘스또이는 곧 포병장교가 되여 크림으로 가게 되였다. 거기서 그의 두번째 중편소설 《소년시절》이 씌여져 역시 닉명으로 발표되였다.

똘스또이는 그후 《청년시절》, 《지주의 아침》, 《습격》, 《까자크들》 등 중편소설과 단편소설을 련이어 써냄으로써 로씨야문단을 뒤흔들어놓았다.

부 활

《부활》은 레브 똘스또이가 1889～1899년사이에 창작한 장편소설로서 그의 마지막력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똘스또이는 자기의 마지막력작인 장편소설 《부활》에서도 19세기 후반기 로씨야귀족부르죠아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 취약성을 폭로하고 지주와 부르죠아지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변하여 세워진 반동적국가권력기구와 사회제도를 예리하게 비판하였지만 그것을 뒤집어엎을 혁명적방도인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을 거부하고 무저항주의, 그리스도교박애주의, 도덕적자아완성과 같은 반동적교리로 일관된 똘스또이주의를 설교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장편소설 《부활》은 로씨야에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로 넘어가고 자본주의와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강화된 새로운 력사적시기였던 19세기 90년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주인공들인 귀족 네흘류도브와 최하층에 속하는 천민 까쮸샤 마슬로바의 운명선을 통하여 당대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 취약성을 폭로하고 지주와 부르죠아지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변하여 세워진 반동적국가권력기구와 사회제도를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동시에 사람을 괴롭히는 그 무서운 악으로부터 구원되는 방도로써 반동적인 똘스또이주의를 설교하였다.

작품이 제기한 이러한 기본문제는 주인공 네흘류도브와 까쮸샤 그리고 그들과 련관된 여러 인물형상을 통하여, 작가자신의 분석을 통하여 전개되고 심화되고있다.

장편소설 《부활》은 전3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소설의 이야기는 초목도 뭇새도 곤충도 아이들도 만물이 환희에 차있던 어느 화창한 봄날의 아침, 이 아름다운 봄날과는 너무나 대

조적인 악취나는 침침한 녀자감방에서 까쮸샤 마슬로바라는 스물여섯살난 젊은 녀죄수가 재판소로 끌려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있다.

먼길을 걷느라 기진한 마슬로바가 호송병들과 함께 지방재판소로 가고있다. 오늘 그는 재판을 받게 되는것이다.

재판이 시작된다. 이날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한 네흘류도브는 깜짝 놀란다. 자기가 재판하는 그 녀자가 바로 그 시절 자기가 유린하고 내버린 저희 집의 양녀, 하녀 까쮸샤임을 알아본것이다.

까쮸샤는 본래 네흘류도브의 고모벌이 되는 지주네 집에서 하녀겸 양딸격으로 있던 순진하고 아릿다운 처녀였다. 네흘류도브는 대학생시절에 그 고모네 집에 들렸다가 16살났던 까쮸샤에게 호감을 품고 순진한 사랑을 느꼈었다. 그후 이태가 지나서 장교가 되여 전쟁마당으로 나가는 길에 고모네 집에 다시 들린 네흘류도브는 그곳을 떠나기 전날밤에 까쮸샤를 유혹하고는 100Rbl짜리 지폐 한장을 쥐여주고 떠나가버린다. 그가 떠난지 다섯달이 지나서 까쮸샤는 자기가 임신했다는것을 알게 된다.

할수없이 그 집을 나온 까쮸샤는 총각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육아원에 가자마자 숨지고만다. 이때로부터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길을 찾던 까쮸샤는 유곽에 젊은 녀자들을 팔아넘기는 뚜쟁이의 손에 걸려들어 결국 륜락의 길에 떨어지고만다. 그가 륜락의 길에 굴러떨어진지 일곱해가 지난 해에 그의 신상에는 뜻하지 않은 한가지 사건이 일어나 살인절도사건혐의자로 체포되여 이날 재판을 받게 되였던것이다.

놀라운 우연으로 법정에서 바로 그 까쮸샤를 다시 보게 된 네흘류도브는 그 녀자를 이러한 륜락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다름아닌 자기라는것을 깨닫고 커다란 량심의 가책을 느낀다.

심의과정에 네흘류도브는 물론 다른 배심원들도 까쮸샤가 살인사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것을 인정하고 관대히 처분하기로 생각한다. 그러나 무책임한 그들은 문건에 《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까쮸샤의 말을 써넣는것을 잊어버리며 판사 역시 그 문구가 없는 문건에 기초하여 4년의 도형판결을 내린다.

이날 겪은 일은 네흘류도브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까쮸샤의 불행을 덜어주리라 마음먹고 그 즉시로 유명한 변호사 파나린을 만나 이 사건을 원로원에 상소해줄것을 의뢰한다.

네흘류도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자신과 자기의 주위사람들, 종전에는 그렇듯 당연한것으로 여겨오던 모든 사회현상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그는 재판소에서 돌아가는 길에 꼬르챠긴 공작네 집에 들린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 집에 가기만 하면 늘 마음이 유쾌하던것이 이상하게도 모든것이 혐오감을 자아내기만 한다. 집으로 돌아온 네흘류도브는 자신이 걸어온 생활의 길도 얼마나 그릇되고 썩어빠진것이였는가를 깨닫게 되며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느낀 혐오감이 바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였음을 깨닫게 된다.

이날 네흘류도브의 가슴속에서는 그자신이 마음의 정화라고 말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는 자신의 정신의 정화를 위하여 그의 량심이 요구하는바와 그가 하는 더러운 생활간의 불일치에서 벗어나 그의 량심이 요구하는바대로 행동하리라 마음먹으며 까쮸샤를 만나 용서를 빌고 필요하다면 모든것을 희생하여 그 녀자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을 속죄하고 정신적으로 《부활》하리라 결심한다.

네흘류도브는 자기의 이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 까쮸샤앞에 진 자기의 죄과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그가 까쮸샤와 첫 면회를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자기의 결심을 말했을 때 까쮸샤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까쮸샤는 지난날의 일에 대한 회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덮어버렸던것이다. 그러나 네흘류도브가 다시 그 녀자를 만나 자기 결심을 되풀이했을 때 까쮸샤는 분노에 치를 떨면서 소리친다.

감옥에서 나온 네흘류도브는 그제야 비로소 자기의 죄과를 남김없이 깨닫는다.

자기가 이 녀자의 몸을 망쳐놓았을뿐아니라 그의 넋을 짓밟는 이

중의 죄과를 범했다는것을 심각히 느꼈던것이다.

그럴수록 네흘류도브는 동요하는 자기 마음을 다잡고 자기의 결심을 실천에 옮길 잡도리를 한다.

네흘류도브는 원로원에 낸 상소가 기각되는 경우 이미 굳게 결심한대로 까쮸샤를 따라 씨비리로 가기 위한 준비로서 농촌에 있는 자기 령지로 간다.

그는 먼저 주되는 수입의 원천지인 가장 가깝고 크고 비옥한 흑토지대의 령지 꾸지민스꼬예촌으로 가며 이어 고모한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령지 빠노보촌으로 찾아간다. 령지들을 돌아보고 기아와 빈궁속에서 신음하고있는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게 된 네흘류도브에게는 인민들의 불행의 주요원인은 그들을 먹여살리는 땅, 그것이 그들의 수중에 있는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농민들의 로동에 의하여 유유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있기때문이라는것이 명백해진다.

네흘류도브는 꾸지민스꼬예촌의 토지를 낮은 소작료를 받고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조치를 취하며 빠노보촌에서는 아예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포기하고 토지를 몽땅 농민들에게 넘겨준다.

농촌으로부터 모스크바로 돌아온 네흘류도브는 부지사 마슬렌니꼬브에게 부탁하여 까쮸샤가 감옥병원 간병원으로 일하게 한다. 이어 그는 까쮸샤문제를 상소하기 위하여 뻬쩨르부르그로 간다.

뻬쩨르부르그에 도착하여 이전 대신의 부인이며 이모인 챠르스까야백작부인댁에 려장을 푼 네흘류도브는 원로원 의원 월프를 찾아가 마슬로바사건의 상소재판을 잘 처리해주도록 부탁한다. 그러나 원로원은 이 상소를 상소리유가 빈약하다는것으로 하여 기각해버린다. 네흘류도브는 마지막수단으로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려보낸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네흘류도브는 자기의 커다란 집에서 나와 려관에서 수수하고 검박한 생활을 하면서 까쮸샤와 함께 씨비리류형지로 갈 준비를 한다.

마슬로바가 속한 죄수일행이 정거장에 모여 떠나가던 날은 7월의 찌는듯한 무더위가 괴롭히는 날이였다. 죄수들이 렬차를

타고 떠난 다음 네흘류도브는 다음차로, 1등차칸으로가 아니라 3등차칸으로 들어가 씨비리로 간다.

근 5천로리를 가는 도중 네흘류도브는 까쮸샤를 일반 형사범대렬로부터 정치범대렬로 옮겨놓는다. 정치범들과 함께 있게 되면서부터 까쮸샤는 나날이 고상한 인간으로 된다. 정치범들인 빠블로브나와 씨몬쏜이 그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네흘류도브도 많은 정치범들을 알게 된다. 류형살이를 가는 정치범들과 친근히 지내면서 그들에 대한 네흘류도브의 견해가 달라진다. 로씨야에 혁명운동이 일어난 시초부터 혁명운동자들에 대하여 적의에 찬 모멸의 감정을 품어왔던 네흘류도브는 그들과 가까이 접촉하면서 그들이 아무 죄도 없이 정부의 박해에 시달리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들이 다르게는 될수 없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정치범들가운데서 그가 호감을 가지게 된것은 인민의 의지파계렬의 혁명가들인 마리야 빠블로브나와 씨몬쏜, 크릴쪼브들이였으며 반면에 맑스주의계렬의 유명한 혁명가 노보드보로브는 그에게 불쾌한 인상을 준다. 네흘류도브가 까쮸샤를 만나려 정치범들의 숙소에 들어갔을 때 씨몬쏜이 자기가 까쮸샤를 사랑한다는것을 고백한다.

네흘류도브는 어떠한 경우에나 자기는 까쮸샤를 구속할 생각은 없다, 나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녀자는 자유롭다고 말한다.

그러던 어느날 드디여 네흘류도브가 까쮸샤를 위하여, 또 자기자신을 위하여 바라던것이 이루어진다. 황제에게 낸 탄원이 성취되여 까쮸샤의 도형을 취소한다는 지령서사본이 도착한것이다.

네흘류도브는 감옥을 구경하는 한 영국인의 통역으로 감옥에 간 기회에 까쮸샤에게 특사가 내렸다는것과 출옥해서 어디나 원하는 곳으로 이주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준다. 그러자 까쮸샤는 서슴없이 씨몬쏜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겠다고 말한다. 네흘류도브는 까쮸샤의 눈길과 미소를 통해 그 녀자가 이러한 결심을 내리게 된 리유를 느낀다. 까쮸샤는 아직 그를 사랑하고있으며 자기가 다시 그와 결합되면 그의 일생을 망치게 될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씨몬쏜을 따라감으로써 네흘류도브에게 자유를 준것이였다.

이날 려관으로 돌아온 네흘류도브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까쮸샤의 문제와 함께 그를 괴롭힌것은 그가 이 기간에 보고들은 그 모든 무서운 악을 어떻게 하면 타승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한 네흘류도브는 영국인으로부터 기념으로 받은 복음서를 집어들고 기계적으로 펼쳐보는 과정에 자기가 그처럼 애타게 찾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네흘류도브에게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무서운 악으로부터 구원되는 단 하나의 확실한 방도는 오직 사람들이 언제나 신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죄많은자로, 따라서 다른 사람을 벌하거나 고쳐줄 생각이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데 있다는 생각이 명백해진다.

그는 《인간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뿐아니라 오른쪽빰을 때리는자가 있거든 왼쪽빰을 내여댈것이다.》, 《인간은 원쑤들을 증오하거나 그들과 싸워서는 안될뿐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설교한 복음서의 계률을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만 하면 이 땅우에는 천국이 세워질것이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룩할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얻게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날밤부터 네흘류도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였다. … 그의 생활의 이 새로운 시기가 어떻게 끝날것인가는 미래가 보여줄것이다.》

소설은 여기서 끝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귀족청년 네흘류도브의 형상은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네흘류도브는 대담하게 자기가 속한 특권계급과 그들을 옹호하는 국가사회제도를 완전히 부정해나선다.

소설에서는 그를 여러 인물들과 상종시키고 여러 사회현상에 부딪치도록 함으로써 당대사회의 몸서리치는 사회악을 폭로하고있다.

다른 한편 네흘류도브는 도덕적자아완성과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교리를 구현한 인물이기도 하다.

소설에서는 부패한 귀족적환경에서 타락했던 네흘류도브가 재판정에서 까쮸샤를 보면서 자기를 뉘우치고 정신적으로 《부활》한

다음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길에 나섰다가 그 사회가 썩고병든 사회라는것을 깨달으나 그로부터의 출로를 투쟁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자아완성과 무저항주의에서 찾는 과정으로 그리고있는것이다.

소설에서 네흘류도브의 형상과 함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은 까쮸샤 마슬로바의 형상이다.

까쮸샤 마슬로바는 귀족이며 대지주인 네흘류도브와는 그 계급적처지가 판이한 최하층에 속한 인물이다. 이러한 하층인민출신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의 성격을 발전속에서 묘사한것은 똘스또이의 창작에서 처음일뿐아니라 선행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도 보기드문 현상이였다.

까쮸샤 마슬로바의 형상은 그가 당한 불행이 그 혼자의 개인적운명이 아니라 착취사회에서 버림받고 학대받는 수많은 하층인민들, 당시 제정로씨야에서뿐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수많은 하층녀성들이 겪지 않으면 안되는 쓰라린 운명이였다.

다른 한편 까쮸샤의 형상 역시 네흘류도브의 형상과 마찬가지로 《똘스또이주의》교리를 구현하고있다.

작가는 까쮸샤의 타락을 객관적인 사회적제조건의 결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하느님과 선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라는 정신적인것으로 설명하고있다. 이로부터 까쮸샤의 형상에서도 네흘류도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부활》하느냐 하는데 작가의 주되는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장편소설 《부활》의 진보성은 19세기 후반기 로씨야귀족부르죠아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 취약성을 폭로하고 지주와 부르죠아지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변하여 세워진 반동적국가권력기구와 사회제도를 예리하게 비판한데 있다.

재판장은 일찌기 출근했다. 그는 반백의 구레나룻을 기른, 키가 큼직하고 피둥피둥 살이 진 사나이였다. 그는 안해가 있었지만 그 안해와 꼭 마찬가지로 어지간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있었다. 그

들부부는 서로 방해를 하지 않았다. 이날 아침에도 그는 지난 여름에 자기네 집에 기숙하고있던 스위스녀자인 가정교사가 남방에서 뻬쩨르부르그로 가는 길에 보낸 글쪽지를 받았는데 그 녀자는 오늘 3시부터 6시어간에 시내의 《이딸리아》려관에서 그를 기다리겠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오늘의 재판은 일찌감치 시작해서 끝내고 6시까지는 지난 여름 별장에서 로맨스를 맺은 그 주홍빛머리의 클라라 와씰리예브나를 찾아볼 생각이였다.

그는 방에 들어가자 문에 쇠를 잠그고나서 서류장의 아래단에서 두개의 아령을 꺼내들고 우로, 앞으로, 옆으로, 아래로 스무번 같은 동작을 하고는 아령을 머리우로 쳐들고 세번 가볍게 무릎굽혀펴기운동을 했다.

《랭수욕이나 체조처럼 몸을 튼튼히 해주는건 없거던.》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금반지를 낀 왼손으로 오른쪽팔의 상박근을 주물러보았다.

그는 이제 또 선회운동을 해야만 하였다. (그는 오랜 시간 법정에 앉아있어야 할 때면 그전에 매번 이 두가지 운동을 하군 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문이 덜컥거렸다. 누구인지 문을 열려는것이였다.

재판장은 얼른 아령을 제자리에 가져다놓고 문을 열었다.

《미안합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방안으로 들어온것은 동료의 한사람으로서 금테안경을 쓰고 크지 않은 키에 어깨가 좀 올라가고 얼굴이 찌뿌둥한 사나이였다.

《또 마뜨베이 니끼찌츠가 나오지 않았소그려.》하고 판사는 못마땅한듯이 말했다.

《아직도 안나왔다—》

제복을 입으면서 재판장이 하는 말이였다.

《그 량반은 밤낮 지각이군.》

《참 놀랄 일이요. 사람이 렴치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하고 판사는 화를 내며 앉아서 권연을 꺼냈다.

이 판사는 여간한 깐깐이가 아니여서 오늘 아침도 한달분의 생

활비로 준 돈을 안해가 기한전에 다 써버렸다고 하여 안해와 한바탕 옥신각신했었다.

안해가 돈을 미리 돌려달라고 하는것을 그는 자기 립장을 굽힐수 없노라고 딱 잘라매였다.

그래서 일장의 소동이 일어났다. 안해는 말하기를 정 그렇다면 식사를 마련할수 없으니 집에서는 아예 식사할 생각을 말라는것이였다. 그쯤하고 집을 나왔는데 워낙 안해의 사람됨이 무슨짓이나 못할 녀자가 아니였으므로 자기의 엄포를 그대로 실천하지나 않겠는지 겁이 나기도 했다.

《살아갈바에야 이 사람처럼 어엿하니 건전한 생활을 해야지.》 그는 희색이 만면하여 두팔굽을 벌리고 살결이 고운 희멀건 손으로 숱지고 긴 반백의 구레나룻을 쓰다듬으며 수놓은 목깃을 량쪽으로 갈라젖히고있는, 건강하고 쾌활하고 선량해보이는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장편소설 《부활》중에서

이때 서기가 무슨 문건을 가지고 들어왔다.

《대단히 고맙소.》하며 재판장은 권연을 붙여물었다.

《그런데 어느 건을 먼저 취급한다?》

《독살사건이 좋을것 같습니다.》

서기는 상관없다는듯이 대답했다.

《좋소. 독살사건이 좋다면 그걸 먼저 합시다.》하고 재판장은 그 건이면 4시까지는 결말을 짓고 떠날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동의했다.

《그런데 마뜨베이 니끼찌츠는 아직 안보이오?》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브레베는 나왔소?》

《나오셨습니다.》하고 서기는 대답했다.

《그럼 그를 만나거든 독살사건부터 시작하겠다구 전해주오.》

브레베란 이번 공판에서 론고를 하게 되여있는 검사보였다.

서기는 복도로 나오자 곧 브레베를 만났다.

그는 어깨가 으쓱해서 제복의 단추도 채우지 않은채 손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구두소리도 요란히 빈손을 걷는 방향과 수직이 되게 휘저으며 거의 달리다싶이 급하게 복도로 걸어오고있었다.

《미하일 뻬뜨로비치가 준비가 다되셨는가고 물으시던데요.》

서기가 그에게 말했다.

《물론 나야 항상 준비가 돼있지.》하고 검사보가 말했다.

《그런데 어느 건을 먼저 하게 되오?》

《독살사건입니다.》

《좋소.》

검사보는 이렇게 대답하였으나 내심으로는 결코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밤을 꼬박 새웠던것이다.

친우의 송별회에 참가하여 밤 2시까지 질탕치듯 술을 마시며 놀다가 그다음에는 바로 6개월전에 마슬로바가 있던 그 유곽으로 쓸어들 갔다.

그러다나니 독살사건에 관한 문건은 미처 읽지를 못하여 이제 대강 훑어볼 작정이였다.

장편소설 《부활》중에서

○일화○

《부활》의 소재와 까쮸샤의 운명처리에 대한 이야기

1888년 어느날 변호사 꼬니가 똘스또이의 집에 놀러 왔다. 그는 며칠전 법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똘스또이에게 이야기하였다.

《살인을 한 녀죄수가 있었는데 그 녀자가 법정에 나와 심문을 받고있을 때 재판관이 그 녀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녀죄수는 오래전에 그 재판관의 집 하녀로 있던 녀자였습니다. 재판관은 그때 젊은 대학생이였는데 16살난 그 하녀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대학생의 부모가 그 하녀를 내쫓아버렸답니다. 몸을 망치고 쫓겨난 하녀는 애기를 양육원에 맡기고 올데갈데가 없어 떠돌아다니다가 살인을 하게 되였답니다.》

《가엾어라. … 그 재판관은 뭐라고 했나?》

《그 녀자가 죄를 짓게 된건 자기탓이라고 하면서 몹시 괴로와하더군요.》

똘스또이는 이 이야기에 기초하여 그 이듬해부터 《부활》창작에 착수하였다.

그러면 소설에서 까쮸샤가 왜 네흘류도브와 결혼하지 못하였는가?

어느날 똘스또이는 《부활》을 쓰다가 휴식할 때 주패장을 책상우에다 하나하나 덧놓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때마침 그의 사랑하는 맏딸이자 창작의 벗이기도 한 따찌야나가 서재로 들어왔다.

《아버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계셔요?》

《이런 생각을 했다. 만일 주패장의 점이 맞아떨어지면 네흘류도브와 까쮸샤를 결혼시키고 점이 맞지 않으면 그들을 영영 갈라놓으리라고.》

주패장의 점치기가 끝난 다음 딸이 물었다.

《점이 맞아떨어졌나요?》

똘스또이는 흥분하여 말하였다.

《점은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까쮸샤는 네흘류도브에게 시집갈수 없어.》

이어 똘스또이는 뿌슈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면서 그 리유를 설명해주었다. 작품의 인물들은 작가가 일단 성격을 규정해놓은 다음에는 더는 작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식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해나간다는것이다.

《아버님!》

딸이 정색하여 말하였다.

《생동하게 살아있는 인물을 그려내자면 뿌슈낀이나 아버님 같은분들이 있어야 해요.》

레브 똘스또이의 작품들중에서

산 송 장

《산송장》은 레브 똘스또이가 1900년에 창작한 희곡이다.

19세기말 제정로씨야의 력사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가짜자살로 《산송장》이 된 주인공을 둘러싼 이야기를 통하여 낡은 로씨야귀족부르죠아사회관계의 허위성을 비판한 작품이다.

주인공 뻬로따쏘브는 결혼후 10년째 술과 유흥에 미쳐 자기 재산을 탕진한다. 장모는 자기들의 재산에까지 피해가 미칠가봐 딸에게 리혼을 권고한다. 그 시각에도 뻬로따쏘브는 집시처녀 마샤의 노래에 끌려 집에 돌아오지 않고있다.

그러나 안해 리자도 처제 싸샤도 뻬로따쏘브의 선량한 사람됨을 아는지라 어머니의 의견을 반대한다. 리자는 남편에 대한 걱정과 앓는 아이의 간호로 하여 몸이 몹시 축간다.

이전부터 그를 사모하던 시종관 까레닌이 이런 리자를 극진히 보살핀다. 그들사이에 오래동안 숨겨져있던 사랑이 되살아난다. 까레닌은 완고하고 종교적인 어머니를 설복하고 뻬로따쏘브의 리혼수속을 기다린다.

뻬로따쏘브는 리혼수속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복잡하고 치욕적인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그리스정교에서는 리혼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중죄로 간주되고있다.) 가짜투신자살을 꾸며 사라진다. 하여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국적이 없는 《산송장》이 된다.

어느날 뒤골목의 술집에서 신세타령을 하던 뻬로따쏘브는 친구들에게 지나온 일을 털어놓는다. 그의 이야기를 엿들은 한 악당이 이중결혼을 걸고 협박해서 돈을 낼것을 권고한다. 뻬로따쏘

브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한다. 악당의 밀고로 리자와 까레닌이 재판에 회부된다.

자기가 죽는 길외에 두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것을 깨달은 뾰로따쏘브는(그리스정교가 지배하던 로씨야에서 이중결혼에는 씨비리류형의 중형이 적용되였다.) 그만 법정에서 자살하고만다.

희곡에서는 겉보기에는 타락해보이나 진속은 선량한 사람인 뾰로따쏘브를 한편으로 하고 겉보기에는 선량해보이고 점잖아보이지만 진속은 비인간적이고 리기적인 인간들인 까레닌과 그의 어머니, 장모, 법관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량자간의 갈등을 통하여 진정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파멸케 하고 위선적이며 리기적인자들만이 득세하는 짜리로씨야의 사회관계의 허위성을 비판하였다.

뾰로따쏘브는 정숙한 안해를 존경하면서도 자기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수 없다고 생각하고 까레닌에게 안해를 양보한다. 그가 타락한 생활을 해온것도 그들을 접근시키고 결합시키기 위해서였으며 그가 가짜투신자살을 꾸민것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위선적인 법과 종교는 그로 하여금 《산송장》으로 남아있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리기적인 주위사람들은 그가 진짜송장이 될것을 요구한다.

희곡은 선량한 뾰로따쏘브의 형상과 그를 파멸에로 이끈 리기적인 주위사람들의 형상을 통하여 귀족부르죠아사회에 판을 치고있는 허위와 위선에 대한 강한 항의를 제기하고 짜리로씨야재판제도와 결혼제도의 불합리성, 종교의 비인간성을 예리하게 폭로하였다.

작품은 그것이 폭로한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옳은 출로를 찾지 못하고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는데로 떨어진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현실폭로의 힘과 높은 극작술로 하여 똘스또이의 희곡의 대표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바보 이완

《바보 이완》은 레브 똘스또이가 1885년에 창작한 동화이다. 원제목은 《바보 이완과 그의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작품은 일 잘하고 선량한 바보 이완과 그의 두 형제, 늙은 악마와 세마리의 작은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로씨야인민의 선량함과 미덕을 찬양하고 특권계급의 기생충적인 생활을 풍자하고있다.

옛날에 부유한 농민이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맏아들 쎄뫈은 군인이 되여 크게 출세하고 둘째아들 따라스는 상인이 되여 큰 부자가 되였으며 집에서는 셋째아들인 바보 이완과 벙어리인 딸 마라니야만이 부지런히 농사일을 계속하였다. 바보 이완은 형들이 와서 그가 벌어놓은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가지자고 하자 마음좋게 선선히 내주고만다.

세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데 화가 난 늙은 악마는 세마리의 작은 악마를 불러 세 형제가 서로 싸워 망하게 하라는 과업을 준다. 쎄뫈을 맡은 작은 악마와 따라스를 맡은 작은 악마는 손쉽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완을 맡은 작은 악마는 이완에게 붙잡혀 망하고만다. 다른 두 악마도 이완에게 달라붙었다가 그들마저 망하고만다.

이때 이완은 세 악마로부터 병을 고치는 나무뿌리와 짚으로 병사를 만드는 마술, 나무잎으로 금화를 만드는 마술을 얻는다. 신세를 망치고 이완네 집에 와서 살고있던 쎄뫈과 따라스는 이완에게 졸라 숱한 군대와 돈을 얻어 다시 세력을 늘여 각기 한개 나라의 왕이 된다. 바보 이완도 앓는 공주의 병을 고쳐주고 공주와 결혼하여 왕이 된다.

그러나 이완은 왕이 된 다음에도 그냥 농사일을 계속하며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일밖에 모르는 바보들만이 남는다. 세 작은

악마의 복수를 하러 온 늙은 악마는 쎄몬과 따라스를 쉽게 파멸시킬수 있었으나 이완만은 갖은 수를 다 써도 도저히 이발이 들지 않아 제가 망하고만다.

동화에서는 일 잘하고 부지런하며 고지식하고 그지없이 어진 주인공 바보 이완의 형상을 통하여 근로인민의 미덕을 강조하고있다.

부르죠아신사로 변신한 악마의 우두머리의 형상에서는 특권계급의 기생충생활이 날카롭게 풍자되고있다.

그리하여 이 동화는 그 사상적경향성에 있어서 하나의 사회정치적풍자작품으로 되고있다.

작품에서는 전형적인 민화형식에다 깊은 내용을 담고 로씨야적인 민족적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나가고있다.

작품은 일부 인물의 형상을 잘하지 못하고 무저항주의를 고취한것 등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레브 똘스또이의 대표적인 동화작품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작품은 1886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였으나 그 강한 풍자적성격으로 하여 당국으로부터 배포금지를 당하고 1906년까지 공개되지 못하였다.

6호병실

《6호병실》(1892)은 로씨야의 비판적사실주의작가 안똔 빠블로비츠 체호브의 단편소설이다.

소설은 19세기말 감옥과 같은 제정로씨야의 암흑적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당시의 반동적현실을 폭로하고 그와 타협하려는 무저항주의를 비판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병원의 정신병자호실에 갇히운 가난한 청년 그로모브,

○상식○

체호브의 단편소설의 특징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은 우선 그 주제와 사상에서 하나의 뚜렷한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체호브의 전체 단편소설들을 통털어 묶으면 《이 생활이 공정한가?》 혹은 《이 생활이 합리적인가?》라는 주제로 관통되는 하나의 대장편소설과 같이 될수 있다. 말하자면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은 구체적인 생활소재의 견지에서 볼 때는 극히 다양하다고 할수 있으나 총적으로 보면 주제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은 첫 작품에서 마지막작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대한 비판적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의 창작과정은 작가로서, 사상가로서의 발전과정이였기때문에 그의 단편소설의 주제는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그 해결은 사상적탐구의 여러 단계를 반영하고있다.

병원 원장 라긴과 함께 6호병실의 문지기 니끼따, 병원에 새로 부임해온 의사 홉또브, 라긴의 《친우》행세를 하는 우편국장 등이 등장한다. 군병원 뜰안에 한채의 별관이 있다.

그곳은 감옥같은 건물에서만 볼수 있는 류달리 음산하고 저주로운 곳이다. 이 별관이 정신병자들을 가두는 6호병실이다.

6호병실에는 다섯명의 환자가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이완 드미뜨리츠 그로모브라는 30살가량되는 사람이다.

그는 가난한 관리의 아들로 태여났는데 가난속에서 부모와 형을 잃고 그자신도 가난탓으로 대학을 중퇴하고는 빵과 물만 먹으면서 방랑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이러한 생활처지로 하여 그는 학생시절부터 비렬한자들은 호의호식하고있는데 정직한 사람들은 먹다남은 찌꺼기로 살고있는 불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은 그 구성에서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체호브가 단편소설의 구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있는것은 주요 등장인물은 두명정도로 하고 사건은 시초부터가 아니라 중간부터 묘사하며 세부묘사는 간략하고 주인공이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것이다. 그의 작품들에 이와 같은 구성상요구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있다.

체호브의 단편소설의 묘사기교에서 특징적인것은 간결성, 객관성, 정확성, 생동성이라고 할수 있다. 체호브는 간결하고 생동하며 정확하고 진실한 화폭을 그리기 위하여 첫째로 가장 특징적인 세부를 붙잡는데 중요한 주의를 돌렸으며 다음으로는 동적이며 립체적인 묘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설교와 론단을 피하고 예술가는 등장인물에 대한 판사가 될것이 아니라 공정한 증인이 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인물묘사나 환경묘사에서, 모든데서 나타나고있다.

합리한 사회제도를 비난하여왔다.

그는 무시무시한 전제제도하에서 별안간 무슨 까닭에서인지 자기도 역시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끌리워갈것만 같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결국 피해망상증으로 자라나 그는 이 병원의 6호병실에 갇히우게 된것이다.

이 6호병실은 그에게 있어서 병실이 아니라 감옥이였으며 그의 환상은 현실로 되였던것이다. 작품은 그로모브의 형상을 통하여 언제나 경찰과 특무들의 감시가 뒤따르며 온갖 진보적인 싹들이 가혹하게 탄압당하던 19세기말 제정로씨야의 형편을 반영하고 귀족부르죠아사회의 반동성을 폭로비판하였다.

소설에서는 그로모브의 운명과 나란히 병원 원장인 안드레이 에피믜츠 라긴의 운명이 이야기되고있다.

라긴도 청년시절에는 정열이 있고 리상도 있었다. 하여 이 병원에 부임해오자 열성껏 치료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줄지 않으며 사망률은 높아만 갔다.

그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현대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벽지에서 의료기구도 약도 영양보장조건도 없는데서 사람의 병을 고칠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며 열성적으로 치료하는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병원일에 무관심해진다.

마침내 그는 치료의 무익성을 주장하는 무저항주의자로 된다. 그는 아픔은 아픔에 대한 표상에 불과하므로 아프지

○유모아○

뻔한 질문에 대한 대답

귀족부인 셋이 체호브를 방문하여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체호브씨, 이 전쟁이 어떻게 될가요?》

《멀지 않아 평화가 올겁니다.》

《그런데 어느쪽이 이길가요? 그리스사람들이겠는지, 뛰르끼예사람들이겠는지?》

《센쪽이 이기겠지.》

《어느쪽이 세다고 생각되는가요?》

《그거야 이기는쪽이 세겠지 누가 세겠소.》

않다고 생각하면 아프지 않게 되며 6호병실안에서도 자유롭다고 생각만 하면 자유로와진다는 이른바 철학을 고안해낸다.

이리하여 그는 일체 치료사업을 중단하고 자기 집 서재에서 한가한 나날을 보낸다. 어느날 그는 6호병실에 갇히워있는 그로모브와의 담화과정에 자기 리론의 적수를 발견하고 계속 그와 론쟁한다. 이럴 때 원장자리를 노리던 그의 조수는 원장을 정신병자로 몰아버린다. 그리하여 원장은 시청에 불리워가 정신이 온전한가 온전치 못한가를 판단하는 검사까지 받게 되며 사표권고를 받는다. 이러한 원장—라긴을 6호병실에 가두어버린다.

그가 이에 항의하여 자기를 내보내라고 대들자 문지기 니끼따가 사정없이 매를 안긴다.

원장은 처음으로 6호병실이 자기 서재와 같이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으며 아픔은 표상에 불과한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아픔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그는 지난 25년간의 자기 생활, 자기 《철학》이 허무맹랑한것이라는것을 깨닫고 자기의 무관심으로 사람들이 6호병실에서 죽어갔다는것을 깊이 뉘우치며 마침내 심장이 터져죽는다.

작가가 소설에서 말하려고 한것은 제정로씨야는 모든 인간적인것을 말살하는 감옥과 같은 하나의 《6호병실》이라는것이다. 소설은 당시의 감옥과 같은 로씨야현실을 보여주면서 《6호병실은 도처에 있다. 이것이 로씨야이다.》라고 강조하고있다.

작품은 현실폭로에 그치고 현실과의 적극적인 투쟁에로 주인공을 끌어가지 못한 약점이 있다.

다음날 아침 이완 드미뜨리츠 그로모브는 금시라도 자기를 체포할는지 모를것이라고 믿은 나머지 공포에 싸여 이마에 식은땀을 쭉 흘리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제의 괴로운 생각이 이렇게 오래동안 자기를 떠나지 않는것을 보면 결국 이 생각엔 얼마간이라도 진실이 있는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 아무런 리유도 없이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수는 없는 일이였다.

경관이 천천히 들창곁을 지나갔다. 이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두사람이 말없이 집곁에 서있다. 그들은 왜 말이 없는가?

이리하여 이완 드미뜨리츠에게는 괴로운 낮과 밤들이 시작되였다. 들창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밀정이나 형사로 보이였다. 대낮이 되면 늘 군경찰서장이 쌍두마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군 하였다. 이것은 그가 교외에 있는 자기 령지에서 경찰서로 가군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이완 드미뜨리츠에겐 이럴 때마다 서장이 이렇게 빨리 무슨 심상치 않은 표정을 하고 마차를 달리는것은 분명히 몹시 중한 죄인이 이 도시에 나타났다는것을 알리려고 서두르는것으로 보이였다. 이완 드미뜨리츠는 문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든가 좀 달칵만 해도 몸을 떨었고 집주인마누라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는 막 괴로와했다. 경관이나 헌병을 만나면 무관심한듯 보이려고 일부러 미소를 띠우며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는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몰라 어느날 밤이나 내처 자지를 못했다. 그러나 그는 녀주인에게 자기가 자는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잠든 사람처럼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도 했고 큰 숨을 쉬기도 했다. 만약에 자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영낙없이 그가 량심의 가책을 받고있는것으로 되니—이것이야말로 범죄의 증거가 아닌가! 사실과 건전한 론리는 이 모든 공포가 어리석은 일이며 정신병이라고, 문제를 더 널리 관찰한다고 하면 본질에 있어서 체포라든가, 감옥이라든가 하는것에는 아무것도 무서운것이 없는것이라고 그에게 타일러주었으니 량심이 편할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보라. 그가 령리하게 보다 론리적으로 판단하면 할수록 마음속의 불안은 더 커졌고 더 고통스러운것으로 되였다. 이것은 마치도 한 은둔자가 처녀림가운데 자기의 집터를 닦으려고 나무를 찍는데 그가 도끼질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산림이 더 울창하고 더 세차게 자랐다고 생각되는것과 같았다. 이완 드미뜨리츠는 결국에 이러한것들이 허사임을 알고 이리저리 판단하는것을 아주 버리고 절망과 공포에 몸을 맡겨버렸다.

단편소설 《6호병실》중에서

작가소개

안똔 빠블로비츠 체호브

19세기 80～90년대에 활동한 체호브는 단편소설과 극문학의 혁신자로서,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마지막대표자로서 로씨야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안똔 빠블로비츠 체호브(1860－1904)는 흑해연안에 있는 따간로그시의 소상인집안에서 태여났다. 그가 창작활동을 시작한것은 1888년에 모스크바종합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모스크바부근 워스크레쎈스크(현재 이스뜨라)시 자치회병원에서 일하면서부터이다. 시골 소도시의 침체한 소시민적환경에서 산 체호브는 당시 로씨야의 첨예한 사회정치투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으나 평민민주주의지식인의 립장에 서서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을 관찰하고 그것을 자기 작품들에 반영하였다.

1880년대 전반기에 창작을 시작한 체호브는 첫시기에 해학적인 단편소설들을 많이 썼다. 군사경찰관료통치가 낳은 기형적인 인간들과 통치배들의 전횡, 신분차별제도 등을 비판한 《관리의 죽음》, 《뚱뚱보와 말라꽁이》, 《카멜레온》, 《쁘리쉬베예브하사》등과 전제제도하에서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처지를 반영한 《불행》, 《완까》, 《자고싶어》등 단편소설들은 비판적사실주의작가로서의 체호브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시기 그의 세계관과 창작에서는 정치에 대한 소부르죠아적 무관심성이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18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가 창작한 단편소설 《행복》과 《답답한 이야기》, 중편소설 《초원》(1888)과 같은 작품들에는 당시 로씨야의 모순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작가의 모대김이 반영되여있다.

특히 1890년대에 들어와 작가는 단편소설 《6호병실》, 《갑속에 든 사

나이》, 《이오늬츠》와 중편소설 《농군들》 등의 작품들에서 허물어져가는 지주부르죠아사회의 낡고 반동적인것을 신랄하게 폭로하였으며 그 속에서 고통받는 농민들, 평민들, 가난한 지식인들의 처지를 보여주면서 당시의 어두운 현실은 물러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게 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작가는 또한 중편소설 《골짜기에서》(1900), 단편소설 《약혼녀》(1903) 등에서 낡은 사회는 반드시 멸망하고 근로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이 되리라는 사상을 표현하였다.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은 한두가지 정황과 몇가지 특징적인 세부를 가진 간단한 이야기줄거리, 몇명 안되는 등장인물과 단일하고 명확한 구성속에서 당시의 사회생활의 특징을 일반화하고있을뿐아니라 매우 간결하고 풍부하며 인상적이고 매혹적인것이 특징이다.

체호브는 단편소설창작에서뿐아니라 극문학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작가이다.

그는 《갈매기》(1896), 《와냐아저씨》(1897), 《세 자매》(1901), 《벗나무동산》(1904)과 같은 대표적인 희곡들에서도 역시 낡은 로씨야의 반동적인 현실을 비판하면서 생활이 반드시 개변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담았다.

그러나 자신이 소부르죠아지식인이였던 사상적 및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혁명적로동계급과 자기 운명을 결부시킬수 없었던 체호브는 낡은 사회를 부정하고 새 사회를 동경하면서도 밝아올 래일에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개척되리라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호브의 창작은 당대의 현실을 예리하게 해부비판하고 단편소설과 극문학 및 연극발전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와냐아저씨

《와냐아저씨》는 로씨야작가 체호브의 희곡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연극 《와냐아저씨》는 선량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파렴치하고 잔인한 착취자들에게 짓눌려사는 19세기 말경의 귀족부르죠아적인 로씨야사회의 반동성을 비판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미래에 대한 념원을 표현하였다고 가르치시였다.

체호브가 1897년에 창작한 이 희곡은 19세기 말경 제정로씨야의 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주인공 와냐아저씨의 운명선을 통하여 귀족부르죠아적인 로씨야사회의 반동성을 비판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미래에 대한 념원을 표현한 작품이다.

희곡의 주요인물로 와냐아저씨(워이니쯔끼), 그의 조카딸 쏘냐, 쎄레브랴꼬브교수와 그의 후처 옐레나, 의사 아스뜨로브 등이 등장한다.

사건은 쎄레브랴꼬브의 시골저택에서 일어난다.

제1막의 무대는 로대가 달린 저택의 일부가 보이는 정원이다. 여기에서 진행되는 와냐아저씨, 쏘냐, 아스뜨로브, 옐레나 등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작품에서 제기하려는 문제가 로출된다.

퇴직한 무능하고 늙은 교수 쎄레브랴꼬브가 젊은 후처 옐레나를 데리고 전처의 령지가 있는 촌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이곳으로 내려온다.

이곳에서 사는 교수의 처남(전처의 오빠) 와냐아저씨(워이니쯔끼)는 자기 누이의 행복을 위하여 상속권을 포기하고 누이와 매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령지를 관리하여왔었다. 그는 장가도 들지 않고 교수의 명성, 누이의 행복을 자신의 명성, 자신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였다. 누이의 딸인 쏘냐도 외삼촌과 함께 령지관리를 도우면서 농촌에서 살고있었다.

그런데 누이는 이미 죽고 교수가 27살밖에 안된 젊은 후처를 데리고 령지에 나타났을 때 와냐아저씨는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 쓸모도 없는 쎄레브랴꼬브를 위해서 귀중한 청춘을 바쳤다는것을 깨닫는다. 그는 돌이킬수 없는 이 손실에 번민하며 교수의 아름다운 후처를 사랑하게 된다.

제2막은 이 집의 식당이 무대로 되고있다. 밤이다.

여기서 쎄레브랴꼬브, 옐레나, 워이니쯔끼, 쏘냐, 아스뜨로브 등의 대사를 통하여 극에서 제기된 문제가 좀더 명백해진다. 쎄레브랴꼬브는 자기가 이곳에 정배하러 온것 같다고, 못견디겠다고 불평한다.

워이니쯔끼는 《아, 내가 얼마나 속았어! 나는 그 교수를, 그 불쌍한 신경통환자를 숭배하여 그자를 위해서 소처럼 일했지! 나와 쏘냐는 이 령지에서 마지막기름 한방울까지 짜냈지. 우리는 한

○상식○

체호브의 희곡의 특징

체호브가 세계적인 단편소설가로서 널리 알려졌을뿐아니라 극작가로서도 유명해진것은 19세기 80년대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희곡창작활동을 벌리면서 로씨야극문학이 침체기에 빠지고 사상예술성이 매우 낮은 저속한 《보드빌》(경희극적작품)이 류행하던 시기에 선행한 로씨야사실주의극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극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것과 관련되여있다.

체호브가 창작한 희곡들은 무엇보다도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당시 제정로씨야의 형편과 사회생활을 옳게 반영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을 높였다.

체호브의 희곡들이 창작되던 19세기말～20세기초는 로씨야에

푼두푼 모아서 그자에게 수천Rbl이나 되는 큰 돈을 보내주기 위하여 마치 깍쟁이처럼 참기름과 완두콩과 우유를 팔고 자신들이 먹는 빵쪼각까지 절약했지. …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그자는 퇴직을 하고 이제 와서는 그자의 생애의 총결산이 빤히 보인다. 그가 죽은 후에는 한페지의 저술도 남지 않을거야. 그자는 전혀 이름없는 자야. 그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비누거품이야! 그런데 나는 속았어. … 이젠 알았어. 어리석게도 속았단 말이야. …》라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린다.

쏘냐가 아스뜨로브에게 자기의 련정을 내비치나 아스뜨로브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쏘냐는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계모에게 하소연한다.

제3막은 이 집의 응접실을 무대로 하고있다. 쎄레브랴꼬브가 집안사람들이 오후 1시까지 응접실에 모이도록 분부한다.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쏘냐는 계모에게 아스뜨로브에게 자기가 그를 사랑한다는것을 알려 대답을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옐레나로부터 그

서 프로레타리아혁명운동이 급격히 앙양된 시기였다. 레닌의 령도밑에 로씨야의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점차 힘있는 혁명력량으로 조직되였으며 짜리제도와 지주, 자본가계급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작가였던 체호브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고리끼와 같은 프로레타리아작가들처럼 무산계급의 계급적립장에 확고히 서지 못했으며 소부르죠아지식인으로서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혁명적로동계급과 자기 운명을 결부시킬수 없었으나 짜리통치하의 로씨야현실의 부패성과 모순을 깨닫고 그에 대한 비판정신을 높였으며 어두운 현실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게 될 광명한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체호브는 《갈매기》(1896), 《와냐아저씨》(1897), 《세 자매》(1901), 《벗나무동산》(1904) 등의 희곡을 창작하였다.

말을 들은 아스뜨로브는 만약 한두달전에만 그 말을 들었어도 생각해보았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기 마음은 옐레나에게 가있다는것을 고백한다. 그가 옐레나를 포옹하고 입맞추는것을 워이니쯔끼가 본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교수는 자기가 령지를 팔고 그대신 자그마한 별장을 사서 살아갈 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한다. 이 말을 듣고 워이니쯔끼의 분노가 폭발한다.

그는 사람들앞에서 교수를 폭로하고 규탄하며 퇴장한 그를 뒤쫓아가 총을 쏘기까지 한다.

제4막에 가서 워이니쯔끼가 의사의 가방에서 극약을 꺼내서 자살하려고 했다는것이 알려진다. 그러나 교수와 후처는 떠나가고 와냐아저씨와 쏘냐는 모든것을 참고 종전과 같이 교수를 위해 령지관리를 계속하며 그전에 보내던 액수만큼의 돈을 계속 보내기로 락착을 본다.

희곡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늙은 교수 쎄레브랴꼬브와 그의 젊은 후처 옐레나이다. 이들은 둘다 낡은 전제국가의 요구에 맞추어 그럭저럭 살아가는 시정배들, 무위도식자들이며 와냐아저씨나 쏘냐와 같은 선량하고 근면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기생충생활을 하는 파렴치한자들이다.

쎄레브랴꼬브가 이처럼 파렴치한 인간으로 된것은 그에게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혼자 잘살면 된다는 부르죠아개인주의사상이 가득차있기때문이다. 하여 이자는 겉으로는 교수의 직책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체면을 지키는척 하지만 실은 량심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파렴치하고 잔인한짓을 하는것이다.

쎄레브랴꼬브의 후처 옐레나 역시 그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쎄레브랴꼬브와 본질적으로 같다.

의사 아스뜨로브가 쏘냐에게 한 말에서 그 녀자의 본질이 드러나고있다.

《사람은 모든것이 아름다와야 합니다. 얼굴도 의복도 마음도 사상도. 그(옐레나)는 아름답습니다. 두말할것없이 말입니다. 하

지만… 그는 단지 먹고 자고 산보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모두를 매혹하고—그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일하고있으니까요. … 그런 무의미한 생활은 깨끗할수가 없습니다.》

희곡은 와냐아저씨와 쏘냐의 형상을 통하여 사회에 아무런 리익도 주지 못하는 무위도식자들, 기생충적인 지배계급을 위하여 재능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낡은 로씨야를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작품은 이러한 등장인물의 형상과 그들사이의 인간관계, 그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하여 선량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파렴치하고 잔인한 착취자들에게 짓눌려있는 귀족부르죠아적로씨야사회의 반동성을 비판하였다.

작품은 또한 마지막장면에서 울려나오는 쏘냐의 대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회가 물러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미래에 대한 념원을 표현하였다.

《와냐아저씨, 살아갑시다. 길고긴 낮과 밤의 련속을 살아갑시다. 운명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시련을 참을성있게 견디여갑시다. 지금도 나이든 뒤에도 쉬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일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때가 오면 우리는 고이 죽어서 무덤 저쪽에 가서 우리들이 괴로웠던것과 우리들이 운것과 우리들이 어려웠던것들을 이야기합시다. … 그때는 아저씨, 아저씨도 저도 밝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보게 될거예요. 우리들은 기쁨에 넘쳐 지금의 우리들의 불행을 감동과 미소로써 되돌아보게 될것이예요.》

이 희곡은 불합리하고 반동적인 사회를 폭로하고 비판하였을뿐 그것을 개조할 어떠한 방도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주인공들을 참고 견디며 현실에 순종하는 인간으로만 그린 약점도 가지고있다. 이로부터 희곡에는 일정한 비관과 애수가 흐르고있다.

○상식○

벗나무동산

《벗나무동산》은 체호브가 1904년에 창작한 희곡이다.

한 귀족지주가정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통하여 제정로씨야의 부패한 모습을 폭로하고 새생활에 대한 동경이 날로 커가고있던 사회적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이다.

오래동안 빠리에 가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지친 녀지주 류보비 라넵스까야가 5년만에 아름다운 벗나무동산에 둘러싸여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빚만 지고 돌아온 그에게 이제 남은것은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벗나무동산뿐이다. 지난날에는 그 집 농노의 자손이였으나 지금은 부유한 상인이 된 로빠힌이 벗나무동산을 구원하려면 그것을 자기에게 대여하고 별장지로 만들라고 권고한다.

라넵스까야와 그의 오빠 가예브는 100년동안이나 소유해온 령지를 내놓기 아쉬워 날자만 질질 끈다. 그들이 먼 친척에게서 빚갚을 돈을 얻을 허망한 기대를 품기도 하고 양딸 와랴를 로빠힌과 결혼시켜 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려는 공상도 하는 사이에 벗나무동산은 경매에 붙여져 로빠힌이 그것을 산다.

지주네 령지를 소유하게 된 로빠힌은 우쭐대고 자기 집 농노의 자손에게 령지를 넘겨주게 된 라넵스까야와 그의 가족들은 비탄에 빠져 헤쳐가고만다. 라넵스까야는 빠리로, 가예브는 은행사무원자리를 얻어 도시로 떠나간다. 라넵스까야의 딸 아냐와 그의 남동생의 가정교사였던 대학생물림의 청년 뜨로피모브만은 낡은 생활과 작별하게 된것을 기뻐하면서 활기에 넘쳐 새 생활을 향해 나아간다.

작품은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몰락해가는 계급, 허물어져가는 낡은 생활을 부정하고 다가오는 새 생활, 새 사회를 지지하고 동경하였으나 그 구체적내용과 방도는 밝히지 못하였다.

작품은 그 진보적인 내용과 참신한 극작술로 하여 19세기말～20세기초 로씨야의 비판적사실주의극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일화○

《므하뜨》에 날아든 갈매기

《므하뜨》(모스크바예술극장의 략칭)극장에 가면 회색면막 우에 하얗게 도드라지게 형상한 날아가는 갈매기들이 시선을 끈다. 사람들에게 약동감과 청신한 활력을 안겨주는 갈매기. 갈매기가 《므하뜨》와 무슨 인연이 있는가?

《므하뜨》는 1898년 10월에 조직된 극장이였다. 창설된 이후 극장은 여러편의 희곡을 상연하였으나 관중들의 인기를 끌지 못하였다.

그때 극장에서는 두해전에 뻬쩨르부르그의 알렉싼드르극장에서 공연한적이 있는 체호브의 희곡 《갈매기》를 끌어당겼다.

그 희곡은 알렉싼드르극장에서 무대에 올렸다가 완전히 실패한 작품이였다.

공연이 얼마나 재미없었던지 관객들 태반이 공연도중에 나가버리는 극장력사상 전례없는 사태를 빚어냈던 《문제성》있는 희곡이였다.

과연 성공할수 있는가? 체호브의 《갈매기》는 1898년 12월 《므하뜨》극장에서 공연되였다.

그런데 실로 뜻밖에도 희곡은 공연 첫날부터 관중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므하뜨》는 날이 갈수록 대성황을 이루었다. 로씨야연극사상 하나의 사변이 아닐수 없었다.

어떻게 되여 관록있는 유능한 배우들이 집결되여있는 알렉싼드르극장에서 날지 못한 《갈매기》가 이름없는 젊은 배우들로 무어진 《므하뜨》에서 깃을 치며 날게 되였는가?

그것은 《므하뜨》의 진취성이 강한 젊은 배우들이 작품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하고 관중들에게 형상적으로 전달하였기때문

이다.

이 희곡의 매력은 갈매기처럼 나래치는 녀주인공 니나의 형상에 있었다.

니나는 명확한 목적과 리상을 가지고 그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한다.

한편 뜨레쁠레브는 자기를 사랑했던 니나가 뜨리고린을 사랑하게 되자 화김에 호수의 갈매기를 쏴떨구고는 죽은 새를 니나의 발치에 던진다.

그리고 노력으로 자기 재능을 꽃피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자신을 갈매기처럼 쏴죽이겠다고 하며 결국 그렇게 자살하고 만다.

니나는 그에게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행복을 찾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간다.

그는 풍파를 맞받아나갈 의지를 품고 갈매기처럼 나래를 펴고 나아가는것이다.

도달한 수준에 만족을 모르고 계속 전진하기를 지향하는 날아가는 갈매기.

체호브는 니나와 뜨레쁠레브자신이 쏴죽인 날수 없는 갈매기를 통하여 노력과 재능간의 투쟁에서 노력의 승리를 형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였다.

체호브가 의도한 그 숨은 뜻을 몰랐던 알렉싼드르극장에서는 니나를 뜨리고린의 희생물로만 형상하였으나 《므하뜨》에서는 그를 생활을 개척해나가는 긍정인물로 보고 갈매기에 비유하여 서정적으로 형상하였다.

그리하여 관중들로 하여금 니나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찾고 실수없이 자기 노력으로 새 생활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정서적으로 느낄수 있게 함으로써 연극을 성공시켰던것이다.

체호브의 단편들중에서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체호브가 1884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한 시민의 손가락을 문 강아지를 처리하는데서 경찰서장이 보여준 카멜레온(주위환경에 따라 몸색이 자주 변하는 파충류의 하나)적인 성격을 희극적으로 야유하고 풍자한 작품이다.

새 외투를 입은 경찰서장 오츄멜로브가 몰수한 과일을 경찰에게 들려가지고 위엄있게 장마당을 지나간다. 주위는 거지조차 볼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일어난다. 은장방주인이 어떤 개한테 손가락을 물리운것이다. 《질서유지》를 위해 서장은 조서를 꾸미라고 경찰에게 명령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개가 장군의 개라고 말한다. 그러자 경찰서장은 태도를 일변하여 조그마한 강아지가 어떻게 어른의 손가락을 물수 있는가고 피해자가 아니라 개를 두둔해나선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던 경찰이 장군댁에서 이런 개를 본 일이 없다고 말하자 서장의 태도가 또 변한다. 더러운 개이니 그냥 놔두지 말라고 경찰에게 지시한다.

잠시후 혹 장군댁것일지도 모르지라고 순사가 덧붙이고 군중들속에서 장군댁 개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또 서장의 태도가 급변한다. 그는 피해자에게 《이 짐승같은 놈아, 팔을 내려! 그게 뉘탓인가.》고 다시 개를 비호하는데로 넘어간다.

이때 장군댁 료리사가 나타나 그 개는 장군의 개가 아니라고 하자 서장의 태도가 또 변한다.

《주인없는 들개가 틀림없으니 때려죽이면 그만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료리사가 장군의 개는 아니지만 장군집에 놀러온 장군의 동생의 개라고 말한다.

서장은 제꺽 태도를 바꾸고 참 반갑다고, 이쁜 개라고 하면서 료리사에게 개를 끌고가라고 한다. 이런 경찰서장을 보며 군중이 웃어댄다.

작품은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하여 대중의 인권문제와 지배계급의 리익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로출시키고 우에는 아첨하고 발라맞추며 밑에는 호령하고 압박하는 경찰서장의 카멜레온과 같은 성격을 웃음으로 비웃고있다.

갑속에 든 사나이

《갑속에 든 사나이》는 체호브가 1898년에 창작한 단편소설이다.

작품은 19세기말 제정로씨야의 반동적현실을 반영하면서 자기의 사상도 옷차림도 언행도 다 갑속에 넣고 다니는 인물인 주인공 벨리꼬브의 형상을 통하여 반동적현실과 타협하고 노예살이에 만족하던 시정배들을 풍자비판하였다.

소설의 주인공인 중학교 그리스말교원 벨리꼬브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수 있는 이른바 갑을 만들려는 끊임없고 어쩔수없는 지향에 사로잡혀있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들끓는 현실생활과 생기있고 활발한 모든것이 두렵고 놀라왔으며 불안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맑은 날에도 덧신을 신었고 우산을 들고 외투를 입고야 다녔으며 우산, 시계, 칼 등 모든 소지품은 다 주머니를 만들어 그속에 넣고 다녔다.

뿐만아니라 그는 얼굴도 외투깃에 숨기고 다녔고 눈에는 검은 안

경을 끼고 귀는 솜으로 막군 하였다.

벨리꼬브는 자기의 사상도 역시 갑속에 감추려고 하였다. 그는 반동들이 강요하는 숨막히는 생활에 만족하면서 그들의 지시문이나 금지령의 내용을 철저히 지켰다.

이 벨리꼬브와 같은 사람의 영향밑에 그가 사는 도시에서는 10여년동안이나 모든것을 심지어는 큰소리로 말하는것, 편지보내는것, 가까이 사귀는것, 책읽는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것, 글을 가르치는것까지도 두려워하게 된다.

현실생활에서의 새것, 온갖 전진운동이 두려워 《갑속에》 숨은 벨리꼬브의 형상에는 짜리반동통치가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던 19세기 80～90년대 로씨야의 사회생활이 반영되여있다.

소설은 이러한 반동적현실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일정하게 제기하고 이대로 노예살이를 계속할수 없다는 호소를 내놓긴 하였으나 그 출로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일화○

고리끼와 《6호병실》

자기보다 8살 아래인 고리끼를 존경하고있던 체호브는 창작생활에서 애로가 제기되면 그에게 방조를 요청하군 하였다.

어느날 체호브가 얄따료양소앞을 지나려 할 때였다.

《전 결핵환자예요. 절 병원에서 쫓아내면 어디로 가란 말이예요? 절 동정해주세요.》

그는 병원문앞에서 들려오는 젊은 녀성의 절망적인 비명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차마 무심히 지나칠수 없었던것이다. 체호브는 병원문으로 다가가 그 녀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 녀성이 30살도 못되였는데 이미 10년간의 교원생활을 한바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녀성의 페병이 날을 따라 악화되여가자 그의 남편이 두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것, 그 녀성이 치료비를 댈수 없어 병원에서 쫓겨나게 된것을 알게 된다.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녀성이였다. 체호브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고스란히 그 녀성에게 주어 병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그날밤 체호브는 그 녀성의 피기없이 메마른 얼굴,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되살아나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하루밤을 새우면서 그는 이 녀인의 불행한 처지를 두고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그와 같은 녀인이 이 로씨야땅에 수백수천을 헤아릴것이였다. 체호브는 그 녀인을 원형으로 당시 로씨야현실에 가득찬 모순을 폭로하는 소설을 쓰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녀인의 생활자료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체호브는 료양소를 하나 꾸려놓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작품창작에 필요한 자료를 얻자는 욕망에 불탔다. 하지만 그에게는 병원을 꾸릴만한 돈이 없었다. 그는 창작생활을 통하여 친숙해진 고리끼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고리끼! 이곳에 한 녀교원이 있네. 그는 결핵환자인데 어제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날번 했네. 그를 도와줄 가능성

이 없겠소? 당분간 내가 돈을 내여 치료를 받게 했소.》
고리끼는 체호브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그를 찾아왔다. 체호브는 그에게 자기 집을 보이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곳에는 결핵환자가 무척 많네. 모두 교원들일세. 만일 내게 돈이 있다면 앓는 교원들을 위하여 이곳에 병원을 꾸리고싶네. 해빛도 잘 들고 아담한 건물을 말이네.》
체호브의 말을 듣고난 고리끼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우며 그의 의견을 지지해나섰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 이렇게 불합리하고 락후한 나라가 우리 로씨야요. 당신은 병원도 세우고 소설도 쓰시오.》하면서 고리끼는 체호브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는 미리 구해가지고 온 돈뭉치를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날밤 체호브는 친우를 위하여 바치는 고리끼의 따뜻한 손길을 심장으로 느끼면서 자기의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한편 체호브는 로씨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결핵환자들을 도와주자는 호소문을 썼다.
며칠후 얄따에는 20개의 침대를 갖춘 소박한 병원이 세워졌다. 체호브는 결핵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먼곳에서 온 환자들의 숙소도 해결해주었다.
그는 환자치료에 드바쁜 속에서도 이미 생각했던 작품을 구상하여 원고지에 옮기였다. 그는 초고가 완성되자 곧 고리끼에게 보내였다.
고리끼는 여러번 체호브를 찾아와 작품창작을 도와주었다. 고리끼의 성심성의로 되는 조언과 방조를 받으면서 두해만에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이 바로 1892년에 발표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6호병실》이였다.
모든 인간적인것이 질식되는 감옥과 같은 당시 로씨야사회를 비판한 이 소설은 누구보다도 고리끼의 대절찬을 받았다.
레닌은 청년시절에 이 소설을 읽고 《나는 무시무시해졌다. 나는 방에 앉아있을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바로 내가 〈6호병실〉에 갇혀있다는 느낌이 났다.》고 말하였다.

고난의 길

《고난의 길》은 이전 쏘련작가 알렉쎄이 똘스또이의 장편소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알렉쎄이 똘스또이의 장편소설 《고난의 길》은 교양적의의가 큰 작품이라고, 장편소설 《고난의 길》은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착취사회의 지식인들이 혁명가로 개조되는 과정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고난의 길》은 쏘련작가 알렉쎄이 똘스또이가 1922～1941년에 내놓은 3부작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제1부 《자매》(1922), 제2부 《1918년》(1928), 제3부 《음산한 아침》(1941)의 3부로 구성되고있다.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전부터 시작하여 공민전쟁에 이르기까지의 력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고난의 길을 거쳐 낡은 사회의 지식인들이 혁명가로 개조되는 과정을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소설에는 주인공들인 공장기사 쩰레긴과 짜리군대 장교 로쉰, 그들과 결합되는 다샤와 까쨔자매를 비롯하여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고있다.

소설은 주인공들인 쩰레긴과 로쉰, 다샤와 까쨔의 운명선을 따라 펼쳐지고있다.

이완 쩰레긴은 처음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기사이다.

그는 1914년에 뻬쩨르부르그의 발뜨공장 기사로 일하면서 로동자들과 친숙하게 지냈으며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로동자들을 동정하였다고 하여 해고당한다.

쩰레긴은 림시 친척집에 가있으려고 려객선을 타고 볼가강을 내려가던중 배우에서 이미 안면이 있던 처녀 다샤를 만나게 된다.

싸마라의 의사 불라빈의 둘째딸 다샤는 언니 까쨔가 시집살이를

하는 뻬쩨르부르그에 올라와 대학에 다니는 19살난 아름답고 순진한 처녀이다. 그는 청년들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 그후 산보길에서 다시 만났던 쩰레긴한테서 좋은 인상을 받았었다. 언니가 퇴페적인 시인 베쏘노브의 유혹에 넘어간것으로 하여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자기마저 베쏘노브의 유혹에 넘어갈번 했던 다샤는 방학기간에 싸마라의 친정집에 가려고 배를 탔다가 쩰레긴을 다시 만나게 된것이였다. 수도에서 숨막히는 생활을 하다가 쩰레긴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쩰레긴이야말로 진실하고 건전한 사람이구나 하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미부터 다샤에게 끌렸던 쩰레긴의 마음도 설레인다. 이리하여 배를 타고 려행하는 기간에 둘사이는 매우 가까와진다. 쩰레긴은 다샤를 싸마라까지 바래다주고 헤여진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짜리군대에 징병된 쩰레긴은 떠나기 전에 다샤를 찾아가 장래를 약속한다.

쩰레긴은 공병장교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적에게 잡혀 오스트리아군포로수용소에서 포로생활을 한다. 그는 반항죄에 걸려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다가 몇사람의 로씨야장교들과 함께 구사일생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한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군대병원 간호원으로 일하는 다샤와 상봉한 후 다시 발뜨공장 기사로 파견되여 병기생산에 종사한다.

1917년 2월혁명후 다샤와 결혼하고 수도에서 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한 쩰레긴은 사회적혼란속에서도 사랑하는 녀인과의 개인적인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찾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0월혁명이 승리하고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사이의 준엄한 계급투쟁이 벌어진 정세에 직면하여 애국심과 정의감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가정생활에만 파묻혀있을수 없었다. 그는 스몰리늬로 찾아가서 자기가 일하던 공장의 로동자볼쉐비크였으며 지금은 혁명간부가 된 루블료브를 만나 의논한다. 루블료브는 그가 붉은 군대에 입대하여 혁명과 인민의 편에서 싸울것을 권고한다.

그리하여 쩰레긴은 1918년 3월 다샤와 헤여져 남부전선에 파

견되며 쏘로낀군단의 중대장으로 복무하게 된다. 쩰레긴이 군사복무를 하게 된 북깝까즈의 정세는 긴장하였다. 특히 군단장 쏘로낀의 변절행위로 하여 붉은군대는 큰 손실을 입는다.

쩰레긴은 안전부장 김자의 비밀보고서를 가지고 최고사령부로 파견된다. 그는 백파장교로 변장하고 백파통치구역을 통과하는 과정에 동서가 된 백파장교 로쒼과 부딪쳤다가 그의 묵인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하며 다샤의 소식을 알려고 싸마라의 처가집에 찾아갔다가 장인의 밀고로 체포될번 하다가 다샤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등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으며 끝내 임무를 수행한다.

쩰레긴은 까잔전투때 련대장으로 임명되여 싸마라로 진격한다. 싸마라를 해방하고 다샤를 찾아보았으나 다샤는 아버지와 결별하고 집에서 뛰쳐나가고 없었다. 쩰레긴은 발뜨함대 해병들을 데리고 짜리찐 제10군단에 보낼 군수품을 실은 증기선을 호송할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들로써 포병중대를 꾸리고 짜리찐방어전투에 참가한다.

○일화○

땅크 《준엄》호에 바친 상금

파쑈도이췰란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전쟁시기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정론들과 소설창작으로 쏘련인민들과 붉은군대 군인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하는데 힘차게 이바지한 알렉쎄이 똘스또이에게 커다란 영광이 차례졌다.

1943년 3부작 장편소설 《고난의 길》에 상과 상금이 수여된것이다.

자기에게 차례진 영예에 앞서 똘스또이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에 대하여, 전선에서 피흘리며 싸우는 붉은군대 병사들에 대하여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전투에서 부상당한 쩰레긴은 까챨린련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련대위생병으로 복무하고있는 다샤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며 건강이 회복되자 까챨린련대 련대장으로 임명되여 다샤와 함께 있게 된다.

쩰레긴은 련대장으로 잘 싸우며 려단장으로 승급한다.

이와 같이 쩰레긴은 처음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량심적이고 애국적인 지식인이였기에 동요없이 로동계급과 인민, 혁명의 편에 서서 싸웠으며 전투속에서 단련되여 훌륭한 혁명가로, 혁명군대지휘관으로 성장한다.

쩰레긴과 달리 와짐 로쒼은 고심참담한 고난의 길을 걷는다. 로쒼은 극반동의 길을 걷다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야 혁명의 편에 돌아선다.

그는 지주출신으로서 반동적인 교육을 받고 자본가계급에게 복무하는 과정에 짜리로씨야제국만을 인정하는 반동적인 사상에 깊이 물들게 된다.

언제나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온 똘스또이는 마침내 거액의 상금전부를 땅크헌납금으로 바칠것을 결심하고 쓰딸린에게 열렬히 제기하였다.

1943년 3월 21일부 《쁘라우다》신문에는 쓰딸린의 다음과 같은 회답서한이 실렸다.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츠동지,

붉은군대 기계화부대에 바치는 동지의 지성어린 소행에 대한 나의 인사와 붉은군대의 감사를 받아주기 바랍니다. 동지의 소원은 이루어질것입니다.》

똘스또이의 애국적지성이 깃든 땅크 《준엄》호는 전쟁승리에 대한 전체 쏘련인민의 념원을 안고 히틀러파쑈군대를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는 싸움의 앞장에 서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진격하였다.

짜리로씨야군대 총참모부 참모, 대좌로까지 된 로쒼은 10월혁명이 일어나자 그것을 적대시한다.

까쨔의 남편인 변호사 스모꼬브니꼬브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다니면서 까쨔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스모꼬브니꼬브가 죽은 후 까쨔와 결혼한 로쒼은 10월혁명후의 혼란속에서 까쨔의 친정집이 있는 싸마라로 가게 된다. 로쒼은 여기서 백파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해의 간청을 뿌리치면서까지 의식적으로 반혁명백파군에 넘어가 혁명을 반대하여 싸우는 길에 나선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정신적고통과 시련을 겪은 후 끝내는 혁명의 길에 들어선다. 극반동의 길로 나가던 로쒼이 혁명의 길에 돌아설수 있은것은 그에게 애국심이 있었기때문이다. 애국심은 그를 혁명의 길로 나가게 한 사상적바탕이였다. 물론 그가 처음에 가지고있던 애국심은 부르죠아민주주의에 기초한 심히 제한적인것이였다. 그가 지니고있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정신은 로씨야제국을 위하는 정신과 결부된것으로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나라에 대한 사랑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것이였다.

로쒼은 혁명이 일어나자 조국이 멸망하게 되였다고 생각한다. 로쒼이 처음에 극반동의 길로 나가게 된것은 그가 이와 같이 혁명과 조국을 서로 대치되는것으로 그릇되게 리해한것과 관련된다. 그가 혁명을 적대시한것도, 백파군에 들어가 싸운것도 다 자기딴에는 자기 조국 로씨야를 구원하고 지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백파군에 들어간 로쒼은 심각한 정신적고통을 겪는다. 백파군은 로씨야의 구원자들인것이 아니라 조국애란 전혀 없는 타락분자의 무리였으며 자신을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조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운다고 떠드는 백파장교들은 사실상 매국배족행위로 인민학살을 일삼는 악당들이였다. 로쒼은 조국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며 휴가를 받은김에 아예 백파군에서 나와버린다.

방황하던 로쒼을 깨우쳐 참다운 애국의 길, 혁명의 길로 이끌어준것은 공산당과 인민이였다.

까쨔를 찾아 방황하는 로쒼을 체포한 마흐노는 군사에 밝은 로쒼을 써먹으려고 붉은군대와의 협동작전담판에 내보낸다. 담판

에 참가한 붉은군대 대표인 볼쉐비크 츄가이는 로쉰을 료해하고 그를 쟁취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시해방전투에 참가하는 로동자부대의 지휘를 그에게 맡긴다.

이때 그의 련락병이 된 공청원처녀 마루샤가 로쉰에게 큰 영향을 준다.

로쉰은 당원들과 공청원들, 혁명적인 로동자들에게서 교양도 받고 그들과 함께 전투에도 참가하는 과정에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것과 참다운 조국은 인민의 편, 혁명의 편에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며 드디여 혁명의 길에 나설 각오를 가지게 된다. 그는 붉은군대에 넘어가 잘 싸우며 후에는 쩰레긴이 려단장으로 있는 려단 참모장으로까지 발전한다.

소설의 다른 주인공들도 모두 애국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각성되고 개조되며 마침내 혁명의 길에 들어선다.

로쉰과 헤여진 다음 많은 곡절을 겪던 까쨔도 모스크바로 돌아와 혁명의 편에 서서 교원으로 복무한다. 까쨔는 모스크바에 파견된 로쉰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된다.

소설은 쩰레긴과 로쉰, 다샤와 까쨔가 레닌이 지도하는 쏘베트대회에 참가하여 로씨야를 전기화할데 대한 보고를 듣는것으로 끝나고있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같이 지식인들이지만 그들의 성격형상에서는 서로 다른 구체적인 특성이 있다.

쩰레긴은 낡은 사회의 부르죠아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나 공장기사로 일하는 과정에 로동계급과 가까와지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제일먼저 혁명가로 성장하는 지식인의 전형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사상에 깊이 물젖은 로쉰은 대학을 졸업하고 로씨야제국의 관리, 장교로 복무하다가 곡절많은 고난의 길을 거쳐 점차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새 사회의 혁명적지식인으로 새롭게 태여나는 부르죠아계급출신지식인의 전형이다.

다샤와 까쨔 역시 낡은 사회에서 부르죠아교육을 받은 녀성들로서 력사적사변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게 되고 참다운 행복도 찾게 되는 녀성지식인의 전형이다.

소설은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지식인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혁명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길이며 혁명을 떠나서는 조국도 행복도 참다운 생활도 찾을수 없다는 사상,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진 지식인이라고 하여도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혁명적로동계급의 지식인이 될 때만이 조국과 인민과 사회앞에 자기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참된 행복을 찾을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하고있다.

소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시대와 인간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린것이다. 소설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사회주의10월혁명, 공민전쟁이라는 거대한 력사적사변과 그 사변이 펼쳐지는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였다. 시대를 안고 얽히여나가는 여러 인간들도 구체적인 생활과의 호상관계속에서 심도있게 그리였다. 작품에는 지식인주인공들과 함께 당원들, 공청원들, 혁명적인 로동자들, 붉은

○상식○

마흐노도당

1918～1921년에 남부우크라이나지역에서 활동한 반혁명적집단의 두목.

1917년 2월혁명후 감옥에서 석방된 마흐노(1889－1934)는 자기고향인 구랴이뽈레에 돌아와 1918년 6월에 지주와 도이췰란드강점군을 반대하는 무장부대를 조직하고 그 두령으로 되였다.

마흐노도당은 《자유쏘베트》, 《제3혁명》 등 반쏘베트적이며 반혁명적구호를 내걸고 알렉싼드롭스크, 노보모스꼽스크, 빠블로그라드까 등 볼가강 좌안의 넓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리면서 대부대(부대인원은 일정하지 않으나 500명으로부터 3 500명에 이름)를 편성하였다.

군대 지휘관들과 병사들, 녀성전투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긍정인물이 나온다. 그들은 나날이 자라나며 승리해가는 혁명력량을 대표하고있다.

작품에는 무너지는 낡은 세계와 반혁명세력을 대표하는 부정인물들인 백파우두머리들, 무정부주의자들, 부르죠아반동의 대표자들 그리고 주인공들과 대조를 이루는 타락한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소설은 이 두 인물형상집단의 대립과 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이 낡은 착취사회를 끝장내기 위하여 벌리는 계급투쟁, 혁명투쟁의 복잡성과 치렬성, 그 승리적전진과정을 옳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생활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묘사되여있다. 작품에는 각이한 개성을 가진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사상정신생활, 문화도덕생활, 생활세태 같은것이 풍부하게 묘사되여있다.

작가는 생활에 대한 폭넓은 묘사와 수많은 인물들의 형상을 통

1919년 2월에 마흐노도당의 활동지역은 붉은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였으며 마흐노부대는 독립사단의 자격으로 붉은군대에 편입되여 제니낀백파도당을 반대하는 작전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러나 마흐노도당은 붉은군대 사령부의 명령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공동작전수행에 난관을 조성하였을뿐아니라 저들의 관할지역에서 공산당원들을 비롯한 쏘베트정권의 지지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1919년 6월초 쏘베트정부는 마흐노부대의 활동을 비법적인것으로 선포하고 그와의 관계를 일체 단절하였다.

1920년 11월부터 마흐노부대를 소멸하기 위한 붉은군대의 공격작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마흐노부대는 완전히 괴멸되였다. 마흐노자신은 돈초원에서 비적행위를 일삼다가 1921년 8월에 로므니아로 도주하였다.

하여 부패하고 반인민적인 착취사회의 밑바닥을 파헤쳐 보여주면서 그러한 사회가 멸망하고 인민의 새세상인 사회주의사회가 탄생하고 승리해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였다.

소설은 당의 령도가 사회주의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라는 사상도 잘 표현하였다. 소설에는 인민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혁명투쟁에로 이끌어가는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활동이 풍부하게 묘사되고있다. 츄가이, 까챨린련대 정치위원 이완 고라, 안전부장 김자, 로동자볼쉐비크 루블료브 등이 그러한 형상이다.

작가는 소설에서 붉은군대의 군사활동을 비롯하여 인민대중이 벌리는 모든 혁명투쟁이 레닌과 볼쉐비크당의 령도를 받기때문에 승리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장편소설 《고난의 길》은 삼각련애를 많이 취급한것 등 우리 감정에 맞지 않는것들도 있으나 사회주의혁명에서 낡은 사회의 지식인들의 운명문제를 기본문제로 설정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해결한 우수한 작품이다. 소설은 영화로도 각색되였다.

로쉰은 타박상을 구실로 삼아 토벌에 참가하는것을 회피했다. 장교들이 제니낀의 승리를 축하하느라고 베푸는 술좌석에도 될수만 있으면 가지 않았다. 그러한때문인지 이상스레 여기 이 수비대에서도 전투부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은연히 적개심을 품고 경계하는 태도로 로쉰을 대했다.

누가 어디서 꺼낸 말인지 그에 대하여 《속은 빨갛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이 별명이 그에게 달라붙고말았다.

일찍 샤볼리옙까부근 전호속에서 백파군지원병 오놀리가 그를 저격한 일이 있었다. 로쉰은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있었다. 장갑렬차에서 쏜 포탄소리, 중대장이 《엎드렷!》하고 소리치던 부르짖음, 포탄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조금 뒤떨어지면서 울린 권총사격, 몽둥이로 후려치는것 같은 뒤통수의 타격, 흉악스럽게 통쾌한 빛을 띠고 번들거리던 오놀리의 시꺼먼 눈.

로쒼의 이 정직한 말을 믿어줄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마르꼬브장군뿐이였다. 그러나 마르꼬브장군은 이미 전사했다. 그래서 로쒼은 오놀리같은 어린애를 상대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을 더는 제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어찌하여 그처럼 오놀리의 미움을 받게 되였는가 하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로쒼은 정직한 사람이며 아무 사심도 없으며 어떠한 행동이든 오직 로씨야를 위대한것으로 보는 사상에 의하여 좌우되고있다는것이 과연 명확하지 않았단 말인가? 장군견장을 얻고저 이 무서운 초원에 왔다고는 아무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 아닌가. …

로쒼에게는 사물을 무자비할만큼 명확히 보는 힘이 부족했다. 그의 마음은 자기가 가장 훌륭하고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이 세계와 사변들을 채색하군 했다. 마뜩지 않은 일은 간과해버렸고 보지 않을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에게 있어 이 세계는 완성된 하나의 체계로 보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확실히 그가 상류계급의 출신인데서 생겨난것이였고 편안히 살아오던 지주계급의 후예인데서 생겨난것이였다. 이미 자취를 감춘 이 부류의 사람들은 고요한 안일을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행복이라고 생각해왔으며 도처에서 모든 사물을 이러한 태도로 대하고저 해왔다. 그들은 채찍을 가지고 마구간에서 농부에게 매질을 하고도 그까짓 일이 무엇이랴. 그 녀석이 울고불고하다가 매맞은 뒤에는 뉘우칠것이고 뉘우친 뒤에 마음이 가라앉아 편안해지면 더 즐겁게 살아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장편소설 《고난의 길》중에서

전에는 우아하였을 이 《십자군》들의 청소한 얼굴은 학살과 징벌과 복수의 걷잡을수 없는 욕망으로 하여 흉물스러웠다. 95%의 알콜이 든 술잔을 들고 일어선 바로 그 장교들은 저들 즉 모든 인간들중에서 가장 미천하던 사람들, 총에 맞아죽은 사람들 또는 옛날의 지미뜨리처럼 불에 타죽어 한줌의 재마저 바람에 날

려가버린 그 사람들앞에 살륙의 찬가를 부르는것이다. 만일 나약한 의지때문에 흐르게 된 피를 한곳에 온통 모아놓을수만 있다면 인민들은 더 말할것도 없이 그 깊은 피의 호수에 그를 산채로 처넣어 죽일것이였다. …

이러한 살륙의 찬가야말로(로쐰은 이에 대해서도 눈을 지그시 감아버리군 했었지만) 로쐰의 동료들이 가지고있는 유일의 리상이 아닌가. … 즉 로씨야에서 볼쉐비크들을 물리치고 모스크바에까지 진군해들어가서 우렁차게 울리는 경축의 종소리를 듣는것… 그리고 제니낀이 흰말을 타고 크레믈리궁전으로 들어가는것… 그렇다. 그렇다. 모든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닥쳐올것인가?… 로쐰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 가슴을 총탄앞에 내대거나 화물렬차속에서 알콜을 마시는것쯤은 벌써 아무런 영웅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케케묵은 장타령에 불과하다. 그것은 용사도 겁쟁이도 다같이 할수 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한 습성으로 되여 생명은 그들에게 있어 몇푼의 가치도 없다. 영웅주의는 신념과 진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로쐰은 또 끝없이 눈을 감아버리는 길밖에 없었다. … 동료들이 믿고있는 진리는 어떤 진리인가? 로쐰자신은 어떤 진리를 믿어왔던가? 로씨야의 거대한 비극적력사인가?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지 진리는 아니였다. 진리, 그것은 행동가운데, 생활가운데 있다. 먼지낀 두터운 책페지들속에 들어있는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흐름속에 있다. 그 어떤 진리를 위하여(만일 모스크바의 종소리와 제니낀의 흰말과 총창을 장식한 꽃다발… 등을 념두에 두지 않는다면) 로씨야의 농민을 죽여야 한단말인가? 돌을 던진 물속에 파동이 일어나는것처럼 이 문제에 부딪친 로쐰의 의식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렬의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로쐰은 동료들속에서 색다른 사람이였고 《빨간 속바지를 입은 사람》이였으며 《거의 볼쉐비크와 같은 사람》이였다.

장편소설 《고난의 길》중에서

작가소개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츠 똘스또이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츠 똘스또이(1883−1945)는 10월혁명전에 니꼴라엡스크시(당시)의 귀족가정에서 태여나 1901년부터 뻬쩨르부르그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기부터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첫시기에 퇴폐적인 문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로씨야에서 혁명운동의 장성과 더불어 점차 진보적경향을 가진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시, 희곡, 소설을 비롯한 10월혁명전의 작품들에서 작가는 퇴폐주의문학의 영향을 극복하고 귀족지주계층의 타락한 생활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작가가 자유주의적부르죠아지식인의 립장에 서서 귀족지주들의 경제적몰락과 도덕적타락을 반영한 장편소설 《괴짜들》(1911)과 《절름발이량반》(1912)과 같은 비판적사실주의작품들이다.

사회주의10월혁명이 일어났을 때 작가는 자기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혁명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하고 반동의 길로 나가 서방자본주의나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빠리, 베를린 등지에서 목격한 썩을대로 썩은 백파망명자들의 추악한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쏘베트로씨야만이 자기의 진정한 조국임을 깨닫게 되였으며 1923년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작가는 이무렵에 쓴 중편소설 《침대밑에서 발견된 수기》(1923)에서 자신이 목격한 백파망명자들의 썩어빠진 생활을 폭로하였으며 중편소설 《아엘리따》(1923)와 장편소설 《가린기사의 쌍곡선체》(1927) 등의 과학환상소설로써 쏘베트소설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는 혁명과 쏘베트현실에 대한 작가의 그릇된 견해와 사상적모순들이 적지 않게 발로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확고해진 1929년을 계기로 그의 세계관에서는 전환이 일어났다.

그는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체득하게 되였다.

그는 이 시기에 여러편의 단편소설을 쓰고 제국주의자들의 팽창주의적야망과 음모, 파괴책동을 폭로하였으며 쏘련에서의 공민전쟁과 복구시기 인민들의 투쟁을 묘사하였다.

작가는 특히 20년동안이나 품을 넣어 3부작장편소설 《고난의 길》(1922—1941)을 내놓았으며 장편력사소설 《뾰뜨르1세》(미완성, 1929—1945)에서 로씨야력사에서의 근대적발전의 첫시기를 진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쏘베트사회주의적사실주의력사소설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또한 중편소설 《낟알》(1937)에서 공민전쟁시기 식량위기가 혁명의 운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였다는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레닌과 공산당의 옳은 정책, 공산당원들의 자기희생적인 투쟁을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작가는 쏘련—도이췰란드전쟁시기에 《조국》을 비롯한 정론들과 《로씨야성격》을 비롯한 우수한 단편소설들이 수록된 단편소설집 《이완쑤다레브의 이야기》(1942—1944) 등에서 파쑈침략자들을 단죄하고 인민들의 용감성과 애국주의를 보여주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는 창작활동과 더불어 사회활동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파시즘을 반대하여 싸웠다.

알렉쎄이 똘스또이는 복잡한 길을 거쳐 인민의 편으로 넘어온 자산계급출신의 작가이긴 하였지만 자신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많은 혁명적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쏘베트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고요한 돈

《고요한 돈》(1928－1940)은 쏘련작가 미하일 알렉싼드로비츠 숄로호브의 다부작장편소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편소설 《고요한 돈》은 제1차 세계대전과 사회주의10월혁명, 공민전쟁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혁명의 시기 돈까자크의 운명문제를 기본주제로 제기하고 해명하고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고요한 돈》은 전4권, 8부로 되여있다.

장편소설 《고요한 돈》은 제1차 세계대전전야로부터 1917년 2월혁명과 10월혁명을 거쳐 공민전쟁이 끝나기까지의 쏘련의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를 시대적배경으로 돈까자크의 운명문제를 기본주제로 설정하고 해명한 작품이다.

소설의 주요인물로 주인공 그리고리 멜레호브와 그의 가족(아버지 빤쩰레이, 안해 나따샤, 형 뻬뜨로와 형수 다리야), 이웃집 녀자 악씨니야와 그의 남편 스쩨빤 아스따호브, 마을 빈농 꼬쉐보이, 귀족지주 리슈뜨니쯔끼부자,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소설에서는 돈까자크마을 따따르스끼부락의 농민청년 그리고리 멜레호브의 운명선을 주선으로 끌고가면서 당시의 복잡한 정세와 동란시기 돈까자크들의 생활사를 폭넓게 펼쳐보이고있다.

1913년 가을 그리고리는 이웃집 유부녀 악씨니야한테 홀딱 반한다. 계속 매로 다스리고 밤마다 집을 비워두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 스쩨빤과 애정이 없이 살아온 악씨니야도 자기를 지꿎게 따라다니는 정열적이고 살뜰한 총각 그리고리와의 사랑에 빠진다.

그들은 둘사이의 관계를 숨기지 않는다. 마을에 소문이 나고 군사야영지에 나가있는 스쩨빤에게 소식이 전해진다.

벼르고벼르다가 기한이 되여 야영지에서 돌아온 스쩨빤은 악

씨니야를 죽도록 때린 다음 멜레호브집에 달려들어 그리고리와 뻬뜨로형제와 맞붙어 싸운다. 빤쩰레이(그리고리의 아버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그리고리를 빨리 장가보내려고 서두르며 이쁘게 생긴 꼬르슈노브의 딸 나딸리야와 부랴부랴 짝을 무어준다. 그리고리도 정신을 차리고 악씨니야와 관계를 끊기로 한다.

나딸리야는 멜레호브의 집안에 알맞는 며느리였다. 그러나 그리고리는 안해와 얼마동안 살아보고 《난 당신이 싫어. 부부간으로 되기는 했지만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 허전한게…》라고 실토한다. 한편 악씨니야는 남편과 화해한 모양이였으나 그리고리를 만나면 《정말 나는 당신 없이는 못살겠어요.》라고 자기 속마음을 내비친다.

나딸리야는 서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이 문제로 하여 성을 내는 아버지에게 그리고리는 항의한다. 《내가 장가든게 아니라 아버지가 장가를 보냈지요. 나는 나딸리야에게 마음이 안가요. 갈테면 자기 아버지한테 가라지요.》

○상식○

쏘베트로씨야공민전쟁

1918～1920년기간에 외래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그들의 부추김을 받은 국내반혁명세력들을 반대하고 사회주의10월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쏘베트로씨야의 로동자, 농민들이 진행한 혁명전쟁.

10월혁명에 의하여 전복된 로씨야의 국내반동들과 쏘베트로씨야를 적대시해온 외래제국주의자들은 청소한 쏘베트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치우려고 책동하였다. 이리하여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안팎의 반혁명세력의 련합이 이루어졌다.

제국주의자들은 로씨야각지에 반동적백파군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군사적 및 재정적원조를 주었다. 제국주의렬강들의 원조밑

라고 쏘아붙인다. 빤쩰레이는 《나딸리야와 살지 않겠거든 너도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친다.

그리고리는 결김에 집에서 나와버린다. 그는 한동안 끄쉐보이의 집에서 지내다가 악씨니야와 함께 지주 리슈뜨니쯔끼의 령지에 고용되여 행랑살이를 하게 된다. 그리고리는 마부로, 악씨니야는 부엌일을 한다. 여섯달이 지나자 악씨니야가 임신한다.

이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리고리는 징병에 걸려 짜리군대에 복무한다. 그리고리의 련대는 전선으로 출동한다. 그는 싸움을 잘하여 여러개의 훈장을 받고 상등병으로 승급한다.

악씨니야는 그리고리가 없는 사이 리별의 고통을 꿋꿋이 견디여냈으나 딸애가 병으로 죽자 절망에 잠긴다. 이 기회에 예브게니중위의 롱락에 넘어간다. 후방병원에서 부상당한 상처를 치료받은 후 휴가를 받고 돌아온 그리고리는 예브게니를 채찍으로 후려쳐 복수를 하고는 악씨니야를 버리고 나딸리야가 와있는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리는 착실한 까자크가 되여 다시 전선으로 떠나간다.

에 반동적인 백파도당은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군사적 공세를 벌리였다.

1918년 5월부터 1919년 3월까지의 기간에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국내전쟁은 격렬해졌다. 1918년 5월 《협상국》들에 의하여 준비된 체스꼬슬로벤스끄군단의 반란이 일어났으며 5～6월에 이 군단과 백파도당들은 싸마라, 첼랴빈스크, 옴스크, 노비니꼴라옙스크, 울라지보스또크 등을 강점하였다. 7월 6일 《협상국》제국주의자들은 울라지보스또크를 《국제지대》로 선포하고 7만 5 000명의 일제침략군과 1만 2 000명의 미제침략군을 그곳에 상륙시켰다. 북부의 항구도시 무르만스크에는 영제국주의군대가 기여들었다. 그리하여 1918년 여름과 가을에 쏘베트로씨야령토의 4분의 3이 외국무력간섭자들과 백파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1917년 2월혁명이 일어난다.

그리고리는 전투공로에 의하여 소위의 칭호를 받고 소대장으로 임명되였다가 10월혁명후에는 중대장이 된다. 그의 기분상태에서 전환이 일어난것은 이무렵이였다.

돈지방에도 돈까자크군사혁명위원회가 조직되고 쏘베트정권이 선다. 전선에서 돌아온 그리고리는 처음 돈혁명군 대대를 지휘하고 혁명의 편에 서서 싸운다. 부상을 입고 치료후 집에 들렸는데 모든것이 혼란되고 모순된 현실속에서 확실한 길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1918년 4월 돈까자크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정세는 쏘베트정부에 매우 불리하게 조성된다. 우크라이나로부터는 도이췰란드 강점군이 육박해오고 하류지방의 촌과 관구들에서는 전면적으로 반혁명폭동이 일어난다. 돈쏘베트위원장 뽀드쬬꼬브는 후퇴중 포위에 들어 체포되여 교수형을 당한다. 까자크볼쉐비크 분츄크도 총

1918년 9월 쏘베트공화국은 전시상태를 선포하였으며 공화국혁명군사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전쟁승리를 위하여 《전시공산주의》정책이 실시되였다. 전선과 후방을 공고히 한 쏘베트로씨야는 원쑤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로 넘어가 1918년말～1919년초에 에스또니야, 라뜨비야, 벨라루씨,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도시들을 해방하고 쏘베트정권을 복구하였다.

1919년 초봄에 국내반혁명세력들의 력량재편성이 진행되였다. 동부에서는 꼴챠크가 씨비리와 우랄일대의 반혁명세력을 규합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동부전선의 꼴챠크백파도당이 먼저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공세를 감행하였다. (《협상국》의 제1차원정) 그러나 원쑤들의 공격은 붉은군대에 의하여 분쇄되고 꼴챠크도당은 대부분 격멸되였으며 이와 동시에 뻬뜨로그라드를 공격하던 유제니츠백파도당도 소멸되였다. 꼴챠크도당이 괴멸된 후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제니낀백파도당을 주되는 세력으로 하여 이번에

살된다.

반란이 일어나자 그리고리의 고향마을에서 끄쉐보이를 비롯하여 혁명을 지지하는 까자크들은 떠나간다. 부락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반란군에 합세할 부대가 편성된다. 혁명과 반혁명사이에서 동요하던 그리고리는 반혁명부대를 따라간다.

붉은군대와 싸우는 과정에 그리고리는 점차 볼쉐비크들에 대한 원한이 사무치기 시작한다. 그들이 원쑤로서 그의 생활에 침입하여 땅으로부터 자기를 떼여낸것이라고, 그들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한다.

11월 중순에 붉은군대가 공격으로 넘어온다. 전선의 붕괴가 시작됨과 함께 그리고리와 뻬뜨로는 고향집에 돌아온다. 곧 붉은군대가 마을에 들어온다.

멜레호브의 집에도 병사들이 류숙한다. 부락혁명위원회가 다시 조직되고 세금납부를 거절한 부유한 까자크들과 장교들에 대한

는 남부전선에서 쏘베트공화국을 공격 (《협상국》의 제2차원정)하였으나 역시 패배하고말았다.

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은 거듭되는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이번에는 뽈스까를 쏘베트공화국에 대한 공격에로 내몰았다.(《협상국》의 제3차원정) 이와 때를 같이하여 크림일대를 중심으로 우랑겔백파도당이 공격해왔다.

그러나 붉은군대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씨를 침입한 뽈스까침략군을 몰아냈으며 1920년 11월 크림을 우랑겔백파도당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였다. 쏘베트원동지방에서는 1922년에 일제침략군을 몰아냈다. 일제의 잔당들이 완전히 쫓겨난것은 1925년이였다.

이와 같이 쏘베트로씨야인민은 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1920년말까지 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혁명세력의 침략책동을 기본적으로 물리치고 사회주의혁명의 전취물인 쏘베트정권을 수호하였다.

체포가 시작된다. 그리고리는 피신한다.

반혁명분자들의 사촉에 의하여 식량징발에 불만을 품은 마을 까자크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폭동은 봄시위처럼 뒤설레고 범람하여 돈강연안지대와 돈강너머의 초원지대를 모조리 휩쓴다. 5개 사단과 한개 독립려단, 3만 5천명의 반란군이 편성된다. 그리고리는 제1사단장으로 임명되여 붉은군대를 반대하여 싸운다.

1919년 5월 돈강 전체우안에서 폭동군의 퇴각이 시작된다. 그리고리의 사단도 후퇴길에 오른다. 하지만 돈백파군의 3천명기병집단이 폭동군과 련합함으로써 붉은군대가 다시 퇴각한다.

퇴각하는 붉은군대를 맹렬히 추격하면서 돈백파군과 돈강상류지방폭동군의 련합부대들은 북쪽으로 나간다. 그리고리도 자기 사단을 이끌고 따라간다. 그런데 폭동군을 해산할데 대한 돈군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여 그리고리의 사단은 해산되며 그는 중대장으로 임명된다. 이때 그는 안해의 사망전보를 받는다. 그리고리가 계속 악씨니야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있다는것을 알고 독한 마음을 먹은 나딸리야가 자체로 태아를 떨구다가 출혈이 심하여 죽은것이다. 그리고리는 한달동안 휴가를 받고 집으로 온다. 그동안 마을에서도 치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진다. 마을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된 꼬쉐보이가 반란군 중대장이 된 뻬뜨로를 총살했는가 하면 다리야가 포로로 끌려온 이전 마을혁명위원회 위원장 이완을 제 손으로 쏘아죽이고 백파장교인 미슈까 꼬르슈노브(그리고리의 처남)가 꼬쉐보이의 가족들을 몰살하고 집을 불태워버린다. 다시 전선으로 떠난 그리고리는 전체 돈군의 날로 심해지는 부패를 실감한다.

7월말에 붉은군대는 남부전선의 중앙지구전체에 걸쳐 공격으로 넘어간다. 까자크들은 퇴각한다. 집에 남은 까자크들과 그 가족들은 붉은군대점령지역에서 반동들의 집을 소각하거나 략탈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티브스에 걸려 집에 돌아왔다가 한달만에 병이 나은 그리고리는 즉시 출두하라는 촌아따만의 명령서를 받는다. 더는 싸움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리고리는 악씨니야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른다. 티브스에 걸린 악씨니야를 주민집에 맡겨놓고 노

보로씨스크항구까지 가보니 기선들이 붐비면서 로씨야의 부호, 장군, 정치요원, 지주들과 그 가족들을 뛰르끼예로 운반하고있었다. 그리고리는 배를 타지 못한것도 있거니와 고향 돈이 그리워 붉은군대에 항복한다.

그리고리는 붉은군대에 들어가 기병중대장으로 싸우다가 제대되여 집에 돌아온다. 이젠 싸움에 신물이 났다. 마침내 농사일에 착수하고 어린것들을 데리고 악씨니야와 함께 평화롭게 살려는것이였다.

고향집에서는 마을혁명위원회 위원장 끄쉐보이가 가장노릇을 하고있었다. 그동안 그리고리의 부모와 형과 형수, 안해까지 다 죽었기에 누이동생 두냐와 결혼한 끄쉐보이가 처가집을 차지하고 있다. 끄쉐보이는 처남, 매부사이가 되였으나 그리고리를 믿지 않는다. 그의 요구로 다음날로 그리고리는 관구군사위원회에 가서 등록하고 체까정치부의 심의를 받는다. 일단 놓여나와 집에 왔으나 조만간에 체포될것이 명백하였다. 아닌게아니라 누이동생이 악씨니야의 집에 있는 그리고리를 찾아와 오빠체포문제를 론의하는것을 엿들었으니 당장 떠나라고 떠민다. 그리하여 그의 길지 않은 평화로운 생활은 끝난다. 그는 죽는것도 감옥살이도 원하지 않았던것이다.

1920년 늦은 가을 농산물징발이 잘 되지 않아 징발대들이 조직된다. 돈강의 까자크주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한다. 5～20명사이의 크지 않은 무장한 비적도당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꿀라크들과 부유한 까자크들의 대답이였다. 12월에 가서 큰 폭동이 시작된다. 폭동진압에 붉은군대가 동원된다.

집에서 떠난 후 방랑생활, 식객살이를 하던 그리고리는 몸둘 곳이 없어 마음이 없지만 한 비적떼에 들어간다.

1921년 봄이 온다. 비적떼의 인원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 그리고리는 일당이 조만간 분쇄되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으나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떨어지지 못한다. 어느날 밤 습격을 받고 그리고리가 속한 비적도당이 괴멸당한다. 겨우 5명이 남는다. 관구안의 정세도 달라진다. 그들은 어디 가나 문전거절을 당

하여 발붙일 곳이 없어진데다가 붉은군대의 추격으로 견뎌내기 어렵게 된다.

드디여 그리고리는 비적무리에서 탈출한다. 그는 고향마을에 들려 애들은 두냐에게 맡기고 악씨니야와 함께 멀리 도망치려고 길을 떠난다. 곧 순찰병들에게 발견되여 사격을 받으며 악씨니야가 죽는다. 그리고리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 다시 비적잔당들속에 끼여 산속에 은신해있다가 봄이 되자 심신이 다 지쳐 될대로 되라고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온다.

장편소설 《고요한 돈》은 주인공 그리고리 멜레호브의 형상을 통하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인민과 함께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주인공 그리고리는 중농출신의 까자크이다. 그는 소소유자인 동시에 근로자이다. 그는 혁명과 반혁명사이에서 계속 동요하며 그 어떤 《제3의 길》을 찾아보려고 헛되이 시도하기도 한다. 끝내 그는 어느 편에도 확고히 서지 못하고 타락하며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파멸에 빠지고만다.

그가 이런 운명의 길을 걷게 된것은 낡은 사상과 편견에 깊이 물젖어있었기때문이다. 주인공의 운명은 계급적처지로 보아 인민과 함께 혁명의 길로 나아갈수 있는 사람도 낡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민과 혁명을 배반하는 수치스러운 길에 굴러떨어질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준다.

소설에서는 그리고리 멜레호브의 운명과 나란히 악씨니야, 나딸리야, 두냐, 빤쩰레이, 끄쉐보이를 비롯한 수많은 까자크들의 운명을 그려보임으로써 공민전쟁시기 반혁명의 근거지로 전변된 돈지방에서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뚫고 전진하며 끝내 승리하고야마는 복잡한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소설은 인민대중이 착취사회를 전복하기 위하여 벌리는 혁명투쟁은 지난 시기의 그 어떤 투쟁보다도 치렬하게 벌어진다는것과 이 투쟁에서 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이 승리하는것은 필연적이라는것을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였다.

소설은 그 구성의 폭이 넓고 묘사가 세밀하며 력사적사실에 대한 묘사와 개별적인간에 대한 묘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심리묘사가 깊은것과 같은 특징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소설은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소설의 기본결함은 주인공을 옳게 설정하지 못한것이다.

이 소설은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자라나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것이 아니라 혁명과 반혁명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다가 끝내 혁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타락하고마는 까자크를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과정을 깊이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소설이 심한 동요와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혁명의 진리를 찾고 혁명의 길에 들어서는 까자크의 형상을 창조하였더라면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데서나 작품의 교양적가치를 높이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을것이다.

소설에는 삼각련애관계와 무질서한 남녀관계를 보여준것을 비롯하여 자연주의적요소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사상예술적성과를 옳게 인식하면서 소설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리는 참나무숲속에서 한주일을 더 묵고있다가 길떠날 차비를 했다.

《집엘 가려나?》하고 한 탈주병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리고리는 자기가 숲속에서 지낸 전기간을 통해 처음으로 알릴가말가하게 빙그레 웃었다.

《집으로 가네.》

《복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을걸. 5.1절에 대사령을 내리거든 그때 헤여지세나.》

《아니야, 난 기다릴수 없어.》하고 그리고리는 작별을 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따따르스끼부락 맞은쪽 돈강에 다닫았다. 기

꺼운 흥분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한참동안이나 고향집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보총과 탄약갑을 벗어 그안에서 삼부스레기와 총기름을 꺼내고 무슨 생각에선지 탄알을 세여보았다. 알쌈이 열두개에 탄알 스물여섯알이였다.

강파로운 낭떠러지의 얼음이 기슭에서 떨어져나갔다. 맑은 초록색 물이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얼음덩어리의 변두리에 부딪쳐 그것을 바스고있었다. 그리고리는 보총과 권총을 물에 던져넣고 그 다음은 탄약을 쥐여뿌린 다음 두손을 외투자락에 말끔히 닦았다.

그는 마을아래켠으로 가서 녹이는 날씨에 온통 뜬기운 3월의 푸른 얼음우로 해서 돈강을 건너 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는 먼발치에서 선참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미샤뜨까가 있는것을 보자 그한테로 달려가고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미샤뜨까는 바위돌에 드리운 고드름을 뜯어서 내던지고는 그 파르스름한 쪼각들이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모양을 주의깊이 바라다보고있었다.

그리고리는 내리막길에 다가가서 숨을 헐떡이며 거쉰 소리로 아들을 소리쳐불렀다.

《미쉔까!… 내 아들아!…》

미샤뜨까는 흠칫 놀라 그를 쳐다보더니 눈길을 떨어뜨렸다. 텁석부리인데다가 무서워보이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임을 알아보지 못한것이다. …

그리고리가 참나무숲속에서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며 밤마다 속삭여보던 그 애무에 차고 정다운 말은 지금 그의 기억에서 다 날아나고말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차거운 장미빛주먹에 입을 맞추며 몇번이고 한마디 말만을 목메인 소리로 되뇌이였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다가 그리고리는 아들을 두팔로 안아올렸다.

장편소설 《고요한 돈》중에서

작가소개

미하일 알렉싼드로비츠 숄로호브

미하일 알렉싼드로비츠 숄로호브(1905－1984)는 남부로씨야 돈지방에 있는 까자크마을 웨쉔스까야의 이주민가정에서 태여났다.

그는 공민전쟁시기 중학교를 중퇴하고 돈지방에서 쏘베트주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였다.

숄로호브는 1922년말 모스크바에 이주하여 로동을 하면서 소설창작을 시작하였으며 1926년에 작품집 《돈이야기》와 《푸른 초원》을 발표하였다.

작품집에 수록된 그의 초기 단편소설들 (《망아지》, 《목동》, 《공화국혁명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은 돈지방에서의 공민전쟁과 가렬한 계급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까자크주인공들의 선명한 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오랜 작가들과 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숄로호브는 1924년에 돈지방의 고향마을로 돌아와 그후 계속 그곳에 눌러앉아 소설창작에 전념하였다.

그는 23살때인 1928년에 장편소설 《고요한 돈》 제1권을 발표하였으며 1940년까지 10여년동안에 전4권으로 된 이 소설을 완성하였다.

작가는 이 작품과 동시에 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의 창작을 밀고나가 1932년에 제1부를 발표하였다.

숄로호브는 이 소설에서 쏘련에서의 농업집단화운동을 취급하면서 당을 대표하여 농촌에 파견된 뿌찔로브공장 로동자 다비도브를 비롯한 당원들, 농촌빈고농핵심들과 반혁명일당과의 심각한 계급투쟁과정을 진실하게 그렸으며 그것을 통하여 당의 령도적역할과 계급적원칙을 생활적으로 확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숄로호브는 종군기자가 되여 전선에 나가 생

동한 보도기사들과 장편소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1943—1944, 미완성), 단편소설 《증오의 과학》(1942)을 비롯한 문학작품들을 써내여 쏘베트인민들을 파쑈침략자들과의 투쟁에로 고무하였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전후에 작가는 문학창작활동을 계속하여 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 제2부(1960), 단편소설 《인간의 운명》(1956) 등을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사회정치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여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쏘련최고쏘베트 대의원,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비서로 있었다.

쏘베트국가와 인민은 자기의 문학창작활동으로 조국에 헌신한 숄로호브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쏘련2중로력영웅칭호와 레닌훈장을 비롯한 많은 훈장을 수여하였다.

장편소설 《고요한 돈》과 《개간된 처녀지》는 레닌상과 쏘련국가상을 수여받았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숄로호브는 10월혁명과 공민전쟁, 농업집단화운동, 쏘도전쟁과 같은 거대한 력사적사건들을 사실에 기초하여 폭넓게 재현하면서 력사의 흐름속에서 쏘련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을 뛰여난 예술적기량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들을 남김으로써 로씨야쏘베트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일화○

젊은 천재

불우한 환경에서 태여나 어린시절을 보낸 숄로호브의 생활은 복잡다단한 환경속에서 흘러갔다. 1919년 붉은군대의 후방으로 있던 웨쉔스까야를 휩쓴 반란을 숄로호브는 14살의 소년시절에 직접 목격하고 얼마후에는 무기를 잡고 반혁명분자들과 싸웠다. 공민전쟁후 작가가 될 꿈을 안고 모스크바로 가서 로동을 하면서 자습으로 문학수업을 하였으며 공민전쟁시기 까자크들의 생활을 소재로 한 20여편의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숄로호브는 자기의 생활체험과 고향마을의 력사에 기초하여 1926년 대규모의 장편소설 《고요한 돈》의 첫 페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이였다.

《고요한 돈》제1부는 1928년 그가 23살되던 때에 완성되였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자 쏘베트문단에서는 《로씨야땅에 똘스또이와 같은 젊은 천재가 나타났다.》고 떠들었으며 사람들은 그토록 젊은 나이에 방대한 폭과 깊이를 가진 소설을 창작한 숄로호브를 의혹과 존경,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고리끼는 이 작품을 호평하는 론설을 발표했고 제2부가 발표된 다음해인 1930년에는 쓰딸린이 숄로호브를 만났다.

《고요한 돈》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명작으로 된것은 작가의 깊은 체험과 함께 소설의 매 문장, 매 단어에 기울인 작가의 피타는 탐구와 노력이 있었기때문이다. 그의 진지한 창작태도와 불타는 열정은 엄격하고도 깐깐한 추고작업과정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그는 원고의 제8부 3장 첫 페지에 있었던 꼬쉐보이와 두냐슈까에 대해 비웃는 한 녀인의 말과 작품에서 극적인 장면들중의 하나인 리슈뜨니쯔끼령지에서 아스따호브가 악씨니야를 만나는 장면 등 많은 장면들을 추고과정에 진지하고도 섬세하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지금과 같이 생동한 형상으로 완성시켰다.

○상식○

까자크

원래 뛰르끼예말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15～16세기 짜리로씨야와 우크라이나에는 가난한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이 봉건적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이 나라들의 동부 및 동남경계선을 넘어 주인없는 빈땅에 대대적으로 도망가서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다.

이들은 자신들을 짜리나 봉건령주들의 지배밑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즉 까자크라고 불렀다.

이들은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여러 변강지대를 자기의것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냥과 물고기잡이, 꿀벌치기, 목축업을 하였고 17세기 후반기부터는 그들속에 농업도 보급되였다.

까자크들은 린접해있는 뛰르끼예나 따따르인과 같은 외부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필요로부터 군사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아따만이라고 하였는데 까자크들속에서 선거되였다.

16～17세기 전반기에 짜리정부는 까자크들에게 봉급을 주고 무기와 탄약, 식량을 대주면서 그들을 국경방위에 리용하려 하였다.

이것은 까자크들을 점차 특권적인 군사층으로 전변시켰다.

까자크들속에서 빈부의 차이, 사회적분화가 촉진되면서 부유한 까자크상층은 공동체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후에는 로씨야귀족층을 이루었다.

한편 16～17세기에 까자크들은 재판과 공동체관리, 대외관계에서 자치권을 가지고있었으나 짜리정부는 까자크상층에 의거하

면서 까자크들을 중앙집권에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자치를 점차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까자크상층과 짜리정부와의 관계는 점차 밀접해졌다.

이로부터 까자크내에서 심한 동요가 일어나게 되였고 17～18세기에 이르러 까자크상층과 하층사이의 대립이 심화되였다.

까자크들은 짜리정부와 까자크상층의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것이 라진농민전쟁과 뿌가쵸브농민전쟁이다.

18세기후 짜리정부는 까자크공동체를 비정규적인 까자크군대로 개편하고 그때까지 선거제였던 아따만을 임명제로 하였으며 짜리의 군사기관에 종속시켰다.

이리하여 까자크군대는 18세기 후반기～19세기에 짜리정부에 완전히 예속되였다.

까자크남자들은 18살부터 20년간(후에는 18년간) 군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니였다.

짜리정부는 까자크상층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진압하는데 까자크부대를 리용하였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까자크들속에서 빈민층이 더욱 늘어나고 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여 1917년 2월혁명시기에는 많은 까자크부대들이 인민폭동편으로 넘어갔으며 돈, 꾸반 등에는 까자크대의원쏘베트들이 창설되였다.

10월혁명이후 까자크근로대중은 쏘베트정권편으로 넘어왔고 까자크지역에 지방정권기관들이 창설되면서 군사신분층으로서의 까자크의 존재는 없어졌다.

그후 근로까자크들은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개간된 처녀지

《개간된 처녀지》는 숄로호브의(1932년에 제1부를, 1960년에 제2부를 발표함) 장편소설이다.

이전 쏘련에서 농업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던 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돈강류역의 어느 한 까자크마을 농민들의 생활을 통하여 농촌에서 일어난 혁명적변혁을 반영한 작품이다.

1930년초 레닌그라드(당시)의 로동자당원 다비도브는 그레마치마을에 꼴호즈를 조직할 임무를 받고 전권위원으로 파견되여 온다.

그는 당원인 마을쏘베트위원장 라즈묘뜨노브, 나굴노브와 힘을 합쳐 일을 벌려나간다.

그는 농민들의 집회를 지도하여 부농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사업부터 시작한다. 빈농들은 일치하게 꼴호즈에 가입하나 중농들은 그러지 않는다.

부농이였던 오스뜨롭노브는 자진하여 꼴호즈에 가입하고 부기장으로 선거되나 그의 집에 반혁명조직의 우두머리인 백파잔당 뽈롭쩨브가 숨어있는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암해책동이 점차 강화된다.

그들은 비밀이 탄로되게 되자 빈농 호쁘로브와 그의 처를 살해한다.

꼴호즈의 종곡을 모으는 사업이 잘 안되자 나굴노브는 폭력으로 종곡을 징발하는 좌경적편향을 범한다. 그 과오로 하여 그는 출당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계기가 되여 농민들은 동요하고 꼴호즈에서 탈퇴하는 사

람들까지 나온다.

다른 꼴호즈에 종곡을 나누어주라는 지시를 오해한 농민들이 부농의 사촉을 받아 폭동을 일으켜 창고에서 종곡을 략탈하는 소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꼴호즈는 날로 강화발전하며 밭갈이와 씨뿌리기, 풀베기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나굴노브의 출당도 취소된다. 다비도브는 나굴노브와 리혼한 부화한 루슈까의 유혹에 빠진다.

그런데 루슈까의 이전 정부인 부농의 아들 찌모페이가 추방지에서 도망쳐온다.

그는 루슈까의 집에 숨어 나굴노브를 암살하려고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여 처단당한다.

다비도브를 사모하는 꼴호즈처녀 와랴는 그와 약혼한다.

이무렵 반혁명조직을 조사하러 왔던 내무원들이 뽈롭쩨브일당에 의하여 피살된다.

다비도브와 마을핵심들은 드디여 적들의 소굴을 알아내고 오스뜨롭노브의 집을 포위하나 반동들의 총에 맞아 다비도브와 나굴노브는 희생되고 뽈롭쩨브는 도주한다.

하지만 끝내 그자도 체포되며 반혁명조직은 일망타진되고 음모는 분쇄된다.

작품은 평범한 까자크마을농민들의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승리의 력사적필연성과 합법칙성, 농촌의 사회주의적개조에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소설의 이 기본사상은 마을의 당원들인 다비도브, 라즈묘뜨노브, 나굴노브의 형상, 특히 다비도브의 형상에 구현되여있다.

소설에서는 농업집단화를 돕기 위하여 당이 파견한 2만 5천여명의 로동자당원의 한사람이며 단련된 로동계급의 대표자인 다비도브의 형상을 통하여 꼴호즈운동에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당시 쏘련농촌에서의 치렬한 계급투쟁에 대해서도 진

실하게 반영하고있다.

그레먀치마을에 꼴호즈를 조직하는 사업은 뽈롭쩨브와 오스뜨롭노브, 찌모페이를 비롯한 적대계급의 대표자들의 발악적인 암해책동에 부닥치며 그자들과의 심각한 투쟁을 거쳐서만 승리할수 있었다.

소설은 이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계급적원쑤들의 교활성과 포악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있다.

소설은 농촌에서 일어난 혁명적변혁과정을 새것과 낡은것과의 치렬한 투쟁과정으로 그려보이면서 중농 마이단니꼬브를 비롯한 여러 농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소소유자적근성과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의식이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생동한 개성적성격의 창조, 깊은 심리묘사, 극적긴박감의 조성, 독특한 구성과 문체, 자연묘사와 성격묘사의 유기적결합, 인민적인 언어구사와 능란한 해학 등 높은 예술성도 보여주었다.

소설은 쏘련에서의 농업집단화를 위한 투쟁을 힘을 넣어 묘사한 작품으로서 쏘베트문학의 고전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소설은 영화로 옮겨졌다.

최하층

고리끼의 희곡 《최하층》(1902)은 무산계급의 립장에서 온갖 사회악을 낳는 제정로씨야 귀족부르죠아사회의 부패상과 이런 썩고 병든 사회와의 타협을 설교하는 무저항주의의 해독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열렬히 호소한 프로레타리아극작품이다.

희곡은 19세기말～20세기초 제정로씨야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소시민 꼬스띨료브가 경영하는 룸펜숙박소를 무대로 하고있다. 이 숙박소에서는 도적놈 뻬뻴, 대장쟁이 클레슈와 그의 안해 안나, 처녀 나스쨔, 만두파는 녀인 크바슈나, 모자만드는 사나이 부브노브, 남작 싸찐, 알콜중독자 배우, 방랑객인 루까 등이 살고있다. 희곡에는 숙박소에 거주하는 이런 인물들과 함께 그들을 등쳐먹고 사는 숙박소주인 꼬스띨료브와 그의 안해 와씰리싸, 처제 나따샤, 처삼촌인 경관 메드베제브가 등장한다.

전4막으로 구성된 희곡의 제1막의 막이 열리면 몰락한 귀족남작과 수공업자, 알콜중독자로 된 배우와 가난에 쪼들린 대장쟁이로동자 등이 동굴같은 방안을 청소하느냐 마느냐 하고 다툼질을 한다.

이윽고 숙박소주인 꼬스띨료브가 나타난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숙박비를 한푼이라도 더 긁어내며 또 남이 훔친 물건을 눅게 사서 비싸게 팔아 폭리를 얻는다는것이 알린다. 이 숙박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자본주의사회의 축소판이였다.

침침한 방안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들이 오고간다.

…

싸찐: 뻬뻴! 다섯냥만 주게나.
배우: 쳇, 기껏 부른게 5전이야! 뻬뻴, 20전을 주게.
뻬뻴: 빌어먹을것. 얼른 줘야지. … 더 많이 달라기 전에… 자, 옛다!
싸찐: 아! 아! 이 세상에 도적놈보다 더 좋은 인간은 없어.
클레슈: 그 녀석들은 돈을 헐하게 벌지. 그야 일을 안하니깐. …
싸찐: 세상에 돈을 헐하게 버는 놈들은 흔하지만 그걸 헐히 내놓는 놈들이야 쉽지 않지. … 그런데 뭐! 일? 어디 재간있거들랑 그 일이라는데서 기쁨이 나오게 해보게. … 그럼 나도 일에 취미를 붙이게 될지 모르지. 암! 그렇게 될거야. 로동이 락으로 될 때는 살기 좋은거니깐! 그러나 로동이 강제로 될 땐 고역살이밖에 안돼!

싸찐의 대사들이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풍자적인 비판으로 되고있다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도적놈을 《찬양》하는 숙박소에 환갑나이의 순례자 루까로인이 등장하여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경관을 풍자적인 대사로 업어넘기며 사람들의 환심을 산다.

대장쟁이의 처 안나가 루까를 보고 인정이 많고 삽삽하다고 말하자 《세상풍파에 너무 주물리여서 부드러워진거지. …》하며 웃음을 터친다.

2막도 같은 장소이다. 남작이 힘겹게 벌어온 따따르인의 돈을 협잡으로 빼앗아낸다. 루까는 살인죄를 졌던 뻬뻴에게 이 질곡에서 벗어나 광산을 개발하는 씨비리로 가자고 권고하고 또 배우에게 이렇게 말한다.

《알콜중독증은 이젠 고칠수 있다네. 알겠나? 돈 안받고 고쳐준다더군. … 술주정뱅이도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거지. 그뿐이겠나. 주정뱅이가 치료만 받겠다면 대환영이래! 그러니 생각해보게! 가보라구. …》

배우가 그게 대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루까는 계속 거짓말만 한다.

《아, 그것말이지… 어느 한 도시에, 거 뭐라고 하더라? 아, 이름이 좀 별스러워서… 좌우간 내 그 도시이름을 대줄테니… 임잔 우선 준비나 하게. … 갱생, 거 얼마나 좋은가! 자, 소뿔도 단김에 빼랬다구… 제꺽 결심하게.》

배우는 그 말을 듣고 그 도시의 병원으로 갈 결심을 하나 루까는 그 도시의 이름을 말못한다. (그런데가 없기에)

루까는 림종이 가까운 안나에게 또 설교한다.

루까: …이보라구, 죽음이란 우리들에겐 젖먹이가 어미를 따르는거나 마찬가지거든.

안나: 그렇지만… 혹시나, 혹시나 제가 회복되지 않을가요?

루까: (웃으면서)무엇때문에 또 고통을 받으려구.

안나: 글쎄, 그렇지만 조금만 더 살아봤으면 … 조금만! 천당에는 고통이 없다니까. … 이승에서 좀더 참아볼수 있어요. … 좀더.

루까: 천사들이 하느님앞에 데려다가 《주여, 당신의 딸 안나가 승천했나이다.》하고 말해줄거네.

이렇게 루까는 설교했으나 생에 대한 안나의 애착심을 막을수 없었을뿐더러 마음의 고통만을 더해준다.

3막에서도 루까령감이 계속 설교한다. 그 내용은 진실도 정의도 소용없으니 하느님만 믿으라는것이며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다 사랑한다는것이다.

바로 루까의 그 설교를 열성스레 들은 나따샤는 뻬뻴과 좋아한다는 리유로 이미 뻬뻴과 치정관계를 맺고있는 언니 와씰리싸한테 반병신이 되도록 얻어맞으며 뻬뻴은 나따샤, 와씰리싸, 끄스띨료브사이에 끼워 야단치다가 끝내 끄스띨료브를 죽여 살인을 치고만다.

제4막은 1막과 같은 방안인데 종적없이 사라진 루까에 대한 시비질이 벌어진다.

마음의 위안을 주는 좋은 로인이였다느니, 혹은 거짓말쟁이라느니 갑론을박하는데 싸찐이 《난 거짓이란 무엇인지 안다네! 정

신이 연약하고 남의 피를 팔아먹고 사는 놈들에게는 거짓이 필요해. … 그러나 자기자신의 떳떳한 주인이며 독립적이며 남의걸 등쳐먹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뭣때문에 거짓이 필요하겠나? 거짓이란건 농노와 상전들의 종교야. 그러나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야.》하고 말한다.

계속하여 싸찐은 현실도피를 설교하던 루까에 대한 반발심을 표명하고나서 이런 말까지 한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건 임자 혼자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네들도 아니거든! 그건 그 로인이나 나뽈레옹이나 마호메트도 아니야. 모두다 통털어서 말하는거지. 알겠나? 인간이란 참 거대한거야! 여기에 모든 시초와 종말이 있어! 있는것은 오직 인간뿐이고 그 나머지의 모든것은 사람의 손과 두뇌로 이루어진것들이야! 인간! 이것은 참 훌륭한거라네! 인간을 반드시 존경해야 돼! 인간을 가엾게만 여기거나 또 동정심으로써 인격을 모욕할것이 아니라 그네들을 존중해야 하는거야!…》

이 대사가 사생활에서는 타락한 싸찐의 입에서 나오게 한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출신의 혁명적작가 고리끼는 경찰의 폭압과 검열제도가 우심했기에 자기의 혁명적사상을 직접 대변할만한 인물을 등장시키지 못하는 제약성을 가진 극작품을 만들면서 적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느라 싸찐과 같은 인물에게 이 대사를 주어서라도 근로대중에게 새로운 진보적사상을 안겨주려 했던것이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기아와 빈궁속에 몰아넣으며 인간을 타락시키고 온갖 사회악을 낳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이러한 낡은 사회를 미워하는 정신을 고취하고있다.

희곡의 무대로 되고있는 룸펜숙박소는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축도로서 여기서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한평생 가난에 쪼들려 오금을 펴지 못하고 살아온 대장쟁이의 안해 안나가 페병으로 죽어가고있으며 일생을 로동에 바쳤으나 살림을 펴지 못하고 끝내 이 룸펜숙박소에 떨어진 안나의 남편이 절망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또한 집

을 나르다가 팔을 다쳐 그 팔을 자르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른 따따르짐군이 고통을 받고있다.

이 숙박소 거주자들이 즐겨부르는 노래는 최하층사람들의 절망적인 처지를 잘 표현하고있다.

해는 솟았다가 져도
나의 감방은 언제나 어둡네
낮이나 밤이나 간수들이 아!
내 들창을 감시하네

감시할대로 감시하라
누가 도망친다더냐
내 자유로와지고싶어도
아! 이 쇠사슬을 끊을수 없구나

에— 너 쇠사슬아, 나의 쇠사슬아
너 무쇠같은 감시자여
이 사슬 끊을수 없고
네놈들 쳐부실수 없구나

희곡은 바로 이러한 사회환경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도적놈, 술주정뱅이, 도박군, 건달군, 매춘부들을 낳으며 온갖 죄악을 산생시킨다는것을 까밝히고 자본주의사회가 얼마나 썩고 병든 사회인가를 예리하게 폭로하고있다.

작품은 다음으로 최하층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처지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문제는 앉아서 한탄만 할것이 아니라 적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 진리로 최하층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사상을 밑에 깔고있다.

희곡의 이 사상은 현실과의 타협과 무저항주의사상의 구현자로 등장하는 방랑하는 늙은이 루까의 위안의 거짓과 그것이 숙

박소사람들에게 준 영향 및 그 후과를 통하여 그리고 루까에 대치된 싸찐의 대사를 통하여 암시되고있다.

고리끼는 특히 인간을 가엾게 여기거나 동정만 하는것은 진실한 인간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고리끼의 사상적의도는 진실한 인간으로서의 로동계급은 불쌍한 존재거나 동정받을 존재가 아니라 자체의 당당한 힘과 예지로 미구에 자본주의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세상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고리끼는 또한 루까의 설교같은 거짓과 허위에 속히우지 말고 생

○상식○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사회주의혁명이 일정에 오른 시기에 맑스-레닌주의를 세계관적기초로 하여 발생발전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창작방법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고 사회주의혁명이 일정에 오른 력사적시기에 자본주의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인류문학예술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비판적사실주의, 혁명적랑만주의를 비롯한 종래의 진보적인 창작방법을 비판적으로 총화하고 한계단 발전시킨 사실주의창작방법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출현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 인류의 진보적문학예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기초하여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작됨으로써 문학예술은 착취받고 압박받는 무산계급

활의 진실을 추구하면서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고리끼는 장성해가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진출과 선진적인 맑스주의의 영향을 받고 희곡 《최하층》에서 인간문제를 새롭게 다루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최하층》은 최하층사람들의 생활을 무대우에서 펼쳐보이고 인간문제를 새롭게 제기한것으로 하여 문학사와 연극사에서 의의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앞서 발표된 희곡 《소시민》과 함께 대두한 프로레타리아문학과 연극의 발전면모를 과시하였다.

을 해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게 되였다. 20세기초에 고리끼는(1868—1936) 장편소설 《어머니》(1906)를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로씨야문학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1920년대 후반기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카프》문학을 비롯한 프로레타리아문학에서 뚜렷한 모습을 나타내였다. 조명희의 단편소설 《락동강》(1927), 송영의 희곡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1930), 강경애의 장편소설 《인간문제》(1934)를 그 례로 들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새시대의 문학예술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주체사실주의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더욱 공고발전되고 완성되게 되였다.

《최하층》의 예술적특성

예술적측면에서 볼 때 희곡 《최하층》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희곡에는 각이한 인물이 많이 등장하지만 주인공은 보이지 않고 줄거리도 없으며 큰 사건변화도 없어 지루한 작품같이 보이나 당시 공연에서 관중들의 매혹을 불러일으킨것은 인물들의 대사가 좋았기때문이다.

언어의 예술가였던 고리끼는 이 연극에서 풍자적인 말마디와 숨은 뜻을 가진 구수한 이야기들을 대목들마다에 솜씨있게 엮어나갔다.

사설쟁이던 루까령감이 사라졌을 때 《그 령감태긴 사람들을 홀려만놓고 나갈 길은 가리켜주지 못했단 말이야.》라고 하는것이라든가 《죄진 놈은 정직한 사람들앞에서는 도망가는 법이거든.》하는 대사들은 거짓말만 잘하던 루까의 정체를 밝혀주는 예리한 표현들로서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귀족남작을 보고는 《사과속을 파먹는 벌레》라고 하는가 하면 숙박소주인놈을 놓고는 《불모의 땅에 떨어진 쭉정이》로 비유하고 또 짜리경찰의 졸병을 보고 등급이 그보다 우인 아무개나으리라고 야유하는것 등은 풍자적웃음을 일으킨다.

특히 남작의 대사는 거기에 담긴 속대사로 하여 관중의 이목을 끈다. 그의 대사를 통해 고리끼는 귀족이란 한갖 옷걸개 같은것인데 재산과 공금을 탕진하고서도 뜬뜬해서 사람들을 모독하고있으니 어떻게 참을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싶었던것이다.

고리끼는 대사를 통하여 성격의 특성을 살리고 각계각층의 전형들을 창조해낸 언어의 명수였다.

고리끼의 희곡들중에서

소시민

《소시민》은 고리끼가 1901년에 창작발표한 희곡이다. 희곡은 비록 한 소시민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취급하고있으나 기관사 닐의 형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를 개혁할 력사적사명을 지닌 로동계급의 임무를 강조하고있다.

닐은 가난하여 베쎄메노브의 양아들이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로동을 하였으며 모진 풍파속에서 단련되였다.

닐은 비록 낡아빠진 기관차를 모는 기관사이지만 자기 생활을 제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있다. 하기에 그는 베쎄메노브의 친아들이며 동년배인 뾰뜨르에게 당당히 말한다.

《권리는 남에게서 얻는게 아니라 쟁취하는것이야. … 사람이 산더미같은 의무에 짓눌려 허덕이지 않으려면 스스로 그 권리를 쟁취해야 한단 말이야.》

그는 독서회나 연극소조활동 등을 통하여 로동자들과 병사들속에서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린다.

베쎄메노브는 닐을 1만Rbl을 가진 녀자와 결혼시켜 거기서 한몫 보려고 하나 닐은 단호히 거절한다. 그리고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 집 침모처녀 뾜랴와 결혼하겠다고 단호히 선언한다. 베쎄메노브는 자기들을 배반했다고 하면서 그를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닐은 《이 집에선 나도 주인입니다. 난 열살때부터 일해왔고 번 돈을 몽땅 당신께 바쳤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여기에는 내 노력이 적지 않게 들어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곧 주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소시민일가와 사상정신적으로 결별하고 자기의 독자

적인 길을 개척한다.

희곡에서 소시민 베쎄메노브와 기관사 닐사이의 충돌은 결혼문제를 둘러싼 단순한 의견상이로 하여 일어난 갈등이 아니라 사회계급적성격을 띤 갈등이다. 다시말하여 황금에 매달려 자본주의사회를 유지하려는 유산계급과 그 사회를 변혁하려는 무산계급사이의 대립과 충돌로 되는 계급투쟁의 반영이다.

그리고 이 집 아들인 대학생물림의 자유주의적지식인 뾰뜨르와 주인공 닐사이의 대립과 충돌도 당시의 류행과 기분에 들뜬 자유주의적인 부르죠아사상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혁명적인 사상사이의 갈등으로 된다.

이리하여 《소시민》은 당대 로씨야사회생활의 본질적인 모순을 옳게 제기하였다.

작품은 닐이 이 집을 의식적으로 배척하고 나가는데 그치고 그의 사회정치활동도 개념적으로만 전개하였으며 조직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혁명투쟁의 방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당시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였다.

경찰당국은 기마대를 동원하여 이 연극이 공연되는 극장을 포위하고 고리끼와 배우들을 다 잡아가두겠다고 위협하면서 소요를 일으켰다.

적들의 폭압밑에서 공연된 《소시민》은 로씨야에서 프로레타리아희곡의 첫 작품으로 되였다.

원쑤들

《원쑤들》은 고리끼가 1906년에 창작한 로씨야의 첫 사회주의적사실주의희곡(전3막)이다.

희곡은 1905년 혁명전야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지방의 한 방직공장주의 집안팎을 무대로 하여 이틀동안에 벌어지는 사건을 취급하고있다.

스크로보또브와 바르진 두 자본가가 공동으로 경영하고있는 방직공장의 로동자 천여명은 악질기업주 지치꼬브를 내쫓을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킨다. 공장주들은 처음 공장문을 닫자고 하다가 뜻밖의 사건(권총을 휘둘러 로동자들을 위협하던 스크로보또브가 권총을 빼기워 살해당한 사건)으로 하여 로동자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고 공장문을 연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과 군대가 도착하고 핵심로동자들을 모조리 체포해간다. 공장주가 미리 경찰에게 련락을 했던것이다.

그리하여 투쟁은 일단 좌절되나 이 투쟁을 통하여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단결된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그들의 혁명의식은 더욱 자라난다. 희곡은 로동계급의 투쟁이 실패로 끝나고있으나 락관적기분에 충만되여있으며 로동계급의 위업의 필연적승리에 대한 신심이 넘치고있다.

희곡의 기본갈등은 방직공장 공장주들과 로동자들사이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다. 이 량자간의 갈등은 절대로 화해할수 없는 원쑤들사이의 극단적인 갈등으로 설정되여있다.

작품은 무엇보다도 두 공장주를 비롯한 자본가들과 그편에 선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쑤들의 정체를 발가내고 자본가계급의 반동성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였다.

또한 그들과 대립되여있는 지하공작원 씬쪼브, 로동자 그레꼬브, 렙쉰 등의 형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로동계급의 계급적특성을 밝히고 그들의 승리의 필연성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희곡의 마감에 가서 녀배우 따찌야나가 로동자들을 념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말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는 대사는 희곡의 기본사상을 밝히고 있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

장편서사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1924)은 울라지미르 마야꼽스끼가 력사와 시대의 기수, 당과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레닌의 불멸의 업적과 풍모를 노래할것을 기본형상과제로 제기하고 짙은 시적정서로 일반화함으로써 레닌의 형상창조에서 새 경지를 열어놓은 작품이다.

서사시는 그 구성체계와 내용에 따라 머리시와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머리시부분에서는 레닌의 서거와 관련하여 그의 불멸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고있다.

때는 왔다
레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허나 이는
슬픔이 아주 없어진것이 아니라
깊은 비애가
뼈에 사무쳐 느낄수 있는
뚜렷한 아픔으로
되였기때문이다
때는 왔다
또다시
레닌의 구호를 높이 쳐들 때가!

서사시의 첫 부분에서는 레닌이 출현하기 전 시기의 력사가 이야기되면서 레닌의 출현이 합법칙적현상이라는것이 강조되고 있다.

암흑의 자본주의시대에 자본가들은 인민의 피땀으로 살쪄갔으나 근로인민은 고역과 굶주림에 시달린다. 한쪽에서는 낟알이 창고에서 썩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실업자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길에 쓰러진다.

농장들에서는 농장주의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흑인들의 저주가 들려온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분노와 항거가 시대적인 감정으로 전환되는 력사적환경속에서 맑스가 탄생하였으며 그는 자본주의시대의 력사적법칙을 밝혀내고 프로레타리아트를 키결에 갖다세웠다.

그러나 1871년 빠리꼼뮨은 실패하고 오만무례한 자본은 계속 자라나며 저마다 《수령》이라고 자처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나타나 프로레타리아혁명투쟁의 앞길에는 엄혹한 시련이 조성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혁명의 방향타를 옳바른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의 출현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되였다. 레닌은 바로 제국주의시대의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요구를 안고 씸비르스크벽촌에서 보통어린이로 출생하였다.

공산주의유령이
유럽을 질주하다가
물러서더니
또다시 먼곳에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것을 배경으로 하여
씸비르스크벽촌에서
레닌은
보통어린이로 탄생하였다

서사시의 둘째 부분에서는 레닌의 업적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있다.

몽매한 계급은
레닌을 만나
광명한 세계로
나아갔고
대중의 힘과 사랑의
세례를 받은
레닌은
계급과 더불어
자라만갔다

작품은 계속하여 레닌주의가 보급되고 공산당이 창건되고 당은 대중을 각성시켰으며 레닌의 령도를 받아 계급의 힘으로 자라난데 대하여, 레닌이 로씨야의 로동자, 농민들을 옳은 길로 령도하여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노래한다.

하루밤사이에
그는 세계를 떠오고
아침에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한다
피에 어린 전선에
모든 노예들에게
부자들의 노예로
몸을 바친자들에게 말한다
정권은 쏘베트로!
토지는 농민들에게!
평화는 인민들에게!

레닌의 이 말에 인민은 환성을 올리고 부르죠아지들은 쏘베트정

권에 앙심을 품고 기회만 노린다.

그리하여 공민전쟁이 터지고 제니낀, 우랑겔, 꼴챠크 등 백파도당들, 에쎄르, 혁명의 원쑤들이 날친다.

그러나 이 준엄한 공민전쟁도 레닌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쏘베트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난다.

서사시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위해 레닌이 이룩한 업적은 실로 위대하다, 레닌의 업적과 그의 빛나는 발자취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곳에 아로새겨져있다, 쏘베트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한 레닌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격조높이 노래한다.

서사시의 셋째 부분에서는 레닌의 서거에 접한 전체 인민의 끝없는 애도의 감정과 레닌의 위업을 끝까지 계승해나가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 당과 인민의 의지가 노래되고있다.

깔리닌은 전체 인민들에게 레닌의 서거를 알린다.

너무나 돌발적이며 충격적인 불행에 온 나라가 비통한 슬픔에 잠긴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관에만 사로잡히지 않는다. 인민들은 슬픔을 거대한 힘으로 전환시킨다.

레닌의 서거에 즈음하여 40만의 청년들이 공산당에 입당한다.

서사시는 레닌과 레닌당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무서운 힘앞에 유럽이 전률하며 주먹을 들려 하지만 부질없는짓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쏘베트인민은 레닌의 가르침따라 그의 업적을 끝까지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한다.

서사시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로동계급의 수령인 레닌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고 그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것이다.

레닌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시인은 시대와 력사의 흐름속에서 고찰함으로써 레닌을 시대가 낳은 위인으로,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한 탁월한 수령으로 그려낼수 있었다.

서사시에서는 맑스와 레닌의 출현과 그들의 업적이 해당 시대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이야기되고있다.

맑스는 독점전 자본주의시대에 살았고 따라서 당시의 사회관계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맑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자본주의에 조종을 울렸다.

맑스의 위업을 계승한 레닌은 자본주의렬강들의 정치경제적인 불균등적발전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시대에 레닌주의를 내놓고 로씨야로동계급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10월혁명을 수행하였다.

서사시는 레닌의 출현의 력사적필연성을 자본주의, 제국주의시대의 력사발전의 특징들에 대한 생동한 묘사를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레닌을 추상적인 인간, 력사밖에 선 초계급적인

○상식○

미래파

반동적인 부르죠아형식주의문학예술류파의 하나이다. 《미래주의》라고도 한다.

1909년 빠리에서 이딸리아의 부르죠아시인 마리넷띠가 《피가로》신문지상에 《미래파선언》을 발표하고 다음해 이딸리아에서 미술가 보띠요니, 쎄벨리니 등이 《미래파화가선언》을 발표한 후 이딸리아, 로씨야를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 퍼졌으나 오래 가지 못하고 곧 쇠퇴하였다. 미래파는 《새로운 미의 창조》, 《미래의 예술》을 운운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모든 미학규범과 진리를 부정하고 지난날의 모든 문학예술유산의 파괴를 주장하였으며 기계류의 움직임, 속도, 소음 등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이른바 《력동주의》를 부르짖었다.

미래파의 주장자들은 문학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의 간판밑에 상징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누구도 알수 없는 개별적인 자

인간으로가 아니라 산 력사적인물로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었다.

시인은 또한 레닌을 당과 계급, 인민과의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형상하였다.

시인은 먼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당창건이 가지는 의의를 노래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없이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 당은
> 로동계급의 척추
> 당은

모의 무질서한 결합, 무의미한 말마디의 희롱으로 《작품》을 썼으며 음악에서는 도시와 기계의 소음을 한데 무은 《소음음악》을 만들어냈다. 미술부문에서 미래파는 《속도미》, 《동적인미》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한 화면에 여러 순간의 움직임과 물체의 이모저모를 그려넣었으며 《기계미》를 운운하면서 물체의 형태를 제멋대로 분해하고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어냈다.

미래파는 립체파와 더불어 혼란되고 무질서한 자본주의적산업도시와 비인간적인 부르죠아적기계문명을 우상화하고 찬미하면서 인민을 한갖 기계의 부속물처럼 취급하였다.

이러한 반동적, 반인민적립장으로 하여 미래파는 《사상파》, 《추상파》를 비롯한 다른 반동적부르죠아문학예술사조 및 류파들과 련결되거나 그것들을 산생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이룩한 영구불멸의 사업
당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 유일한것
내 오늘은 비록 점원일망정
래일은
지도에서 왕국을 말살하리라
계급의 뇌수
계급의 사업
계급의 힘
계급의 영예
바로 이것이 당

그러면서 이러한 당은 레닌과 같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다는것을 강조함으로써 수령과 당, 계급의 관계를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형상하였다.

당과 레닌은
쌍둥이형제
력사인 어머니는
누굴 더 귀여워할가?
레닌이라 말할 때
그것은 당을 의미하며
당이라 말할 때
그것은 레닌을 의미한다

레닌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시인은 레닌은 그 어떤 《초인간》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면서도 과학적인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를 가진 위대한 인간이며 인민의 탁월한 수령이라는것을 강조하였으며 바로 이처럼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있었기에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하고 공민전쟁과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을 비롯한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할수

있었다는것을 밝힘으로써 레닌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서사시에서는 레닌은 비록 서거하였으나 레닌의 위업은 쏘련 당과 인민에 의하여 끝까지 계승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리라는 확신과 신념이 울려나오고있다.

서사시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은 그것이 창작되던 1920년대초의 시대적제약성과 시인자신의 사상미학적약점으로 인한 부족점을 면하지 못하고있으나 그것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쏘베트인민들을 레닌의 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와 쏘베트시문학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확고한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유모아○

착상의 벗

시쓰기를 좋아하는 한 청년이 책상에 앉아서 쓰기는 많이 썼지만 좋은 시가 많이 나오지 않아 모대기기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길거리에서 마야꼽스끼를 만났다. 그는 인사말도 없이 《시인선생, 듣건대 당신은 매우 풍부한 착상을 가지고있다는데 나에게는 왜 착상이 떠오르지 않을가요?》라고 물었다.

이미 그를 알고있는 마야꼽스끼는 《오, 그렇소? 아마도 착상은 책상머리의 어리석은것과는 사귀기 싫어하는가부지? 내 경험에 의하면 현실에 발을 붙이니까 착상이라는 〈물건〉이 내 머리에서 요동을 치더구만. 친하자고 하는것 같애.》하고 말하며 눈을 껌뻑하였다.

작가소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츠 마야꼽스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츠 마야꼽스끼(1893－1930)는 그루지야의 도시 꾸따이씨에서 멀지 않은 바그다지마을(당시)의 산림지기의 가정에서 태여나 애국적인 교양을 받으며 자랐다.

모스크바에 이사하여 중학생시절부터 볼쉐비크당조직의 영향을 받은 마야꼽스끼는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을 열렬히 환영했으며 혁명승리후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사업에 참가하였다.

그는 혁명승리후 3년간 《로쓰따통신사》(《따쓰》의 전신)에서 사업하고나서 직업적시인으로 되였으며 공산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놀았다.

시인은 쏘련문학예술계에서 책동하고있던 각종 이색분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37살의 한창나이에 사망하였다.

조숙한 시인이였던 마야꼽스끼는 일찌기 미술학교에 다니던 시기부터 시창작을 시작하여 초기에는 《미래파》에 속하여 형식주의적인 시를 썼으나 10월혁명후에 점차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체득함으로써 새로운 쏘베트국가의 대표적인 시인의 한사람으로 내외의 인정을 받게 되였다.

마야꼽스끼는 무엇보다 서사시인으로서 서사시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오랜 기간의 사상미학적탐구과정을 거쳐 1924년에 레닌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울라지미르 일리이츠 레닌》을 내놓았으며 10월혁명 10돐을 맞이하여 창작한 《좋다!》(1927)와 첫 5개년계획을 노래한 《목청껏 웨치노라》(1930, 미완성) 등 여러편의 서사시를 내놓았다.

이 서사시들은 시인의 창작의 사상예술적높이를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

들이다.

마야꼽스끼는 재간있는 서정시인이기도 하였다. 혁명직후에 쓴 《혁명송가》와 《좌익행진곡》, 자기 조국, 자기 인민에 대한 자랑을 격조높이 노래한 《쏘베트려권》 등은 잘된 작품들이다.

마야꼽스끼는 여러차례에 걸치는 외국려행에서 얻은 인상에 기초하여 작품집 《미국에 대한 시들》(1926)에서 미국사회의 반인민적본질을 폭로하였으며 소시민근성,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비판한 시 《회의꾸러기》, 《관료주의제조소》, 희곡《빈대》, 《목욕탕》을 비롯한 풍자작품도 썼다. 마야꼽스끼는 생애에 6천여편의 시와 희곡들, 3백여편의 포스터도 창작하였다.

열렬한 혁명정신과 조국애, 계급적 및 민족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혁명적내용에 맞는 새로운 시형식의 탐구 등으로 특징적인 수많은 시작품을 내놓은 마야꼽스끼는 이전 쏘련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시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20세기의 대표적인 세계적시인의 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였다.

비방자에 대한 공격

1917년 10월혁명전야에 마야꼽스끼는 바야흐로 터질 폭풍우를 안고있는 뻬쩨르부르그의 넵스끼거리를 거닐고있었다.

문득 저앞쪽에서 웬 녀인의 악에 받친 소리가 들려왔다.

마야꼽스끼는 걸음을 멈추었다.

녀인은 악담을 퍼붓고있었다.

《볼쉐비크들은 비적이고 날강도들이예요. 그자들은 진종일 살인과 방화, 겁탈을 일삼고있어요.》

마야꼽스끼는 손으로 사람들을 헤가르고 녀인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이 녀자를 잡아주시우. 이 녀자가 어제 나의 돈가방을 훔쳐갔습니다.》

《아니, 당신은 사람을 잘못보았어요.》

《아니요. 바로 이 녀자요. …나한테서 25Rbl을 훔쳐갔소.》

모여섰던 사람들은 녀인을 경멸하며 헤여져갔다.

녀인은 억이 막혀 부르짖었다.

《아이구, 하느님! 나를 좀 자세히 보세요. 난 정말 당신을 처음 봅니다.》

마야꼽스끼는 그러는 녀인에게 점잖게 충고를 주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볼쉐비크를 처음 보면서도 그 무슨 볼쉐비크의 죄행에 대해 떠들었지요? 이제 돌아가거든 하녀에게 밸풀이를 하지 마시오.》

마야꼽스끼의 시중에서

좌익행진곡

《좌익행진곡》은 마야꼽스끼가 1918년에 창작발표한 시이다.

4련으로 된 이 시에서 시인은 혁명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 정권에 대한 사랑의 정신에 기초하여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행전을 펼치라!
아니다 말공부할 때가
웅변가들이여 입을 다물라!
모제르(권총)동무
이제는 당신이
본때를 보여줄 차례

…
왼발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틀어쥐라
프로레타리아트의 손아귀에
세계의 운명을!
용감한 가슴을 앞으로!
기발로 하늘을 뒤덮어라!

누구냐 거기 오른발로 걷는건?

왼발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시는 계속하여 청소한 쏘베트공화국을 집어삼키려는 《사자들》, 제국주의자들과 백파도당들에 대한 증오와 이 반혁명의 공세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기어코 수호하고야말겠다는 쏘베트인민의 확고한 결심, 승리에 대한 신심을 노래하고있다.

시에는 해방된 인민이 온갖 난관을 뚫고 반드시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하고야말 굳은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가 넘쳐흐르고있다.

좋다!

《좋다!》는 마야꼽스끼가 1927년에 창작한 서사시이다.

사회주의10월혁명승리 10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작품으로서 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쏘베트주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과 그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발휘한 위훈을 노래하면서 공산주의미래에 대한 신념을 표명하고있다.

작품은 1917년 2월혁명으로부터 1927년 10월까지 10년동안의 시기를 포괄하고있다.

전 19장으로 구성되여있는 서사시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갈라볼수 있다.

첫 부분에서는 2월혁명이후 정권을 쥔 께렌스끼림시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날로 커가는것을 보여주면서 부르죠아정당들의 변절행위를 폭로하고있다.

이어 인민들을 폭동에로 궐기시키고 근로대중을 승리에로 인도한 볼쉐비크당의 활동과 당의 령도밑에 폭동에 궐기한 인민들의 위훈을 노래하고있다.

서사시는 둘째 부분에서 공민전쟁시기 쏘베트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싸움에서 인민들이 발휘한 영웅성을 시화하고있다.

셋째 부분에서는 공민전쟁이후의 평화적인 생활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보람찬 투쟁모습을 시적으로 펼쳐보이면서 앞으로 이룩될 공산주의적미래에 대한 신념을 구가하고있다.

서사시의 중심주인공은 인민이다. 작품에서 인민의 형상은 혁명가들, 로동자들, 병사들의 집단적형상에 구현되고있으며 인민의 사상감정의 대변자로 나선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에 구현되고있다. 시인은 바로 인민이 궐기하여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였으며 인민이 준엄한 공민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세운데 대하여 노래하면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시에서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당의 령도적역할이 강조되고있다.

서사시를 일관하고있는 시적열정의 하나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주의사상이다.

시인은 자기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어느때 어느곳에서 배부르게 먹었는가 함은 잊어버릴수 있어도 다같이 배를 곯아본 이 땅은 결코 잊을수 없다》, 《가난한 우리 땅에서 나는 이렇게 웨친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한다〉고》라고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이와 함께 창조적로동의 주제도 제기하고있는데 그것은 토요로동을 시화한 장면에서 뚜렷하게 형상되고있다.

이 시의 좋은 점의 하나는 사회주의미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기백에 충만되고있는것이다.

시인은 10월혁명후 10년간의 지나간 나날을 총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오늘의 조국을
나는 찬양한다
그러나 장래의 조국은
몇배나 더 찬양하련다
… …
오늘은 쓰레기가 썩고있는
그곳에서
황폐한 땅만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력력히 본다
그 땅아래서
꿈무나의 집들이
일어서는것을

서사시의 이러한 주제사상적내용과 지향은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날카로운 대조와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의 수법, 함축되고 간결한 시어, 민요조의 운률, 행진곡조의 운률, 씩씩하고 명랑한 운률과 같은 다양한 예술적수법으로 생동하면서도 표현성있게 형상되고있다.

서사시 《좋다!》는 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리상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 이전 쏘련인민의 형상을 시화한 우수한 작품으로서 쏘베트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일화○

소년볼쉐비크

1905년혁명은 마야꼽스끼의 고향 꾸따이씨의 바그다지마을에서도 혁명적사변들이 련일 일어나게 했다.

거리에는 삐라와 선전물들이 나붙고 로동자들의 시위행진이 흘렀으며 대중적집회들이 조직되였다.

소년 마야꼽스끼는 이 앙양된 혁명의 파도속에 몸을 잠그었다.

혁명적시들과 삐라들, 맑스주의서적들을 읽는 가난에 짓눌렸던 12살 어린 소년의 가슴속에는 환희와 격정의 물결이 일어번지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2월 뜻하지 않게 아버지가 죽자 그의 가정은 생계를 유지할만한 물질적방조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였다. 마야꼽스끼의 소년시절은 너무도 이르게 끝나버렸다.

이때부터 그의 로동생활이 시작되였다.

어머니는 가장집물들을 팔아 려비를 장만해가지고 모스크바로 갔다.

그러나 그곳이라고 사정이 다르랴. 그들은 겨우겨우 살아갔다.

때이르게 철이 든 소년은 《살찐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마야꼽스끼는 볼쉐비크들을 알게 되였으며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웃방에 든 하숙생들가운데는 간델리크와 같은 볼쉐비크가 있었는데 그를 중심으로 하여 매일밤 열렬한 정치론쟁이 벌어지군 하였다.

귀동냥으로 듣는 그들의 말이 소년에게 새로운 생활의 길을 찾을수 있는 빛을 주었다.

이때부터 그는 하숙생들을 통해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본격적으로 읽었다.

그때가 겨우 14살이였다. 하숙방에 든 볼쉐비크들은 여러가지 임무를 맡겨주었고 소년은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1908년부터 마야꼽스끼는 볼쉐비크당 지하조직의 선동선전사업을 협조하게 되였다.

그해 3월 로동자볼쉐비크 뜨리포노브의 집에서 나오던 그는 지하당인쇄소사건으로 짜리헌병당국에 체포되였다가 석방되였다.

다음해 1월 경찰의 의심을 받고 다시 체포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 세번째로 체포되여 부뗄스크감옥에 갇히우게 되였다.

그는 반년만에야 《경찰의 감시와 부형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겨우 석방되였다.

마야꼽스끼의 소년시절은 이렇게 적극적인 혁명활동으로 이어진 나날이였다.

○일화○

폭풍을 불러

1915년 2월 11일밤 모스크바의 한 지하식당에서는 시랑송회의가 열리였다. 얼근히 취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무대쪽을 바라보고있을 때 한 청년, 마야꼽스끼가 나타나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 놀고있는 손들을 바지주머니에서 끄집어내라
> 돌멩이라도 칼이라도
> 폭탄이라도 쥐여라
> 또 만일 손이 없다면
> 골받기라도 하여라

모여든 작자들이 눈이 휘둥그래서 침묵을 지키고있는데 청년은 그것들의 폐부를 찌르는듯한 날카로운 시를 계속 엮어나갔다. 그 시가 전쟁과 전쟁을 지지하는자들에 대한 무서운 증오로 일관된 시 《바지를 입은 구름》이였다. 그것은 그대로 력사의 오물들에 대한 준렬한 단죄였고 무자비한 타격이였다.

이윽고 청중들이 고아대기 시작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더러운 시를 쓰오? 그런 시를 쓰느니 전선에 나가서 싸우기나 하는게 좋겠소.》

마야꼽스끼는 그들에게 여유작작히 말했다.

《우리 조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소. 당신들의 불룩한 배를 불리울 전쟁이 아니라 부르죠아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폭풍, 혁명이 요구되오, 혁명이!》

마야꼽스끼는 《미래파》에 섞이여 돌아가던 자신과 결별하고 제국주의전쟁의 침략적성격을 해부하여 폭로하리라 결심하였다.

그후 막심 고리끼의 지도를 받으며 도래할 혁명을 예언한 시 《혁명》과 제국주의전쟁을 폭로한 시 《전쟁과 평화》를 썼다.

락천적비극

《락천적비극》은 이전 쏘련작가 브쎄볼로드 위딸리예비츠 위슈넵스끼의 희곡이다.

1933년에 창작된 이 희곡은 쏘련에서의 공민전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발뜨함대의 한 군함에 파견된 녀성정치일군의 투쟁을 보여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락천적비극》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목만 보아도 읽고싶은 충동을 준다고 하시면서 희곡에서는 주인공인 녀성정치위원이 단신으로 무정부주의적인 해병집단속에 들어가 혼란에 빠지고 흩어졌던 대오를 하나로 묶어세우고 당이 준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한다고, 죽음은 비극이라고 할수 있으나 혁명의 승리를 내다보며 확신하는 주인공의 정신세계는 락천적이며 그러므로 정치위원의 희생은 죽음이 아니라고, 혁명적락관성이 이 작품의 기본사상이라고, 그래서 희곡의 제목을 《락천적비극》이라고 한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희곡은 주인공인 녀성정치위원이 무정부주의적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발뜨함대의 한 군함에 파견되여 군중을 하나의 혁명대오로 결속하여 승리에로 이끄는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희곡의 주요인물로 주인공인 녀성정치위원을 비롯하여 함장 베린그, 해병 와이노넨, 알렉쎄이, 늙은 해병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의 두목, 그 앞잡이 씨쁠릐 등이 등장한다.

희곡은 발뜨함대의 한 군함에서 벌어지는 해병 와이노넨과 알렉쎄이사이의 심각한 론쟁으로 시작된다.

두 해병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사람

들인 경우에 과연 그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론쟁한다. 공산당원인 와이노넨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사람들의 영원한 추억속에 남는 행복한 사람들로 된다고 말하는데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고있는 알렉쎄이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아한다.

바로 이때 젊은 녀자 하나가 함선에 올라 신임장을 내보이며 자기가 이 함대의 정치위원으로 파견되여왔다고 알린다. 그가 볼쉐비크당으로부터 받은 과업은 무정부주의적기분이 강한 이곳 해병들속에 들어가 붉은군대 제1해병련대를 조직하고 공민전쟁에 참가시키는것이였다.

때아니게 녀자가 함대에 나타난것을 의아해하던 해병들이 《…여기는 무도장이 아닌데…》 하면서 껄껄 웃어댄다.

그러나 그 녀자는 조금도 당황해하지도 모욕감도 느끼지 않고 당당히 처신한다.

한 무정부주의해병이 웃도리를 벗어내치고 자기와 놀아보자고 달려들자 야무진 권총소리가 울리고 그런 가운데 울리는 《질서와 규률 그리고 도덕은 다 어데 묻어두었는가?》하는 녀성정치위원의 맵짠 소리가 순간적으로 해병들을 각성시킨다.

정치위원의 단호한 행동에 무정부주의자들은 기가 죽는다.

이 해병부대에는 볼쉐비크－공산당원은 두명뿐이고 절대다수는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이 무정부주의자들의 전횡이 어찌 심하였던지 짜리시기 해군장교였던 함장도 맥을 못추는 형편이다.

무정부주의두목놈과 씨뽈릐놈은 기회만 있으면 정치위원을 해치려고 발악한다.

녀성정치위원은 공산당원 와이노넨을 통하여 부대내 해병들과 장교들의 동태를 료해하고 그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해병들을 장악한다.

와이노넨은 공산당원으로서 정치위원의 적극적방조자이며 지지자이다.

그는 사업에서의 우유부단성, 실무적자질이 높지 못한것 등 때로 나타나는 결함이 있으나 사상적신념－사회주의에 대한 절대

적신뢰, 원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지닌 공산당원이였다.

정치위원은 알렉쎄이에게도 영향을 주고 핵심으로 장악한다. 알렉쎄이는 소시민출신으로서 초기에는 오직 자기자신의 리익밖에 모르는 인물이였다.

그의 소시민적근성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정치위원이 이곳 무정부주의적해병들속에 파견되여왔을 때 맨먼저 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것도 알렉쎄이였다.

그러나 그는 무정부주의적기분이 짙으면서도 무정부주의자들과는 달리 근로정신도 있고 정의감도 있으며 이른바 자기류의 《진리》를 모색하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있는 용감한 청년이다. 이러한 성격적특질로 하여 그는 무정부주의자들의 두목놈과 씨쁠리의 무정부주의적범죄행위에 격분을 표시한다.

무정부주의자들과의 힘겨운 투쟁속에서 정치위원은 무정부주의자들의 부대를 개편하고 드디여 붉은군대 제1해병련대를 정식 선포한다.

련대가 전선에 떠나기에 앞서 작별무도회가 벌어진다. 이때 무정부주의자들의 두목놈은 한 늙은 녀인의 돈지갑분실사건을 계기로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정치위원을 동정하는 한 젊은 해병에게 그 《죄》를 들씌우고 그를 죽이는 죄행을 저지른다.

련대가 전선으로 행군해가던 과정에 도이췰란드포로수용소에서 겨우 탈출하여 고향으로 가던 두명의 짜리장교를 만나게 되자 두목놈은 그들을 체포하고 총살하는 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한다.

무정부주의자들의 두목놈을 처단하는것을 더는 미룰수 없다고 결심한 녀성정치위원은 즉석에서 야전군사재판을 연다.

알렉쎄이: 이제 방금 벌어진 사건을 봤소?

정치위원: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씨쁠리: 이 사람이 좀 흥분했소. 여기서 우리는 두사람을 숙청하는 참입니다.

늙은 해병: 포로병들을 말입니다!

알렉쎄이: 아니, 그런것도 모르고 정치위원이란 말이요!
정치위원: 중지시키세요!(잠시후 총성이 울린다.)
(두목에게) 붉은군대는 포로들을 총살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걸 모르고있었어요?
두목: 그건 공연한 동정이요. 어느 사람이건 그길 아니면 이길로 오기 마련이니까.
정치위원: 그들은 이길로 올수도 있었어요. 그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한테로 찾아올거예요. 붉은군대에는 벌써 2만 2천명의 짜리시대의 장교들이 있어요.
두목: 2만 2천의 배신자들이지요.
정치위원: 레닌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
두목: 레닌의 말은 내게 흥미가 없소.
늙은 해병: 그러나 쏘베트정권의 명령들에 대해선 응당 흥미를 가져야 할겁니다.
두목: 뭐라구? 우리는 우리의 명령만 해도 충분해.(호송병이 두목의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온다.)
호송병: (크지 않은 목소리로) 거기서 한사람은 《혁명 만세!》 하고 웨쳤습니다.
두목: 그래, 어쨌단 말인가. 겁이 나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지른거야.
알렉쎄이: (분노에 찬 감정으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치위원: (알렉쎄이와 몇사람을 제지하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선 좀 온화한 기분으로 얘기를 합시다. …
씨뽈릐: 나는 신중한 사람들을 좋아하오. 자, 앉소.
두목: 말해봅시다. 군중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자, 어서 얘기들 하시오.
목소리: 여기서 말했다가 공연히…
정치위원: (두목에게) 당신의 우월성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당신에겐 감히 맞서려고도 하지 않는군요.
늙은 해병: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며) 못할게 뭐요?

알렉쎄이: (늙은 해병의 말을 가로채며) 그건 대체 누구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요? (두목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요? 아니, 그래 이 사람이 누구보다 우월하단 말이요? 우리들보다요? (두목에게) 말할것을 허가한다구? 말을 듣고싶다? 네가 있는데서 모두가 조용해? (모욕적으로 흉내를 내며) 아주 제법 《왜들 떠들어?》하고 소릴 치겠지.

두목: (씨뻘릐에게) 저 사람이 어디 고장이 났군.

알렉쎄이: (씨뻘릐를 가리키며) 고장난건 바로 이 사람이야. 나는 직접 네 상판에다 대고 말하지만 너는 반역자구 배신자야.

두목: 누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었나?(정치위원, 늙은 해병, 와이노넨을 차례로 유심히 노려본다.)

늙은 해병: (두목에게) 자, 보라구, 봐. 권세욕에 날뛰는 짐승같으니라구. 우리들도 역시 오래전부터 네 행동을 주시해왔다!

○상식○

혁명적비극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정에 생기는 비극적인것을 반영한 극작품.

혁명적비극은 혁명투쟁과정에 불가피하게 있게 되는 혁명투사들의 희생과 고통을 형상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희생을 무릅쓰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려는 비장한 결의를 가지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한다.

…

알렉쎄이: (두목에게) 돈지갑사건으로 젊은이를 사형할 때 너는 매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했니? 자기 멋대로 처형을 했지. 우리 의견을 고려했어?

목소리: 하지 않았네.

알렉쎄이: 너는 로파를 사형할 때도 매 사람의 의견을 고려안했지?

목소리: 천만에, 하지 않았네.

알렉쎄이: 그리고 다음으로 이 녀자(정치위원을 가리키며)를 건드리지 말라고 모두가 네게 부탁했을 때도 너는 매 개인들의 의견을 고려안했지?

목소리: 하지 않았네.

수부장: (함장을 쳐다보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소?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겠소만.

알렉쎄이: 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두목에게) 너는 우리들이 이분(함장을 가리키며)과 작별할것이라고 언명할 때 정치위원과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보

혁명투쟁과정에 생기는 비극적인것과 비극적인 죽음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혁명적비극은 혁명적비장성을 질적특성으로 하고있다.

혁명적비극은 사람들에게 슬픔이나 비감을 자아내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영웅적이고 숭고한 사상감정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면에서 혁명적비극은 종전의 비극과 뚜렷이 구별된다.

우리 나라에서 창조된 혁명적비극으로서 예술영화 《월미도》,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이전 쏘련에서 창조된 혁명적비극으로서 희곡 《락천적비극》을 들수 있다.

구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이자 방금 무엇때문에 두 불구자들을 죽였어?

두목: 란잡한짓들을 그만하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일어서며) 음모가 폭로되였소. 세세한것은 지금 공포될것이요. 정치위원, 어서 판결문을 내리읽으시오.

(두목 확신성있게 정치위원과 나란히 선다. 모든 사람들 놀라며 그에게 주의를 집중한다.)

정치위원: (즉석에서 꾸며내면서 판결문을 읽는다.) 《련대정치위원과 그가 임명한 성원들로써 구성된 야전군사재판은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이름으로…

… … …

쏘베트정권의 대표자인 정치위원에게 반항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기 지도자를 극형에 처할것을 결정한다. …》

두목: (권총을 꺼내들고) 배신이다! 내게 모여라!

(6명의 해병들이 두목에게 달려든다.

○상식○

무정부주의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비롯한 온갖 정치적권력을 반대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선 반동적소부르죠아사상조류.

그의 사회계급적지반은 소부르죠아지, 룸펜프로레타리아트이다.

무정부주의적요소는 고대와 근세의 여러 사상가들에게도 있었으나 이 말이 직접 쓰이게 된것은 19세기 40년대 프루동이 자기의 소책자 《소유란 무엇인가》에서 자신을 무정부주의자로 부른 때로부터이다. 무정부주의에는 무정부주의적개인주의, 무정부주의적로

두목은 몸부림치며 그들을 몸에서 떼여버리나 권총만은 빼앗기고만다.)

두목: 아니, 여보게들, 이 녀자의 판결문에 뭐라고 씌여있는가 읽어들보게! 그렇게 씌여있는게 아닐세. … 이건 배신이다!(조용하다. 정치위원 빈 종이장을 가지고 바스락거린다. 알렉쎄이 그것을 보다가 받아쥐고 이리저리 돌려본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에 잠긴다.)

알렉쎄이: 읽은대로 씌여있구만. 대중의 목소리를 존중한다고 제 입으로 말했지.(두목에게로 씨뽈리를 끌고가며) 자, 그 키다리청년을 죽일 때 뭐라고 했나? 그대로 말해봐!

씨뽈리: (두목을 정면으로 보며) 《선고는 끝났다. 상소는 허용하지 않아.》라고 했지요.

알렉쎄이: (정치위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소?

정치위원: 그래요.

와이노넨: (탄환을 꺼내며) 집행하랍니까?

동조합주의, 무정부주의적공산주의 등 여러가지 변종이 있다.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은 프랑스의 프루동, 도이췰란드의 막스 슈티르네르, 로씨야의 바꾸닌과 크로뽀뜨낀 등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온갖 정치적권력을 반대하고 국가일반을 즉시 완전히 없앨것을 주장하였으며 극단한 개인주의와 폭동, 음모, 개인테로를 설교하였다. 그들은 혁명투쟁에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악랄한 종파행위와 분렬파괴책동을 일삼았다.

맑스와 레닌 그리고 쓰딸린은 가지각색의 무정부주의적조류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그를 분쇄하였다. 그러나 오늘도 온갖 기회주의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말아먹는데 무정부주의적견해와 수법을 리용하고있다.

정치위원: 알렉쎄이동무가 모든걸 처리할수 있으리라고 생각
해요.

녀성정치위원이 알렉쎄이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실 아무런 글자도 없는 백지였다. 하지만 알렉쎄이는 녀성정치위원의 기민한 통찰력과 대담한 행동에 감동되여 백지의 《판결문》의 내용이 다 제대로 되였다고 확인한다.

정치위원은 두목놈이 처단된 후 밀려온 무정부주의자들의 보충부대도 강한 규률로 다스린다.

그후 련대는 보다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련대가 처음으로 한개 려단력량의 도이췰란드정규군과 싸우게 된것이다. 긴박한 정황과 관련하여 지휘관들의 회의가 소집된다. 회의에서는 제1대대는 그자리에 남아 경비초소를 지키며 제2, 제3대대는 적들을 포위섬멸할것이 결정된다.

정치위원은 이번 전투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초소를 담당하게 된 제1대대와 함께 그자리에 남는다.

돌격시간은 새벽 5시다. 전투를 앞두고 정치위원은 대원들에게 부대의 비밀을 그 어떤 조건에서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2, 제3대대는 작전방향에 따라 떠나가고 제1대대만 남는다. 그런데 밤중에 보초를 서고있던 무정부주의자 씨쁠리가 같이 보초를 서고있던 공산당원 와이노넨을 찔러죽이고 도주하는 바람에 정황이 불리하게 급변한다. 경비초소가 비게 된 1대대는 적들의 불의의 기습을 받는다.

정치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해병들이 적들에게 포로된다. 그런 정황에서도 정치위원은 해병들에게 힘과 신심을 안겨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 5시까지 시간을 끌것을 호소한다.

도주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된 씨쁠리가 자기의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정치위원이 부대의 모든 비밀을 알고있다고 밀고한다.

정치위원은 가혹한 심문을 받으나 비밀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5분의 여유시간이 차례졌을 때에도 정치위원은 그것

을 부대의 공격개시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리한 기회로 리용한다.
드디여 진격시간이 된다. 포위작전에 참가했던 제2, 제3대대의 해병들이 적들을 족치며 기세드높이 진격해온다.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뺑소니친다.
해병들이 정치위원을 구출해온다. 그러나 그는 치명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여있었다. 임무를 수행한 함장이 정치위원에게 승리의 보고를 한다. 용감하게 싸운 알렉쎄이도 늙은 해병도 모든 해병들이 승리의 기쁨과 정치위원을 잃게 된 비통한 감정에 휩싸여있는데 정치위원이 마지막힘을 다 내여 해병들에게 부탁한다.
《제1해병련대가 편성되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적을 분쇄했다는것을 혁명군사쏘베트에 보고하세요.》
이 마지막말을 남기고 정치위원은 숨을 거둔다.
희곡에서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바쳐 투쟁하는 녀성정치위원의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해병들을 인내성있게 교양하고 묶어세우며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그의 활동을 생동하게 그리고있으며 특히 혁명의 승리를 내다보며 확신하는 주인공의 락천적인 정신세계를 두드러지게 형상하고있다.
혁명적락관성이 이 작품의 기본사상이다.
희곡의 제목을 《락천적비극》이라고 한것은 이와 관련되여있다.
희곡의 첫 부분과 후반부에 주어져있는 설화들은 작품의 이 기본사상을 강조하고있다. 희곡에서는 혁명과 반혁명, 영웅적죽음과 비참한 말로 등 상반되는 두 사회적성격이 예리한 극적대조와 충돌속에서 묘사되면서 반혁명에 대한 혁명의 승리, 비참한 말로에 대한 영웅적죽음의 승리가 예술적으로 확증되고있다.
희곡은 그 전반적인 내용과 사상이 혁명적일뿐아니라 극구성이 째이고 사건전개를 시종 극적긴장성을 유지하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고있다.
이러한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위슈넵스끼의 희곡 《락천적비극》은 청소한 쏘베트주권을 수호하는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한 혁명적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작가소개

브쎄볼로드 위딸리예비츠 위슈넵스끼

브쎄볼로드 위딸리예비츠 위슈넵스끼(1900－1951)는 뻬쩨르부르그에서 측량기사의 아들로 태여나 17살에 1917년 10월혁명에 참가하였으며 공민전쟁시기에는 붉은군대 제1기병사단 기관총수로, 발뜨함대와 흑해함대 지휘관, 정치일군으로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1937년 쏘련공산당에 입당하고 신문기자로 활동하다가 1944년부터 모스크바에서 문예잡지 《즈나먀(기발)》 편집원으로 있었다.

위슈넵스끼는 1924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제1기병군단》(1929), 《마지막타격》(1931), 《서방에서의 싸움》(1933), 《락천적비극》(1932), 《레닌그라드의 성벽에서》(1944), 《잊을수 없는 1919년》(1948) 등의 희곡과 《우리는 크론슈따뜨에서 왔다》 등의 영화문학을 내놓음으로써 쏘베트극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희곡 《락천적비극》은 작가가 발뜨함대에서 직접 체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1932년에 제대된 작가는 모스크바의 뿌슈낀명칭 연극극장의 창조집단을 찾아가 자기가 쓴 비극 《락천적비극》을 공연해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연출가는 배우들을 비롯한 창조집단성원들앞에서 그가 써가지고온 희곡을 읽도록 하였다.

희곡은 창조집단의 전적인 공감을 받았으며 짧은 시일내에 창조되고 공연되였으며 대절찬을 받았다.

○일화○

《락천적비극》 첫 상연에 깃든 이야기

1932년 여름 어느날 30살안팎의 젊은 해군군관이 모스크바에 있는 뿌슈낀명칭 연극극장 연출가를 찾아왔다.

《만날수 있습니까? 붉은 발뜨함대 군관 위슈넵스끼입니다.》라고 그는 깍듯이 경례하였다.

위슈넵스끼는 앉으라는 권고도 마다하고 선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들이댔다.

《연출가동지, 보아하니 이 극장에선 고전비극들을 많이 하고있는데 지금이야 쏘베트정권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운 비극을 하나 썼습니다. 보시고 상연해주실수 없습니까?》

연출가는 얼떨떨해졌다.

이 극장의 오랜 연출가로서 초면에 이렇게 들이대는 작가는 처음 보았던것이다.

연출가는 위슈넵스끼의 강경한 요구에 의하여 모든 배우들이 실내련습장에 모이게 했다.

《갑자기 모이라고 한것은 오늘 우리 극장에 새로운 비극작품이 하나 들어왔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가가 시간이 긴장하여 작품을 자신이 직접 읽어보겠노라고 하기에 이렇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두 저와 함께 정숙해서 듣고 선택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심하도록 합시다.》

원고를 읽던 위슈넵스끼는 잠시후 랑독을 중단하고 술렁거리는 배우들을 엄한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허리에서 재빠른 동작으로 권총을 뽑아 공중을 향해 높이 들었다가 탕하고 책상우에 놓았다.

삽시에 장내는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긴장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위슈넵스끼가 이렇게 말했다.

《배우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랑독이 끝날 때까지 쑹얼대거나 시시덕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그를 향해 이 권총안의 탄알이 제 할 일을 찾아할것이요.》

놀란 배우들은 급기야 자세를 바로가지였으며 류례없는 집중력을 가지고 위슈넵스끼의 희곡랑독을 듣게 되였다.

위슈넵스끼는 랑독을 끝내고 눈을 들어 장내를 휘둘러보았다. 많은 배우들의 눈시울이 젖어있었다.

위슈넵스끼가 자못 긴장하여 첫 발언을 기다리는데 뒤에서 한 녀배우가 일어났다.

《군관동무, 제가 여기 모든 우리 동무들을 대표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관동무 볼 낯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너그러이 리해해주고 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하고는 무슨 말을 더 하려는데 다른 배우 한사람이 불쑥 일어났다.

《저도 한마디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작가도 아닌 군관동무가 희곡을, 그것도 비극을 썼으면 얼마나 잘 썼겠는가 하고 지레짐작을 했댔지요.

그런데 비극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합니다.》

한 년로한 배우가 또 일어났다.

《저 우리 배우들속에서는… 아니, 우리 예술부문이라 하는것이 더 가까울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을 얕잡아보거나 업신여기는 나쁜 버릇이 관습화되여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군관동지는 오늘 이 관습을 아주 깨버렸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다보니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나봅니다. 먼저 발언한 동무들이 표명한바와 같이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때 앞자리에 앉았던 젊은 배우가 또 일어나 다시 사의를 표하면서 위슈넵스끼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자 모두가 뒤따라 우렁찬 박수를 보냈다.

그중에서도 제일 기뻐한 사람은 연출가였다.

위슈넵스끼는 이렇게 자기의 희곡을 열렬히 지지해주는 극장집단이 무척 고마왔다.

어느덧 친근해진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주었다.

책상우에 뽑아놓았던 권총을 슬그머니 들어 권총집에 도로 넣을 때에는 장내에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위슈넵스끼는 다시 정색하여 배우들에게 작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작품세계에 완전히 감동되였던 배우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무 의견도 없노라고 하는데 연출가가 일어났다.

《새 연극의 특성으로 보아 막이 오르기에 앞서 무대 량옆에 붉은 발뜨해병옷을 입은 설화자 두명을 설정하자는것을 제기합니다.》

과연 연출가만이 생각해낼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하나였다. 위슈넵스끼는 대번에 리해하고 쾌히 동의하였다.

연출가가 제기한 다른 한가지 의견은 회전무대를 쓰도록 극흐름을 일부 고치자는것이였다.

새 연극은 온 창조집단의 비등된 열의속에서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성되였다.

얼마후 모스크바 뿌슈낀명칭 연극극장의 공연종목소개판에 혁명적인 새 비극에 대한 선전화가 나붙어 온 수도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극장은 련일 대성황을 이루면서 공연을 계속했고 전국의 수많은 극장들에서 이 희곡을 상연하였다.

○상식○

한 도시의 력사

《한 도시의 력사》는 로씨야작가 쌀띠꼬브－쉐드린이 1869～1870년에 창작한 장편풍자소설이다. 년대기형식을 취하여 1731～1826년간에 걸친 글루뽀브라는 가상적인 도시에서의 시장들의 통치에 대하여 이야기한 작품이다.

소설의 서두에 력대 시장들(1대－21대)의 간단한 략력을 소개하는 년표가 붙어있으며 8대시장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풍금쟁이》라는 제목을 단 첫장에서는 머리안에 풍금장치가 되여있어 《참지 못하겠다!》, 《파멸시키겠다!》라는 두마디밖에 못하는 시장의 폭압통치가 이야기되고있다. 그에 뒤이은 장들인 《기아의 도시》, 《짚의 도시》, 《환상적려행》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부화한 생활에만 몰두하다가 온 시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큰 화재까지 일으킨 11대시장 페르디쉔꼬의 통치가 풍자되고있다.

《계몽을 위한 전쟁》에서는 시민들에게 강제로 겨자를 먹이기 위한 전쟁을 일으켜 집을 마구 허물며 강압소동을 일으킨 12대시장 보르답낀의 통치사가 벌어지며 마감장에서는 21대시장 우그륨-부르체예브의 야만통치가 묘사되고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시장들의 반동적통치에 말없이 순종하던 그들이 참고참아오던 끝에 이에 항거해나서며 어느날 《폭우인지 돌개바람인지 모를 어떤것》이 갑자기 들이닥쳐 시장이 사라지고마는데 대하여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형상체계의 중심에 놓여있으며 풍자와 폭로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시장들의 형상은 짜리관료통치의 대표자들의 형상이며 짜리전제제도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구현한 형상이다.

○상식○

골로블료브일가의 제씨들

《골로블료브일가의 제씨들》은 쌀띠꼬브-쉐드린이 1875~1880년에 창작한 장편소설이다. 로씨야에서의 1861년 농노 《개혁》을 전후한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지주 골로블료브일가의 3대에 걸치는 가정생활내막을 그린 작품이다.

이 일가의 첫 가장인 울라지미르는 한생을 무위도식과 라태, 음주방탕속에서 허송세월하다가 안해와 자식들의 경멸을 받다가 죽고말며 그의 맏아들 스쩨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자로서 대학을 나온 다음 수도에서 관리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가 나누어준 재산을 도박놀이에서 탕진해버리고는 구박을 받으며 식객살이를 한다. 셋째 아들 빠벨은 인간으로서의 아무런 리상과 열정도 없이 군대복무를 겨우 마치고는 령지에 돌아와 술속에 빠져버린다. 딸 안나는 이런 집안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으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곧 죽고만다.

이 일가에서 가장 지독한 존재는 울라지미르의 안해 아리나 뻬뜨로브나와 유두슈까(유다)라는 별명을 가진 둘째아들 뽀리피리이다.

작품은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 음주방탕속에서 무위도식하며 서로 물고뜯는 당시 로씨야지주들의 전형적인 형상을 통하여 썩고 병든 농노제가 낳은 사회악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풍자적으로 폭로하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예언하였다.

작품은 현실비판에 그치고 그 출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염세주의적기분이 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세계문학작품해설집(3)
(재판)

집　필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왕섭
심　사　리상혁
편　집　박춘선　　장　정　한명신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경옥

냅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1판발행　주체 96(2007)년 9월 25일
2판인쇄　주체100(2011)년 3월 1일
2판발행　주체100(2011)년 3월 5일

ㄱ-06707ㄴ　　값 250원